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박사 학위논문

한글본 야담 연구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전공
정 보 라 미

한글본 야담 연구

지도교수 박 희 병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문학 전공
정 보 라 미

정보라미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조 해 숙

부위원장 C. LaShure (인)

위 원 鄭煥局 (인)

위 원 김 대 중 (인)

위 원 朴熙秉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글본 야담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글본 야담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야담을 한글로 번역해놓은 일군의 자료들을 가리킨다. 먼저 현전하는 10종의 한글본 야담 자료를 형태에 따라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으로 구분하고 자료를 개관하였다. 현전하는 한문본 가운데 한글본 야담 자료의 저본에 가까운 이본을 탐색하여 비교 대상을 비정(比定)하였다. 또 장서인과 필사기 및 장서기의 검토함으로써 한글본 야담 자료가 19세기 중반 즈음 활발히 향유되었으며, 짤막한 서책이 사대부가의 여성을 중심으로 읽히는 가운데 그 이하 계층의 여성들에 의해서도 읽혔고, 긴 서책이 왕실을 중심으로 최상층 사대부가의 여성들에 의해 한정적으로 향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예비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오락성이 강화되는 양상 가운데 첫 번째로 선초(選鈔) 과정에서 유희지향이 고려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글본 야담 자료에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들이 큰 비중으로 실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또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비관심사를 배제하며 이야기의 선초와 탈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번역 과정에서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지향이 약화되었음을 고찰하였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사실 정보에 대한 서술과, 이야기의 사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쓰인 후일담 및 후평이 변이되어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한문본 야담의 독자에 비해 한글본 야담의 독자는 사실의 여부보다는 서사의 전개에 더 큰 관심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한글본 야담에 사대부 남성의 교양적 서술이 축소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문본 야담에 보이는 문인으로서의 취향과 사대부로서의 문제의식이 한글본에는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한글본 야담의 변이가 그 독자층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 번째로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이 활용되었음을 고찰하였다. 한글본 야

담에 한글소설과 유사한 표현이 차용되거나 한글소설의 문체와 문법이 구사된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문본 야담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 역자의 한글소설 독서 경험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한글소설에 익숙한 독자에 대한 배려가 작용했음이 해명되었다.

다음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여성 관련의 교양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고찰하며 그 첫 번째로 선초 과정에서 여성 독자의 교양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양상들을 검토하였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 모범적 여성상이 제시되는 이야기가 선초되거나, 모범적이라고 할 수 없는 여성상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탈락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연대본『어우야담』과 긴 서책의 경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를 통해 이 책의 독자들이 교양을 넓힐 수 있었음을 짚어보았다.

두 번째로 긴 서책에서는 주석을 첨가하거나 삽입시의 독음(讀音)과 번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상층 여성 독자의 교양을 고려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또 여성 독자의 교양을 배려하기 위해 본문에 해설적 서술이 첨가된 사례를 통해 본래 한문으로 창작된 야담이 한글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성 독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부덕(婦德)이 강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번역 양상을 통해 한글본 야담에 여성 교화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이를 거쳐 한글본 야담 자료가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로 거듭났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한글본 야담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먼저 한글본 야담 자료의 존재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글본 야담이 한문 장르에서 한글 장르로 전환되며 장르적 성격과 위상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음을 분석하였다. 이에 야담이 한글본으로 편역됨으로써 한문 산문의 이완된 혹은 낮은 장르에서 한글 서사의 긴장된 혹은 높은 장르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짤막한 서책보다는 긴 서책에서 장르의 위상이 더 크게 변화되었음이 밝혀졌다.

주요어: 한글본 야담, 여성 독자, 선초, 번역, 오락성, 교양성
학　번: 2010-30858

목 차

Ⅰ. 서론 ····· 1

Ⅱ. 예비적 고찰 ····· 12
1.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 12
1)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 15
(1)『어우야담』: 연대본 ····· 17
(2)『천예록』: 최민열본・정명기본 ····· 24
(3)『동패낙송』: 단국대본・국민대본・서강대본 ····· 29
(4)『기문총화』: 서강대본 ····· 36
2)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 39
(1)『어우야담』: 낙선재본 ····· 39
(2)『청구야담』: 규장각본・가람본 ····· 56
2. 한글본 야담의 형성 및 향유 ····· 69

Ⅲ. 한글본 야담에 보이는 오락성의 강화 및 그 의미 ····· 84
1. 유희지향적 선초(選抄) ····· 84
1) 호기취향의 반영 ····· 84
2) 여성 독자의 관심사 고려 ····· 94
2. 사실 입증의 지향 약화 ····· 107
1)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 축소 ····· 108
2) 후일담과 후평의 변이 ····· 120
3. 사대부 남성과 관련된 교양의 축소 ····· 127
1) 문인 취향의 약화 ····· 127
2) 문제의식의 소거 ····· 134
4.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 활용 ····· 141
1) 한글소설의 표현 차용 ····· 141

2) 한글소설의 문체 및 문법 구사 ····· 146

Ⅳ. 한글본 야담에 보이는 여성 관련 교양과 그 의미 ···· 154
1. 교양을 중시한 선초 ····· 154
1) 모범적 여성상의 제시 ····· 154
2) 다양한 이야기의 선초 ····· 165
2. 여성 독자의 교양에 대한 고려 ····· 169
1) 주석의 추가와 한시의 독음 부여 ····· 170
2) 해설적 서술의 활용 ····· 186
3. 여성 교화 의식의 반영 ····· 191
1) 부덕(婦德)의 강조 ····· 191
2) 선정적 내용의 지양 ····· 198

Ⅴ. 한글본 야담의 문학사적 의의 ····· 208
1. 한글본 야담의 존재 양상 ····· 208
2. 야담 장르의 성격 및 위상의 변화 ····· 220

Ⅵ. 결론 ····· 231

참고문헌 ····· 238
영문초록[Abstract] ····· 248

표 목 차

표 1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 13
표 2 한글본 야담 자료의 형태 분류 ····· 15
표 3 연대본『어우야담』의 서지 사항 ····· 18
표 4 연대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1 ····· 19
표 5 연대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2 ····· 20
표 6 연대본『어우야담』과 한문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비교 ····· 22
표 7 한글본『천예록』의 서지 사항 ····· 24
표 8 한글본『천예록』의 선초 양상 ····· 26
표 9 한글본『천예록』과 한문본『천예록』의 선초 양상 비교 ····· 27
표 10 한글본『동패낙송』의 서지 사항 ····· 30
표 11 한글본『동패낙송』의 선초 양상 ····· 32
표 12 한글본『동패낙송』과 한문본『동패낙송』의 선초 양상 비교 ··· 34
표 13 서강대본「기문총화」의 서지 사항 ····· 37
표 14 서강대본『기문총화』의 선초 양상 ····· 37
표 15 서강대본『기문총화』와 한문본『기문총화』의 선초 양상 비교 ··· 38
표 16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서지 사항 ····· 42
표 17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 43
표 18 낙선재본『어우야담』과 한문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 49
표 19 한글본『청구야담』의 서지 사항 ····· 57
표 20 한글본『청구야담』의 선초 양상 ····· 59
표 21 한글본 야담 자료의 장서기 및 필사기 일람 ····· 73
표 22 한글본 야담 자료의 장서기 및 필사기 분석 ····· 78
표 23 한글본 야담 자료의 필사 및 필사 추정 시기 ····· 80
표 24 연대본『어우야담』의 호기취향 ····· 86
표 25 낙선재본『어우야담』의 호기취향 ····· 87
표 26 최민열본『천예록』의 호기취향 ····· 88
표 27 정명기본『천예록』의 호기취향 ····· 89

표 28 국민대본『동패낙송』의 호기취향 ····· 91
표 29 서강대본『동패낙송』의 호기취향 ····· 91
표 30 서강대본『기문총화』의 호기취향 ····· 92
표 31 한문본과 낙선재본『어우야담』의 분류별 이야기 증감 ····· 103
표 32 다양한 이야기의 선초 양상 ····· 166
표 33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주석 ····· 170
표 34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주석 ····· 173
표 35 서강대본『동패낙송』의 주석 ····· 179
표 36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삽입 한시 ····· 181
표 37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삽입 한시 ····· 181
표 38 최민열본『천예록』의 삽입 한시 ····· 184
표 39 한글본 야담 자료의 오락성 1 ····· 213
표 40 한글본 야담 자료의 교양성 1 ····· 214
표 41 한글본 야담 자료의 오락성 2 ····· 215
표 42 한글본 야담 자료의 교양성 2 ····· 215

Ⅰ. 서론

이 논문은 한글본 야담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글본 야담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야담을 한글로 번역해놓은 일군의 자료들을 가리킨다. 즉 한글본 야담 자료는 모두 기존의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현전(現傳)하는 자료는 『어우야담』 2종, 『천예록』 2종, 『동패낙송』 3종, 『기문총화』 1종, 『청구야담』 2종으로 총10종이다.

야담에 대한 연구가 이우성・임형택 교수의 『이조한문단편집』이 출간된 이후인 197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1] 한글본 야담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진 것은 퍽 이른 시기였다. 1940년 이병기 교수가 「조선어문학명저해제(朝鮮語文學名著解題)」에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글본 『청구야담』에 대해 "十九冊 寫本 조선 野談의 集大成인바 훌륭한 조선말글로 되었다. 그 中에는 참한 短篇도 많다."고 소개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2] 이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람본 『청구야담』에 대한 설명으로 짧은 해제이기는 하지만 한글본 야담 자료를 학계에 처음 소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 후에도 이병기 교수는 한글본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 2편과 한글본 『청구야담』의 이야기 5편을 선해(選解)하며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다.[3]

> 於于野談은 한문으로는 여러 가지다. 그 全帙이 一二冊, 또는 六七冊으로 된 것이 있다. 이건 光海朝 때 名臣이요 文章家인 柳夢寅의 著作으로 그 原本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얼른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於于野談엔 柳於于 죽은 뒤의 事實을 적은 것도 있다. 그 分量이 많더라도 이런 건 그 뒷사람이 加筆한 것이다. 우리 국문으로는 두 冊으로서 全帙이 되었다. 이는 譯語體이

1) 이우성・임형택, 『이조한문단편집』 상・중・하, 일조각, 1973~1978.
2)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朝鮮語文學名著解題)」, 『문장(文章)』 제2권 8호, 문장사(文章社), 1940, 215~231쪽, 230쪽.
3) 이병기 선해(選解), 『요로원야화기 외 십일편(要路院夜話記 外 十一篇)』,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1949.

라기보다 한 創作이라겠다. 그 두 篇을 뽑았다. 上番軍士나 曝曬別監과 같은 뜻으로 된 說話가 많으나 가장 정하고 묘한 것이 이것인가 한다.[4]

靑邱野談은 全帙 二十冊인데 第 二十冊의 一冊은 落帙된 대로 中央圖書館 奎章閣藏書로 所藏되어 있다. 이는 惠石東趙潤(趙東潤의 잘못-필자 주)의 印章이 찍혔다. 우리 古代의 說話集으로는 한 巨帙이었다. 그 中엔 現代의 短篇小說에 비겨 본다더라도 오히려 優秀한 作品임즉한것도 더러 있다. 그 때 言語 風俗 慣習 등을 該當히 쓴 것은 물론이고 그 結構와 手法도 묘하다 않을 수 없다. 그리고 眞實도 하고 興味도 있고 敎化에도 좋은 讀本이었다. 이는 한 七八十年전 것인가 싶다. 그 第十八冊에 純祖十一,二年(一八一一 - 一八一二) 壬酉賊亂에 效忠했던 郭山知印 이야기가 있는걸 보든지 用語를 보든지 하여 그렇다고 하겠다. 겨우 다섯 편을 뽑았으나 같은 種類의 것이 많은 가운데 이는 그 한 代表가 될까 한다.[5]

위의 두 해제는 간략하지만 한글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을 처음 학계에 소개했다는 의의가 있다. 책수만을 확인할 수 있는 한글본 『어우야담』의 해제에 비하여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대한 해제는 책수, 소장처, 장서인, 필사 시기 등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곧이어 이병기 교수는 다시 한글본 『어우야담』에서 이야기 51편을 뽑아 교주(校註)한바 그 해설에서 한글본 『어우야담』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더하였다.[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於于野談은 純國文으로 되었으며 舊寫本으로 전해오는 것으로 二卷 二冊이 되고, 漢文으로 적힌 奎章閣藏書인 그것과도 같으며 더러 省略된 때문과 句節이 있음은 덤덤한것이거나 또는 風紀에 고리게 된 까닭이었다.
그리고 이 冊이 쓰인 語彙와 語調를 보면 적어도 英祖朝이전의 번역인듯하다. 비록 번역이라 하더라도 이 글은 於于가 친히 한글로 적은것보다 더 나을까 한다. 漢文을 잘 하던 그가 한글을 이렇게 할까는 싶지 않다.
이건 야담이라 하였으나 이마적 野談과는 다른 우리 說話文學으로서의 한

4) 이병기 선해(1949), 앞의 책, 57쪽.
5) 이병기 선해(1949), 위의 책, 99쪽.
6) 이병기 교주(校註), 『어우야담(於于野談)』, 국제문화관(國際文化館), 1949.

代表的 存在였다.[7]

이상에서는 한글본 『어우야담』이 영조조(재위: 1724~1776) 이전에 번역되었음을 추정하고 2권 2책의 필사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병기 교수가 확인한 2책의 한글본이라는 점에서 이 해설은 앞서 선해(選解)된 한글본 『어우야담』과 동일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의 해제에서 확인된 책수 뿐 아니라 권수까지 밝히고 "舊寫本", "英祖朝 이전의 번역"과 같은 정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선 해제보다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전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이 해설에도 한글본 『어우야담』의 소장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자료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점, "한문으로 적힌 규장각장서인 그것과도 같"다는 서술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해설 또한 한글본 『어우야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일찌감치 한글본 야담 자료의 존재가 학계에 보고되었음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한글본 야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야담이 본래 한문으로 이루어진 장르였던바 야담 연구에서 한글본 야담의 출현이 예외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데다가 한글본 야담 자료의 수가 워낙 적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한글본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이 학계에 알려진 이후에도 한글본 야담에 대한 관심은 드문드문 이어져 한글본 『어우야담』이 유인본(油印本)으로 간행되거나[8] 교주되는 데[9] 그쳤던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10]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한글본 야담은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의 여러 이본(異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론되거나 소략

7) 이병기(1949), 「해설(解說)」, 이병기 교주, 앞의 책, 99~100쪽.
8) 『於于野談』, 『國文學資料』 第四輯, 通文館, 1960.
9) 김동욱 교주, 『短篇小說選: 於于野談・雲英傳・要路院夜話記・三說記』, 민중서관, 1976.
10) 이병기가 소개한 한글본 『어우야담』, 통문관에서 출간된 구황실 내전 비장본 『어우야담』, 김동욱이 교주한 낙선재본 『어우야담』 혹은 장서각본 『어우야담』은 모두 동일한 자료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하게 검토될 뿐이었다.[11]

이후 1990년대에 와서야 한글본 야담은 학계의 관심을 다시 얻기 시작하며 나름의 전기(轉機)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청구야담』이 교주(校註)되거나[12] 영인되었고,[13] 한글본 『동패낙송』이 영인되면서 학계에 알려진 이후[14] 관련 연구 논문이 처음으로 제출되는 등[15] 한글본 야담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환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0년대부터 비로소 한글본 야담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잇따라 제출되며 새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소개되었다.[16] 또 오랜 시간 동안 더디게나마 축적되어 온 성과들을 토대로 이미 소개된 자료들에 대한 재고(再考)가 이루어지고[17] 새 자료인 정명기본 『천예록』

---

11) 이경우, 「『어우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6; 조희웅, 『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19~20쪽; 임형택, 「第二十八・二十九冊 解題」, 이우성 편,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28 『靑邱野談』 上 , 아세아문화사, 1985, 22~23쪽; 유필선, 「『어우야담』 연구-설화의 유형분류와 기술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11~37쪽.
이후 1990년대에 한글본 야담 연구가 재개된 후, 자료의 이본 검토의 과정에서 한글본 야담을 소략하나마 언급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이경우, 「초기야담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어우야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 Ⅰ, 집문당, 1991; 신익철, 「『어우야담』 이본고(異本考)」, 『새국어교육』 Vol, 54, No.1, 한국국어교육학회, 1997; 임형택, 「『동패낙송』 연구-야담의 기록화 과정과 한문단편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23, 한국한문학회, 1999; 임완혁, 「『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회, 2000; 신익철・이형대, 「『어우야담』의 비판적 정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노영미, 「『어우야담』 연구-이본 고찰과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김준형, 「『천예록(天倪錄)』 원형재구(原形再構)와 향유양상(享有樣相) 일고」, 『한국한문학연구』 37, 한국한문학회, 2006.

12) 김동욱・정명기 공역, 『청구야담』 상・하, 교문사, 1996; 최웅 편, 『주해 청구야담』 1・2・3, 국학자료원, 1996.

13) 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청구야담』 Ⅰ(상・중・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규장각자료총서 문학편, 『청구야담』 Ⅱ(상・중・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14) 김동욱 편,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8, 보경문화사, 1991.

15) 정명기, 「『동패낙송』 연구 (2)-국문본 『동패낙송』에 나타난 번역양상-」, 『연민학지』 5, 연민학회, 1997.

16) 정명기, 「서강대본 『단편야담집』(假題)의 원천과 그 의의에 대한 소고」,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김준형, 「최민열본 『천예록』의 국역 양상」,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백승호, 「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 연구」, 『국어국문학』 16, 국문학회, 2007.

17) 이강옥,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 19세기 야담의 구연, 기록, 번역」,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남궁윤,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국문번역본 고찰」, 『동악어문학회』 57, 동악어문학회, 2011; 김준형, 「『청구야담』의 국역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남궁윤, 「『청구야담』의 한글번역 양상과 의미」, 『동방학』 30, 동양고전연구소, 2014; 정보라미,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 『한국

이 추가로 소개되기도 하며[18] 한글본 야담 연구는 명맥을 이어왔다. 한편 새 자료들의 소개에 힘입어 한글본 『동패낙송』 3종을 대상으로 한 교해본(校解本)이 출간되기도 했고,[19] 규장각본 『청구야담』을 대상으로 하는 교주(校註) 작업이 다시 이루어지기도 했다.[20]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글본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의 존재를 통해 학계에 한글본 야담이 알려진 후, 긴 시간에 걸쳐 한글본 야담 자료가 선역 및 교주되거나 영인되고, 새 자료가 소개되며,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가 수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현전하는 한문본들 가운데 해당 한글본 야담의 저본에 가장 가까운 자료가 탐색되기도 하고, 한문본에서 한글본으로 선초 혹은 번역되는 양상이 고찰되기도 하는 등 개별 자료에 대한 논의 또한 진전될 수 있었다.

특히 2000년대부터 최민열본・정명기본 『천예록』, 서강대본・국민대본 『동패낙송』이 학계에 속속 보고되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소개되었던바, 그간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한글본 야담 연구는 그 지평이 확장되고 새로운 논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 또한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 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선행 연구는 대개 1종, 많아야 2종의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개별적으로 소개하거나 고찰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단편적으로만 수행되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한글본 야담 자료 각각의 특징들이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었던 데 비해, 자료들의 층위, 논의의 대상이 한글본 야담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이 충분히 고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글본 야담의 출현이 야담사적으로, 더 나아가 문학사적으로 지니는 의의 등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것으로

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18) 정보라미, 「정명기 소장 한글 번역본 『천예록』의 재편 및 향유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9) 김동욱, 『교역 언해본 동패락송』, 보고사, 2013.

20) 이재홍・이상덕・김규선 교주, 『청구야담』 Ⅰ・Ⅱ, 학고방, 2014.

보인다. 즉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글본 야담 전체가 조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확인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학계에서 그 존재를 확인하였음에도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계에 미처 보고되지 않은 자료도 있는바, 현전하는 모든 한글본 야담 자료에 대한 면밀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한문본과의 비교를 통해 선초 양상이나 번역 양상을 고찰하며 한글본 야담 자료의 개별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런데 한글본 야담 자료의 선초 및 번역 양상에 대한 검토가 한 두 자료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던바, 해당 자료의 선초와 번역 양상에 보이는 특징이 개별적으로 확인되는 데 그치고, 다른 한글본 야담 자료들과 어떤 동이점이 있는지는 살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 한글본 야담이 한문본 야담의 번역 양상의 검토에 중점을 두다보니 그 선초 양상은 미처 확인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시각에 대한 문제가 확인된다. 선행 연구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오락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 최민열본·정명기본 『천예록』과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선초가 흥미 위주로 이루어졌음이 지적되고,[21]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서강대본 『동패낙송』,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보이는 번역상의 주요한 특징으로 이야기의 전달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이 거듭 지목되었던 것이다.[22] 이에 한글본

21) 최민열본 『천예록』의 선초와 관련하여 기이함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 궁중의 여성이 흥미롭게 여길만한 소재를 다룬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정명기본 『천예록』와 관련하여 이인담 위주로 선초가 이루어졌음이 언급되었다. 또 국민대본 『동패낙송』와 관련하여 신이한 이야기 위주로 선초되었다는 점과 특이한 소재의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중심으로 선초되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최민열본 『천예록』의 선초 상 특징에 관해서는 김준형(2007), 앞의 논문, 366쪽 참조; 남궁윤(2011), 앞의 논문, 88~89쪽 참조. 정명기본 『천예록』의 선초 상 특징에 관해서는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368쪽 참조.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선초 상 특징에 관해서는 백승호, 앞의 논문, 222쪽; 남궁윤(2011), 위의 논문, 94~95쪽 참조.

22) 선행 연구는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서강대본 『동패낙송』,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전달"에는 문면의 축약을 통한 이야기의 줄거리 전달과 서사성의 강화를 통한 흥미로운 이야기의 전달이 포함된다. 그 층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목적이 이야기의 전달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므로 이 둘을 묶어서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자세한 논의는 김준형(2007), 위의 논문, 378쪽; 백승호, 위의 논문, 233쪽; 이강옥, 앞의 논문, 362쪽; 남궁윤(2011), 위의 논문, 104~105쪽; 김준형(2014), 앞의 논문, 563~577쪽; 정보라미(2016), 앞의 논문, 309~317쪽 참조.

야담은 가장 중요한 번역 기준이 오로지 내용 전달에 있었다고 지적되거나,[23] “어떤 의미망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오락적 요소만을 더욱 강화하여 상층의 여성들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에 몰두하도록 만들고자 한 의도”만이 확인된다는[24]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 야담이 이야기 전달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은 한글본 야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글본 야담의 오락성에 치중해온 결과 여전히 파악되지 못한 특징적 양상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지적한 선행 연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모든 한글본 야담 자료를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자료를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전체 한글본 야담의 층위 및 특질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글본 야담이 야담사(野談史)와 문학사(文學史)에서 갖는 위상과 의의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 발굴한 한글본 야담 자료인 연세대 소장본『어우야담』이 학계에 소개되어 검토되고, 학계에 보고된 이후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낙선재본『어우야담』과 서강대본『기문총화』 등이 고찰될 것이다.

또 본고에서는 모든 자료의 선초 및 탈락 양상과 번역 양상을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미처 규명되지 못한 규장각본『청구야담』의 탈락 양상이 검토될 수 있을 뿐더러,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검토된 자료들에서 미처 파악되지 못한 선초 및 번역 양상의 특징도 새로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오락성과 교양성이라는 핵심적인 두 축을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의 특징적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왕의 논의에서 한글본 야담 자료의 특징으로 주요하게 지적해 온 흥미 본위의 선초 양상, 이야기의 전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번역 양상 등을 본고는 오락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고, 이에 더하여 교양성이라는 개념을 한글본 야담 연구의 또 다른 핵심축으로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교양성은 지

23) 김준형(2007), 앞의 논문, 381쪽.
24) 김준형(2014), 앞의 논문, 581~582쪽.

금까지의 한글본 야담의 선행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다.[25] 그런데 본고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검토 결과 상층 여성 독자의 교양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특징적 양상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양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특징적 양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락성과 교양성이라는 이 두 개념을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오락성의 개념만으로 온전히 해명되지 못했던 한글본 야담 자료의 특질을 밝히고자 한다.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한글본 야담이 실상에 보다 가깝게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고는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행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한글본 야담의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가 한글본 야담에 대한 기왕의 논의들을 답습하여 단순히 이를 확대하거나 짜깁기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과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여 한글본 야담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전하는 10종의 한글본 야담 자료를 형태에 따라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으로 구분하고 자료를 개관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각 자료의 서지 정보를 검토하고, 현전하는 한문본 가운데 한글본 야담 자료의 저본 혹은 저본과 가까운 이본을 탐색하면서 한글본 야담 자료의 비교 대상을 비정(比定)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장서인과 필사기 및 장서기를 검토함으로써 한글본 야담 자료의 독자층과 필사 및

25) 다만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양과 관련한 언급이 산발적으로 확인되는바 본고의 논의에 참조가 된다. 선행 연구에서 이강옥은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여성 인물이 부각되는 특징을 논하면서 긍정적인 여성상이 주목되었음을 언급하고, 중심 서사 선이 부각되는 양상과 관련하여 사대부들의 특별한 교양에 해당하는 삽화가 삭제되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남궁윤은 한글로 번역된 필기와 야담이 한글소설과는 다른 경로에서 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당대에 서적이 대량으로 유통되며 여성들의 지식에 확장을 가져왔고 여성들 역시 역사와 관련된 시대의식을 갖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한글본 야담이 “상층의 시선에서, 교양을 얻기 위한 방편에서” “그들만의 독서물”로 활용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보라미는 서강대본 『동패낙송』에 실린 모범적인 여성상과 부정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이야기들과 선행(善行)에 대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이 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틈입되었을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이강옥, 앞의 논문, 358~359쪽, 361쪽; 남궁윤(2014), 앞의 논문, 124~125쪽; 정보라미(2016), 앞의 논문, 301~304쪽 참조.

향유 시기를 가늠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예비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오락성이 강화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선초 과정에서 유희지향이 고려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들이 한글본 야담 자료에 큰 비중으로 실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살필 것이다. 또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비관심사를 배제하며 선초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선초를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가 여성 독자의 취향에 가까운 텍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음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번역 과정에서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지향이 약화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정보에 대한 서술이 변이된 여러 양상, 후일담과 후평에서 이야기의 사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가 변이된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문본 야담에 비해 한글본 야담의 독자는 사실의 여부보다는 서사의 전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던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향유한다는 의식이 더 강했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한글본 야담에 사대부 남성과 관련된 교양적 서술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문본 야담에 드러나는 문인으로서의 취향과 사대부로서의 문제의식이 한글본에는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한글본 야담의 변이가 그 독자층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이 활용되었음을 살피고자 한다. 한글본 야담에서 한글소설과 유사한 표현이 차용되거나 한글소설의 문체와 문법이 구사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문본 야담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 역자의 한글소설 독서 경험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한글소설에 익숙한 독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작용했음이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Ⅳ장에서는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여성 관련의 교양성이

강화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선초 과정에서 여성 독자를 상정하고 교양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양상들이 검토될 것이다. 모범적 여성상이 제시되는 이야기가 선초되거나, 모범적 여성상에 걸맞지 않는 여성상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탈락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연대본『어우야담』,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문본 야담 자료의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교양이 대부분의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선초로 인해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었던 반면, 연대본『어우야담』,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독자들은 이 책에 실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교양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주석을 첨가하거나, 삽입시의 독음(讀音)과 번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상층 여성 독자의 교양을 고려하였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여성 독자의 교양을 배려하기 위해 본문에 해설적 서술이 첨가된 사례를 살펴보고, 본래 한문으로 창작된 야담이 한글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성 독자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부덕이 강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번역 양상을 통해 한글본 야담에 여성 교화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이를 거쳐 한글본 야담 자료가 여성 독자를 위한 텍스트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한글본 야담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한글본 야담의 존재 양상을 검토한 후, 한문본 야담이 한글본 야담으로 전환되면서 장르의 성격과 위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본 야담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힌 대로 본고는 면밀한 검토와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시도를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가 실상에 보다 가깝게 파악되고, 한글본 야담의 특성

과 문학사적 의의가 밝혀지기를 바란다.

Ⅱ. 예비적 고찰

1.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본고는 앞서 밝힌 대로 현전하는 모든 한글본 야담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자료들에 본고에서 처음 소개하는 1종의 자료를 더한 총 10종이 한글본 야담 자료로 확인된다. 몇몇 기록을 통해 현전하는 자료 외에도 한글로 번역된 야담 자료가 더 존재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나[1] 본고에서는 실물이 전하여 실제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글본 야담 자료들을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으로 분류하고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각 한글본 야담 자료들의 서지 사항과 선초 양상을 검토하고, 현전하는 한문본 중 한글본의 저본 혹은 저본과 가까운 이본을 탐색하면서 한글본의 비교 대상을 확정하고자 한다.

먼저 현전하는 10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흠영』 1786년 11월 18일조에 "『학산한언』 내문(內文) 10여 단(段)을 들었다(聽『鶴山閑言』內文十數段)"는 내용이 보이는바, 현재 그 실물이 전하지는 않지만 『학산한언』이 한글로 번역되어 향유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천리대본 『동패낙송』 본문 상단에 적힌 각 편의 제목 옆에 "언문번역", "언문", "언"이라고 표기된 이야기가 총 43편이나 되고, "不번"이라고 표기된 경우도 1편 존재하는바, 천리대본 『동패낙송』이 향유될 당시 천리대본 『동패낙송』에 수록된 이야기와 견주어 볼만한 한글 번역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한글로 번역된 『학산한언』에 관해서는 유만주, 『흠영』 6,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420쪽 참조. 천리대본 『동패낙송』에 보이는 기록에서 그 존재가 추정되나 현재는 일실된 한글본 『동패낙송』과 관련해서는 임형택, 「解題」, 이우성 편,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26 『東稗洛誦 外 五種』, 아세아문화사, 1990, 12~15쪽; 김동욱, 「『동패낙송』에 대하여」, 『국역 동패낙송』, 아세아문화사, 1996, 6~7쪽; 남궁윤,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국문번역본 고찰」, 『동악어문학회』 57, 동악어문학회, 2011, 89~95쪽 참조.

순서	서명		표제/내제	권책수	판사항	소장처
1	어우야담	1)	於于野談/ 어우야댬	2권 1책	유인본(油印本) :통문관(通文館), 단기(檀紀) 4293 (1960)	구 낙선재
		2)	-/ 어우야담	1책	필사본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고서(우천) 986 0
2	천예록	1)	宋思齋新定廟記/ 송ᄉᆞᄉᆡ신졍묘긔	1책	필사본	개인 소장 (최민열씨)
		2)	-/ 텬예록권지일	1책	필사본	개인 소장 (정명기 교수)
3	동패낙송	1)	六臣傳/ 동패낙송	1책	필사본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율곡도서관 고전자료실 920.051 육332
		2)	동패낙송 一/ 동패낙숑권지일	1책	필사본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참고도서실 813.5-동01
		3)	원제 식별 불가 (펜으로 “短篇野談集”이 라고 적혀 있음)/ -	1책	필사본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고서 단844
4	기문총화		상동	상동	필사본	상동
5	청구야담	1)	靑邱野談/ 쳥구야담	19권 19책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奎 2405
		2)	靑丘野談/ 쳥구야담	19권 19책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가람古 813.08-C422y

<표 1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한글본 야담 자료는 총 19권 19책이나 되는 『청구야담』처럼 거질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국대본 『동패낙송』이나 정명기본 『천예록』과 같이 극히 적은 수의 이야기만 선초되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야기의 수록 편수와 책의 편폭 등에서 그 층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에 한글본 야담 자료는 수록 편수가 적으면서 책의 편폭도 작은 경우와 수록 편수가 많으면서 책의 편폭도 큰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는 이 두 유형이 각기 지닌 특질을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짤막한 서책"으로, 후자를 "긴 서책"으로 명명하기로 한다.[2)]

짤막한 서책에 속하는 자료로 『어우야담』 1종, 『천예록』 2종, 『동패낙송』 3종, 『기문총화』 1종을,[3)] 긴 서책에 속하는 자료로 『어우야담』 1종과 『청구야담』 2종을 들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

2) 한글본 야담의 형태와 관련하여 "짤막한 서책", "긴 서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본고가 처음이다. 이는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존재 양상과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된 용어이다. 2권 2책의 낙선재본 『어우야담』, 19권 19책의 규장각본 및 가람본 『청구야담』과, 단권으로 된 책들은 그 형태 및 향유층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드러내기에 이들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향유 장소에 따라 구분하면 상궁에 의해 필사된 최민열본 『천예록』의 경우 궁궐 내에서 향유되었기에 왕실의 최상층 여성 독자들이 읽혔던 것으로 보이는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및 가람본 『청구야담』과 같은 부류로 묶을 수 있었는데, 최민열본 『천예록』이 단권으로 존재하는 점, 다른 야담 자료에서 선초된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하층 출신의 특수계층인 상궁에 의해 필사되어 향유되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책은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및 가람본 『청구야담』과 구별되었으므로 이러한 분류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었다. 또 필사자에 따라 구분할 경우 필사자가 확인된 연대본 『어우야담』, 최민열본 및 정명기본 『천예록』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분류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었다. 이에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 자료들을 그 형태와 소장처, 향유층 등을 감안하여 크게 두 부류로 나누었으나 기존의 학술적 용어 가운데 이 두 개념에 대응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어 잠정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되었음을 밝힌다. 본고가 한글본 야담 자료들을 물리적·물질적으로만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구분의 기준은 물리적·물질적으로 서책의 길이가 긴가, 짧은가에도 있지만, 그 안에 실린 이야기의 편수가 많은가, 적은가에도 있다. 즉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은 서책 자체의 물리적인 길이와 그 안에 수록된 이야기의 총 편수를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짤막한 서책"은 서책의 길이가 길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 담겨 있는 작품 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긴 서책"은 서책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안에 많은 편수의 작품이 실려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적으면 3편, 많아야 24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단권(單卷)의 자료 총7종과, 적어도 2권 2책에 138편, 많으면 19권 19책에 262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총3종의 자료가 있다. 이 자료들은 그 서책의 길이와 수록된 이야기의 총 편수에서 각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들을 크게 유형화하자면 "짤막한 서책"의 전자와 "긴 서책"의 후자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 "긴 서책"과 "짤막한 서책"은 그 특징 및 존재 양상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3) 짤막한 서책 중에는 연대본 『어우야담』, 정명기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과 같이 독립적인 책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천예록』의 이야기들 뒤에 『태평광기언해』에서 온 이야기 한 편이 부기되어 있는 최민열본 『천예록』도 있고, 「육신전」, 「원생몽유록」과 함께 실려 있는 단국대본 『동패낙송』도 있다. 또 서강대본 『동패낙송』과 『기문총화』처럼 두 한글본 야담 자료가 하나의 책안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다른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여러 한글본 야담 자료가 하나의 책안에 수록되어 있는 이러한 경우는 해당 한글본 야담 자료를 단독적인 책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별도의 한문본 야담집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이 자료들을 짧은 책으로 분류하여 각기 검토하였음을 밝힌다.

과 같다.

분류	순서	서명	권책수	수록 편수	소장처
짤막한 서책	1	어우야담	1책	24	연세대 국학자료실 고서(우천) 986 0
	2	천예록 ①	1책	13	개인 소장 (최민열씨)
	3	천예록 ②	1책	4	개인 소장 (정명기 교수)
	4	동패낙송 ①	1책	3	단국대 천안캠퍼스 율곡도서관 고전자료실 920.051 육332
	5	동패낙송 ②	1책	8	국민대 성곡도서관 813.5-동01
	6	동패낙송 ③	1책	11	서강대 로욜라도서관 고서 단844
	7	기문총화	상동	5	상동
긴 서책	1	어우야담	2권 1책	138 (한문본 기준: 133)	낙선재
	2	청구야담 ①	19권 19책	262	서울대 규장각 奎 2405
	3	청구야담 ②	19권 19책	262	서울대 규장각 가람古 813.08-C422y

<표 2 한글본 야담 자료의 형태 분류>

1)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가 일찌감치 학계에 알려진 데 비하여,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1990년대에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된 후[4] 드문드문 새 자료가 소개되어 왔다.[5]

4) 김동욱 편,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48, 보경문화사, 1991.
5) 정명기, 「서강대본 『단편야담집』(假題)의 원천과 그 의의에 대한 소고」, 『동남어문논집』 19, 동

전술한대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가람본·규장각본『청구야담』과 낙선재본『어우야담』을 통해 한글본 야담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졌기에 1991년 단국대본『동패낙송』이 영인되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가 처음 확인되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한글본 야담이라는 개념은 으레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단국대본『동패낙송』을 통해 한글본 야담이 긴 서책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짤막한 서책으로도 향유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될 수 있었다. 그 후 서강대본『동패낙송』과『기문총화』,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동패낙송』, 정명기본『천예록』이 소개되면서 한글본 야담 연구에서 짤막한 서책을 더 이상 예외적인 형태로만 치부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여러 한글본 야담 자료가 소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짤막한 서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민열본·정명기본 2종의『천예록』, 단국대본·국민대본·서강대본 3종의『동패낙송』, 서강대본『기문총화』1종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본고에서 처음 소개하는 연대본『어우야담』을 더하면 현전하는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총 7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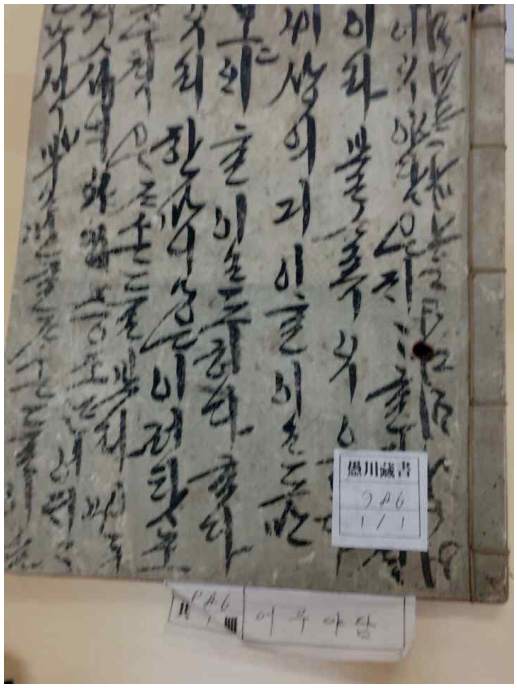
이 같은 7종의 짤막한 서책에는 적게는 3편, 많게는 24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바 수록된 이야기의 편수가 적으므로 책 자체도 단소(短小)한 경향을 보인다. 모두 단권(單卷)의 1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한편 단일한 텍스트에서만 이야기들이 선초된 경우도 있고, 몇 종의 한문본 텍스트에서 선초된 이야기들이 함께 묶여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구성 방식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또 저본인 한문본 야담 자료의 원제(原題)가 그대로 쓰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본의 책 제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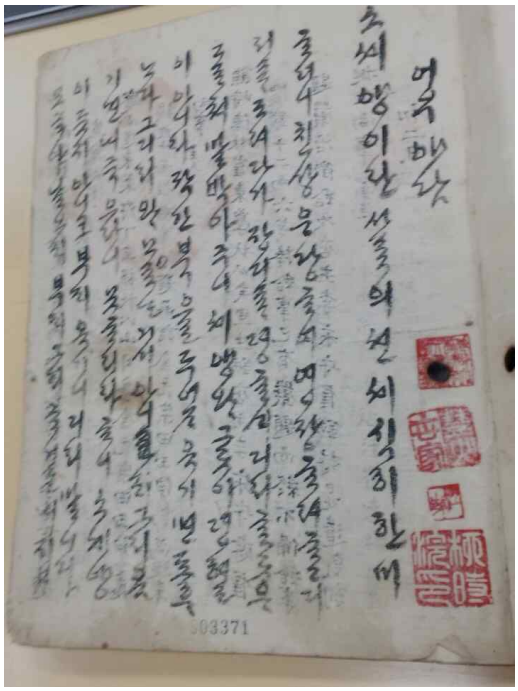
남어문학회, 2005; 김준형,「최민열본『천예록』의 국역 양상」,『대동한문학』27, 대동한문학회, 2007; 백승호,「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동패낙송』연구」,『국어국문학』16, 국문학회, 2007; 정보라미,「정명기 소장 한글 번역본『천예록』의 재편 및 향유 양상 연구」,『한국고전연구』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어우야담』: 연대본

연세대 소장 한글본『어우야담』은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자료이다. 이 책은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사진 2 표지>



<사진 3 본문 첫 면>

한글본『어우야담』은 본래 긴 서책인 낙선재 소장본만이 유일본으로 알려져 있었다. 본고를 통해 한글본『어우야담』이 짤막한 서책으로도 향유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되는 것이다.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 자료 중 짤막한 서책으로도 전하고 긴 서책으로도 전하는 것은『어우야담』뿐이라는 점에서도 이 책을 소개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대본『어우야담』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대본
소장처	연세대 국학자료실
표제/내제	-/어우야담
권책수	1책
책 크기	25×20cm
면수	72면
행자수	9~11行 14~17字 內外
판사항	필사본

<표 3 연대본『어우야담』의 서지 사항>

연대본『어우야담』은 행정 서류의 이면지에[6] 궁체로 적혀 있는데 책의 표지에 장서기(藏書記)가, 말미에 필사기가 적혀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필사기 뒤에는 출산 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 등이 부기되어 있는바 여성 독자가 주로 읽었던 책임을 짐작케 한다.[7]

다른 자료의 이야기는 혼재되어 있지 않고『어우야담』에서 선초된 이야기들만 수록되어 있다. 표제는 없지만 내제와 뒤쪽 표지에 "어우야담"이라는 제명이 보인다.

총 24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 연대본『어우야담』은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중 수록 편수가 가장 많은 책이 된다. 선초된 이야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이 책이 행정 서류의 이면지를 활용하여 필사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대본『어우야담』의 필사자가 행정 서류를 작성하거나 다루는 쪽과 관련이 있었다고 짐작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관청에서 사용한 후 파기된 문서가 세책의 배접지로 흔히 쓰였던 정황을 참조하면 연대본『어우야담』이 행정 서류의 이면지에 적힌 데서 특별한 의미를 찾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된다. 관청에서 사용한 후 파기된 문서가 세책의 배접지로 흔히 쓰였다는 사실은 이윤석,『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83쪽 참조.

7) "히산 쳣 축후의 홍합을 단젼ᄒᆞ여 건지ᄂᆞᆫ 말고 물만 먹으면 허증이 업ᄂᆞ니라. 빅기 로경은 단젼ᄒᆞ여 달혀 먹으면 공회 웃듬이라. 닥쥐와 콩기름을 달혀 샹히 먹으면 갈증이 업ᄂᆞ니라…"

순서	화번(話番)	내용
1	1화	소세양이 고른 명당 묏자리의 징험
2	2화	홍유손의 후처
3	3화	어릴 때 흙벽에 죽을 뻔했다가 왜란에 죽은 유섬
4	4화	원수를 갚으려는 귀신 때문에 환자를 포기한 의원 안덕수
5	5화	송도 도깨비집 벽 사이의 보배
6	6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와서 인사한 혼령 유사종
7	7화	주인을 모른 척 하지 않은 박석정
8	8화	불상을 깬 율곡
9	9화	형수 남씨에게 빙의된 누이를 조상신의 도움으로 구한 원사안
10	10화	신숙주와 신동(神童)
11	11화	욕심내다 병신 사위를 맞은 원풍운
12	12화	사람을 둘이나 죽인 사나운 소
13	13화	들쥐고기로 귀신을 쫓은 집주인
14	14화	조부 유충관의 꿈과 정언각의 해몽
15	15화	성황당 귀신의 원한을 풀어준 김효원
16	16화	김응하 장국의 충절
17	17화	승지 김구의 글재주
18	18화	귀신을 독에 넣어 가둔 중 가전청
19	19화	귀신이 된 친구 유경심을 만난 민기운
20	20화	김영남의 차운시(次韻詩)
21	21화	적신으로 반정을 의논한 판서의 아들
22	22화	지리산 맹수
23	23화	암퇘지와 동침한 이분
24	24화	제사를 정결히 지내고 왕의 혼령에게 상을 받은 차식

<표 4 연대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1>

연대본은 본고에서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기에 선초된 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제시해 보았다. 다른 이야기들은 한문본『어우야담』에서 확인되는 것인데 비해, 제18화 귀신을 독에 넣어 가둔 중 가전청의 이야기와 제23화 암퇘지와 동침한 이분의 이야기는 처음 확인되는 것인바 주목할 필요가 있다.[8)]

8) 이 2편을 제외한『연대본』의 22편이 모두『어우야담』에서 선초된 것이라는 점, 형태상 이 2편이『어우야담』에서 선초된 이야기들의 앞이나 뒤에 덧붙은 것이 아니라『어우야담』에서 전재해온 이야기들의 사이사이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어우야담』에는 저자인 유몽인(1559~1623)

연대본에 선초된 이야기들을 또 다른 한글본 이본인 낙선재본과 견주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한글본		한문본
	연대본	낙선재본	만종재본
1	1화	15화	165화
2	2화	-	42화
3	3화	-	168화
4	4화	16화	308화
5	5화	-	521화
6	6화	-	122화
7	7화	-	60화
8	8화	-	324-4화
9	9화	-	148화
10	10화	-	139화
11	11화	79화	43화
12	12화	121화	481화
13	13화	78화	149화
14	14화	-	117화
15	15화	127화	379화
16	16화		16화
17	17화	-	299-1화
18	18화	-	-
19	19화	-	132화
20	20화	-	443화
21	21화	-	401화
22	22화	-	485화
23	23화	-	-
24	24화	-	2화

<표 5 연대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2>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두 한글본『어우야담』간에는 겹치지 않는 이

과 동시대 인물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데 제23화에 등장하는 이분(李蕡)이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두 편의 이야기가 본래『어우야담』에 수록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한다.

야기가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6편의 중복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바 이를 통해 연대본과 낙선재본의 문면을 직접 비교할 수 있다.[9] 전술한 바와 같이 한글본 『어우야담』은 현전하는 자료 중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의 형태가 모두 전하는 유일한 텍스트이기에 두 한글본 『어우야담』의 비교 검토는 동일한 텍스트가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으로 각기 선초·번역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대본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한문본에 실린 한 편의 이야기 전체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연대본의 제8화, 제17화처럼 한문본에 수록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일부만 발췌해 온 경우도 있다.

연대본의 선초 양상을 한문본 이본들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

9) 두 자료의 문면을 비교하면 긴 서책인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짤막한 서책인 연대본 『어우야담』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

10) 다음 표는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어우야담 원문』, 돌베개, 2006, 332~361쪽에 실린 표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순서	한글본	한문본					
	연대본	만종재본	청구패설본	일사본	야승본	고대본	규장각본
1	1화	165화	6-1화 유사	天99화	323화 71화 유사	363화	141화
2	2화	42화	11화	天104화	73화	279-2화	93-2화
3	3화	168화	-	-	102화	-	-
4	4화	308화	166화	地9화	110화	273화	87화
5	5화	521화	32화	天124화	87화	-	-
6	6화	122화	42-1화 108-1화	天134-1화 人32-1화	-	210-1화	264-1화
7	7화	60화	13화	天106화	75화	353화	133화
8	8화	324-4화	28화	天120화	86화	40-4화	25-3화
9	9화	148화	12화	天105화	74화	-	-
10	10화	139화	3화	天96화	69화	201화	261화
11	11화	43화	173화	地12화	-	280화	94화
12	12화	481화	164화	地3화	-	271화	233화
13	13화	149화	156화	人77화	63화	263화	79화
14	14화	117화	257화	天2화	1화	48화	30화
15	15화	379화	157화	人78화	64화	264화	80화
16	16화	16화	235화	地73화	-	346화	128화
17	17화	299-1화	219-1화	地57-1화	-	330-1화	234-1화
18	18화	-	-	-	-	-	-
19	19화	132화	155화	人76화	-	262화	78화
20	20화	443화	319화	天61-2화	61화	116화	-
21	21화	401화	17화	天110화	79화	-	-
22	22화	485화	-	-	-	244화	63화
23	23화	-	-	-	-	-	-
24	24화	2화	256화	天1화	-	47화	29화

<표 6 연대본『어우야담』과 한문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비교>

『어우야담』은 오랜 세월 여러 경로로 전승된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한문본『어우야담』의 이본만 총27종에 달한다.『어우야담』의 여러 한문본 이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선행 연구의 성과로 대신하고[11] 여

11) 신익철,「『어우야담』 이본고(異本考)」,『새국어교육』 Vol, 54, No.1, 한국국어교육학회, 1997; 신익철・이형대,「『어우야담』의 비판적 정본 연구」,『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노영미,「『어우야담』 연구-이본 고찰과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

기서는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연대본『어우야담』과 관련되는 몇몇 한문본 이본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총27종의 한문본『어우야담』이본 가운데 연대본『어우야담』에 선초된 24편의 이야기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전하는 한문본 중 연대본『어우야담』의 직접적인 저본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문본『어우야담』의 여러 이본 중 연대본『어우야담』에 선초된 이야기들이 비교적 많이 실려 있는 6종의 자료들을 연대본과 비교하여 앞의 표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 6종의 이본은 만종재본을 제외하면 모두 청구패설본 계열(청구패설본・일사본・야승본)에 속하거나 고대본 계열(고대본・규장각본)에 속한다. 이를 통해 연대본『어우야담』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한문본『어우야담』이본의 다섯 계열 가운데[12] 청구패설본 계열 및 고대본 계열과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문본『어우야담』의 이본들 가운데 연대본에 있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것은 만종재본이다. 만종재본은 현전하는『어우야담』의 이본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집대성된 만큼, 연대본『어우야담』에 선초된 이야기 총24편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를 비교해볼 수 있는 이본이기 때문이다. 연대본『어우야담』의 이야기 중 만종재본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제18화와 제23화 두 편뿐이다. 그런데 이는 만종재본을 포함하여 현전하는 27종의 한문본『어우야담』의 이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즉, 만종재본은 현전하는 한문본『어우야담』의 이본 가운데 연대본『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이본이면서, 현전하는 한문본『어우야담』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연대본

과 박사학위논문, 2002.

12)『어우야담』이본 연구의 선편을 잡아 여러 이본을 꾸준히 검토해온 신익철은 만종재본을 제외한 26종의『어우야담』이본을 다음의 다섯 계열로 구분한 바 있다. 1. 청구패설본 계열(청구패설본・일사본・동야패설본・야승본), 2. 도남본 계열(도남본・동빈문고본・신암본), 3. 국립중앙도서관본 계열(국립중앙도서관본・이수봉본・만종재필사본), 4. 고대본 계열(고려대본・연세대본・규장각본・천리대본・위창본), 5. 동양문고본 계열(동양문고본・강전섭본・서울대고도서본(B)), 6. 기타 계열(서울대고도서본(A)・천리대보충본・만송본・가람본・시화총림본・해동시화본・낙선재본・이능우본). 신익철(2006),「해제」,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앞의 책, 33~34쪽 참조.

『어우야담』의 이야기 두 편을 제외한 모든 이야기를 수록한 유일한 이본인 것이다.

이에 만종재본이 갖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13] 본고에서는 만종재본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연대본 『어우야담』의 선초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한문본과의 문면 비교를 통해 번역 양상을 고찰할 때는 여러 이본을 검토를 거친 교감본을 함께 참조한다.[14]

(2) 『천예록』: 최민열본・정명기본

현전하는 한글본 『천예록』은 최민열본과 정명기본의 2종이다. 모두 개인 소장의 짤막한 서책으로만 전한다. 먼저 서지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최민열본	정명기본
소장처	최민열씨	정명기 교수
표제/내제	宋思齋新定廟記 / 송스지신정묘긔	- / 텬예록 권지일
권책수	1책	1책
책 크기	25×16cm	25.5×21.5cm
면수	83면	40면
행자수	10행 16~19字 內外	9行 10~13字 內外
판사항	필사본	필사본

<표 7 한글본 『천예록』의 서지 사항>

13) 만종재본은 필기적 성격의 이야기들이 누락된 후대의 이본을 주로 참조한 점, 다른 필사본들과 내용 및 표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점, 만종재본에는 없지만 다른 필사본에는 전하는 『어우야담』의 이야기 총39편이 새로 발견된 점 등에서 이 책을 정본(定本)으로 볼 수는 없음이 밝혀진 바 있다. 신익철(2006), 앞의 해제,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앞의 책, 22~23쪽.

14)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위의 책.

최민열본『천예록』이 2007년에 처음 소개된 후[15] 정명기본『천예록』이 알려지기 전까지[16] 최민열본은 한글본『천예록』의 유일본으로서 존재해왔다. 최근 정명기본이 소개된바, 이를 통해 한글본『천예록』의 편폭이 확장되고, 두 자료가 공유하는 양상을 바탕으로 한글본『천예록』의 공통적인 특질을 가늠해볼 수 있게 되었다.

최민열본『천예록』에는 총13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뒤에는『태평광기언해』의 <주아부정녕긔>가 부기되어 있다. 표제에 "宋思齋新定廟記", 내제에 "송ᄉᆞᄉᆡ신졍묘긔"라고 적혀 있어 첫 번째로 수록된 이야기의 제목이 마치 책의 제목인 양 되어 있을 뿐, 책의 어디에도『천예록』이라는 제명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정명기본에는 단 4편만이 실려 있다. 다른 자료에서 선초된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지 않은 점, 표제는 없지만 내제에 "텬예록 권지일"이라고 적혀 있어[17] 한문본 저본의 책 제목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최민열본과 차이를 보인다.

최민열본과 정명기본은 모두 궁체로 필사되어 있다. 최민열본은 해정한 필체로 되어 있는 데 비해 정명기본은 자형이 큰 데다 필체 또한 서툴어 초학자가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자료에 선초된 이야기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8]

---

15) 김준형(2007), 앞의 논문.

16)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17) "권지일"이라는 기록에서 이 책이 여러 권으로 분권(分卷)된 책 중 일부였으리라 예상될 수 있다. 이에 실제로 나머지 권수의 책들이 존재했다고 가정하면 혹 이 책이 "짤막한 서책"이 아니라, "긴 서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소한 편폭에 4편의 이야기만이 선초되어 있는 이 책의 형태를 감안할 때 이 책은 본래 여러 권으로 분권되어 있던 것 중 일부가 아니라 단권(單卷)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애초에 이 책이 여러 권으로 나누어져 기획되었다면 권지일에 단 4편만을 실어두고 다음 권수의 책을 엮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단권임에도 표지에 "권지일"이라고 적혀 있는 소설 작품들도 종종 존재하는바, 이러한 권수에 대한 기록을 무조건 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 이처럼 적은 편수의 이야기가 실린 책이 더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긴 서책"으로 구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긴 서책"은 서책 자체의 길이 뿐 아니라, 그 안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의 총 편수까지 고려한 개념이기 때문에 설사『천예록』의 모든 이야기가 완역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책이 긴 서책으로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긴 서책으로 구분된 낙선재본『어우야담』에는 총138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 규장각본 및 가람본『청구야담』에는 총262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음이 참조된다.

18) 이 표는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371~372쪽에 실린 <표2 한글본『천예록』의 선록 양상>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순서	제목	한글본	
		정명기본	최민열본
1	지리산미로봉진(智異山迷路逢眞)	1화	-
2	관동도조우등션(關東道遭雨登仙)	2화	-
3	뎡븍창원견노회(鄭北窓遠見奴面)	3화	-
4	일도어육와가듕(一島魚肉臥家中)	4화	-
5	송ᄉᆞ지신정묘긔(送使宰臣定廟基)	-	1화
6	견몽ᄉᆞ인뎨오적(見夢士人除妖賊)	-	2화
7	도ᄃᆡ쥬션위졍실(刀代珠扇爲正室)	-	3화
8	익협부육득완졀(腋挾腐肉得完節)	-	4화
9	독슈공지탁상졔(獨守空齋擢上第)	-	5화
10	망입니원승현관(妄入內苑陞顯官)	-	6화
11	요턱니득만금(潦澤裡得萬金寶)	-	7화
12	뎡공ᄉᆞ권싱젼셔(鄭公使權生傳書)	-	8화
13	훼녈녕졍죵션보(毁裂靈頓終見報)	-	9화
14	밍도인휴유화시(孟道人携遊和詩)	-	10화
15	원녕션허상쳥간(元令見許相請簡)	-	11화
16	의츌원향독피화(議黜院享卽被禍)	-	12화
17	슈집괴리ᄒᆞᆫ개약(手執怪狸恨開握)	-	13화

<표 8 한글본『천예록』의 선초 양상>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최민열본에 선초된 이야기들은 한문본『천예록』을 기준으로 책의 후반부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인데 비해, 정명기본에 선초된 이야기들은 한문본『천예록』의 전반부에 수록된 것들이다. 최민열본과 정명기본 간에는 중복되는 이야기가 단 한 편도 없기에 문면을 직접 비교하거나 이들 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이본의 번역 양상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선행 연구를 통해 이 두 한글본『천예록』에 축약을 위주로 하는 번역상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고,[19] 이 두 한글본 자료에 실린 이야기들

19) 김준형(2007), 앞의 논문, 378쪽; 남궁윤(2011), 앞의 논문, 105쪽;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에 한문본 이야기의 제목을 독음(讀音) 그대로 옮겨놓은 양상이 동일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최민열본과 정명기본이 동일한 저본, 혹은 같은 계열의 저본을 공유하였음이 추정된다.

다음으로 한글본 『천예록』의 선초 양상과 한문본 이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20]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정명기본	최민열본	천리대본	김영복본	백두산기
1	지리산미로봉진(智異山迷路逢眞)	1화	-	- (1화 누락)	1화	21화
2	관동도조우등션(關東道遭雨登仙)	2화	-	2화	2화	22화
3	뎡븍창원견노회(鄭北窓遠見奴面)	3화	-	3화	3화	17화
4	일도어육와가듕(一島魚肉臥家中)	4화	-	15화	15화	31화
5	송ᄉᆞ지신정묘긔(送使宰臣定廟基)	-	1화	57화	-	7화
6	견몽ᄉᆞ인뎨오적(見夢士人除妖賊)	-	2화	58화	-	8화
7	도ᄃᆡ쥬션위졍실(刀代珠扇爲正室)	-	3화	59화	43화	9화
8	익협부육득완졀(腋挾腐肉得完節)	-	4화	60화	44화	10화
9	독슈공지탁샹제(獨守空齋擢上第)	-	5화	61화	-	11화
10	망입ᄂᆡ원승현관(妄入內苑陞顯官)	-	6화	62화	-	12화
11	요ᄐᆡᆨᄂᆡ득만금(潦澤裡得萬金寶)	-	7화	53화	41화	59화
12	뎡공ᄉᆞ권싱젼셔(鄭公使權生傳書)	-	8화	41화	33화	-
13	훼녈녕졍죵션보(毁裂靈鼎終見報)	-	9화	43화	-	13화
14	밍도인휴유화시(孟道人携遊和詩)	-	10화	34화	-	46화
15	원녕션허샹쳥간(元令見許相請簡)	-	11화	42화	34화	2화
16	의츌원항독피화(議黜院享卽被禍)	-	12화	44화	-	14화
17	슈집괴리ᄒᆞᆫ개악(手執怪狸恨開握)	-	13화	48화	38화	54화

<표 9 한글본 『천예록』과 한문본 『천예록』의 선초 양상 비교>

한문본 『천예록』의 이본 및 수록 편수에 대한 검토는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21] 이를 다시 살피는 것은 번다할뿐더러 본고의 논의에 긴요하지도 않

383~384쪽.

20) 이 표는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371~372쪽에 실린 <표2 한글본 『천예록』의 선록 양상>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21) 김동욱, 「『천예록』 연구-천리대본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 반교어문학회, 1994; 김동

으므로 여기서는 한글본『천예록』과 관련되는 이본과 그 수록 편수를 살피는 것으로 관련 선행 연구 검토를 갈음하고자 한다.

여러 한문본『천예록』이본 가운데 2종의 한글본에 실린 17편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없다. 한문본『천예록』의 이본은『천예록』의 일부가 다른 자료들과 혼재되어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22] 그런데 천리대본은 다른 자료에서 전재해 온 이야기 없이『천예록』의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고, 김영복본도 소설「최척전」과「연랑전」이 부기되어 있을 뿐 다른 야담 자료의 이야기는 혼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선행 연구는 "엄격하게 말하면 현존하는『천예록』이본은 천리대본과 김영복본 뿐"임을 단언하기도 했던 것이다.[23]

천리대본에는 총61편이, 김영복본에는 총4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들은『천예록』의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만이 초록되어 있는 다른 한문본 자료들과 달리, 수록 이야기의 편수가 많은 편에 속하는 이본이기도 하다. 그런데 천리대본에는 정명기본의 제1화 <智異山迷路逢眞>이 없고,

---

욱,「『천예록』의「評曰」을 통해 본 임방의 사상」,『어문학연구』3,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5; 진재교,「『천예록』의 작자와 著作年代」,『서지학보』17, 한국서지학회, 1996; 김동욱,「김영복 소장본 천예록에 실린 <지리산로미봉진>에 대하여」,『문헌과 해석』2, 태학사, 1998; 정용수,「임방의 문학론 연구」,『동양한문학연구』12, 동양어문학회, 1998; 정명기,「야담 연구에서의 자료의 문제」,『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1, 보고사, 2001; 정용수,「『천예록』이본자료들의 성격과 화수 문제」,『한문학보』7, 우리한문학회, 2002; 김준형,「『천예록(天倪錄)』원형재구(原形再構)와 향유양상(享有樣相) 일고」,『한국한문학연구』37, 한국한문학회, 2006a; 문성대,「『천예록』의 이본과 서사방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22) 버클리대본『해동이적(海東異蹟)』의「천예록초(天倪錄抄)」에 30편, 천리대본『어우야담』의「천예록초(天倪錄抄)」에 21편, 서울대본『계압만록(溪鴨漫錄)』에 16편, 동양문고본『고금소총(古今笑叢)』에 8편, 정명기본『동패추록(東稗追錄)』에 8편, 규장각본『이향견문록』에 4편, 북한에 있는『해동방어(海東哨語)』에 5편이 초록(抄錄)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본『견첩록』에는『천예록』의 내용을 축약한 유화(類話) 1편이 수록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백두산기(白頭山記)』에는『천예록』에서 전재해 온 이야기가 60편에 달하는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김영진,「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향유의 일양상」,『어문논집』37, 안암어문학회, 1998, 22쪽; 정명기(2001), 앞의 논문, 30~33쪽; 김준형(2006a), 앞의 논문, 480~488쪽; 이승은,「18세기 야담집의 서사지향과 서술방식:『천예록』과『동패낙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13쪽; 권기성,「『천예록』의 서사구성과 서술방식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11쪽 참조.

23) 천리대본의 표제가 "天倪錄"으로 되어 있고 김영복본의 표제가 "天倪錄 崔陟傳 蓮娘傳"으로 되어 있는바, 김준형은 천리대본과 김영복본에 "天倪錄"이라는 제명이 드러나 있고 다른 자료에서 전재해 온 이야기가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보면 이 두 이본만을 현존하는『천예록』이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준형(2006a), 위의 논문, 464쪽 참조.

김영복본에는 최민열본의 제1, 2, 5, 6, 9, 10, 12화로 수록된 7편의 이야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천리대본에는 제1화 <智異山迷路逢眞>이 없지만 제1, 2화에 관한 후평(後評)이 존재하는 점, 『천예록』의 이야기 4편을 전재한 『이향견문록』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 점, 김영복본에는 이 이야기가 실려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본래 천리대본에 제1화가 수록되어 있다가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선행 연구의 논의가 참조된다.[24] 이에 이후의 여러 연구자들이 천리대본의 61편에 김영복본의 제1화를 더한 총62편을 선본(善本)으로 잠정하고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전하는 한문본 『천예록』의 이본 가운데 한글본 『천예록』에 수록된 이야기들이 모두 실려 있는 것은 천리대본 뿐이라고 볼 수 있다.[25]

이에 본고에서는 천리대본 『천예록』에 김영복본의 제1화를 더한 총62편을 한글본 『천예록』의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아 한글본으로 선초되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단 한문본과의 문면 비교를 통해 번역 양상을 고찰할 때는 여러 이본을 검토한 선행 연구의 교감본을 아울러 참조한다.[26]

(3) 『동패낙송』: 단국대본・국민대본・서강대본

한글본 『동패낙송』으로는 단국대본・국민대본・서강대본 총3종이 현전하는데 모두 짤막한 서책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먼저 이 책들의 서지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김동욱(1994), 앞의 논문, 178쪽; 진재교, 앞의 논문, 61~64쪽.
25) 고대본 『백두산기』에 실린 『천예록』의 경우, 최민열본에 8화로 실려 있는 <뎡공ᄉᆞ권싱젼셔>가 『백두산기』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야기의 몇몇 제목들(7화의 "送使定廟基", 9화의 "韓上黨事", 13화의 "權石洲毁影幀事", 14화의 "慶州儒黜院享事")이 한글본의 제목과는 크게 다른 점을 이유로 한글본과의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26) 임방 저, 정환국 역, 『교감 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구분	단국대본	국민대본	서강대본
소장처	現 단국대 천안캠퍼스 (前 나손 김동욱 교수)	국민대	서강대
표제/내제	六臣傳/ 동패낙송	동패낙송 一/ 동패낙숑권지일	원제 식별 불가 (표지에 펜으로 “短篇野談集”이라고 적혀 있음)/ –
권책수	1책	1책	1책
책 크기	37.5×22.8cm	23.0×17.8cm	32.8×22.2cm
면수	17면	85면	77면
행자수	12~15行 16~25字 內外	10行 15~18字 內外	12行 20~26字 內外
판사항	필사본	필사본	필사본

<표 10 한글본『동패낙송』의 서지 사항>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가장 먼저 학계에 알려진 책은 단국대본『동패낙송』이다.[27] 여기에는「육신전」,「원싱몽유록」의 뒤에『동패낙송』의 이야기 3편이 실려 있다.『동패낙송』에서 선초된 이야기는 단 3편이므로 단국대본『동패낙송』은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 자료 중 가장 적은 이야기를 수록한 자료가 된다. 이 같은 단소(短小)함은 단국대본『동패낙송』의 이야기 3편이 이 책에 일종의 부록으로서 수록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28] 표제에서는『동패낙송』이라는 제명이 확

27) 본고에서 자료를 명명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소장처를 기준으로 삼는다. 현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소장된 한글본『동패낙송』은 본래 나손 김동욱이 소장했던 책으로 이른 바 “나손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후 이 책은 기증되어 현재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율곡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바, 본고에서는 이를 단국대본으로 지칭한다. 이 자료는『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48권의 407~474쪽에「육신전」,「원생몽유록」과 함께 영인되어 있는데,『동패낙송』에 해당되는 내용은 458~474쪽이다. 김동욱 편,『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48, 보경문화사, 1991,, 458~474쪽.

28) 이 책에는「육신전」이 맨 처음에 실려 있고 그 다음에「원생몽유록」과『동패낙송』의 이야기 3편이 나란히 실려 있다. 주지하다시피「육신전」과「원생몽유록」은 모두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한 비판과 단종을 향한 절의에 대한 추숭을 드러내는바「육신전」과「원생몽유록」이 함께 수록된 이 책은 그러한 지향을 뚜렷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동패낙송』의 이야기 3편에서는 세조의 왕위 찬탈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나 절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 이야기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과 관련되는 인물이나 그 후손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에 선초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화는 박팽년의

인되지 않지만, 『동패낙송』의 이야기 3편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동패낙송』이라는 제명이 쓰여 있다. 다른 자료와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야담 자료의 제명이 확인되는 것은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단국대본 『동패낙송』뿐이다.

한편 국민대본 『동패낙송』에는 총8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국민대본은 『동패낙송』에서 선초된 이야기로만 하나의 책이 이루어져 있는 유일한 한글본이다. 표제에 "동패낙송 一", 내제에 "동패낙숑권지일"이라고 되어 있는바[29] 『동패낙송』의 제명이 드러나 있다. 또 각 장마다 접힌 부분이 모두 터져 있어 그 이면에 여러 편의 내훈과 가사 등이 적혀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30]

서강대본 『동패낙송』에는 『동패낙송』의 11편 뒤에 『기문총화』의 5편, 『송와잡설』의 1편이 함께 실려 있는바 한글본 『동패낙송』 중 가장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 이본이다. 표제와 내제 어디에서도 『동패낙송』

후손이 노루를 구해주고 거부(巨富)가 된 이야기, 제2화는 문종비, 단종, 단종비의 제사를 모시던 정효준이 상처(喪妻) 후 단종의 현몽(現夢) 덕에 이진경의 사위가 된 이야기, 제3화는 누이의 혼수를 위해 추노하러 가는 길에 신인(神人)을 만난 성삼문의 이야기이다. 제1, 3화는 사육신인 박팽년, 성삼문과 관련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제2화는 단종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선초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단국대본 『동패낙송』의 이야기 3편은 「육신전」과 「원생몽유록」에 대한 일종의 부록으로서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육신전」 및 「원생몽유록」이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데 비해, 『동패낙송』의 이야기 3편은 「육신전」, 「원생몽유록」이 담지하는 의미와 지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하고 다만 부록으로서 관련 인물들의 일화를 소개하여 앞의 이야기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궁윤이 단국대본 『동패낙송』이 단종과 사육신을 다룬 이야기만을 선별하였음을 지적하고, 이는 『동패낙송』과 「원생몽유록」이 「육신전」의 편찬에 활용되었던 때문으로 해석한 바 있다. 남궁윤(2011), 앞의 논문, 94쪽 참조; 「육신전」과 「원생몽유록」의 주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정학성, 「원생몽유록 연구」, 『한문학논집』 2, 단국대 한문학회, 1985; 윤주필, 「원생몽유록의 종합적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16, 한국한문학연구회, 1993; 정출헌, 「<육신전>과 <원생몽유록> -충절의 인물과 기억서사의 정치학-」,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등 참조.

29) "권지일"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앞서 살핀 정명기본 『천예록』과 마찬가지로 책의 편폭이 작고 선초된 이야기가 적다는 점에서 국민대본 『동패낙송』 또한 애초부터 단권의 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설사 다른 권수의 책이 더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긴 서책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을 것임도 밝혀둔다. 현전하는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이 같은 저본 혹은 같은 계열의 저본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한글본 『동패낙송』의 원형이 현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 책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3종 한글본에 실린 이야기를 모두 합쳐도 17편뿐이라는 점, 심지어 한문본 『동패낙송』의 모든 이야기가 번역되었다고 하더라도 78편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대본 『동패낙송』에 혹 다른 권수의 책이 몇 권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책이 "긴 서책"으로 구분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정명기본 『천예록』에 보이는 "권지일"이라는 기록에 대해 상론한바 참조가 된다. 본고의 25쪽 각주 17) 참조.

30) 백승호, 앞의 논문, 220~221쪽.

의 제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글본 『동패낙송』은 3종 모두 달필의 궁체로 쓰여 있다. 행자수가 비교적 일정한 국민대본이나 서강대본에 비해 단국대본의 행수와 자수는 다소 들쑥날쑥한 편이다.

3종의 『동패낙송』에 선초된 이야기들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31]

순서	제목	한글본		
		단국대본	국민대본	서강대본
1	구히장튱신손획보(救解獐忠臣孫獲報)	1화	-	10화
2	혼궁환이몽시조(婚窮鰥異夢示兆)	2화	-	-
3	고튱신이인뉴셔(顧忠臣異人遺書)	3화	2화	8화
4	염한ᄉ명기도셕(念寒士名妓逃席)	-	1화	-
5	긔장가췌셔졸현(器匠家贅婿猝顯)	-	3화	-
6	지이동음관긔우(智異洞蔭官奇遇)	-	4화	9화
7	샤약승의사뎍덕(死惡僧義士積德)	-	5화	-
8	졔션고효ᄌ견위(祭先考孝子遺衣)	-	6화	-
9	차일념상좌패단(蹉一念上座敗丹)	-	7화	7화
10	의빵님명기슈홍(依雙林名妓守紅)	-	8화	-
11	슌녕궤이실간젹회치(殉靈几二室間隔諱飾)	-	-	1화
12	치빈손혜부면부죄(治飯飧慧婦免夫罪)	-	-	2화
13	북히션효보옹구(覆海船效報翁仇)	-	-	3화
14	햐이자엄구지복투부(嚇愛子嚴舅制伏妬婦)	-	-	4화
15	툐조션투처곤부(討操船妬妻困夫)	-	-	5화
16	가관양노져표부(假官佯怒抵挹父)	-	-	6화
17	無題(“두 션비…”)	-	-	11화

<표 11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초 양상>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3종의 한글본 『동패낙송』에는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3종에 모두 실린 이야기는 <고튱신이인뉴셔> 한 편뿐이지만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이야기로 <차일념

31) 이 표는 정보라미,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296쪽의 <표 1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일람>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상좌패단>·<지이동음관긔우> 2편이 있고, 서강대본과 단국대본에 수록된 이야기로 <구히쟝튱신손획보> 1편이 있다. 이 4편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본 별 번역의 특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32]

한편 3종의 한글본『동패낙송』에는 각 이야기마다 한문 제목의 독음(讀音)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이는 7~9자의 이야기 제목이 붙어 있다.[33] 앞서 살펴본 한글본『천예록』의 경우 한문본의 이야기 제목의 독음을 그대로 옮겨둔 데 비해, 한문본『동패낙송』중에서는 한글본과 같은 이야기의 제목이 달려 있는 이본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3종의 한글본『동패낙송』에 중복 수록된 이야기들에서는 동일한 제목이 확인된다.[34] 한글본에서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이야기의 제목들은 한글본 고유의 특징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세 자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저본, 혹은 같은 계열의 저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글본『동패낙송』의 선초 양상을 한문본『동패낙송』의 주요 이본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35]

---

32) 선행 연구에서 단국대본『동패낙송』과 서강대본『동패낙송』의 번역 양상을 검토한 결과, 두 이본을 "같은 원본 아래 파생되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명기(2005), 앞의 논문, 6~10쪽 참조. 세 자료를 살핀 결과 국민대본·단국대본·서강대본은 모두 같은 저본 혹은 같은 계열의 저본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33) 제목이 적혀 있지 않은 서강대본『동패낙송』의 11화를 제외한 모든 이야기에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다.

34) 3종의 한글본『동패낙송』에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유일한 이야기인 <고튱신이인뉴셔>, 국민대본과 서강대본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차일념상좌패단>·<지이동음관긔우>, 서강대본과 단국대본에 중복 수록된 <구히쟝튱신손획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35) 한문본『동패낙송』의 이본에는 표로 정리한 주요 이본(1책의 연대본, 권2의 이대본, 권2의 임형택본, 2권 2책의 동양문고본, 1책의 경상대 문천각본, 1책의 천리대본) 외에도, 1책의 아단문고본, 1책의 국립중앙도서관본『동패낙송초(東稗洛誦抄)』, 1책의 규장각본『기관(奇觀)』이 더 있다.『동패낙송초』에는『동패낙송』의 이야기가 총9편 수록되어 있고,『기관』에는『동패낙송』의 이야기가 총33편 수록되어 있는바, 이들은『동패낙송』의 발췌본이므로 한글본『동패낙송』과의 비교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아단문고본은 정기 점검과 자료 보존 처리 사업으로 인하여 실물을 살필 수 없었음을 밝힌다.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단국대본	국민대본	서강대본	연대본	이대본 권지이	임형택본 권지이	동양문고본	경상대본	천리대본
1	구히장튱신손획보 (救解獐忠臣孫獲報)	1화	-	10화	28화	-	-	22화	22화	21화
2	혼궁환이몽시조 (婚窮鰥異夢示兆)	2화	-	-	50화	10화	10화	-	-	39화
3	고튱신이인뉴셔 (顧忠臣異人遺書)	3화	2화	8화	15화	-	-	-	-	10화
4	염한ᄉᆞ명기도셕 (念寒士名妓逃席)	-	1화	-	8화	-	-	-	-	7화
5	긔장가췌셔졸현 (器匠家贅婿猝顯)	-	3화	-	58화	18화	18화	46화	46화	47화
6	지이동음관긔우 (智異洞蔭官奇遇)	-	4화	9화	5화	-	-	7화	7화	4화
7	샤악승의시뎍덕 (死惡僧義士積德)	-	5화	-	37화	-	-	14화	14화	26화
8	졔션고효ᄌᆞ견위 (祭先考孝子遺衣)	-	6화	-	60화	20화	20화	47화	47화	49화
9	차일념상좌패단 (蹉一念上座敗丹)	-	7화	7화	24화	-	-	-	-	18화
10	의쌍님명기슈홍 (依雙林名妓守紅)	-	8화	-	33화	-	-	18화	18화	-
11	슌녕궤이실간젹회치 (殉靈几二室間隔諱飾)	-	-	1화	27화	-	-	23화	23화	20화
12	치빈손혜부면부죄 (治飯飧慧婦免夫罪)	-	-	2화	10화	-	-	8화	8화	-
13	북히션효보옹구 (覆海船效報翁仇)	-	-	3화	1화	-	-	4화	4화	1화
14	하이자엄구지복투부 (嚇愛子嚴舅制伏妬婦)	-	-	4화	11화	-	-	9화	9화	8화
15	툐조션투쳐곤부 (討操船妬妻困夫)	-	-	5화	65화	25화	25화	-	-	-
16	가관양노져표부 (假官佯怒抵拯父)	-	-	6화	35화	-	-	16화	16화	24화
17	無題 ("두 션비…")	-	-	11화	44화	4화	4화	36화	36화	33화

<표 12 한글본『동패낙송』과 한문본『동패낙송』의 선초 양상 비교>

위의 표를 통해 연대본『동패낙송』에 3종의 한글본『동패낙송』에 실린 이야기 17편이 모두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대본에는 총78편이

실려 있는바, 천리대본 다음으로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연대본·이대본·임형택본은 그 이야기의 수록 순서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 세 이본은 같은 모본(母本)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이 추정된 바 있다.[36] 그런데 그 가운데 이대본과 임형택본은 2권 2책 중 권지이만 전하는 결본(缺本)이다. 두 이본에는 각각 총37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두 이본은 이야기의 수록 편수와 수록 순서도 동일한바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음이 지적된 바 있다.[37] 3종의 한글본에 있는 이야기 총17편 중 이대본과 임형택본에서 확인되는 것은 5편에 그친다.

동양문고본은 건(乾)·곤(坤)의 2권 2책으로 되어 있고 2책이 모두 전한다. 총57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3종의 한글본에 수록된 총17편 중 5편을 동양문고본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경상대본은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총57편이 실려 있다. 동양문고본과 책수는 다르지만, 이야기의 수록 편수와 순서가 동일하다. 경상대본에도 3종의 한글본『동패낙송』에 수록된 총17편 중 5편이 보이지 않는다.

천리대본『동패낙송』에는 총113편이 실려 있는바 한문본 가운데 가장 많은 편수가 수록된 이본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동패낙송』의 별본(別本)으로 지목되었던 데서 짐작되듯, 이본차를 넘어서는 정도로 여러 야담집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을 뿐더러 내용상의 축약도 많이 보인다.[38] 천리대본에는 3종의 한글본에 수록된 이야기 총17편 가운데 3편이 실려 있지 않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여러 한문본 이본 가운데 단국대본, 국민대본, 서강대본에 선초된 이야기 16편이 모두 실려 있는 책은 연대본 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글본『동패낙송』3종에서 확인되는 각 이야기들의 제목이 연대본에 있는 이야기의 제목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연

36) 정명기,「『동패낙송』연구 (2)-국문본『동패낙송』에 나타난 번역양상-」,『연민학지』5, 연민학회, 1997, 24쪽.
37) 정명기(1997), 위의 논문, 24~30쪽.
38) 임형택(1990), 앞의 해제, 이우성 편, 앞의 책, 12~15쪽; 김동욱,「『동패낙송』에 대하여」,『국역 동패낙송』2, 아세아문화사, 1996, 6~7쪽; 임형택,「『동패낙송』연구-야담의 기록화 과정과 한문단편의 성립-」,『한국한문학연구』23, 한국한문학회, 1999, 323쪽.

대본이 이 한글본들의 직접적인 저본이었을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연대본 외의 다른 어느 이본을 한글본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더 큰 난점이 있다. 이대본과 임형택본은 결본이라는 점, 동양문고본과 경상대본은 다른 한문본 이본들과 비교할 때 이야기의 수록 순서가 다소 다르고 중간 중간 탈락된 이야기들이 있으며 문면의 오류가 비교적 많다는 점, 천리대본은 별본으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다소 다른 성격의 이본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3종의 한글본에 수록된 이야기 총17편 중 이대본과 임형택본에는 12편이, 동양문고본과 경상대본에는 각각 5편이, 천리대본에는 3편이 보이지 않기에 한글본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한문본 가운데 3종의 한글본에 실린 이야기 17편을 빠짐없이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유일한 이본인 연대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문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대본의 오류가 확실한 부분은 다른 이본들을 참조하기도 하였음을 밝힌다.[39]

(4) 『기문총화』: 서강대본

현전하는 한글본 『기문총화』 자료는 서강대본 『기문총화』 뿐이다.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11편 뒤에 『기문총화』에서 전재되어 온 이야기 5편이 실려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 자료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자료의 존재를 통해 한글로 『기문총화』가 향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서강대본 『기문총화』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39) 천리대본은 김동욱 역, 『국역 동패락송』, 아세아문화사, 1996의 원문을 참조하였고, 동양문고본은 노명흠 지음, 김동욱 옮김, 『국역 동패낙송』, 보고사, 2012의 원문을 참조하였다.

구분	서강대본
소장처	서강대
표제/내제	(원제는 식별 불가, 표지에 펜으로 “短篇野談集”이라고 적혀 있음)/ -
권책수	1책
책 크기	32.8×22.2cm
면수	10면
행자수	12行 22~26字
판사항	필사본

<표 13 서강대본「기문총화」의 서지 사항>

서강대본『기문총화』는 서강대본『동패낙송』과 같은 서체로 쓰여 있는바 달필의 궁체로 적혀 있다. 이 책에서『동패낙송』의 제명이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기문총화』의 제명 또한 보이지 않는다.

서강대본『기문총화』의 선초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화번(話番)	첫 구절
1	1	권판서 격
2	2	임빈긱 광
3	3	윤감ᄉᆞ 셕증
4	4	남쉬
5	5	셩용지 현

<표 14 서강대본『기문총화』의 선초 양상>

『기문총화』의 한문 이본은 제명이 “紀聞叢話”로 되어 있는 것이 6종, “記聞叢話”로 되어 있는 것이 7종으로 “기문총화”라는 제명의 책만 총13종이 현전한다. 다른 제명으로 존재하는 자료도 16종이 더 있다고 알려

져 있다.[40] 『기문총화』의 여러 이본에 대한 논의는 선행 연구의 성과로 갈음하고[41] 본고에서는 한글본 『기문총화』에 실린 5편과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비교적 많이 확인되는 몇몇 한문 이본만을 추려 살펴보고자 한다. 서강대본 『기문총화』에 선초된 이야기를 한문본들과 비교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한글본	한문본			
	서강대본 -	연대본 紀聞叢話	국도甲본 記聞叢話	국도乙본 記聞叢話鈔	천리대본 叢話
1	1화	3권 50화	2권 50화	-	51화
2	2화	1권 73화	-	-	-
3	3화	4권 7화	2권 7화	-	64화
4	4화	4권 112화 類話	2권 109화	176화	167화
5	5화	1권 43화	-	27화	-

<표 15 서강대본 『기문총화』와 한문본 『기문총화』의 선초 양상 비교>

이상의 표에서 확인되듯 서강대본 『기문총화』에 실린 5편의 이야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한문본 『기문총화』는 연대본 『기문총화』 뿐이다. 연대본 『기문총화』는 완질본으로 현전하는 여러 한문 이본 중에서 가장 선본으로 지목된 이본이기도 하다.[42]

이에 본고는 서강대본 『기문총화』와 연대본 『기문총화』를 비교 검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번역 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연대본 『기문총화』에 분명한 오류가 보이는 경우 교감본을 참조했음을 밝힌다.[43]

---

40) 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7쪽.
41) 김상조, 「계서야담계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66~67쪽; 김준형(1997), 위의 논문, 33~66쪽.
42) 김상조, 위의 논문, 66~67쪽; 김준형(1997), 위의 논문, 29쪽.
43) 김동욱 역, 『국역 기문총화』 1~5, 아세아문화사, 1999.

2)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개관

현전하는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가람본 『청구야담』 뿐이다. 1940년대에 이 책들이 학계에 처음 알려진바 한글본 야담 자료의 존재는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를 통해 소개될 수 있었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1990년대부터 속속 소개되었던 것과는 달리,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1940년대에 현전하는 자료가 확인된 이후 지금껏 추가로 확인된 새 자료가 없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본래 형태는 2권 2책이고,[44] 규장각본 및 가람본 『청구야담』은 19권 19책으로 되어 있어 단권의 1책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짤막한 서책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짤막한 서책의 경우 한 책에서만 이야기들을 선초하여 구성된 경우도 있고 여러 책으로부터 이야기들을 선초하여 한권의 책으로 묶여진 경우도 있는데 비해, 긴 서책은 모두 단일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한문본 저본의 원제(原題)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1) 『어우야담』: 낙선재본

1949년 이병기 교수가 긴 서책의 한글본 『어우야담』에서 일부를 선초하여 처음 소개한 이후[45] 1960년 통문관에서 유인본으로 "구황실 내전 비장본" 『어우야담』이 출간되면서 비로소 이 책의 전모(全貌)가 확인되었다.[46] 1976년에는 김동욱 교수에 의해 교주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47]

---

44) 현시점에서 긴 서책의 한글본 『어우야담』 자료는 통문관에서 유인본으로 간행한 책과 김동욱이 교주한 책을 통해 그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책들은 2권 1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병기의 해제에 따르면 본래 2권 2책의 형태였다고 한다. 이병기, 「해설」, 이병기 교주(校註), 『어우야담(於于野談)』, 국제문화관(國際文化館), 1949, 99~100쪽.

45) 이병기 선해(選解), 『요로원야화기 외 십일편(要路院夜話記 外 十一篇)』,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 1949; 이병기 교주(1949), 앞의 책, 57~67쪽.

46) 앞의 책(『於于野談』, 『國文學資料』 第四輯, 通文館, 1960.)

47) 김동욱 교주, 『短篇小說選: 於于野談·雲英傳·要路院夜話記·三說記』, 민중서관, 1976.

이병기 교수가 책의 일부를 선초하여 소개한 한글본 『어우야담』,[48] 통문관에서 출간된 "구황실 내전 비장본" 『어우야담』, 김동욱 교수가 낙선재본 혹은 장서각본으로 소개하며 교주한 『어우야담』을 비교해본 결과, 상권과 하권으로 이루어진 책의 형태가 공통적이고[49] 수록된 이야기 및 수록 순서가 거의 일치하며[50] 몇몇 오탈자 및 비의도적 탈락을 제외하면 이들 자료의 문면이 같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모두 동일한 저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통문관 출간본에서는 이 책을 "구황실 내전 비장본"으로, 김동욱 교수는 교주의 저본을 「해설」에서는 장서각본으로, 「범례」에서는 낙선재본으로 밝히고 있다.[51]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다수의 낙선재본 한글소설들이 1950년에 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던[52]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본래 낙선재에 있다가 장서각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안타깝게도 원본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김동욱 교수의 「해설」에 따르면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교주본 출간 당시인 1976년

48) 이병기는 규장각본·가람본 『청구야담』의 소장처를 분명히 밝힌 데 비해 한글본 『어우야담』의 경우 자료를 거듭 소개하면서도 그 소장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한글본 『어우야담』의 소장처를 분명히 밝힐 수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한글본 『어우야담』은 그 소장처가 공식적으로 밝힐 만한 곳이 아니었거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에 접근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후 이 자료가 "구황실 내전 비장본", 혹은 "낙선재본", "장서각본" 등으로 지칭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소장처 자체를 밝히기 어려웠기보다는 자료의 입수 경로를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정황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49) 통문관에서 출간된 유인본과 김동욱의 교주본에서 이러한 형태가 확인된다. 선역본과 선해본은 일부 이야기만을 뽑아 실었기에 책의 전체 형태가 확인되지 않지만 이병기 또한 해설을 통해 이 책이 "두 冊으로서 全帙" 혹은 "二卷 二冊"임을 밝힌 바 있다. 이병기 선해(1949), 앞의 책, 57쪽; 이병기(1949), 앞의 해설(解說), 이병기 교주, 앞의 책, 99~100쪽.

50) 통문관에서 출간된 유인본과 김동욱의 교주본은 수록된 이야기와 그 수록 순서가 완전히 같다. 일부 이야기만을 선초해 놓은 이병기의 교주본은 제35화와 제36화 두 편의 순서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면 제1화~제45화는 이야기의 수록 순서가 통문관에서 출간된 유인본 및 김동욱의 교주본과 같다. 이병기는 제1화~제45화까지는 저본의 순서를 따라 이야기들을 선초했던 것으로 보이고, 제46화부터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들을 추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46화~제51화의 경우 제46화와 제47화 두 편의 순서만 제외하면 통문관에서 출간된 유인본 및 김동욱의 교주본과 이야기의 수록 순서가 같다. 제35화와 제36화, 제46화와 제47화가 뒤바뀌어 실린 것은 의도치 않은 실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51) 김동욱 교주(1976), 앞의 책, 5쪽, 11~12쪽.

52) 윤병태, 「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4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99쪽.

에 이미 그 원본이 전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53] 이병기 교수가 한글본 『어우야담』을 소개한 1949년 이후부터 김동욱 교수가 이 자료를 교주한 1976년 사이에 이 책이 일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54]

현재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지만 통문관에서 유인본으로 출간된 책과 김동욱 교수가 교주한 책을 통해 이 책의 원면모를 엿볼 수 있다. 원본이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족하나마 이 책들을 대상으로 낙선재본 『어우야담』을 검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이병기 교수가 선역·선해한 책은 저본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표기를 좀 더 현대식으로 바꾸면서 띄어쓰기를 추가하고 한자도 병기하였다. 또 본래 원문에 있던 쌍행 세주를 없애고 대신 미주(尾註)의 형태로 새로운 내용의 주석을 다는 등 다소나마 형식적·내용적으로 변화를 거쳤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하여 통문관에서 유인본으로 출간된 책과 김동욱 교수가 교주한 책은 원본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을뿐더러 본래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적 그대로 구현하여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병기 교수 교주본 제1화 4쪽

이 몬저 홍립(弘立)이 오랑캐 역관(譯官) 하세국(河世國)을 노중(虜中)에 보내엇더니 몬저 통사(通事)주13)를 불러 그 싸홈을 부치고 홍립(弘立)으로 더부러 항복고저 하니 장군이 듣고 더욱 노하야 노병시살(虜兵廝殺) 하기를 여구(如舊)히 하더라

미주: 주13) 通事 通譯官

53) 김동욱(1976), 「해설」, 김동욱 교주, 앞의 책, 12쪽.

54) 그 사이에 1950년의 6·25 전쟁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전쟁을 거치며 숱한 책들이 흩어지는 와중에 이 자료 또한 사라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행 연구를 통해 규장각 도서와 일반도서 가운데 6·25를 겪으며 산일(散佚)된 책이 약 만여 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장서각에 소장된 귀중도서도 이 때 많이 일실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서울대학교이십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이십년사』, 서울대학교, 1966, 90쪽; 신용하,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 『규장각』 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1, 80쪽; 윤병태, 앞의 논문, 91쪽 참조.

② 통문관 간행본 제1화 3쪽

이몬저홍닙【쌍행 세주: 강홍닙이라】이오랑캐역관 하셰국을노듕의보내엿더니 몬져통ᄉᆞ를불러그빠홈을붓티고 홍닙으로더브러항복고져ᄒᆞ니 쟝군이듯고더욱 노하야 노병시살ᄒᆞ기를여구히ᄒᆞ더라

③ 김동욱 교수 교주본 제1화 6쪽

이몬저홍닙【쌍행 세주: 강홍닙이라】이오랑캐역관 하셰국을노듕의보내엿더니 몬져통ᄉᆞ를불러그빠홈을붓티고 홍닙으로더브러항복고져ᄒᆞ니 쟝군이듯고더욱 노하야 노병시살ᄒᆞ기를여구히ᄒᆞ더라

이에 본고에서는 일실된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원본을 대신하여 부득이 통문관에서 출간된『어우야담』을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55] 통문관에서 출간된『어우야담』의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장처	구 낙선재
표제/내제	於于野談/어우야담
권책수	2권 1책 (본래 2권 2책)
책 크기	22×15cm
면수	155면
행자수	15行 28~31字 內外
판사항	유인본(油印本) : 통문관(通文館), 檀紀 4293(1960) 刊

<표 16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서지 사항>

책의 표제는 “於于野談”이다. 표지 안쪽에는 상권 본문의 바로 앞면에 내지가 한 장 더 있는데 이는 하권 본문의 앞면에도 붙어 있다. 이

55) 통문관에서 출간된 자료가 김동욱의 교주본보다 시기적으로 더 앞서 출간되었기에 통문관에서 출간된 유인본을 연구의 주 자료로 삼고 김동욱의 교주본은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이병기의 선역본 및 선해본 또한 필요에 따라 참조한다.

내지에는 저자, 소장처, 제목, 총서사항 등의 정보가 적혀 있는데 특히 “舊皇室內殿祕藏本”이라는 기록이 주목된다. 이는 이 책을 낙선재본 혹은 장서각본으로 지칭한 김동욱 교수의 해설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유인본으로 전하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은 상권과 하권이 합본된 2권 1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병기 교수의 해제에 따르면 본래 이 책이 2권 2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56]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선초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내용
	낙선재본	연대본	만종재본	
1	1	-	16	김응하 장군의 의기
2	2	-	96	望氣法과 이에 능통한 박상의
3	3	-	497	김영남과 권희가 겪은 짐승의 독기
4	4	-	114	무당을 미워한 정문부
5	5	-	36	이지번의 신선놀이
6	6	-	91-1, 91-3	기이한 선비 이지함
7	7	-	508	뱀고기 먹고 난 종기에서 나온 붉은 이
8	8	-	279	뱀고기를 생선회로 잘못 알고 먹은 선비
9	9	-	414	못난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
10	10	-	87	김시습과 신선의 만남
11	11	-	484	사람을 잡아먹는 개떼
12	12	-	517	뱅어 먹는 草食
13	13	-	89-1	선도에 통달한 정렴
14	14	-	516	김담령이 본 인어
15	15	1	467	이수광이 들은 바다 거인 이야기
16	16	4	308	명의 안덕수가 만난 귀신
17	17	-	130	원혼의 한을 풀어준 진기경
18	18	-	113-1	신내린 무당의 영험함
19	19	-	140	신녀가 준 먹을 잃어버린 전영달

56) 이 책의 원본은 일실되었으나 통문관에서 2권 1책의 유인본으로 출간된 것이 남아 있다. 2책이 1책으로 합본(合本)된 것 외에는 원본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병기(1949), 앞의 해설, 이병기 교주, 앞의 책, 99~100쪽.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내용
	낙선재본	연대본	만종재본	
20	20	-	120	손자를 구한 유강의 신령
21	21	-	20	곽준 일가의 절의
22	22	-	88-4	조원기의 운수를 점친 정희량
23	23	-	350	아무나 보는 무과 시험
24	24	-	483	원귀로 착각한 항아리 뒤집어쓴 개
25	25	-	424	꾀로 주인집 부인과 사통한 박엽
26	26	-	142	재상을 지키는 신령
27	27	-	71	남곤을 속이다가 쫓겨난 기녀
28	28	-	362	윤현의 재산 관리
29	29	-	3	효자 이충작
30	30	-	336	이목의 글로 장원한 김천령
31	31	-	26	왜진에서 탈출한 권두문과 이지
32	32	-	410	제 멋대로 굴다가 눈 뽑힌 무인
33	33	-	369	환혼석의 정기를 없앤 무사
34	34	-	163	수진방의 의미
35	35	-	363	자린고비의 치부법
36	36	-	317	한 상국의 농사
37	37	-	471	일본의 풍속에 물든 풍성감
38	38	-	268	왜장 가등청정의 호협함
39	39	-	-	박승종에게 써준 만향당의 기문
40	40	-	212	명석했던 어린 이충원
			-	이백의 죽음
41	41	-	46	갓을 바꿔쓴 유순과 박충간
42	42	-	249	노수신과 유성룡의 독서법
43	43	-	7	삼년상의 어려움
44	44	-	499	홍양읍의 아기장수
45	45	-	83	여진인 신선을 만난 성현
46	46	-	84	노승을 만나 선계를 구경한 이원익
47	47	-	164	애꾸눈 이람
48	48	-	170	죽고 사는 것은 운명
49	49	-	394	용력이 뛰어난 신말주와 신응담
50	50	-	395-1, 395-2	무용이 뛰어난 조막종, 한적, 안경우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내용
	낙선재본	연대본	만종재본	
51	51	-	-	경공을 보좌한 지혜로운 안자
52	52	-	468	이여송의 13세 의주 유람
53	53	-	435	의금부 종의 죽음
54	54	-	48	냉수만 마시다 죽은 이준민의 아내
55	55	-	282	대식가 송생의 종
56	56	-	407	문장가와 도학자에 대한 평가
57	57	-	186	황여헌과 정사룡의 문장
58	58	-	15-1, 15-2	김시습의 기행
59	59	-	327	구의강의 점술
60	60	-	202	정사룡과 김시습의 시를 달리 본 중국 중
61	61	-	396	권절의 뛰어난 완력
62	62	-	361	황여헌의 부유한 귀양살이
63	63	-	93	밥알로 나비를 만든 전우치
64	64	-	103	천연선사가 만난 신승, 성황당 석조상을 부순 천연선사
65	65	-	44	재물만 좇다 재앙입은 박계쇠
66	66	-	402	상국 장순손의 위엄과 점잖음
67	67	-	415	잔학한 한명회와 전림
68	68	-	389	경차관을 풍자한 향교 시강생
69	69	-	253	우리와 강남의 유사한 한자음
70	70	-	397	신현의 완력
71	71	-	121	잘못 해몽하고 입은 재앙
72	72	-	66-2	민제인의 <백마강부>가 퍼진 계기
73	73	-	10	홍도 가족의 천하 유전
74	74	-	34	한고조의 지혜와 술수
75	75	-	463	별천지 묘향산
76	76	-	291	정렴의 예지력
77	77	-	281	많이 먹는 정응두, 김응사
78	78	13	149	들쥐고기로 쫓은 신막정 귀신
79	79	11	43	꾀로 원풍운의 미인 딸을 얻은 남자
80	80	-	25	일본 포로로 잡혀갔다 유람하고 온 노인
81	81	-	1	목숨을 바쳐 어머니를 구한 유몽웅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내용
	낙선재본	연대본	만종재본	
82	82	-	5	성자한 아들 딸의 훌륭한 행실
83	83	-	404	김인복의 뛰어난 입담
84	84	-	330	유충신과 허약대의 득실이 다른 점복
85	85	-	45	부인 말 잘 듣는 병사
86	86	-	339	제목과 무관한 시권을 낸 유영충
87	87	-	285	말을 지방에서, 자식은 서울에서
88	88	-	434	임식과 서익의 지나친 사의
89	89	-	12	유충홍 부인 허씨의 치가
90	90	-	115	재주 많은 중 통윤
91	91	-	445	임제의 협기
92	92	-	352-1	강석에서 긴장한 나급
93	93	-	352-3, 352-4	강석에서 긴장한 김구, 박대립
94	94	-	446	겁 없는 임제
95	95	-	405	김행의 재치있는 입담
96	96	-	278	닭죽으로 속아 먹은 자라탕
97	97	-	441-1	쥐구멍을 통한 관아 명주 도둑질
98	98	-	441-2	개구멍을 통한 과문 도둑질
99	99	-	340	꿈에 보인 한 글자의 착오
100	100	-	227	채수와 손자 무일의 연시
			69	몰래 여색 밝힌 채세영
101	101	-	444	이항복의 해학
102	102	-	145	죽은 종랑의 원한을 풀어준 무사
103	103	-	143	귀신과 정을 나눈 박엽
104	104	-	310	점쟁이와 의원만 믿고 태아를 죽인 여인
105	105	-	235	옷 벗고 배와 녹두전 훔쳐먹은 정자당
106	106	-	156	저승 손님의 유혹
107	107	-	147	저승사자와 귀신
108	108	-	515	홍어가 된 유극신의 할머니
109	109	-	9	논개의 충절
110	110	-	522	도깨비 흉가를 사 갑부가 된 김뉴
111	111	-	452	수염 잡는 손 위치에 따른 접대
112	112	-	47	문자를 아는 척하다 망신당한 아내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내용
	낙선재본	연대본	만종재본	
113	113	-	293	귀신도 감동시킨 김운란의 아쟁
114	114	-	392	이경운을 호랑이 사냥으로 속인 박엽
115	115	-	4	호랑이를 잡은 옥야현감
116	116	-	437	홍수 예견한 이명준, 수해에 죽은 사람들
117	117	-	438	긴 굶주림 끝에 밥 먹고 죽은 아녀자들
			439	굶주려 도적이 된 양민의 무리
118	118	-	429	처녀의 연정을 거절한 정인지
119	119	-	502-1	바다에 사는 용과 뱀
120	120	-	127	황대임 사당에서 혼령에게 받은 응보
121	121	12	481	말석을 다치게 하고 주인을 죽인 소
122	122	-	416	이숙남의 강퍅한 성품
123	123	-	450	말을 잘해 상을 받은 목수
124	124	-	311	장수의 비결
125	125	-	231	기대승과 이후백의 문장과 학문
126	126	-	305	중국 사신 김식에게 보여준 대나무 그림
127	127	15	379	삼척 성황신을 복위시킨 김효원
128	128	-	32	형방승지 윤필상의 승진과 죽음
129	129	-	512	정지승의 큰 거북
130	130	-	137	성슈심이 만난 귀신
131	131	-	-	죽은 거북뼈로 점친 감응
132	132	-	513	거북을 죽인 응보
133	133	-	332-2, 332-3	바둑 고수 서천경을 속인 객, 이량을 속인 바둑 고수 신구지
134	134	-	266-1, 266-2, 266-3	조선공사는 사흘, 어린이 포살수(砲殺手), 조총을 다루는 기예
135	135	-	391	춘추의리에 맞게 사신을 접대한 김성일
136	136	-	357	한경록이 본 정사룡의 호사, 정사룡의 호사를 사모한 박순
137	137	-	417	바닷가 땅 개간하다 재산탕진한 선비
138	138	-	297	준마를 길들인 천연 선사

<표 17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이상의 표에서 확인되듯 낙선재본에는 총138편이 선초되어 있는데[57]

57) 선행 연구에서 밝힌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수록 편수에는 차이가 있다. 이경우는 137편으로, 김동욱, 서대석,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는 138편으로, 유필선은 143편으로 낙선재본『

상권에 75편, 하권에 63편이 실려 있다. 이를 한문본 이본인 만종재본 『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를 기준으로 보면 133편이 된다. 즉 한문본에는 한 편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는 낙선재본에서 두 편으로 나뉘어 실려 있기도 한 것이다. 낙선재본의 제92, 93, 97, 98화가 바로 그 예다.

현전하는 『어우야담』의 한문 이본 가운데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실린 138편이 모두 실려 있는 책은 찾을 수 없다. 여기에서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저본으로 확정할 만한 한문 이본은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어우야담』의 이본들을 다섯 계열로 구분하고 낙선재본을 다른 계열의 이본들과 친연성을 보이지 않는 기타 계열로 분류하면서도 낙선재본의 이야기 수록 순서가 청구패설본 및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58] 그런데 본고에서 한문본 『어우야담』의 여러 이본과 낙선재본을 비교 검토한 결과, 낙선재본의 이야기 수록 순서가 청구패설본과는 다르고 국립중앙도서관본, 이능우본, 서울대 고도서본A와는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선초 양상을 몇몇 한문 이본들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59]

어우야담』의 수록 편수를 밝힌 바 있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에는 각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행을 바꾸고 한 칸을 내려쓰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문관 간행본에서는 새 이야기가 시작될 때 ① 행을 바꾸면서 한 칸을 내려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② 행을 바꾸면서 한 칸을 내려쓰지 않는 경우, ③ 행을 바꾸지 않으면서 한 칸을 내려쓰는 경우도 종종 혼용되고 있어 현재 그 원본이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록 편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고는 김동욱의 교주본에서 산정한 수록 편수를 참조하고 이를 따랐음을 밝혀둔다. 이경우, 「『어우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6, 104쪽; 김동욱 교주(1976), 앞의 책, 2~311쪽; 유필선, 「『어우야담』 연구-설화의 유형분류와 기술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17쪽; 노영미, 앞의 논문, 16쪽, 39쪽;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앞의 책, 332~361쪽;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 Ⅰ, 집문당, 1991, 12쪽.

58) 신익철, 앞의 해제,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위의 책, 32~34쪽; 본고의 23쪽 각주 12) 참조.

59) 아래의 표는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위의 책, 332~361쪽에 실린 표와 각 이야기의 원문마다 기재된 수록 관련 정보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낙선재본	만종재본	청패본	야승본	국도본	이능우본	서A본
1	1	16	235	-	1	-	-
2	2	96	179	118	-	73	-
3	3	497	-	-	-	74	-
4	4	114	-	42	-	75	-
5	5	36	-	35	-	78	-
6	6	91-1, 91-3	87 226	157, 158	-	79-1, 79-2	89-1, 89-2
7	7	508	141	-	-	81	-
8	8	279	142	-	-	82	-
9	9	414	-	31	2	-	-
10	10	87	88	159	3	-	-
11	11	484	-	-	4	-	-
12	12	517	261	5	6	-	-
13	13	89-1	176	115	8	-	-
14	14	516	135	-	10	-	-
15	15	467	351	206	11	-	-
16	16	308	166	110	13	-	-
17	17	130	114	-	14	-	40
18	18	113-1	-	325	16	-	-
19	19	140	276	20	17	22	-
20	20	120	267	9	20	13	-
21	21	20	-	45	-	86	109
22	22	88-4	415	29	-	88	90
23	23	350	336	194	-	89	91
24	24	483	138	-	-	90	92
25	25	424	265	189	-	91	-
26	26	142	100	165	-	93	-
27	27	71	380	242	-	96	94
28	28	362	396	250	-	98	96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낙선재본	만종재본	청패본	야승본	국도본	이능우본	서A본
29	29	3	-	312	-	99	97
30	30	336	330-1	313-1	-	100-1	98-1
31	31	26	-	209	-	102	-
32	32	410	-	210	-	103	-
33	33	369	136	-	-	104	99
34	34	163	-	287	-	106	-
35	35	363	405	275	-	107	100
36	36	317	149	-	-	109	101
37	37	471	-	211	-	110	-
38	38	268	-	212	-	112	-
39	39	-	-	213-2	-	113-2	-
40	40	212, -	317, -	263, -	-	48 120	-
41	41	46	365	229	-	122	102
42	42	249	327	182	-	123	-
43	43	7	-	217	-	124	-
44	44	499	-	340	-	125	-
45	45	83	76	153	-	126	103
46	46	84	79	-	-	127	104
47	47	164	366	230	-	128	105
48	48	170	-	-	-	129	106
49	49	394	205	-	-	130-1	-
50	50	395-1 395-2	-, 206	199-1, 199-2	-	130-2, 130-3	-
51	51	-	-		-	-	-
52	52	468	-	98	-	131	-
53	53	435	-	-	-	132	-
54	54	48	408	288	-	133	10
55	55	282	199	-	-	135	12
56	56	407	-	-	-	136	-
57	57	186	323	180	-	137	-
58	58	15-1, 15-2	283, -	24 218	-	138-1, 138-2	-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낙선재본	만종재본	청패본	야승본	국도본	이능우본	서A본
59	59	327	-	-	-	139	13
60	60	202	311	262	-	140	14
61	61	396	204	-	-	142	16
62	62	361	-	-	-	143	-
63	63	93	89	-	-	144	17
64	64	103	152	-	-	145	18
65	65	44	403	274	-	146	-
66	66	402	183	120	-	147	19
67	67	415	196	131	-	148, 149	-
68	68	389	-	97	-	150	20
69	69	253	-	99	-	153	21
70	70	397	198	-	-	155	22
71	71	121	420	298	-	156	-
72	72	66-2	325	303	93	-	6
73	73	10	232	-	97	-	7
74	74	34	353	219	98	-	-
75	75	463	-	-	99	-	-
76	76	291	-	257	-	157	-
77	77	281	263	-	-	158	23
78	78	149	156	63	-	160	-
79	79	43	173	-	-	161	25
80	80	25	252	148	-	-	-
81	81	1	-	-	-	167	-
82	82	5	-	-	-	168	-
83	83	404	377	239	-	171	26
84	84	330	-	-	-	172	-
85	85	45	368	232	-	174	27
86	86	339	338	196	-	179	62
87	87	285	-	101	-	180	-
88	88	434	182	-	-	183	-
89	89	12	-	104	-	200	-
90	90	115	85	-	-	208	-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낙선재본	만종재본	청패본	야승본	국도본	이능우본	서A본
91	91	445	357	222	-	53	79
92	92	352-1	-	40-1	-	52-1	74
93	93	352-3, 352-4	-	40-3, 40-4	-	52-3, 52-4	76, 77
94	94	446	-	40-5	-	-	78
95	95	405	367	231	-	56	81
96	96	278	-	41	-	57	-
97	97	441-1	-	315-1	-	60-1	-
98	98	441-2	-	315-2	-	60-2	-
99	99	340	-	186	-	61	82
100	100	227	273	14	-	63, 64	83, 84
		69	381	243			
101	101	444	190	126	-	65	85
102	102	145	97	-	-	69	-
103	103	143	-	316	-	70	-
104	104	310	91	-	-	71	-
105	105	235	360	225	-	72	105
106	106	156	-	329-1	21-1	-	-
107	107	147	113	173	21-2	-	-
				329-1			
108	108	515	410	-	22	-	-
109	109	9	231	140	24	-	67
110	110	522	400	252	26	-	-
111	111	452	-	-	35	7	68
112	112	47	370	234	36	-	69
113	113	293	264	7	42	9	-
114	114	392	-	333	41	12	71
115	115	4	-	334	43	-	-
116	116	437	162	107	44	-	-
117	117	438, 439	-	335, 336	45, 46	-	-
118	118	429	379	-	49	210	-
119	119	502-1	119	-	50	-	-

순서	한글본	한문본					
	낙선재본	만종재본	청패본	야승본	국도본	이능우본	서A본
120	120	127	104	167	51	-	-
121	121	481	164	-	52	-	-
122	122	416	197	-	53	-	-
123	123	450	376	238	54	-	42
124	124	311	-	-	55	-	-
125	125	231	313	69	56	-	43
126	126	305	221	137	57	-	-
127	127	379	157	64	63	-	-
128	128	32	193	-	65	-	-
129	129	512	129-1	-	67-1	-	-
130	130	137	99	-	-	-	-
131	131	-	-	-	67-2	-	-
132	132	513	129-2	-	67-3	-	-
133	133	332-2, 332-3	93, 94	161, 162	70-1, 70-2	-	44, 45
134	134	266-1, 266-2, 266-3	191, -, -	38-1, 38-2, 39	80-1, 80-2, 80-3	134-1, 134-2, 134-3	-
135	135	391	237	-	83	-	-
136	136	357	401	253	84	-	-
137	137	417	364	228	88	-	5
138	138	297	201	-	100	-	-

<표 18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한문본 『어우야담』의 선초 양상 비교>

위의 표를 통해 낙선재본의 제9～20화, 제72～75화, 제106～138화와 국립중앙도서관본, 낙선재본의 제2～8화, 제21～90화, 제91～105화, 제111～114화와 이능우본, 낙선재본의 제22～36화, 제41～48화, 제54～70화, 제77～85, 제92～101화, 제109～114화, 제123～133화와 서울대 고도서본A가 이야기의 수록 순서에서 유사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낙선재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 낙선재본과 이능우본, 낙선재본과 서울대 고도서본A가 각각 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낙선재본과 수록 순서에서 연관성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총48편, 서울대 고도서본A에는 총45편 실려 있는 데 비해,

이능우본의 경우 총88편에 이른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낙선재본과 친연성을 갖는다고 지목된 바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이나[60] 서울대 고도서본A에 비해,[61] 이능우본이 이야기의 수록 순서에서 낙선재본과의 친연성을 보다 더 많이 드러내는 이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낙선재본의 제62화는 여러 이본의 집대성으로 이루어진 만종재본을 제외하면 여러 한문 이본 가운데 이능우본에만 실려 있는 셈이어서 낙선재본과 이능우본과의 친연성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그런데 낙선재본에 실려 있는 이야기 중 이능우본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46편이나 되고,[62] 이야기의 수록 순서에서 이능우본이 낙선재본과 강한 유사성을 보이지만, 동시에 분명한 차이 또한 드러낸다는 점에서[63] 이능우본이 낙선재본의 직접적인 저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

60) 신익철, 앞의 해제,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앞의 책, 31~34쪽

61) 이병기는 낙선재본을 소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본『어우야담』을 소개하면서 "한문으로 적힌 규장각장서인 그것과도 같"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 이 "한문으로 적힌 규장각장서"는 신익철이『어우야담』의 이본을 고찰하며 "서울대 고도서본 A"로 명명한 古 3472-3B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장각에는 한문본『어우야담』7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7종 가운데 일사본 3종(一簑古 810.82-Y92e-v.1-2, 一簑古 813.53-Y92eo, 一簑古 813.53-Y92e-v.1-3)은 1953년에 일사 방종현이 기증한 것이고, 가람본 1종(가람古 813.53-Y92e)은 1963년에 가람 이병기가 기증한 것이다. 따라서 이병기가 한글본『어우야담』에 대한 해설을 작성할 당시인 1949년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자료는 奎 11918, 古 3472-3, 古 3472-3B의 3종으로 추려진다. 이 3종의 자료는 모두 1책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奎 11918에는 총261편, 古 3472-3에는 총 84편, 古 3472-3B에는 총 114편이 수록되어 있어 한글본『어우야담』과는 책권수, 수록 이야기의 총 편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이 자료들 중 이병기가 한글본과 같다고 지목한 "한문으로 적힌 규장각 장서"『어우야담』이 무엇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古 3472-3B의 경우 이야기의 수록 순서에서 일정 부분 친연성이 확인되는바, 이병기가 낙선재본『어우야담』과의 유사성을 언급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병기의 해설은 이병기(1949), 앞의 해설, 이병기 교주, 앞의 책, 99~100쪽 참조.

62)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1화, 제9~18화, 제44화, 제51화, 제72~75화, 제80화, 제94화, 제106~110화, 제112화, 제115~117화, 제119~133화, 제135~138화가 이능우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63) 낙선재본의 제2~8화까지는 이능우본의 제73~82화에 실려 있는데 이능우본의 제76, 77, 80화가 낙선재본에 탈락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수록 순서가 거의 같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실려 있는 낙선재본의 제9~18화는 이능우본에 실려 있지 않고, 낙선재본의 제19, 20화는 이능우본의 제22, 13화로 실려 있어 수록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이후 낙선재본의 제21~90화는 다시 이능우본의 제86~208화와 수록 순서에서 유사성이 확인되고, 낙선재본의 제91~105화는 이능우본의 앞쪽에 실린 제53~72화와 비슷한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그 뒤에 실린 낙선재본의 제106~110화는 이능우본에 없고, 낙선재본의 제111~114화는 이능우본의 더 앞쪽인 제7~12화와 수록 순서가 다시 유사하게 되어 있다. 낙선재본의 제118화와 제134화는 이능우본에 실려 있지만 수록 순서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다.

한편 낙선재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이능우본, 서울대 고도서본A에는 서로 중복되지 않고 어느 한 쪽에만 실려 있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64] 직접 영향을 주고받은 바 없음이 확인된다. 이에 이 네 이본이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낙선재본은 이능우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서울대 고도서본A와 이야기의 수록 순서에서 친연성을 보여주지만, 낙선재본은 이능우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서울대 고도서본A와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고, 이능우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서울대 고도서본A 또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바가 없다. 그럼에도 낙선재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 낙선재본과 이능우본, 낙선재본과 서울대 고도서본A가 이야기의 수록 순서에서 친연성을 각기 보여준다는 사실은 이 네 이본이 동일한 저본, 혹은 같은 계열의 저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실된『어우야담』
└국립중앙도서관본
└이능우본
└서울대 고도서본A
└ 낙선재본『어우야담』

혹은

┌일실된『어우야담』B→이능우본
② 일실된『어우야담』A→일실된『어우야담』C→국립중앙도서관본
└일실된『어우야담』D→서울대 고도서본A
└일실된『어우야담』E→낙선재본『어우야담』

64) 낙선재본의 제51, 80, 130화는 국립중앙도서관본, 이능우본, 서울대 고도서본A에는 없고 낙선재본에만 실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의 제7, 9, 12, 15, 18, 19, 23, 25, 27, 28, 29, 30, 32, 34화는 낙선재본, 이능우본, 서울대 고도서A본에 없다. 이능우본의 제3, 4, 5, 6, 10, 23, 28, 29, 30, 46, 51, 59, 116, 121, 185, 196, 203, 209화는 낙선재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서울대 고도서A본에 없다. 서울대 고도서본A의 제9, 32, 34, 36, 37, 39, 47, 48, 49, 50, 51, 53, 54, 55, 56, 57, 58, 60, 107, 112화는 낙선재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이능우본에 없다.

그런데 ①의 경우를 상정하기에는 네 이본이 연관성 뿐 아니라 뚜렷한 차이 또한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①보다는 ②와 같이 이들 이본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 낙선재본『어우야담』에 실린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이본은 만종재본이다. 만종재본은 후대에 여러 이본들의 집대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전하는 한문본『어우야담』중 가장 많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이본이다. 만종재본에는 낙선재본의 제39, 51, 131화를 제외한 135편의 이야기들이 모두 실려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 이능우본, 서울대 고도서본A가 만종재본에 비해 이야기의 수록 순서에서 낙선재본과의 친연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이본이기는 하지만, 이본 간의 선초 및 번역의 양상을 비교하기에는 낙선재본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퍽 많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에 난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낙선재본에 수록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확인되는 만종재본을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아 낙선재본의 선초 양상을 검토하되, 번역 양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합본을 참조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65]

(2)『청구야담』: 규장각본・가람본

한글본『청구야담』의 이본으로 규장각본과 가람본 2종이 존재한다. 한글본『청구야담』에는 총 262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바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 자료들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여타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전체 가운데 일부만을 선역(選譯)한 것과 달리 한글본『청구야담』만은 완역(完譯)에 가깝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글본『청구야담』의 서지사항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5) 유몽인 지음,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 옮김, 앞의 책.

구분	규장각본	가람본
소장처	규장각 (奎 2405)	규장각 (가람古 813.08 C422y)
표제/내제	靑邱野談/ 청구야담	靑丘野談/ 청구야담
권책수	19권 19책	19권 19책
책 크기	31.9×22.8cm	33.6×23cm
면수	1462면	1537면
행자수	11行 21~27字	11行 21~27字
판사항	필사본	필사본

<표 19 한글본『청구야담』의 서지 사항>

규장각본과 가람본은 모두 달필의 궁체로 되어 있는데 규장각본은 비교적 작은 글자로 흘려 쓴 반면, 가람본의 글씨는 상대적으로 크고 반듯하다.

두 이본은 권책수, 이야기의 총 편수, 각 권의 수록 사항, 이야기의 수록 순서 등이 완전히 부합한다. 이에 두 이본 간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었음이 짐작되는데, 선행 연구를 통해 규장각본이 가람본의 모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규장각본이 선본(善本)임이 확인된 바 있다.[66]

실제로 이 두 이본을 살펴보면 가람본의 표제가 "靑邱野談"이 아닌 "靑丘野談"으로 되어 있는 점, 규장각본에 혜석(惠石) 조동윤(趙東潤, 1871~1923)의 장서인(藏書印)인 "趙東潤印"이 찍혀 있고 가람본에 이병기 교수의 장서인인 "梅華屋珍玩"이 찍혀 있는 점, 규장각본과 달리 가

66) 박희병은 가람본의 경우 필사 과정에서 더러 잘못 옮겨 적거나 구절을 빠뜨린 데가 있다고 밝히면서 선본(善本)인 규장각본이 가람본의 모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남궁윤은 규장각본의 오자가 가람본에서 정정된 흔적 등을 근거로 박희병의 견해에 동조하였다. 김준형도 책권수와 이야기의 순서가 동일함을 지적하며 가람본이 규장각본을 전사한 본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희병, 「『청구야담』 해제」, 奎章閣資料叢書 文學篇, 『靑邱野談』Ⅰ 上,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16쪽; 남궁윤, 「『청구야담』의 한글번역 양상과 의미」, 『동방학』 30, 동양고전연구소, 2014, 100쪽; 김준형, 「『청구야담』의 국역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555쪽 참조.

람본에는 각 권의 맨 앞에 이야기의 목록이 존재하고 장(張)마다 장차(張次)가 표기되어 있는 점, 몇몇 오탈자가 존재하는 점 외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글본 『청구야담』은 본래 20권 20책이었다가 중도에 제20책이 일실되어 19권 19책이 현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규장각본 표지의 맨 우측[書腦]의 하단에 "共二十"이라고 적힌 총책수 관련 정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병기 교수는 "靑邱野談은 全帙 二十冊인데 第二十의 一冊은 落帙"된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67]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견해를 준신해왔다.[68]

그런데 규장각본 『청구야담』 제19책을 살펴보면 마지막 면에 "終", "쳥구야담권지죵"이라는 기록이 있어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제20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표지의 "共二十"이라는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본래 제1책의 앞에 이야기의 목록이나 서문 등이 적힌 권수(卷首)의 한 책이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69] 제1책부터 제19책까지의 중간에 빠진 권수가 없고 제19책에 책의 내용이 종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책에 다른 결본(缺本)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규장각본 『청구야담』이 내용상 낙질본이 아닌 완질본(完帙本)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수록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7) 이병기 선해(1949), 앞의 책, 99쪽.

68) 정명기(1996), 「한글본 『청구야담』 해제」, 김동욱・정명기 공역, 『청구야담』 상・하, 교문사, 1996, 21쪽; 임형택, 「第二十八・二十九冊 解題」, 이우성 편,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28 『靑邱野談』 上 , 아세아문화사, 1985, 23쪽; 박희병, 앞의 해제, 奎章閣資料叢書 文學篇, 앞의 책, 16쪽; 남궁윤(2014), 앞의 논문, 100쪽; 김준형(2014), 앞의 논문, 554~555쪽.

69) 현재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표지가 개장(改裝)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기록 또한 추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기일 확률도 있다고 생각된다.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1	슈졍졀최효부감호(守貞節崔孝婦感虎)	1-1	1-1	6-1
2	투검슐니비쟝참승(鬪劍術李裨將斬僧)	1-2	1-2	6-2
3	니무변궁협격밍슈(李武弁窮峽擊猛獸)	1-3	1-3	6-3
4	완산기독슈포의쳡(完山妓獨受布衣帖)	1-4	1-4	6-5
5	박상셔착인젼호셩(朴尙書錯認傳呼聲)	1-5	1-5	6-6
6	증강시니반슈형법(拯江屍李班受刑法)	1-6	1-6	6-7
7	츅토실포교획적한(築土室捕校獲賊漢)	1-7	1-7	6-8
8	궤반탁견곤귀미(饋飯卓見困鬼魅)	1-8	1-8	6-9
9	셩훈업불망조강(成勳業不忘糟糠)	1-9	1-9	6-10
10	걸부명튱비완삼졀(乞父命忠婢完三節)	1-10	1-10	6-11
11	방구쥬명마쥬천리(訪舊主名馬走千里)	1-11	1-11	6-12
12	션긔편활니농치슈(善欺騙猾胥弄痴倅)	1-12	1-12	6-13
13	가봉영산신호길디(假封塋山神護吉地)	1-13	1-13	6-14
14	셕일션조ᄃᆡ닌벽(惜一扇措大吝癖)	1-14	1-14	6-15
15	졈명혈동비혜식(占名穴童婢慧識)	2-1	2-1	6-16
16	빙최몽고총득젼(憑崔夢古塚得金)	2-2	2-2	6-17
17	츅사귀부인획싱(逐邪鬼婦人獲生)	2-3	2-3	6-18
18	냥역리각진셰벌(兩驛吏各陳世閥)	2-4	2-4	6-19
19	삼지인경과거향(三知印競誇渠鄕)	2-5	2-5	6-20
20	샹산리누셰튱졀(商山吏屢世忠節)	2-6	2-6	6-21
21	문쇼인삼ᄃᆡ효힝(聞韶人三代孝行)	2-7	2-7	6-22
22	림위경익지현몽(臨危境益齋現夢)	2-8	2-8	6-23
23	션히학빅ᄉᆞ우풍(善諧虐白沙寓諷)	2-9	2-9	6-24
24	활인병됴의힝침(活人病趙醫行針)	2-10	2-10	6-25
25	구부명홍동당고(救父命洪童撞鼓)	2-11	2-11	6-26
26	쟝의ᄉᆞ위국연싱(張義士爲國捐生))	2-12	2-12	6-27
27	니쳥화슈졀돈셰(李淸華守節遯世)	2-13	2-13	6-28
28	진신방피의천명(進神方皮醫擅名)	2-14	2-14	6-29
29	강방셩문변순국(降房星文弁殉國)	2-15	2-15	6-30
30	진츙언입샤곡ᄉᆞ(進忠言入祠哭辭)	2-16	2-16	6-31
31	양승션북관봉긔우(楊承宣北關逢奇耦)	2-17	2-17	2-1
32	니샹셔원쇼결방연(李尙書元宵結芳緣)	2-18	2-18	2-2
33	가야산고운빙손부(伽倻山孤雲聘孫婦)	2-19	2-19	2-3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34	대인도상긱도잔명(大人島商客逃殘命)	2-20	2-20	2-4
35	뎡북창망긔소지익(鄭北窓望氣消災厄)	2-21	2-21	2-5
36	김공싱취ᄌᆞ슈공업(金貢生聚子授工業)	2-22	2-22	2-6
37	과동교빅반인부(過東郊白衲認父)	3-1	3-1	2-7
38	취우약상득ᄌᆞ(聽驟雨藥商得子)	3-2	3-2	2-8
39	쳥가어뉴의득명(聽街語柳醫得名)	3-3	3-3	2-9
40	권두신니싱죵덕(勸痘神李生種德)	3-4	3-4	2-10
41	포광젹구명창권슐(捕獷賊具名唱權術)	3-5	3-5	2-11
42	풍린긱오물음션히(諷吝客吳物音善諧)	3-6	3-6	2-12
43	년쵸동김싱쟉월노(憐樵童金生作月姥)	3-7	3-7	2-13
44	식보긔허싱취동노(識寶氣許生取銅爐)	3-8	3-8	2-14
45	김위쟝휼구쥬진셩(金衛將恤舊主盡誠)	3-9	3-9	2-15
46	박동지위통슈산지(朴同知爲統帥散財)	3-10	3-10	2-16
47	니졀부죵용취의(李節婦從容取義)	3-11	3-11	2-17
48	박남히강기슈공(朴南海慷慨樹功)	3-12	3-12	2-18
49	탄금ᄃᆡ츙복슈시(彈琴臺忠僕收屍)	3-13	3-13	2-19
50	년광뎡금남응변(練光亭錦南應變)	3-14	3-14	2-20
51	피화란현부이식(避禍亂賢婦異識)	3-15	3-15	2-21
52	칙훈명냥쳐명감(策勳名良妻明鑑)	3-16	3-16	2-22
53	젼통제ᄉᆞ미시식지상(田統使微時識宰相)	4-1	4-1	3-1
54	니졀도궁도우가인(李節度窮途遇佳人)	4-2	4-2	3-2
55	텽냥쳐혜리보녕명(聽良妻惠吏保令名)	4-3	4-3	2-23
56	득현부빈ᄉᆞ셩가업(得賢婦貧士成家業)	4-4	4-4	2-24
57	님쟝군산듕우녹님(林將軍山中遇綠林)	4-5	4-5	2-25
58	니조대흑현방디ᄉᆞ(李措大學峴訪地師)	4-6	4-6	2-26
59	권ᄉᆞ문피우봉긔연(權斯文避雨逢奇緣)	4-7	4-7	2-27
60	니동고위겸틱가랑(李東皐爲兼擇佳郎)	4-8	4-8	2-28
61	시음덕남ᄉᆞ연명(施陰德南士延命)	4-9	4-9	2-29
62	셩가업박노진튱(成家業朴奴盡忠)	4-10	4-10	2-30
63	츄기님노셜고ᄉᆞ(秋妓臨老說故事)	4-11	4-11	2-31
64	졀부당난변고의(節婦當難辨高義)	4-12	4-12	2-32
65	득미쳐거ᄉᆞ졈혈(得美妻居士占穴)	4-13	4-13	3-3
66	획듕보혜부틱부(獲重寶慧婦擇夫)	5-1	5-1	3-4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67	김승샹궁도우의기(金丞相窮途遇義妓)	5-2	5-2	3-5
68	됴풍원쇠문방고우(趙豊原柴門訪舊友)	5-3	5-3	3-6
69	송반궁도우구복(宋班窮途遇舊僕)	5-4	5-4	3-7
70	김싱호시슈후보(金生好施受後報)	5-5	5-5	3-8
71	닉시신히슈상은(匿屍身海倅償恩)	5-6	5-6	3-9
72	졈명혈디ᄉ보덕(占名穴地師報德)	5-7	5-7	3-10
73	년궁유신인디궤은(憐窮儒神人貸櫃銀)	5-8	5-8	3-11
74	의유읍지샹상구은(擬與邑宰相償舊恩)	5-9	5-9	3-12
75	텽츅어지샹긔왕ᄉ(聽祝語宰相記往事)	6-1	6-1	3-14
76	치분묘졔셩쥬현몽(治墳墓諸星州現夢)	6-2	6-2	3-15
77	부남싱댱싱표대양(赴南省張生漂大洋)	6-3	6-3	3-13
78	슈형장됴대풍월(受刑杖措大風月)	6-4	6-4	3-17
79	창고가냥샹호걸(唱高歌樑上豪傑)	6-5	6-5	3-19
80	거강포규듕졍녈(拒强暴閨中貞烈)	6-6	6-6	3-20
81	칙형쳐쳥ᄉ화린밍(責荊妻淸士化隣氓)	6-7	6-7	4-1
82	치우상빈승봉명부(治牛商貧僧逢明府)	6-8	6-8	4-2
83	겁구쥬반노슈형(劫舊主叛奴受刑)	6-9	6-9	4-3
84	봉환샹궁유면ᄉ(逢丸商窮儒免死)	6-10	6-10	4-4
85	신복셜호유탐향(信卜說湖儒探香)	6-11	6-11	4-5
86	텽기어피ᄌ등과(聽妓語悖子登第)	7-1	7-1	4-6
87	피실젹노진지졀간(被室謫露眞齋折簡)	7-2	7-2	4-7
88	숑부금셩녀격고(訟夫寃錦城女擊鼓)	7-3	7-3	4-8
89	샤구습여웅투강듕(肆舊習熊鬪江中)	7-4	7-4	4-9
90	뎡명혈우와님간(定名穴牛臥林間)	7-5	7-5	4-10
91	노흑구ᄎ틱싱남(老學究借胎生男)	7-6	7-6	4-11
92	향션달졔인숑명(鄕先達替人送命)	7-7	7-7	4-12
93	굴은옹노과셩가(掘銀甕老寡成家)	7-8	7-8	4-13
94	챵의병현모욱ᄌ(倡義兵賢母勗子)	7-9	7-9	4-14
95	치졍셩과효비불샹(致精誠課曉拜佛像)	7-10	7-10	4-15
96	숑은턱미반칭민아(誦恩德每飯稱閔爺)	7-11	7-11	4-16
97	반동도당고쵸듕(班童倒撞藁草中)	7-12	7-12	4-17
98	향변ᄌ슈통졔ᄉ(鄕弁自隨統帥後)	8-1	8-1	4-18
99	츅관쟝지인타협(逐官長知印打頰)	8-2	8-2	4-19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100	감지샹궁변거흉(憾宰相窮弁據胸)	8-3	8-3	4-20
101	착흉승긔셩빅화구(捉凶僧箕城伯話舊)	8-4	8-4	4-21
102	셜신원완산윤검옥(雪伸寃完山尹檢獄)	8-5	8-5	4-22
103	최곤륜등졔비밍(崔昆崙登第背芳盟)	8-6	8-6	4-23
104	차오산승흥졔화병(車五山乘興題畵屛)	8-7	8-7	4-24
105	편향유박녕셩등과(騙鄕儒朴靈城登科)	8-8	8-8	4-27
106	무거빙샤굴시관(武擧騁辭屈試官)	8-9	8-9	4-25
107	함ᄉ명니샹셔징츈(啣使命李尙書爭春)	8-10	8-10	4-28
108	념의ᄉ풍악봉신승(廉義士楓岳逢神僧)	8-11	8-11	5-1
109	오안ᄉ영호봉셜싱(吳按使永湖逢薛生)	9-1	9-1	5-2
110	녀묘측효감천호(廬墓側孝感泉虎)	9-2	9-2	5-3
111	연부명셩동텬신(延父命誠動天神)	9-3	9-3	5-4
112	득금항냥부인샹양(得金缸兩夫人相讓)	9-4	9-4	5-5
113	채산삼이약상병명(採山蔘二藥商幷命)	9-5	9-5	5-6
114	연쳔금홍상셔의긔(捐千金洪象胥義氣)	9-6	9-6	5-7
115	득이쳡권샹셔복연(得二妾權上舍福緣)	9-7	9-7	5-8
116	안빈궁십년독셔(安貧窮十年讀易)	9-8	9-8	5-9
117	션희학일시우거(善戲謔一時寓居)	9-9	9-9	5-10
118	문유치츌가벽곡(文有采出家辟穀)	9-10	9-10	5-11
119	챠ᄉᄌ발분녁흑(蔡士子發憤力學)	9-11	9-11	5-12
120	퇴젼야뎡돈녕향복(退田野鄭知敦享福)	9-12	9-12	5-13
121	식ᄉ긔신쥬촌지음(識死期申舟村知音)	9-13	9-13	5-14
122	훼음ᄉ사귀걸명(毁淫祠邪鬼乞命)	9-14	9-14	5-15
123	폐관뎡의구보쥬(吠官庭義狗報主)	9-15	9-15	5-16
124	관셔빅일긔치기(關西伯馹騎馳妓)	9-16	9-16	5-17
125	쳥쥬슈권슐포도(淸州倅權術捕盜)	9-17	9-17	5-18
126	투냥졔병유년운(投良劑病有年運)	9-18	9-18	5-21
127	실가인삭탄박명(失佳人數嘆薄倖)	9-19	9-19	5-22
128	탁죵신녀협연싱(托終身女俠捐生)	9-20	9-20	5-23
129	틱부셔혜비식인(擇夫婿慧婢識人)	10-1	10-1	5-24
130	니후죵녁힝효의(李後種力行孝義)	10-2	10-2	5-25
131	덕원녕쳔명긔국(德原令擅名棋局)	10-3	10-3	5-26
132	틱당우승담역니(澤風堂遇僧談易理)	10-4	10-4	5-27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133	니샹ᄉ인병오도묘(李上舍因病悟道妙)	10-5	10-5	5-28
134	차오산격병호빅운(車五山隔屛呼百韻)	10-6	10-6	5-29
135	한셕봉승흥쇄일장(韓石峯乘興灑一障)	10-7	10-7	5-30
136	협밍오독타인츅(峽氓誤讀他人祝)	10-8	10-8	5-31
137	지샹희국미화죡(宰相戱掬梅花足)	10-9	10-9	5-32
138	득쳠ᄉᄋ시유약(得僉使兒時有約)	10-10	10-10	5-33
139	양쟝원미과필몽(養壯元每科必夢)	10-11	10-11	5-34
140	결방연이팔낭ᄌ(結芳緣二八娘子)	10-12	10-12	5-35
141	시신슐토졍쳥부인(施神術土亭聽夫人)	11-1	11-1	9-1
142	혹요기칙실츅디인(惑妖妓冊室逐知印)	11-2	11-2	9-2
143	긍박동녕셩쥬혼(矜朴童靈城主婚)	11-3	11-3	9-3
144	턱숀셔신지션샹(擇孫婿申宰善相)	11-4	11-4	9-4
145	진미감뉴샹쳥가어(進米泔柳常聽街語)	11-5	11-5	9-5
146	탁대잌박녑슈신방(度大厄朴曄授神方)	11-6	11-6	9-6
147	낙계쵼니지봉향유(樂溪村李宰逢鄕儒)	11-7	11-7	9-7
148	경포호슌샹인션연(鏡浦湖巡相認仙緣)	11-8	11-8	9-8
149	우병ᄉ부방득현녀(禹弁赴防得賢女)	11-9	11-9	9-10
150	면대화무녀건신(免大禍巫女賽神)	11-10	11-10	9-11
151	소년노튱복명원(訴輦路忠僕鳴寃)	11-11	11-11	9-12
152	외엄구한부츌시언(畏嚴舅悍婦出矢言)	11-12	11-12	9-13
153	입니젹궁유셩가업(入吏籍窮儒成家業)	12-1	12-1	9-14
154	강양민공닙쳥빅ᄉ(江陽民共立淸白祠)	12-2	12-2	9-15
155	흥원시죵유쳥학동(興元士從遊靑鶴洞)	12-3	12-3	9-16
156	솔닉힝옹쳔봉뇌우(李內行甕遷逢雷雨)	12-4	12-4	9-17
157	구쳐녀화담시신술(救處女花潭施神術)	12-5	12-5	9-18
158	슈경ᄉ녕작지은(隨京鄕靈鵲知恩)	12-6	12-6	9-19
159	뎡겸지듕국천화명(鄭謙齋中國擅畵名)	12-7	12-7	9-21
160	밍감ᄉ동악문긔ᄉ(孟監司東岳聞奇事)	12-8	12-8	9-22
161	죵음덕윤공식보(種陰德尹公食報)	12-9	12-9	9-23
162	왕남경뎡상힝화(往南京鄭商行貨)	12-10	12-10	9-24
163	문명복듕노우구복(問名卜中路遇舊僕)	12-11	12-11	9-25
164	환금탁강도화냥민(還金槖强盜化良民)	12-12	12-12	9-26
165	보희신역마댱명(報喜信櫪馬長鳴)	12-13	12-13	9-27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166	문과셩몽졉가증(聞科聲夢蝶可徵)	12-14	12-14	9-28
167	뇨관문두아승당(鬧官庭痘兒升堂)	12-15	12-15	9-29
168	천장옥슈지디칙(擅場屋秀才對策)	12-16	12-16	9-30
169	봉긔연빈ᄉ득이랑(逢奇緣貧士得二娘)	12-17	12-17	9-32
170	복원듕구쳐슈계(伏園中舊妻授計)	12-18	12-18	9-33
171	심고묘목은현몽(尋古墓牧隱現夢)	12-19	12-19	9-34
172	홍ᄉ문동악유별계(洪斯文東岳遊別界)	12-20	12-20	9-35
173	셩허빅남노우션직(成虛白南路遇仙客)	12-21	12-21	9-36
174	홍샹국됴궁만달(洪相國早窮晩達)	13-1	13-1	7-1
175	뉴샹샤션빈후부(柳上舍先貧後富)	13-2	13-2	7-2
176	노옥계션부봉가기(盧玉溪宣府逢佳妓)	13-3	13-3	7-4
177	투삼귤공듕현녕(投三橘空中現靈)	13-4	13-4	7-5
178	셤군ᄉ졍샹졍남(殲群蛇亭上逞勇)	13-5	13-5	7-6
179	촉셕누슈의장죵(矗石樓繡衣藏踪)	13-6	13-6	7-7
180	연광졍경교힝녕(練光亭京校行令)	13-7	13-7	7-8
181	년상녀지상촉궁변(憐孀女宰相囑窮弁)	13-8	13-8	7-9
182	진졔슈녕리긔니반(進祭需嶺吏欺李班)	13-9	13-9	7-10
183	쵸옥각니병ᄉ고용(超屋角李兵使賈勇)	13-10	13-10	7-11
184	득가기심샹국셩명(得佳妓沈相國成名)	13-11	13-11	7-12
185	췌뉴쟝니혹ᄉ망명(贅柳匠李學士亡命)	13-12	13-12	7-13
186	치산업허듕ᄌ셩부(治産業許仲子成富)	14-1	14-1	7-14
187	졔신쥬진셔승언문(題神主眞書勝諺文)	14-2	14-2	7-15
188	부픽영부인샤명긔(赴浿營婦人赦名妓)	14-3	14-3	7-16
189	김남곡싱ᄉ기유이(金南谷生死皆有異)	14-4	14-4	7-18
190	게졈ᄉ니졍익식인(憩店肆李貞翼識人)	14-5	14-5	7-20
191	딕과방니랑젹심(待科傍李郎摘甚)	14-6	14-6	7-21
192	초신쟝곽싱시술(招神將郭生施術)	14-7	14-7	7-22
193	챵의ᄉ뇌냥쳐셩명(倡義使賴良妻成名)	14-8	14-8	7-24
194	향유용계만듁쳔(鄕儒用計滿竹泉)	14-9	14-9	7-25
195	영기양광ᄉ곡슈(營妓佯狂隨谷倅)	14-10	14-10	7-26
196	무거ᄌ샤봉항우(武擧廢舍逢項羽)	14-11	14-11	7-27
197	신겸권술편지상(新傔權術騙宰相)	14-12	14-12	7-28
198	샹슉은셰숑의자(償宿恩歲送衣資)	15-1	15-1	1-1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199	쳘음샤화쇼금단(撤淫祠火燒錦緞)	15-2	15-2	1-2
200	쇄음낭셔빅농구우(鎖陰囊西伯弄舊友)	15-3	15-3	1-3
201	과증돈듕야방신교(裹蒸豚中夜訪神交)	15-4	15-4	1-4
202	의남님슈환유쳘(義男臨水喚兪鐵)	15-5	15-5	1-5
203	노온녀환납쇼실(老媼慮患納小室)	15-6	15-6	1-6
204	몽황뇽지셩발쇼미(夢黃龍至誠發宵寐)	15-7	15-7	1-7
205	숑ᄉ간웅조동텬텽(誦斯干雄講動天聽)	15-8	15-8	1-8
206	홍샹셔슈뎡면인(洪尙書受挺免刀)	15-9	15-9	1-9
207	녀슈의이화졉목(呂繡衣移花接木)	15-10	15-10	1-10
208	방명복원옥득신(訪名卜寃獄得伸)	15-11	15-11	1-11
209	과장부셔화만틔(誇丈夫西貨滿馱)	15-12	15-12	1-12
210	졈길디어유셕함(占吉地魚遊石函)	15-13	15-13	1-13
211	현쇼몽뇽만상복(現宵夢龍滿裳幅)	16-1	16-1	1-14
212	복쥬슈튱비탁금호(復主讐忠婢托錦湖)	16-2	16-2	1-15
213	험이몽셔빅식젼신(驗異夢西伯識前身)	16-3	16-3	1-16
214	뇨왜구마의명견(料倭寇麻衣明見)	16-4	16-4	1-17
215	장삼시호무음덕(葬三屍湖武陰德)	16-5	16-5	1-18
216	닙묘셕공장감효부(立墓石工匠感孝婦)	16-6	16-6	1-19
217	뎡가셩디ᄉ텽치동(定佳城地師聽痴僮)	16-7	16-7	1-20
218	유의리군도화냥민(諭義理羣盜化良民)	16-8	16-8	1-21
219	어쇼쟝투아셜부긱(語消長偸兒說富客)	16-9	16-9	1-22
220	지금셩쟝살김한(宰錦城杖殺金漢)	16-10	16-10	1-24
221	궁유궤계득과환(窮儒詭計得科宦)	16-11	16-11	1-25
222	녀샹탁ᄉ등대텬(呂相托辭登大闡)	16-12	16-12	1-26
223	대영젼의셩슈졈풍(貸營錢義城倅占風)	17-1	17-1	8-1
224	득거산졔쥬빅양병(得巨産濟州伯佯病)	17-2	17-2	8-2
225	교ᄋ동히인승위ᄉ(敎衙童海印寺僧爲師)	17-3	17-3	8-3
226	샤궁유뉴통졔ᄉ슈보(赦窮儒柳統使受報)	17-4	17-4	8-4
227	귀물미야삭명쥬(鬼物每夜索明珠)	17-5	17-5	8-5
228	젹괴듕쇼쳑댱검(賊魁中宵擲長劒)	17-6	17-6	8-6
229	홍쳔읍슈의노죵(洪川邑繡衣露踪)	17-7	17-7	8-8
230	노옹긔우범졔독(老翁騎牛犯提督)	17-8	17-8	8-9
231	신부반호구쟝부(新婦拚虎救丈夫)	17-9	17-9	8-10

순서	제목	한글본		한문본
		규장각본	가람본	버클리본
232	설별과쇼년고등(設別科少年高中)	17-10	17-10	8-11
233	전셔봉쳔리방부친(傳書封千里訪父親)	17-11	17-11	8-13
234	뎜텬셩심협봉이인(覘天星深峽逢異人)	17-12	17-12	8-14
235	문이형낙강봉포은(問異形洛江逢圃隱)	17-13	17-13	8-16
236	좌초당삼노양셩(坐草堂三老禳星)	17-14	17-14	8-17
237	회림관ᄉ유문상(會琳宮四儒問相)	17-15	17-15	8-18
238	유픽영풍뉴셩ᄉ(遊浿營風流盛事)	18-1	18-1	8-19
239	과금강급난고의(過錦江急難高義)	18-2	18-2	8-20
240	셜유원부인식쥬긔(雪幽寃夫人識朱旗)	18-3	18-3	8-22
241	영산업부부이방(營産業夫婦異房)	18-4	18-4	8-23
242	획싱금부ᄌ동궁(獲生金父子同宮)	18-5	18-5	8-24
243	쳡힝쥬권원슈긔공(捷幸州權元帥奇功)	18-6	18-6	8-25
244	겁왜승뉴거ᄉ명식(怯倭僧柳居士明識)	18-7	18-7	8-26
245	산히관도독오노병(山海關都督鏊虜兵)	18-8	18-8	8-27
246	쳥셕동텬쟝투검긱(靑石洞天將鬪劍客)	18-9	18-9	8-28
247	보즁은운남치미아(報重恩雲南致美娥)	18-10	18-10	8-29
248	향산과위셩봉모션(餉山果渭城逢毛仙)	18-11	18-11	8-30
249	쟉션ᄉ슈의계홍승(作善事繡衣繫紅繩)	18-12	18-12	8-21
250	검암시필부히원(檢巖屍匹婦解寃)	19-1	19-1	10-2
251	박천군지인효츙(博川郡知印效忠)	19-2	19-2	10-3
252	진양셩의기샤싱(晋陽城義妓捨生)	19-3	19-3	10-4
253	니졀도믹쟝우신승(李節度麥場逢神僧)	19-4	19-4	10-5
254	김승샹과뎐견이인(金丞相瓜田見異人)	19-5	19-5	10-6
255	식단구뉴랑표히(識丹邱劉郎漂海)	19-6	19-6	10-7
256	방도원권싱심진(訪桃源權生尋眞)	19-7	19-7	10-8
257	거북산금남셩대공(據北山錦南成大功)	19-8	19-8	10-9
258	득지보가호미긔병(得至寶賈胡買奇病)	19-9	19-9	10-10
259	강대현션아졍산실(降大賢仙娥定産室)	19-10	19-10	10-11
260	감쥬은노승졈명혈(感主恩奴僧占名穴)	19-11	19-11	10-12
261	궤쥬셕냥의쥬공(餽酒石良醫奏功)	19-12	19-12	10-13
262	환옥동지상상치(還玉童宰相償債)	19-13	19-13	10-14

<표 20 한글본『청구야담』의 선초 양상>

앞서 한글본 『청구야담』이 완질본(完帙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글본 『청구야담』은 한문본의 모든 이야기가 완역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현전하는 여러 한문본 가운데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262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자료는 총 290편이 수록된 버클리대본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일찍이 규장각본의 저본이 버클리대본 혹은 "버클리대본과 동궤에 놓이는 아직껏 소개되지 아니한 이본"으로 추정되었던 것이다.[70]

이후 문면의 비교를 통해 버클리대본이 규장각본의 직접적인 저본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현전하는 한문본 『청구야담』의 이본 가운데서는 한글본의 저본을 찾을 수 없음이 밝혀지게 되었다.[71] 그럼에도 다른 특정한 이본을 규장각본의 저본으로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다가 버클리본이 규장각본의 이야기를 모두 수록하고 있는 유일한 한문본으로 현전하는 이본들 가운데 가장 선본(善本)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규장각본 『청구야담』 연구는 모두 버클리본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수행되어 왔다.[72]

현전하는 한문본 『청구야담』의 여러 이본 가운데 규장각본에 수록된 이야기 262편을 모두 포함하는 이본이 버클리대본 뿐이라는 점, 버클리대본과 규장각본의 이야기 수록 순서에 친연성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버클리대본을 규장각본의 직접적인 저본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규장각본의 저본이 버클리대본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이본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된다.[73] 선행 연구에서 버클리대본과 규장각본 간에 영

70) 정명기, 앞의 해제, 김동욱・정명기 공역, 앞의 책, 21쪽.

71) 이강옥,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 19세기 야담의 구연, 기록, 번역」,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353쪽; 남궁윤(2014), 앞의 논문, 101~106쪽; 김준형(2014), 앞의 논문, 555쪽.

72) 김동욱・정명기 공역, 앞의 책; 이강옥, 앞의 논문; 남궁윤(2014), 앞의 논문; 김준형(2014), 위의 논문.

73) 버클리대본 『청구야담』에서 종종 자구의 오류 및 허자의 생략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문 이본들과 비교할 때 구절의 탈락이나 내용의 변화 등은 보이지 않으므로 현전하는 버클리대본은 여러 한문본 『청구야담』의 이본 중 가장 선본(善本)으로 지목되었다. 버클리대본 다음으로 많은 이야기가 실린 동양문고본의 경우 『계서잡록』 계통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서사의 확장이 이루어진바 정본(正本)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이본으로 밝혀졌다. 한문본 『청구야담』의 이본에 대해서는 임완혁, 「『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회, 2000, 179~185쪽, 201쪽 참조.

향 관계가 없었다는 근거로 제시된 문면의 차이들은 대개 한 두 글자 정도인바[74] 이는 전사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전하지는 않지만, 버클리대본과 수록 이야기들을 온전히 공유하면서도 문면에서는 사소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한문본『청구야담』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저본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이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실된 한문본『청구야담』→버클리대본『청구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

혹은

② 일실된 한문본『청구야담』A→버클리대본『청구야담』
↳일실된 한글본『청구야담』B→규장각본『청구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오탈자로 볼 때 규장각본『청구야담』은 한문본이 처음 한글로 번역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한글본을 전사한 것임이 추정된다.[75] 이에 규장각본『청구야담』은 ②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이 내용상 낙질본이 아니라 완질본이라는 사실과, 규장각본『청구야담』의 한문본 저본이 버클리대본과 퍽 비슷한 이본이었으리라는 추론은『청구야담』이 한문본에서 한글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탈락된 몇몇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또 일반적으로 한글 번역본 야담 자료가 선역(選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버클리대본과 유사한 어느 이본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74) 이강옥, 앞의 논문, 353쪽; 남궁윤(2014), 앞의 논문, 101~106쪽.

75) 오탈자를 통해 규장각본이 한글본 저본을 전사한 이본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규장각본의 문면에는 전사 과정에서 글자가 빠지거나 잘못 쓰인 예가 종종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규장각본의 한글본 저본의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필자가 추론을 통해 채워 넣거나 정정한 것이다.
① 오자: 삼일 유가ᄒᆞ고(규장각본의 한글본 저본 추정)→삼일 유과ᄒᆞ고 (규장각본 6권 제11화)
② 탈자: 비를 ᄒᆞᆫ가지로 못ᄒᆞᆯ지라.(규장각본의 한글본 저본 추정)→비를 ᄒᆞᆫ가로 못ᄒᆞᆯ지라. (규장각본 6권 제3화)

기준에 맞지 않는 몇몇 이야기들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버클리대본(290편)을 기준으로 보면 28편이 규장각본 『청구야담』으로 번역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본고는 버클리대본과의 비교를 통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수록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한글본 『청구야담』의 경우 한문본의 몇몇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번역되었으므로 엄밀히 말해 선초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모두 선역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글본 야담 자료들의 선초 양상을 논하는 과정에서 한글본 『청구야담』에 실리지 못한 이야기들의 탈락 양상 또한 살피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람본의 모본으로 추정되고, 두 이본 중 선본(善本)으로 지목된 규장각본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를 버클리대본과 비교하며 한글본 『청구야담』의 탈락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다만 번역 양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여러 이본을 검토한 한문본 『청구야담』의 교합본과[76] 또 다른 한글본인 가람본 『청구야담』도 참조하기로 한다.

이상에서는 한글본 야담 자료들을 개관하고, 그 저본을 가늠해보면서 한글본의 비교 대상으로 삼을 한문본을 비정(比定)할 수 있었다.

2. 한글본 야담의 형성 및 향유

선행 연구를 통해 한글본 야담의 형성 및 향유에 관한 몇몇 견해들이 제출된 바 있다. 한글본 야담이 궁중 혹은 사대부가의 여성 독자를 위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거듭 지적되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본 야담의 독자층에 어떤 층위가 존재하는지, 또 한글본 야담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 하에 형성되었는지는 거의 밝혀지지 못했

76) 이강옥 옮김, 『청구야담』 상·하, 문학동네, 2019.

다. 여성 독자를 위한 강독사의 대본으로 한글본 야담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추론된 바 있지만[77] 그에 대한 확정적인 근거가 제시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의 형성과 관련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현재로서는 한글본 야담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목적에서 선초되고 번역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한글본 야담의 향유에 관한 논의는 대개 ① 궁중에서의 향유와 ② 궁중 혹은 상층 사대부가 여성의 향유에 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①은 향유 장소, ②는 향유층에 관한 것이다.

최민열본 『천예록』은 서체와 책에 보이는 기록을 근거로 궁중에서 향유되었음이 확인되었다.[78] 규장각본 『청구야담』은 서체, 장서인(藏書印), 소장처, 내용의 변개 양상 등을 바탕으로 규문의 수요에 응해 번역되어 궁중이나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들 사이에서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79] 한편 국민대본 『동패낙송』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책의 이면에 적힌 내훈류와 가사 작품 등의 기록을 근거로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들에 의해 읽혔을 것으로 추론되는가 하면,[80] 민간에서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81] 서체 등을 이유로 궁중에서 향유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82]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규장각본 『청구야담』을 대상으로 한글본 야담의 향유층을 살피면서 그 근거로 서체, 소장처, 장서인, 책에 보이는 기록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한글본 야담의 향유와 관련하여 특히 장서인과 책에 남아 있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궁체가 궁 안에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여성 특유의 한글 서체로 통용되기도 했음을 고려하면[83] 어느 한글본

77) 이강옥, 앞의 논문, 350~353쪽 참조.
78) 김준형(2007), 앞의 논문, 365쪽; 남궁윤(2011), 앞의 논문, 87쪽.
79) 임형택(1985), 앞의 해제, 이우성 편, 앞의 책, 23쪽; 박희병, 앞의 해제, 奎章閣資料叢書 文學篇, 앞의 책, 16~17쪽; 김준형(2007), 앞의 논문, 558쪽; 이강옥, 위의 논문, 357쪽, 367쪽.
80) 백승호, 앞의 논문, 233쪽.
81) 김준형(2007), 위의 논문, 369쪽, 378쪽.
82) 남궁윤(2011), 위의 논문, 94쪽.
83) 여성들의 한글 서체로 궁체가 통용되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김하라, 「통원(通園) 유만주(兪晩柱)

야담 자료가 궁체로 쓰였다고 해서 이를 곧장 궁중에서 향유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규장각이 본래 왕실 도서관이었다고 해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한글본 『청구야담』이 반드시 옛 규장각에서부터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서체, 소장처와 같은 불확실한 정보들은 잠시 뒤로 미루어두고 한글본 야담 자료에 보이는 장서인과 관련 기록들을 살피면서 한글본 야담의 향유에 대해 가늠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연대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장서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대본 『어우야담』에는 4개의 장서인이 찍혀 있는데, 그 가운데 "豐産世家", "柳時浣印"이라는 장서인이 식별된다. 류시완(柳時浣, 1915~1994)씨는 경상북도 상주에 세거한 풍산 류씨의 후손으로서 1986년에 약 1,000종 3,500권에 달하는 가문의 구장본들을 연세대 도서관에 우천문고로 기증했다.[84] 이에 연세대 도서관 우천문고에 소장되어 있으면서 "柳時浣印"이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 이 책 또한 풍산 류씨 가문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혜석(惠石) 조동윤(趙東潤, 1871~1923)의 장서인(藏書印)인 "趙東潤印"이 찍혀 있다. 조동윤의 아버지인 조영하(趙寧夏, 1845~1884)는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의 친정 조카로 공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인물인데 신정왕후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즉, 조동윤은 신정왕후의 재종손(再從孫)이 된다. 이에 이 책이 왕실의 외척인 풍양 조씨 집안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85]

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一考)」,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227쪽;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405쪽 참조.

84) 선행 연구를 통해 유성룡(柳成龍)의 3남 유진(柳袗)이 상주에 터를 잡은 후 유심춘(柳尋春)-유후조(柳厚祚)-유주목(柳疇睦) 등이 세거하였으며, 그 후손인 류시완씨가 1986년에 약 1,000종 3,500권의 구장본을 연세대 우천문고로 기증하였음이 언급된 바 있다. 이 선행 연구에서 검토된 연세대 우천문고 소장 『남보(南譜)』에도 유주목의 고손자인 강사(江史) 류시완(柳時浣)씨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고 한다. 김영진, 「朝鮮後期 黨派譜 硏究(2)-『南譜』」, 『대동문화연구』 9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82쪽 참조.

85) 선행 연구에서는 이 장서인을 근거로 규장각본 『청구야담』이 왕실 혹은 풍양 조씨 집안과 같이 왕실과 연계된 최상층의 집안과 그 주변에서 읽혔을 것임이 추정된 바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찍힌 장서인을 근거로 그 향유층을 추정한 내용은 김준형(2014), 앞의 논문, 554쪽, 557~558쪽 참조.

이상에서 연대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장서인을 통해 두 책이 공통적으로 사대부가에서 읽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경우 왕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최상층의 사대부가에서 향유되었고, 그 청구기호로 볼 때 이 책이 왕실의 도서관인 규장각에서부터 소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86] 연대본 『어우야담』의 향유층과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음을 지적해둔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이 왕실의 인척인 최상층의 사대부가에서 읽혔을 뿐 아니라, 왕실에서도 향유되었음이 추정되는 것이다. 신정왕후와 조동윤이 직접 대면하기도 하였던바,[87] 이를 통해 이 책이 왕실과 조동윤 집안에서 향유될 수 있었던 경로가 짐작된다.

다음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 보이는 관련 기록들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명기본 『천예록』이나 연대본 『어우야담』 등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한글본 야담의 향유에 대한 실마리를 던져주는 비교적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기록을 작성한 필사자는 단순히 책을 베껴 쓰는 역할만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독자이기도 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총10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필사기 등의 관련 기록은 5종의 책에서 찾을 수 있다. 1편의 장서기와 5편의 필사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86) 규장각 도서는 규장각에 수입된 순으로 奎 다음에 숫자를 붙였는데, <奎 19000>번대까지는 대개 조선시대부터 소장되어 있던 자료에 붙인 청구기호이고, <古 DDC 분류>에 해당하는 서적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고서로 해방 이후에 수집된 자료를 규장각으로 옮긴 것임이 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규장각본과 가람본 『청구야담』의 청구기호는 각각 <奎 2405>와 <가람古 813.08-C422y>이다. 이에 규장각본은 조선시대의 규장각에서부터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가람본의 경우는 후대에 규장각 도서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도서의 청구기호와 규장각으로의 수입 순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류준경,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0, 115~116쪽 참조.

87) 『승정원일기』에 고종이 조동윤으로 하여금 신정왕후[大王大妃殿]에게 문안드리라고 한 전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동윤이 신정왕후와 직접 대면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 23년 병술(1886) 12월 25일(癸未) 조, 동몽교관 조동윤은 대왕대비전에 문안하라는 전교>에 "김정규에게 전교하기를, "동몽교관 조동윤(趙東潤)을 시켜 대왕대비전에 문안하도록 하라.(傳于金貞圭曰: "童蒙敎官趙東潤, 使之承候於大王大妃殿.")"는 내용이 보인다.

자료명	소장처	기록의 구분	내용	기록처	포함 항목
어우야담	연세대	장서기	어우야담은 지〃ᄒᆞᆫ □□이라 볼ᄉᆞ록 우읍다 셰상의 긔이ᄒᆞᆫ 일도 만고 〃이ᄒᆞᆫ 일도 허다ᄒᆞ다 우리 한마님은 이러탓 조흔 칙은 ᄌᆞ손들 보라 뼈두셧사니 외증조ᄂᆞᆫ 어딕 ᄀᆞ고 무석불번ᄒᆞᆫ ᄌᆞ손들이 살어니 ᄋᆡ답고 극분ᄒᆞ니라	앞 표지	필사자
		필사기	갑ᄌᆞ 오월 녕오일 전셔ᄒᆞ다 눈은 어둡고 붓 고약ᄒᆞ니 더욱 흉괴셩ᄌᆞ 마니 되여시나 함부로 천히ᄒᆞ여 보이지 말나 말셔거리ᄒᆞᆯ 것도 잇고 보암즉 ᄒᆞᆫ 것도 이시니 앗겨 샹히오디 말나	본문 뒤	필사 시기
천예록	최민열씨	필사기	셔 상궁	본문 첫 면 우측 하단	필사자
	정명기 교수	필사기	신미 지월 초ᄉᆞ일 필셔ᄒᆞ다 숑현 김 소져 십일 셰의 쓴 것	본문 뒤	필사 시기, 필사 장소, 필사자
동패낙송	국민대	필사기	갑인 계하 초삼 시작ᄒᆞ야 초오 ᄆᆞᆺ다	본문 뒤	필사 시기
	서강대	필사기	슌뎡 긔원후 ᄉᆞ병진 냥월 한완 근셔	본문 뒤	필사 시기
기문총화	서강대	필사기	상동(上同)	상동 (上同)	상동 (上同)

<표 21 한글본 야담 자료의 장서기 및 필사기 일람>

위의 표를 통해 대부분의 경우 간략한 필사기만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연대본 『어우야담』에는 장서기와 필사기가 함께 쓰여 있다. 연대본 『어우야담』의 장서기와 필사기는 한글본 야담 자료에 보이는 관련 기록 가운데 가장 긴 것들이기도 하다.

연대본 『어우야담』의 장서기를 통해 이 책을 소장한 사람의 할머니[우리 한마님]가 이 책을 필사해두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맥상 이 할머니는 소장자의 조모가 아니라 이 글에서 그리워하는 대상인

외증조모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앞서 장서인을 통해 이 책이 상주에 세거한 풍산 류씨 집안에 소장되어 향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책이 본래부터 풍산 류씨가에서 필사된 것이 아니었고 풍산 류씨와 혼인 관계를 맺은 어느 가문에서 만들어진 이후 풍산 류씨가로 흘러 들어와 향유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88]

필사기의 "눈은 어둡고 붓 고약ᄒᆞ니"라는 구절에서 짐작되듯 필사자는 노년기에 이 책을 필사했다. 이는 이 책을 보게 될 자손들에게 "함부로 천히 ᄒᆞ여 보이지 말나", "앗겨 샹히오디 말나"와 같이 하대하는 말투로 당부한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필사기의 "갑ᄌᆞ 오월 녕오일 전셔ᄒᆞ다"는 내용에서 이 책이 어느 갑자년(甲子年)에 전서(轉書)되었음이 확인된다. 『어우야담』은 1622년 이후에 편찬되었으므로[89] 이 책이 전서된 갑자년은 1622년 이후인 1624, 1684, 1744, 1804, 1864, 1924년 중 하나가 된다. 그런데 편찬 2년 만에 한글로 번역되어 전서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1624년은 쉽게 제외할 수 있다. 또 필사자인 외증조모가 사망한 후 외증손에 의해 이 책의 장서기가 작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장서기가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60여 년 전에는 이 책이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90] 이 장서기가 책의 표지에 붓과 먹으로 쓰였음을 고려하면 아무리

88) 이 책이 경상북도 상주의 풍산 류씨 가문에 구장되어 있었지만 ① 본래 이 집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에 있는 어느 집안에서 만들어져 흘러 들어온 것이라는 점, ② 풍산 류씨 가문이 상주에 세거했지만 유심춘(柳尋春, 1762~1834)과 유후조(柳厚祚, 1799~1876)처럼 관직에 따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거주한 경우도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책이 반드시 상주에서 만들어져 상주에서만 향유되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최민열본 『천예록』, 정명기본 『천예록』,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 등이 모두 서울에서 읽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연대본 『어우야담』 또한 풍산 류씨 가문의 일원이 관직으로 인해 서울에 우거(寓居)하는 기간 동안 풍산 류씨 가문에 흘러 들어온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이 상주에 세거한 집안의 구장본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서울에서 필사되어 향유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책이 풍산 류씨 가문에 흘러 들어오고 난 이후에 풍산 류씨 가문의 밖에서 향유되었다고 볼만 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연대본 『어우야담』이 상주에서 향유되었다고 하더라도 풍산 류씨 가문의 구성원 사이에서만 한정적으로 읽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89) 이경우, 「초기야담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어우야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7~8쪽.

90) 17~19세기 양반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은 17.4세였던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장서기의 작성자와 외증조모의 나이 차는 최소 54년이 된다. 내용으로 보아 적어도 소장자가 10살은 된 이후에 이 장서기가 작성되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늦어도 20세기 초반에는 이 글이 작성되었고, 그로부터 대략 60년 전에 이 책이 필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1924년 또한 이 책의 필사 연도에서 제외된다. 이 책의 필사 시기는 늦어도 1864년으로 소급될 수 있다. 즉 연대본 『어우야담』의 필사 연도는 1684, 1744, 1804, 1864년의 넷 중 하나가 된다.

다음으로 최민열본 『천예록』과 정명기본 『천예록』을 살펴보면 한글본 『천예록』 2종에 모두 필사기가 있음이 확인된다. 최민열본 『천예록』에는 책의 첫 장 우측 하단에 본문과 같은 필체로 "셔 상궁"이라고 적혀 있다. 이는 짧은 기록임에도 다양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이는 "셔 상궁"이라는 필사자만을 확인시켜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책이 궁에서 30대 이상의 상궁에 의해 필사되고 향유되었으리라는 정황을 시사하기 때문이다.[91] 즉 이 짧은 기록을 통해 필사자의 성별, 신분, 연령대, 필사 장소 등을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정명기본 『천예록』의 필사기는 최민열본에 비하여 퍽 상세하다. 필사 시기와 장소, 필사자의 나이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필사 장소와 필사자의 정확한 나이가 기록된 경우는 정명기본 『천예록』 뿐이다.

정명기본 『천예록』의 필사 연도는 신미년(辛未年)으로 되어 있다. 『천예록』의 편찬 연대가 1724~1726년으로 밝혀져 있으므로[92] 이 책이 필사된 신미년은 그 이후인 1751, 1811, 1871, 1931년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런데 오침 선장된 제책(製冊) 형태, 이 책에 사용된 닥종이[楮紙]의

이 장서기가 쓰인 시기로부터 적어도 64년 전에는 이 책이 필사된 셈이다. 17~19세기 양반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과 관련해서는 박희진, 「양반의 혼인연령: 1535-1945-혼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0, 경제사학회, 2006, 9쪽 참조.

91) 궁녀의 입궁은 빠르게는 4~5세, 늦어도 12세 이전에 이루어졌다. 간혹 후궁이 되어 20대에 상궁이 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내인이 된 뒤 15년이 지나야 상궁으로 승격되었는데, 지밀(至密)의 경우 10년이 지나 상궁이 될 수도 있었다. 입궁 15년 후에 관례를 치러 정식 내인이 되는데, 그로부터 다시 10~15년이 지나야 상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4~5세 때 입궁했어도 일반적으로는 35세, 지밀의 경우 29세가 되어서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궁녀가 상궁이 되려면 빨라도 30대 즈음은 되어야 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최민열본 『천예록』을 필사한 "셔 상궁"은 30대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은임, 「궁궐 사람들의 삶과 문화-궁녀와 내시」, 『문명연지』 13, 한국문명학회, 2012, 99~100쪽; 정은임, 『궁궐 사람들의 삶과 문화』, 태학사, 2007, 73쪽;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368쪽의 각주 12) 참조.

92) 진재교, 「『天倪錄』의 作者와 著作年代」, 『서지학보』 17, 한국서지학회, 1996, 60쪽.

지질(紙質), 먹과 붓을 사용한 필적(筆跡) 등을 볼 때 1931년 이전에 이 책이 필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즉 정명기본 『천예록』은 1751, 1811, 1871년 중 어느 신미년에 필사된 것이다.[93]

한편 "숑현"은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松峴洞)이 아닌가 한다.[94] 송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동네이므로 정명기본 『천예록』이 궁궐에 인접한 동네에서 필사되어 향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십일 셰"의 "김 소져"가 이 책을 필사했다는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소저(小姐)는 일반적으로 양반집 규수에 대한 명칭이므로 "김 소저"는 양반가의 어린 여성으로 추정된다. 필사자인 김 소저가 11세에 불과하고 이 책이 다소 크고 서툰 필체로 쓰인바 서울 어느 양반가의 소녀가 궁체를 익히는 과정에서 정명기본 『천예록』이 활용되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95]

다음으로 2종의 한글본 『동패낙송』의 필사기에서는 필사 시기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대본 『동패낙송』은 갑인년(甲寅年)에 필사되었는데 『동패낙송』은 1773~1775년 사이에 편찬된바[96] 이 책이 필사된 갑인년은 그 이후인 1794년, 1854년, 1914년 중 하나이다.[97] "초삼 시작ᄒᆞ야 초

---

93) 필자는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필사 연도, 한문본 『동패낙송』이 편찬 연도로부터 서강대본 『동패낙송』이 필사되기까지 소요된 기간,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필사 추정 연도 등을 참조하여 정명기본 『천예록』의 필사 연도를 1871년으로 좁혀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필사 연도를 확정할 수 없는 점, 1751년과 1811년을 제외할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무리한 추정이었음을 반성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한다. 졸고에서는 1751년이 한문본 『천예록』의 편찬 시기인 1724~1726년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25여년 만에 이 책이 한글로 번역되어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1751년을 제외시킨 바 있다. 그런데 1833년~1869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 『기문총화』가 그 필사기를 통해 1856년에 이미 한글본으로 향유되었음이 드러난바, 한문본 야담 자료가 한글로 번역되어 향유되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명기본 『천예록』의 필사 연도를 추정한 내용은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363~364쪽 참조.

94) 지금의 한국일보사와 종로문화원 사이에 고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으므로 송현(松峴)이라고 불렀던 데서 동명이 유래되었다. 관련기록이 『태조실록』, 영조 27년(1751)에 간행된 『도성삼군문분계총록(都城三軍門分界總錄)』에 보인다고 한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지명사전』, 2009 참조.

95) 정명기본 『천예록』의 필사 장소와 필사자를 살핀 내용은 정보라미(2018), 위의 논문, 366~367쪽 참조.

96) 임형택(1999), 앞의 논문, 311~312쪽.

97) 『동패낙송』이 창작된 1773~1775년 이후의 갑인년은 1794년, 1854년, 1914년인데, 선행 연구에

오 뭇다”는 기록을 통해 단 3일 만에 필사된 이 책이 이미 한글로 번역된 저본을 전사(轉寫)한 것이며, 이면에 적힌 내훈과 가사 등으로 볼 때 상층 사대부가의 여성들 사이에서 향유되었음이 추정된 바 있다.[98]

한편 서강대본 『동패낙송』와 『기문총화』의 필사기에는 “슌뎡 긔원 후 ᄉ병진”에 이 책이 필사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이는 숭정(崇禎, 1628~1644년) 기원(紀元) 후 네 번째 병진년(丙辰年)인 1856년을 가리킨다. 이에 서강대본 『동패낙송』과 『기문총화』가 함께 실려 있는 이 책은 정확한 필사 년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한글본 야담 자료가 된다. 여기에서 한문본 『동패낙송』이 1773~1775년 사이에 편찬된 후 서강대본 『동패낙송』이 필사되기까지는 80여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달리 1833~1856년 사이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한문본 『기문총화』의 경우를 통해[99] 한문본 야담이 한글본으로 번역되어 향유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는 필사기를 근거로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필사 연도를 1854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1794년과 1914년을 제외한 이유를 정확히는 알기 어렵다. 1794년의 경우 『동패낙송』이 창작된 1773~1775년으로부터 20여년 밖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백승호, 앞의 논문, 221쪽 참조.

98) 백승호, 위의 논문, 220~221쪽, 233쪽.

99) 김준형,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양상-『기문총화』 1권 필기·패설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6b, 91쪽; 정명기(2005), 앞의 논문, 5쪽.

자료명	소장처	필사자			필사 시기			필사 장소
		기록	성별	연령대	기록	연도	월일	
어우야담	연세대	우리 한마님, 외증조	여성	노년	갑ᄌᆞ 오월 녕오일	1684년, 1744년, 1804년, 1864년	5월 5일	-
천예록	최민열씨	셔 상궁	여성	30대 이상	-	-	-	궁궐
	정명기 교수	김 소져	여성	11세	신미 지월 초ᄉᆞ일	1751년, 1811년, 1871년	11월 4일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동패낙송	국민대	-	-	-	갑인 계하 초삼 시작ᄒᆞ야 초오 ᄆᆞᆺ다	1794년, 1854년, 1914년	6월 3~5일	-
	서강대	-	-	-	슌(슝)뎡 긔원후 ᄉᆞ병진 냥월 한완	1856년	10월 하순	-
기문총화	서강대	상동 (上同)	상동 (上同)	상동 (上同)	상동 (上同)	상동 (上同)	상동 (上同)	상동 (上同)

<표 22 한글본 야담 자료의 장서기 및 필사기 분석>

먼저 위의 표에서 필사자가 확인되는 경우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또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경우 필사기는 없지만 그 이면에 내훈류와 가사 작품 등이 적혀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가 여성에 의해 읽혔을 것으로 추론되었음을[100] 감안하면, 한글본 야담 자료는 대개 여성 독자에 의해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필사기를 통해 독자층의 연령대가 10대에서 노년까지로 폭이 크지만, 성별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한정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최민열본 『천예록』처럼 필사기를 통해 이 책이 궁 안에서 필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가 하면, 필사기는 없지만 낙선재본 『어우야담』이나

100) 백승호, 앞의 논문, 233쪽.

규장각본 『청구야담』과 같이 그 소장처, 장서인, 책의 형태, 선초 및 번역 양상 등을 통해 한글본 야담이 궁 안에서 읽혔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명기본 『천예록』의 필사기를 통해 궁의 인근 지역에서 필사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던바, 한글본 야담 자료가 궁의 안팎에서 읽혔던 정황을 알 수 있다. 필사기에서 필사 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모두 서울에 한정되며 특히 궁궐 혹은 그 인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정명기본 『천예록』의 필사기에서 이 책이 사대부가에서 향유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연대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 또한 그 장서인을 근거로 이 책들이 사대부가에서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책의 이면에 필사된 기록으로 볼 때 국민대본 『동패낙송』 또한 사대부가에서 읽혔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에 연대본 『어우야담』, 정명기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규장각본 『청구야담』이 모두 사대부가에서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바, 많은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사대부가에서 향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글본 야담 자료의 향유층이 모두 사대부가의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필사자가 상궁으로 확인된 최민열본 『천예록』의 경우를 참조할 때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의 향유층 중에는 상궁과 같은 특수 계층의 여성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바,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자료들이 사대부가의 여성을 중심으로 읽히는 가운데 그 주변부의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서도 읽혔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긴 서책의 경우 장서인을 통해 규장각본 『청구야담』이 왕실의 인척인 조동윤의 집안에서 읽혔음이 확인된다는 점,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소장처가 왕실이었다는 점, 좋은 한지에 세련된 흘림체로 궁체가 쓰여 있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제책 형태,[101] 수록 및 번역 양상에 왕실 독자의 기대와 내적 수준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102] 궁내에 책자 형태로 존재하는 한글 번역 필사본의 경우 왕실 구성원의 열람을 목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103] 등으로 볼

101)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경우 원본이 전하지 않아 그 제책 형태를 살필 수 없다.
102) 이에 대해서는 제Ⅲ·Ⅳ장에서 후술된다.

때 그 향유층이 왕실 및 왕실의 인척에 속하는 최상층 여성에 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은 그 향유층이 어느 정도 구별될 필요가 있다. 즉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최상층의 여성 사이에서 한정적으로 향유된 데 비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은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향유되는 한편 상궁 등 다양한 주변 계층의 여성들에 의해서도 비교적 더 폭넓게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에 필사 시기가 기록된 경우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자료명	필사 시기 및 필사 추정 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후반	전반	중반	후반	전반	중반	후반	전반
연대본 어우야담	○	-	○	-	○	○	-	-
정명기본 천예록	-	-	○	-	○	-	○	-
국민대본 동패낙송	-	-	-	○	-	○	-	○
서강대본 동패낙송	-	-	-	-	-	◎	-	-
서강대본 기문총화	-	-	-	-	-	◎	-	-
규장각본 청구야담	-	-	-	-	-	○	○	-

<표 23 한글본 야담 자료의 필사 및 필사 추정 시기>

위의 표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가 확인된다.[104] 첫째, 필사기를 통해

103) 김봉좌, 「왕실 한글 필사본의 전승 현황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2015, 55쪽.

104) 필사기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에서 한문본 『청구야담』의 편찬은 19세기 전반에서 중반 사이로, 한글본 『청구야담』으로의 번역은 19세기 중·후반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바 이를 참조하여 위의 표에 더하여 제시하였다. 이병기는 1949년에 쓴 해제에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대해 "이는 한 七八十年전 것인가 싶다"고 밝힌바 이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형성 시기를 19세기 후반으로 추정한 것이다. 박희병은 한글본 『청구야담』의 형성 시기를 19세기

서강대본 『동패낙송』과 『기문총화』가 19세기 중반[1856년]에 필사되었음이 확인되는데, 19세기 중반은 여러 한글본 야담들이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둘째, 일찍이 한문본이 편찬되어 한글 번역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까지 소급해 추정할 수 있는 『어우야담』을 제외하고는 필사 시기를 18세기 중반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있는 한글본 야담 자료는 전무하다. 셋째, 필사 시기를 1914년까지 내려잡을 수도 있는 국민대본 『동패낙송』 외에 나머지 한글본 야담 자료의 필사 시기는 모두 19세기까지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에 한글본 야담 자료의 필사가 대개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히 19세기 중반에 활발히 필사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이상에서 한글본 야담 자료에 보이는 관련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대개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 그 중에서도 19세기 중반 즈음에 퍽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에 의해 궁의 안팎에서 한글본 야담 자료가 향유되었음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또 긴 서책의 한글 야담본 자료를 읽는 독자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최상층 사대부가의 여성에 한정되었던 것과 달리, 짤막한 서책의 한글 야담본 자료는 사대부가의 여성들에게 주로 읽히는 가운데 긴 서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의 여성들에 의해서 읽히기도 했음이 짐작되는바 그 향유층이 비교적 더 넓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한글본 야담 자료는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던 것일까? 앞서 여러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여성 독자에 의해 읽혔음을 확인하였는데, 실제로 그 선초 및 번역 양상을 검토해보면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서 여성을 독자로 상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면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 독자를 상정하고 한글본 야담 자료를 만든 주체가 누구

중·후반경으로 추론한 바 있다. 한편 한문본 『청구야담』의 편찬 시기에 대해 조희웅은 19세기 중엽 전후로, 임형택은 1826~1835년으로, 정명기는 1843년으로, 박희병은 19세기 전반으로, 김준형은 1833~1864년으로 추정하였음이 참조된다. 이병기 선해(1949), 앞의 책, 99쪽; 조희웅, 『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18쪽; 임형택(1985), 앞의 해제, 이우성 편, 앞의 책, 19쪽; 정명기, 앞의 해제, 김동욱·정명기 공역, 앞의 책, 16쪽; 박희병, 앞의 해제, 奎章閣資料叢書 文學篇, 앞의 책, 5쪽, 16쪽 참조; 김준형(2014), 앞의 논문, 557쪽 참조.

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남성이 집안의 여성을 위해 번역했을 가능성, 남성 문사(文士) 등이 왕명 등으로 왕실의 여성을 위해 번역했을 가능성, 여성이 스스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한글본 야담 자료의 형성을 가늠해 볼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문으로 쓰인 여러 읽을거리들이 한글로 번역되던 상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사대부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남성이 어머니나 딸 등을 위해 『상봉록』과 같은 연행록, 『재조번방지』와 같은 필기(筆記), 「선부인가전」, 「언행별록」과 같은 가승(家乘), 『오륜전전』, 『경화연』, 『삼국지연의』, 『초한연의』와 같은 소설 등 한문으로 쓰인 읽을거리를 한글로 번역했음을 밝힌 기록이 남아 있는바,[105] 한글본 야담 또한 이처럼 남성이 집안의 여성을 위해 편역한 것일 수 있다.

한편 사역원(司譯院)에서 중국소설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으며, 고종(高宗) 21년(1884년)에는 고종황제의 명으로 이종태(李鍾泰) 등 수십 명의 문사들이 수십 종의 새로운 중국소설을 번역하기도 했음이 알려져 있으므로[106]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그 소장처가 왕실 도서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이나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편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한문 실력을 갖추어야 했는데, 조선 후기 사대부가의 여성들 가운데 일정 수준의 한문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종종 확인될 뿐더러,[107] 드물지만 사대부

---

105)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8, 애산학회, 1989, 118쪽; 고운기, 「한글본 연행록의 제작 양상」,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10~11쪽;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97쪽; 채송화, 「을병연행록 연구-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36쪽; 남궁윤(2014), 앞의 논문, 122~124쪽; 김수영, 「효종(孝宗)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독서와 번역」,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70쪽.

106)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朝鮮語文學名著解題)」, 『문장(文章)』 제2권 8호, 문장사(文章社), 1940, 10쪽; 간호윤, 『아름다운 우리 고소설』, 김영사, 2010, 152~156쪽.

107) 김호연재, 홍유한당, 서영수합, 임윤지당, 신부용당, 강정일당, 청한당, 김삼의당 등과 같이 여성으로서 한문으로 시문을 남긴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김만중의 어머니, 이덕수의 어머니 청송 심씨, 조관빈의 부인 경주 이씨, 임영의 막내 누이 임씨, 오도일의 어머니, 김수항의 막내딸 김씨, 안동 김씨 집안의 딸로 요절한 김운 등 그 제문이나 행장 등을 통해 뛰어난 한문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합치면 직접 창작에 나서지 않았을 뿐 상당한 수준의 한문 실력을 갖춘 사대부가의 여성이 적지만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혜순·정하영·성기

가의 여성이 한문 텍스트를 한글로 직접 번역했다는 기록도 더러 보이므로[108] 앞서 필사기를 통해 확인된 여성 필사자 중 누군가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독자와 필사자였을 뿐 아니라, 편역자이기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론 가문에서 여성들의 교육이나 글쓰기에 개방적이었고 여성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음을 참조할 때,[109] 주로 경화 노론 가문에서 창작되어 향유된 야담이 노론 가문의 교육 받은 여성들에 의해 번역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필사자가 11세의 소녀로 밝혀진 정명기본 『천예록』의 경우, 오역과 오기 등을 통해 그 역자의 수준이 높지 않음이 짐작되었던바[110] 필사자가 한문본을 직접 번역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세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가운데 실제로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번역된 면면을 살펴보면 자료마다 그 수준에 적지 않은 층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한글본 야담의 편역자를 어느 한쪽으로만 단정지을 수는 없을 듯하다. 한글본 야담 자료가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으로 구분될 수 있는 데서 짐작되듯, 한글본 야담 자료의 편역자 또한 그 층위가 다양하지 않았을까 추정되기 때문이다.

옥·강진옥·이동연·박무영·조혜란,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568쪽; 김경미,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32~36쪽, 38~39쪽, 44~45쪽; 이경하,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한문·언문·구술의 상관관계」,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97~198쪽, 207쪽, 209~210쪽 참조.

108) 홍낙술(洪樂述)이 한문으로 쓴 「선부군유사(先父君遺事)」를 그 초취(初娶)인 덕수 이씨가 번역한 사례, 혜경궁의 작은 어머니인 평산 신씨가 역사서 『역대총목』을 한글로 번역한 예, 박윤원(朴胤源)의 아내 안동 김씨가 고서(古書)를 번사(飜寫)하였다는 기록, 김수항(金壽恒)의 막내딸 김씨가 10살에 『열녀전』을 번역했다는 기록 등에서 확인되듯, 한문으로 쓰인 읽을거리가 여성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기록이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정병설, 『혜경궁 홍씨, 회한의 궁중생활 칠십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9쪽; 채송화, 앞의 논문, 36쪽; 이경하, 위의 논문, 207쪽 참조.

109) 김경미(2005), 위의 논문, 44~45쪽.

110) 정보라미(2018), 앞의 논문, 381~382쪽.

Ⅲ. 한글본 야담에 보이는 오락성의 강화 및 그 의미

1. 유희지향적 선초(選抄)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대부분은 선집(選集)의 형태로 전하며, 완역에 가까운 한글본 『청구야담』에도 실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는 한문본 저본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 한글본의 편역자가 지닌 나름의 기준에 따라 선택되거나 탈락되며 한글본 야담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글본 야담의 편역자는 의도적으로 개입하여 이야기들을 취사선택했다. 이에 번역된 이야기가 어떤 것이고, 번역되지 않은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탈락을 거쳐 번역되거나 번역되지 않은 결과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문본의 이야기들이 한글본 야담 자료로 편역되는 과정에서 선초되거나 탈락된 결과, 한글본 야담 자료의 선초에서는 한문본에 비하여 유희지향이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수록된 이야기들을 통해 한글본의 선초 및 탈락 과정에서 호기취향이 반영되거나 여성 독자의 관심사가 고려된 양상이 드러나는 것이다. 호기취향의 반영은 짤막한 서책에서 두드러지는 데 비해 여성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고려는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에서 두루 확인된다.

1) 호기취향의 반영

한글본 야담 자료의 선초는 대개 뚜렷한 호기취향(好奇趣向)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인다.[1] 많은 경우 신선, 신령(神靈), 이인(異人), 변신, 이

1) 호기취향이란 기이(奇異)를 좋아하는 취향을 말한다. 기이는 일상적 경험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주체의 반응으로, 일상과의 대비를 통해서 비로소 그 실체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이라는 개념에는 신선, 신령(神靈), 이인(異人), 변신, 이물(異物)처럼 비현실적인 것 뿐 아니라, 현실에서 드물게 보이는 신기한 것, 비일상적인 것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① 현실에서 드물게 있을 법한 신기한 내용까지 기이의 개념에 모두 포함하게 되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일상적인 이야기만을 수집하여 기록해 둔 야담의 특성상 거의 모든 이야기

물(異物) 등의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루는 이야기들이 큰 비중으로 실려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호기취향은 선초 과정을 통해 그 편폭이 한문본 저본과는 크게 달라진 짤막한 서책의 경우에서 좀 더 잘 확인된다.

한문본에 실린 총290편의 이야기에서 28편만이 제외되고 나머지 262편이 모두 번역된 한글본 『청구야담』 2종의 경우 선초와 관련하여 호기취향이 고려된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 단국대본 『동패낙송』의 이야기들은 그 앞에 실린 「육신전」과 「원생몽유록」의 부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초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2] 이 이야기들이 선초되는 데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한글본 『청구야담』과 단국대본 『동패낙송』을 제외한 7종 자료들을 대상으로 한글본으로의 선초 과정에서 호기취향이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글본 『어우야담』의 호기취향

먼저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어우야담』인 연대본을 살펴보면 총24편 가운데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14편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를 기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② 현실에서 드물게 보이는 신기한 것, 비일상적인 것을 다룬 이야기들에 비해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은 기이함의 정도가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③ 실재 동아시아의 용법에서 '기이'가 신이(神異), 괴이(怪異) 등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 온바 서사문학에서 주로 귀신, 저승, 이계, 신선 등의 이야기로 표현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본고에서 기이라는 용어를 비현실적인 내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서사문학과 야담에 보이는 기이(奇異)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강종임, 「<<搜神記>> 世界觀 硏究: "神"의 意味 層位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35~49쪽; 강상순, 「전기소설의 해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 『어문논집』 36, 안암어문학회, 1997, 10쪽; 김경미, 「15세기 문인들의 '奇異'에 대한 인식-『太平廣記詳節』·『太平通載』의 편찬·간행과 관련하여」, 『한국고전연구』 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405~406쪽, 412쪽;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148쪽; 정환국, 「초기서사에서의 '신이성(神異性)'-삼국유사의 신이 구조」, 『민족문학사연구』 3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132~137쪽; 이승은, 「『천예록』 소재 奇異談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1~2쪽; 정솔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7~11쪽 참조.

2) 본고의 31쪽 각주 28) 참조.

순서	수록순서	기이요소	내용
1	제1화	징험(徵驗)	소세양이 고른 명당 묏자리의 징험
2	제3화	징험(徵驗)	어릴 때 흙벽에 죽을 뻔했다가 왜란에 죽은 유섬
3	제4화	신령(神靈)	원수를 갚으려는 귀신 때문에 환자를 포기한 의원
4	제6화	신령(神靈)	딸의 결혼을 앞두고 와서 인사한 혼령 유사종
5	제8화	응보(應報)	불상을 깬 율곡
6	제9화	신령(神靈)	형수에게 빙의된 누이를 조상신 덕에 구한 원사안
7	제10화	신령(神靈)	신숙주와 신동(神童)
8	제13화	신령(神靈)	들쥐고기로 귀신을 쫓은 집주인
9	제14화	징험(徵驗)	조부 유충관의 꿈과 정언각의 해몽
10	제15화	신령(神靈)	성황당 귀신의 원한을 풀어준 김효원
11	제18화	신령(神靈)	귀신을 독에 넣어 가둔 중 가전청
12	제19화	신령(神靈)	귀신이 된 친구 유경심을 만난 민기운
13	제23화	변신(變身)	암퇘지와 동침한 이분
14	제24화	신령(神靈)	제사를 정결히 지내고 왕의 혼령에게 상 받은 차식

<표 24 연대본『어우야담』의 호기취향>

위의 표를 통해 연대본『어우야담』에는 신령(神靈)에 관한 이야기가 9편, 징험에 관한 이야기가 3편, 응보에 관한 이야기가 1편, 변신에 관한 이야기가 1편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14편으로 전체의 58%에 달한다.

한문본『어우야담』에 실린 522편 중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140여 편이므로[3] 이는 전체의 27%이다. 연대본『어우야담』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문본『어우야담』에 비해 두 배도 넘게 증가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에 연대본『어우야담』의 선초 과정에서 한문본『어우야담』에 비해 호기취향이 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긴 서책인 낙선재본『어우야담』을 살펴보면 총138편 중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39편 실려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박현숙,「朝鮮後期 野談의 奇異性 硏究-18·19세기 野談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35쪽.

순서	수록순서	기이요소	내용
1	제2화	징험(徵驗)	망기법(望氣法)과 이에 능통한 박상의
2	제5화	신인(神人)	이지번의 신선놀이
3	제6화	신인(神人)	기이한 선비 이지함
4	제13화	신인(神人)	선도에 통달한 정렴
5	제14화	이물(異物)	김담령이 본 인어
6	제15화	이물(異物)	이수광이 들은 바다 거인 이야기
7	제16화	신령(神靈)	명의 안덕수가 만난 귀신
8	제17화	신령(神靈)	원혼의 한을 풀어준 진기경
9	제18화	징험(徵驗)	신내린 무당의 영험함
10	제19화	신령(神靈)	신녀가 준 먹을 잃어버린 전영달
11	제20화	신령(神靈)	손자를 구한 유강의 신령
12	제22화	징험(徵驗)	조원기의 운수를 점친 정희량
13	제26화	신령(神靈)	재상을 지키는 신령
14	제33화	보배	환혼석의 정기를 없앤 무사
15	제44화	이물(異物)	홍양읍의 아기장수
16	제45화	신선(神仙)	여진인 신선을 만난 성현
17	제46화	신선(神仙)	노승을 만나 선계를 구경한 이원익
18	제59화	징험(徵驗)	구의강의 점술
19	제63화	신인(神人)	밥알로 나비를 만든 전우치
20	제64화	신인(神人)	천연선사가 만난 신승, 성황당 석조상을 부순 천연선사
21	제75화	선계(仙界)	별세계 고향산
22	제76화	신인(神人)	정렴의 예지력
23	제78화	신령(神靈)	들쥐고기로 쫓은 신막정 귀신
24	제99화	징험(徵驗)	꿈에 보인 잘못 쓴 이름
25	제102화	신령(神靈)	죽은 종랑의 원한을 풀어준 무사
26	제103화	신령(神靈)	귀신과 정을 나눈 박엽
27	제106화	신령(神靈)	이집중에게 온 저승 손님
28	제107화	신령(神靈)	사람을 데려가는 저승사자
29	제108화	변신(變身)	홍어가 된 유극신의 할머니
30	제110화	신령(神靈)	도깨비 흉가를 사 갑부가 된 김뉴
31	제113화	신령(神靈)	귀신도 감동시킨 김운란의 아쟁
32	제119화	이물(異物)	바다에 사는 용과 뱀
33	제120화	신령(神靈)	황대임이 사당에서 조상신에게 받은 응보
34	제127화	신령(神靈)	삼척 성황신을 복위시킨 김효원
35	제128화	징험(徵驗)	윤필상의 관력, 윤필상을 죽음을 맞춘 점쟁이
36	제129화	이물(異物)	정지승의 큰 거북
37	제130화	신령(神靈)	성수침이 만난 귀신
38	제131화	이물(異物)	커다란 거북의 뼈로 보는 점의 감응
39	제132화	응보(應報)	거북을 죽인 응보

<표 25 낙선재본『어우야담』의 호기취향>

위의 표를 통해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39편 실려 있음이 확인된다. 이는 전체 이야기에서 28%를 차지한다. 앞서 서술한 대로 한문본 『어우야담』에 실린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전체의 27%이므로 낙선재본 『어우야담』은 한문본 『어우야담』의 호기취향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한글본 『어우야담』이지만 짤막한 서책인 연대본 『어우야담』에서는 호기취향이 크게 심화된 양상이 확인되는 데 비해, 긴 서책인 낙선재본 『어우야담』에서는 한문본과 거의 같은 비중의 호기취향이 드러난다.

(2) 한글본 『천예록』의 호기취향

최민열본 『천예록』은 총13편 가운데 9편이, 정명기본 『천예록』은 수록된 4편 전체가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제목	수록순서	기이요소	내용
1	송ᄉᆞ지신정묘긔 (送使宰臣定廟基)	제1화	신령(神靈)	이항복에게 사자(使者)를 보내 남묘의 터를 점지해준 관왕(關王)
2	견몽ᄉᆞ인뎨오적 (見夢士人除妖賊)	제2화	신령(神靈)	현몽한 관운장(關雲長)의 말을 따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선비
3	요텍니득만금 (潦澤裡得萬金寶)	제7화	기물(奇物)	역관이 연행길에 물웅덩이에서 보배를 찾아 남만 상인에게 만 냥을 받고 팖
4	뎡공ᄉᆞ권싱젼셔 (鄭公使權生傳書)	제8화	신령(神靈)	정원석이 권박에게 현몽하여 생질들에게 장례를 부탁하는 편지를 전함
5	훼녈녕졍죵션보 (毁裂靈貞終見報)	제9화	신령(神靈)	백악산 신당의 정녀부인 영정을 훼손했다 앙갚음을 당해 죽은 권필
6	밍도인휴유화시 (孟道人携遊和詩)	제10화	신령(神靈)	성완에게 찾아와 자신의 사적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맹시(孟蓍)
7	원녕션허샹쳥간 (元令見許相請簡)	제11화	신령(神靈)	허적에게 현몽하여 부친의 천장(遷葬)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원만석
8	의츌원향독피화 (議黜院享卽被禍)	제12화	신령(神靈)	서악서원의 김유신 위패를 없애자고 했다가 앙갚음을 당해 죽은 선비
9	슈집괴리혼개약 (手執怪狸恨開握)	제13화	변신(變身)	김수익의 아내로 둔갑해서 잡혔다가 도망친 이리

<표 26 최민열본 『천예록』의 호기취향>

순서	제목	수록순서	기이요소	내용
1	지리산미로봉진 (智異山迷路逢眞)	제1화	신선(神仙)	거지 장도령을 도와줬던 관인이 시해(尸解)한 장도령을 만나 대접받음
2	관동도조우등션 (關東道遭雨登仙)	제2화	선계(仙界)	신선의 사위가 된 가평의 유생 이 이후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선계로 떠남
3	뎡븍창원견노회 (鄭北窓遠見奴面)	제3화	신인(神人)	신인(神人) 정렴의 놀라운 능력
4	일도어육와가듕 (一島魚肉臥家中)	제4화	신인(神人)	오랑캐가 침입했을 때에도 화를 피한 무사(武士)의 마을

<표 27 정명기본『천예록』의 호기취향>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13편 중 제3, 4, 5, 6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다. 신령에 대한 것이 7편, 기이한 보배에 대한 것이 1편, 여우의 변신에 대한 것이 1편으로 총13편 중 무려 9편이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이다.

한편 정명기본『천예록』은 신선과 선계에 대한 것이 2편, 신인(神人)에 대한 것이 2편으로 수록된 이야기 전부가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한문본『천예록』의 총62편 가운데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48편으로[4] 전체의 77%에 달한다. 한문본『천예록』에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바 있는데[5] 이러한 한문본『천예록』의 강한 호기취향이 한글본『천예록』에서도 감지

4) 한문본『천예록』의 기이한 이야기 48편은 제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9, 20,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3, 54, 55, 56, 57, 58화이다.

5) 박현숙,「『天倪錄』 硏究-神異要素의 分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박현숙,「朝鮮後期 野談集 所載 奇異談의 特性 考察-『天倪錄』을 中心으로-」,『어문연구』 Vol. 36 No. 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김정숙,「한, 중, 일 文言短篇集 속 요괴와 귀신의 존재양상과 귀신담론-『천예록』,『요재지이』,『야창귀담』을 대상으로」,『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이승은(2009), 앞의 논문; 구선우,「『天倪錄』 소재 異人談의 양상과 그 의미」,『수행인문학』 7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이현주,「『天倪錄』 所載 神異談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차남희,「16·17세기 주자학적 귀신관과 『천예록』의 귀신관」,『한국정치학회보』 Vol. 40 No. 2, 한국정치학회 2006; 박미자,「17-18세기 동아시아 한문 서사 속의 神異:『聊齋志異』과『天倪錄』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유형동,「任堕의 기이 수용과『天倪錄』」,『동아시아고대학』 3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이승은,「18세기 野談集의 서사지향과 서술방식:『天倪錄』과『東稗洛誦』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되는 것이다.

최민열본 『천예록』의 경우 총13편 중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9편으로 전체의 69%이고, 정명기본 『천예록』은 수록된 4편 모두가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이므로 책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갖는 비중은 100%가 된다.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한문본 『천예록』에 비해 보아도 정명기본 『천예록』에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실려 있다는 점에서 정명기본 『천예록』의 선초 과정에서 호기취향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최민열본 『천예록』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문본보다는 약간 낮은데, 한문본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최민열본 『천예록』은 한문본 『천예록』의 호기취향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어 받았음을 알 수 있다.[6] 즉, 한문본 『천예록』의 뚜렷한 호기취향은 한글본 『천예록』으로 선초되면서 유지되거나 심화되었음이 확인된다.

(3) 한글본 『동패낙송』의 호기취향

국민대본 『동패낙송』과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선초 양상에서 호기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이 책에는 한문본 『천예록』에서 선초된 이야기 13편 뒤에 『태평광기언해』에서 선초된 이야기 1편이 더 실려 있다. 이 마지막 이야기에 호암(虎嵒)의 정령(精靈)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책의 선초 과정에서 호기취향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이 짐작된다.

순서	제목	수록순서	기이요소	내용
1	고튱신이인뉴셔 (顧忠臣異人遺書)	제2화	신인(神人)	누이의 혼수를 위해 추노길에 나선 성삼문이 신인을 만남
2	지이동음관긔우 (智異洞蔭官奇遇)	제4화	신선(神仙)	거지 장도령을 도와줬던 관인이 시해(尸解)한 장도령을 만나 대접받음
3	졔션고효ᄌᆞ견위 (祭先考孝子遺衣)	제6화	신령(神靈)	서성이 꿈에서 부친 친구의 낡은 옷을 보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태우게 하고 인사 받음
4	차일념상좌패단 (蹉一念上座敗丹)	제7화	신선(神仙)	남궁두가 첩과 생질을 죽이고 도망가서 신승(神僧)에게 신선술을 배움

<표 28 국민대본『동패낙송』의 호기취향>

순서	제목	수록순서	기이요소	내용
1	차일념상좌패단 (蹉一念上座敗丹)	제7화	신선 (神仙)	남궁두가 첩과 생질을 죽이고 도망가서 신승(神僧)에게 신선술을 배움
2	고튱신이인뉴셔 (顧忠臣異人遺書)	제8화	신인 (神人)	누이의 혼수를 위해 추노길에 나선 성삼문이 신인을 만남
3	지이동음관긔우 (智異洞蔭官奇遇)	제9화	신선 (神仙)	거지 장도령을 도와줬던 관인이 시해(尸解)한 장도령을 만나 대접받음
4	구히쟝튱신손획보 (救解獐忠臣孫獲報)	제10화	응보 (應報)	박팽년의 후손이 노루를 살려주자 노루의 정령이 현몽하여 만석꾼이 되도록 도와줌

<표 29 서강대본『동패낙송』의 호기취향>

위의 표를 통해 국민대본『동패낙송』은 총8편 중 4편이, 서강대본『동패낙송』은 총11편 가운데 4편이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임이 확인된다. 국민대본『동패낙송』에는 신선 이야기가 2편, 신인(神人) 이야기와 신령(神靈) 이야기가 각각 1편 실려 있어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가 된다. 서강대본『동패낙송』에는 신선 이야기가 2편, 신인(神人) 이야기와 응보(應報) 이야기가 1편씩 수록된바 전체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6%가 된다.

한문본『동패낙송』에는 77편 가운데 기이한 이야기가 27편 실려 있는바[7] 한문본『동패낙송』에 수록된 기이한 이야기의 비중은 35%가 된

7) 한문본『동패낙송』의 기이한 이야기 27편은 제4, 5, 6, 7, 12, 13, 14 15, 16, 19, 20, 21, 28, 34,

다.

국민대본 『동패낙송』은 한문본 『동패낙송』에 비해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증가하였고,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경우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문본 『동패낙송』과 거의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선초의 양상으로 볼 때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호기취향은 한문본에 비해 심화되고,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호기취향은 한문본 『동패낙송』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글본 『기문총화』의 호기취향

서강대본 『기문총화』에는 총5편이 실려 있는데, 이 5편이 모두 기이한 이야기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수록순서	기이요소	내용
1	제1화	환생(還生)	저승사자의 잘못으로 저승에 갔다가 돌아온 권적
2	제2화	신령(神靈)	죽은 후에 아들을 찾아온 임광
3	제3화	신령(神靈)	윤석증이 관노에게 빙의하여 정문익에게 길흉을 예언함
4	제4화	신선(神仙)	신선과 함께 글을 읽고, 종을 보내 바둑을 청해 받은 남수
5	제5화	신선(神仙)	여진인 신선을 만난 성현

<표 30 서강대본 『기문총화』의 호기취향>

위의 표를 통해 서강대본 『기문총화』에 신령에 관한 이야기가 2편, 신선에 관한 이야기가 2편, 환생에 관한 이야기가 1편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강대본 『기문총화』에 실린 모든 이야기가 비현실적인 내용인 것이다.

한문본 『기문총화』의 경우 총637편 가운데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

36, 43, 50, 53, 54, 56, 60, 70, 73, 75, 76, 77화이다.

한 이야기는 156편이므로[8] 이는 전체의 24%가 된다. 서강대본 『기문총화』에 실린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는 100%이므로 한문본에 비해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에 한글본 『기문총화』의 선초에서도 호기취향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9]

이상에서 거의 완역에 가깝게 이루어진 한글본 『청구야담』 2종과 단국대본 『동패낙송』을 제외하고 7종의 한글본 야담 자료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초 과정을 거치며 호기취향이 심화된 경우로 연대본 『어우야담』, 정명기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서강대본 『기문총화』의 4종을, 한문본과 비슷한 비중으로 호기취향이 유지된 경우로 낙선재본 『어우야담』, 최민열본 『천예록』,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3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글본 야담집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문본에 비해 크게 감소되는 경우는 전혀 없고 한문본의 호기취향이 거의 그대로 계승되거나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글본 야담 자료의 선초 과정에서 호기취향이 이처럼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한글본 야담 자료의 편역자는 그 독자가 기이한 이야기 중에서도 특히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초 경향은 한글본 야담의 형성과 향유에 비현실적인 내용의 이야기와 관련한 호기심 차원의 흥미를 충족

---

8) 한문본의 『기문총화』의 기이한 이야기 156편은 제12, 21, 27, 28,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7, 71, 72, 74, 75, 77, 92, 93, 160, 166, 171, 174, 175, 182, 187, 189, 192, 195, 198, 205, 213, 216, 218, 223, 335, 231, 235, 238, 240, 246, 252, 253, 254, 258, 259, 260, 262, 263, 268, 269, 274, 284, 287, 289, 294, 297, 298, 300, 308, 311, 313, 313, 320, 321, 323, 324, 333, 337, 348, 352,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7, 380, 382, 383, 385, 386, 387, 388, 389, 398, 401, 404, 407, 408, 411, 413, 417, 418, 421, 422, 425, 428, 429, 434, 446, 447, 452, 458, 471, 481, 496, 500, 509, 511, 512, 514, 516, 518, 520, 521, 528, 530, 534, 535, 536, 537, 539, 541, 542, 543, 546, 554, 555, 559, 566, 569, 570, 575, 579, 581, 585, 588, 589, 593, 601, 603, 604, 605, 609, 620, 621, 622, 630화이다.

9) 한편 서강대본 『기문총화』의 이야기 5편은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이야기 11편, 『송와잡설』의 이야기 1편과 함께 한 책에 실려 있다. 여기에 수록된 총17편 가운데 『송와잡설』의 1편을 포함하여 모두 10편이 기이한 이야기로 분류되므로 이 책에서 기이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9%가 된다. 이에 이 책의 선초 과정에서 호기취향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된다.

시키기 위한 목적이 일정 부분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편역자는 그러한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호기취향을 반영한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선초함으로써, 여성 독자가 한글본 야담의 독서에서 기대한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선초 과정을 거쳐 한글본 야담 자료는 비현실적인 내용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읽는 것에 큰 흥미를 가졌던 한글본 야담 독자의 취향과 기대에 걸맞은 텍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2) 여성 독자의 관심사 고려

한글본 야담 자료의 선초 양상에 보이는 또 다른 유희지향적 면모는 여성 독자의 관심사가 고려되었다는 데서 확인된다. 한글본 야담 자료는 여성의 관심사라고 판단된 내용을 반영하거나 여성의 비관심사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를 배제하는 두 방향에서 선초되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의 선초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관심사란 과연 무엇일까? 한글본 야담의 여성 독자에게 남성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관심사가 별다르게 있었던 것은 아니리라 생각된다.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만의 관심사가 선험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글본 야담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성이 좀 더 관심을 보일만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경향이 귀납적으로 확인된다. 여기에서 한글본 야담의 편역자가 여성의 관심사를 어떤 것이라 상정했는지 엿볼 수 있는바, 이 같은 경향은 여성의 관심사를 고려하고자 한 편역자에 의해 구현된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예로 여성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 여성 독자의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이 전개되는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한글본 야담 자료들 가운데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반영하거나 비관심사를 배제함으로써 선초 양상에 유희지향이 드러나게 된 경우는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서강대본 『동패낙송』,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최민열본『천예록』에 선초된 13편 중 이 책을 읽는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로 제5, 6화의 2편이 확인된다. 제5화 <독슈공지탁샹졔(獨守空齋擢上第)>와 제6화 <망입닉원승현관(妄入內苑陞顯官)>는 세종이 한미한 처지에 있는 유생의 능력을 알아보고 발탁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는 그 얼개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최민열본『천예록』이 "셔 상궁"에 의해 필사되었음이 확인된바 이 책의 독자는 궁중의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려할 때 궁중의 여성 독자에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인 왕이 주요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들 이야기는 이 책을 궁궐 안에서 필사하고 향유하는 "셔 상궁"과 같은 궁중의 여성 독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선초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제6화에는 궁중 여성들의 생활공간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바 궁궐 안의 여성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보다 더 친숙하면서도 흥미롭게 여겨질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을까 한다.

게다가 이 이야기들에서 왕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유생의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발탁하는 지인지감을 갖추고 있을뿐더러 그를 포용하는 넓은 아량을 지닌 존재로서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세종에 대한 일종의 표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는바 궁중의 여성 독자들이 향유하기에 적절한 이야기로 판단되어 선초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최민열본『천예록』의 이 이야기들은 여성 독자 중에서도 궁중 여성 독자가 특히 관심을 보일 만한 인물인 왕이 주요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궁중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반영하며 선초된 것임이 추정된다.

(2) 국민대본『동패낙송』의 경우

국민대본『동패낙송』에는 모두 8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중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선초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제1, 5화의 2편이다. 제1화와 제5화에는 여성 인물이 조역으로 등장하지만 이들로 인해 서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1화 <염한ᄉᆞ명기도셕(念寒士名妓逃席)>은 최생이 글씨로 이름난 안평대군에게 찾아가 신필(神筆)로 인정받은 후 안평대군의 평양 행차에 따라갔다가 안평대군의 총애를 받는 기생이 자신에게 애정을 드러내자 종적을 감추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안평대군과 최생이 글씨를 매개로 우호적 관계를 맺는 전반부와 평양 기생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 기생의 등장으로 두 주역 인물은 일시에 삼각관계라는 새 국면을 맞게 되는바, 평양 기생의 역할은 단순한 조역에 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여성 독자는 등장과 함께 삼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서사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인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평양 기생은 "어엿분 ᄌᆞ질과 긔이ᄒᆞᆫ ᄐᆡ되 무ᄅᆞ녹고 고아 사ᄅᆞᆷ의게 ᄡᆞ이ᄂᆞᆫ"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처럼 빼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잔치에서 줄곧 고개를 떨군 채 "만좨(滿座) 흥이 업"게 만들던 이 여성 인물은 최생의 거문고 솜씨를 보자마자 자신이 찾던 짝임을 알아차림으로써 곡조에 화답하는가 하면, "좌샹의 잇ᄂᆞᆫ 사ᄅᆞᆷ을 살피지 아니ᄒᆞ고 다만 두 눈을 최싱의게 ᄡᆞ다 깃브믈 이긔디 못ᄒᆞ"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 복통을 핑계로 자리를 빠져나온 후에는 먼저 자리를 뜬 최생을 찾아가 평생 따를 것을 청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비록 기생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지원(至願)이 오직 ᄒᆞᆫ 졀지(絶才)ᄅᆞᆯ 어더 디긔(知己)예 ᄡᆞᆨ을 삼고져 ᄒᆞᄂᆞᆫ" 것임을 밝히는바, 지위가 높은 안평대군이 아니라 최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예술적 수준에 걸맞으면서[絶才] 자신의 진정

한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知己]을 찾았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양 기생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며, 자기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에 현실에 속박되어 있었을 여성 독자들은 평생의 배필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적극적인 여성 인물에 자기를 투사하며 대리 만족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여성 인물은 기생이므로 한글본 야담을 주로 읽었던 사대부가의 여성 독자들과 신분상의 괴리가 있을뿐더러, 서사 전체로 볼 때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한적으로나마 여성 인물의 주체적인 행위가 잘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글본 야담의 편역자는 지기(知己)를 한 눈에 알아보고 배필 되기를 스스로 구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이 여성상을 여성 독자들이 인상 깊게 볼 것이라 기대하고 이 이야기를 선초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제5화 <샤악승의사뎍덕(死惡僧義士積德)>은 홍 부장이 과거를 보러가는 길에 청엄 찰방 부인의 행차를 괴롭히던 중을 때려죽이고 부인을 구했다는 내용이다.

청엄 찰방 부인은 조역으로서 등장하지만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홍 부장과 중의 갈등이 청엄 찰방 부인의 행차를 겁박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의 큰 축은 홍 부장과 중의 격투 사건이지만, 그것이 부인의 행차를 둘러싸고 벌어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인이 겪게 되는 위기 상황이 퍽 자세히 그려진다는 점에서 이 청엄 찰방 부인은 전체 서사에서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적으로 퍽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에서는 “완악ᄒᆞᆫ 즁이 쳥암 찰방 ᄂᆡ힝을 겁박ᄒᆞ야 가마를 아사 뫼골로 올라가”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아 부인을 보필하던 역(驛) 하인조차 “즁놈의 용력을 무셔이 너겨 감히 알프로 나아오디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 그려지는 데다가, “즁놈이 올라가며 가마 댱을 드러 헷티고 드미러 보”고 “얼골이 어엿브도다”며 가마 안의 부인을 희롱하는 상황들

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부인이 느꼈을 공포가 “우는 소리 심히 처절”하게 들리는 상황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다. 이에 여성이라면 누구나 불시에 맞닥뜨릴 수 있는 이 같은 위협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여성 독자는 그 부인이 느끼던 불안감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인이 홍 부장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여성 독자는 “가마 안히셔 울며 일빅 번 절ᄒᆞ여 복복칭은(僕僕稱恩)ᄒᆞ”는 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면서 함께 안도하며 대리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국민대본『동패낙송』의 편역자는 여성 독자들이 여성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서사가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삼각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여성 인물에 자기를 투사하거나, 이야기 안에서 여성 인물이 겪는 고난 및 그 해결 과정에서 느꼈을 감정에 깊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들을 읽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이야기들을 선초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3) 서강대본『동패낙송』의 경우

총11편이 실려 있는 서강대본『동패낙송』에는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4편 실려 있다.[10] 제3, 4, 5, 6화에서 여성 독자가 관심을 보일 법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① 전체 서사에서 여성의 관심사를 주요한 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② 여러 일화 가운데 일부분에서만 여성의 관심사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①에 해당되는 이야기에는 제3, 4, 6화가 있고, ②의 경우에는 제5화가 해당된다.

제3화 <북히션효보옹구(覆海船效報翁仇)>는 김덕령이 장모의 부탁으로 장인을 죽인 악노(惡奴)를 찾아가 징치한 이야기이다. 과부의 딸에게 장가든 김덕령은 결혼한 다음날 장모로부터 장인이 사나운 종을 추노

10) 서강대본『동패낙송』의 선초 과정에서 여성 독자의 관심사가 고려되었음은 정보라미,「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301쪽, 303~304쪽에서도 살핀 바 있다.

하러 갔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장모에게는 “아들도 업고 또 형데 업고 ᄃᆞ만 이 약녀 일골육ᄲᅮᆫ이라” 그 원수를 갚지 못한 채 살아왔으며 “일야 비ᄂᆞᆫ 바ᄂᆞᆫ 오직 ᄯᆞᆯ이 졸라 ᄇᆡ필를 구ᄒᆞ야 어든 후 손을 비러 원슈를 갑기의 잇”었던바 김덕령에게 “신긔ᄒᆞᆫ 용녁이 잇단 말를 듯고 구ᄒᆞ야 사회를 삼”게 된 사연을 듣게 된 것이다. 이를 들은 김덕령은 “어졔 혼인ᄒᆞᆫ 신낭”임에도 그 다음날로 바로 처가의 원수를 갚겠다며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 “구지 ᄎᆡᆼᄒᆞ야” 길을 나선 후 뛰어난 용력으로 종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복수에 성공한다.

이 서사의 핵심적인 축은 김덕령이 종들을 찾아가 복수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이 다름 아닌 처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성 독자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대를 가지며 보다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처가의 설원(雪冤)에 나서는 김덕령의 행동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그려지는바 여성 독자들은 이 인물에 대해 큰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사위를 통해 설욕(雪辱)했음을 듣고는 “ᄯᆞᆯ에 ᄂᆞ려 울며 사례ᄒᆞ”는 장모의 심정에 공감하기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4화 <하이자엄구지복투부(嚇愛子嚴舅制伏妬婦)>는 안동 권씨가 자신의 아들이 뜻밖에 과부를 만나 첩으로 들이게 된 사정을 알고는 짐짓 아들을 엄하게 꾸짖음으로써 질투 심한 며느리를 미리 단속했다는 내용이다. 권생이 길에서 처음 보는 소년에게 속아 술을 마시다가 “십뉵의 혼인ᄒᆞ야 십칠의 홀노” 된 “셔울 훤혁ᄒᆞᆫ 문벌의 부녀”를 만나 인연을 맺게 되자 엄부(嚴父) 권씨가 사나운 며느리의 질투를 다스리기 위해 권생을 한바탕 질책하며 죽이려는 시늉까지 함으로써 며느리로부터 투기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한 과부를 첩으로 집안에 들이면서 본처의 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서사가 전개된다. 이에 여성 독자는 개가, 처첩간의 갈등, 투기와 같은 여성의 관심사를 이야기의 전체에 걸쳐 주요하게 그리고 있는 이 이야기를 주목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6화 <가관양노져표부(假官佯怒抵拯父)>는 이광정이 우연히 다섯 노처녀의 관원 놀이를 엿본 후 이들이 가난한 형편 탓에 혼인을 하지 못했음을 알고 이들을 위해 중매를 서고 혼수를 주어 모두 시집보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다섯 노처녀가 자신들의 혼인 문제와 관련하여 벌이는 관원 놀이가 전체 서사에서 무려 1/4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이광정이 이들을 위해 혼인을 주선하거나 혼례를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여성들의 큰 관심사인 혼인 문제가 전체 서사의 가장 큰 축으로 다뤄질 뿐더러, 그 과정에서 중매나 혼수 준비의 과정, 혼례 장면 등이 퍽 상세하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여성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제3화는 사위인 김덕령이 처가의 원수를 갚는 일이, 제4화는 집안에 첩이 들어오게 되는 사연과 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 제6화는 가난으로 때를 놓친 여성 인물들이 우연히 결혼하게 되는 사건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므로 이 이야기들은 여성으로서 관심가질 만한 내용이 전체 서사에서 핵심적인 축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처럼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주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편역자는 이 이야기들이 여성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하며 이 이야기들을 선초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5화 <툐조션투쳐곤부(討操船妬妻困夫)>에는 우상중의 일화 4편이 나열되어 있다. 호랑이를 만나 때려죽인 일,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어가(御駕)를 모신 일, 역사(力士)를 만난 일, 경상우수사가 되어 기생을 가까이 하다가 아내의 질투로 인해 체면을 잃고 파직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에 실린 여러 일화 가운데, 여성 독자는 우상중이 아내의 질투로 인해 곤경에 빠지게 되는 마지막 일화에 특히 흥미를 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성 독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으리라 생각되는 마지막 일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듕의 부인의 힘이 상듕의셔

비ᄂᆞ 되ᄂᆞᆫ지라. 상듕이 ᄆᆡ양 그 안해를 무셔워ᄒᆞ야 감히 방외범식(房外犯色)을 두지 못ᄒᆞ"던 우상중이 경상우수사가 되자마자 "그 부인이 먼이 잇시믈 다힝이 역여" 기생을 불러 친압하는데,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우상중의 아내가 쫓아가 응징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상중의 아내가 "즉시 집신을 들메고 거러 날ᄉᆡ 뒤ᄒᆡ 혼 죵을 ᄃᆞ리고 가기를 술ᄀᆞᆺ치 ᄒᆞ야 ᄒᆞ로 슈빅 이식 힝ᄒᆞ야 잇틀만의 슈조ᄒᆞᄂᆞᆫ 곳의 ᄃᆞ다라" "언덕 우흐로부터 소리를 우뢰ᄀᆞ치 ᄒᆞ야 크게 불너 ᄀᆞᆯ오ᄃᆡ '우상듕아! 우상듕아! 이놈아! 이놈아!' ᄒᆞ"고 소리치고, "ᄇᆡ ᄀᆞ온ᄃᆡ 올나 상듕을 ᄯᅳ어 물녀 업지르고 큰 곤쟝으로 볼기 ᄉᆞ십 도를 치고 ᄯᅩ ᄀᆞᆯ오ᄃᆡ '이 놈의 호강ᄒᆞᄂᆞᆫ 죄ᄂᆞᆫ 가히 ᄒᆞᆫᄀᆞᆺ 곤쟝으로만 죄 주지 못ᄒᆞᆯ 거시니 맛당이 표젹을 ᄂᆡ여 뭇ᄉᆞ름의 눈의 뵈게 ᄒᆞ리라.' ᄒᆞ고 이에 날ᄂᆡᆫ 칼노 상듕의 긴 수염을 다 뭉쳐 ᄒᆞᆫ나토 남겨두지 아니ᄒᆞ니 공연이 노파의 모양이" 되도록 만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바 주목된다.

이처럼 멀리 부임하자마자 몰래 기생을 불러들인 남편을 아내가 찾아가 소리 지르며 곤장을 치고 수염을 밀어 혼쭐내주는 일은 여성 독자들이 처한 현실에서 실천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여성 독자들은 오히려 이 일화에 더 큰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투기는 칠거지악(七去之惡) 중의 하나로 규정되었을 만큼 여성들에게 금기시되었던바, 여성 독자들은 이러한 억압적인 상황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우상중 아내가 대응하는 통쾌한 모습을 통해 현실에서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에 제3, 4, 5화에서는 여성이 관심을 가질만한 사건이 서사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제6화에서는 여성 인물이 전체 이야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더라도 여성 독자들이 공감대를 갖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성 독자의 관심사가 반영된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적으로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편역자가 여성 독자의

관심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선초하고자 했음이 추정된다.

이상에서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경우, 여성 독자가 흥미롭게 읽을 만한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호기취향이 반영되거나 여성 독자의 관심사가 고려된 이야기들을 선초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한글본 야담 자료가 선초 과정을 거침으로써 여성 독자를 위한 흥미로운 읽을거리로서 유희적 지향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명기본 『천예록』과 서강대본 『기문총화』에는 기이한 이야기들만이 수록되어 있으므로[11] 이 자료들의 선초 양상에서 확인되는 유희지향은 호기취향의 반영에 한정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즉,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 가운데 정명기본 『천예록』, 서강대본 『기문총화』처럼 호기취향의 반영만을 통해 선초 상의 유희지향이 드러나게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호기취향을 반영하는 한편 여성 독자의 관심사도 고려하며 이야기들을 선초함으로써 유희지향이 드러나게 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경우

한편 여성의 비관심사로 판단된 이야기들이 배제되는 양상은 긴 서책인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 『어우야담』에 실린 총522편의 이야기는 주제에 따라 인륜편, 종교편, 학예편, 사회편, 만물편의 5편 59부문으로 분류되어 있어[12]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선초 과정에서 비관심사로 판단된 이야기들이 배제된 양상을 살피는 데 일정한 참조가 된다. 이에 한문본 『어우야담』에서 내용상 다섯 가지로 분류된 이야기들이 한문본과 낙선재본에 실려 있는

11) 본고의 89쪽, 92쪽 참조.

12) 이는 유몽인의 후손인 유제한 선생이 『어우야담』의 여러 이본을 수집하여 1964년에 만종재본 『어우야담』을 간행하면서 내용에 따라 이야기들을 나눠둔 것으로 엄밀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한문본 『어우야담』에서 낙선재본 『어우야담』으로 선초되면서 갖게 된 변화를 대략적으로나마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상 이 분류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편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3]

분류	한문본	낙선재본	비중	증감비율
인륜편	81편	24.5편	15.5% → 18.1%	+2.6%
종교편	89편	26편	17.0% → 19.2%	+2.2%
학예편	162편	26.5편	31.0% → 19.6%	-11.4%
사회편	126편	41편	24.0% → 30.3%	+6.3%
만물편	64편	17편	12.0% → 12.5%	+0.5%

<표 31 한문본과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분류별 이야기 증감>

위의 표에서 인륜편, 종교편, 만물편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한문본에 실린 비중과 한글본에 실린 비중에 별 차이가 없는 데 비해, 학예편과 사회편의 이야기들은 한문본과 한글본의 비중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에서 학예편의 비중이 11% 감소하고 사회편의 비중이 6% 증가한 것이다. 다른 네 분류에 속하는 이야기들의 경우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6.3% 증가한 바,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간 증가한 것과 달리, 학예편에 실린 이야기들만은 한글본에 실리면서 그 비중이 한문본에 비해 감소한 데다 그 폭 또한 크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를 통해 한문본 『어우야담』에는 학예편 가운데 문예(文藝) 부문의 이야기들이 전체의 16%로 다른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실려 있는데 비해, 낙선재본 『어우야담』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체의 6%에 불과한바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유독 시화(詩話)의 비중이 감소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14] 이에 한문본 『어우야담

13)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제39, 51, 131화는 만종재본 『어우야담』에 실려 있지 않다. 여기서는 한문본의 다섯 분류에 속하는 이야기들이 낙선재본에 각기 어떤 비중으로 선초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했기에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총138편 가운데 만종재본에 실린 135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4) 유필선, 「『어우야담』 연구-설화의 유형분류와 기술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24~26쪽.

』이 낙선재본 『어우야담』으로 선초되는 과정에서 학예편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탈락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예 부문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배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도 확인된다. 한문본에 있는 이야기 중 28편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보이지 않은데, 이 28편 가운데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한글본에 수록되지 못한 이야기는 20편으로 보인다.[15] 이 20편은 대개 몇 가지의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문장(文章)이나 문자(文字)가 주요하게 다뤄진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제5권의 제19화 <乞婚需朴道令呈表>, 제20화 <呈舊僚鄭司果戲墨>, 제36화 <成小會四六詩令>, 제6권의 제32화 <起死人臨江哀輓>, 제7권의 제19화 <坐城樓南忠壯效節>, 제8권의 제15화 <屈三弁善辯動宰相>, 제10권의 제1화 <偸隣釀四儒詠詩>의 7편이 바로 그 예가 된다.

---

15) 한문본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 중 한글본으로 옮겨지지 않은 이야기는 총28편이다. 그런데 한문본에 있는데 한글본에는 수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① 책의 중간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한두 편씩 탈락된 경우, ② 책의 끝 쪽에 실린 여러 편의 이야기들이 연달아 탈락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선초하지 않은 것인 데 비해, 후자는 일률적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는 모두 8편으로 이는 한문본의 가장 끝부분인 권10의 제15화~22화에 해당된다. 한글본 제19권에는 총 13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한문본의 제10권의 제2~제14화에 해당된다는 점, ②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제외하면 많아봐야 2편의 이야기가 잇따라 탈락된 경우가 종종 있을 뿐, 8편이나 되는 이야기들이 연달아 탈락된 경우는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이야기들은 나름의 기준에 의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책의 끝 쪽에 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처럼 책의 마지막 부분이 번역되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를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야사총서(野史叢書)인 『됴야긔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종결 방식이 왕실에서 향유되던 역사와 관련된 텍스트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는 점은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끝 부분에 실린 이야기 8편이 일률적으로 탈락되었으리라는 추정을 방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글본 『청구야담』에 실리지 않은 28편 가운데 실제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탈락된 이야기를 28편 중 20편으로 좁혀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20편에 한정하여 한글본 『청구야담』에 탈락된 이야기들을 살피고자 한다. 『됴야긔문』의 끝 부분이 번역되지 않은 양상에 관해서는 박인호, 「『조야기문』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박인호・임치균・박용만・박재연・이광호・김주필・황문환, 『됴야긔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8쪽 참조.

제5권 제19화 <乞婚需朴道令呈表>는 박 도령이 사또에게 사륙문을 지어 보낸 후 혼수를 얻고, 이창원이 자기 마을 출신의 병조판서에게 사륙문을 지어 사산감역관(四山監役官)에 의망(擬望)해줄 것을 요구하여 벼슬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박 도령과 이창원이 지었다고 하는 사륙문 두 편이 실려 있는데 이는 이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5권 제20화 <呈舊僚鄭司果戲墨>은 오랫동안 벼슬을 얻지 못한 정현석이 옛 동료에게 보내는 사륙변려문을 지어 자신의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또한 <乞婚需朴道令呈表>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속에 실린 사륙변려문이 이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된다.

제5권 제36화 <成小會四六詩令>은 한 방백의 잔치에 모인 이들이 사륙문으로 연시를 지어 각자의 직무를 말하다가 기생이 지은 구절에 함께 웃고 자리를 파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직무를 사륙문의 형식에 맞춰 압축적이고 골계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제6권 제32화 <起死人臨江哀輓>은 한 선비가 매부(妹夫)의 죽음을 슬퍼하여 만가(輓歌)를 지어 부르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이다. 이 만가는 전체의 이야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7권 제19화 <坐城樓南忠壯效節>은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봉상과 충절을 지키다 죽은 남연년과 홍림에 대한 일화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봉상과 남연년에 대한 시 두 편이 삽입되어 있다. 첫 번째로 실린 시는 작자 미상으로 이인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시는 남연년의 묘를 이장할 때 남연년의 친구인 유생 유언길이 지은 것으로 남연년의 충절을 기리는 내용이다.

제8권 제15화 <屈三弁善辯動宰相>은 어느 시골 사람이 병조판서에게 벼슬을 구하기 위해 함께 자리에 있던 이문덕, 어필수, 정언형의 이름을 파자(破字)하여 망신주어 물리쳤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파자 유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6편의 이야기들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제10권 제1화 <偸隣釀四儒詠詩>는 네 선비가 이웃집 술을 훔쳐 먹고는 시를 한 구씩 써두고 가자 이를 알아챈 노재상이 이들을 초대하여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썼던 시의 내용을 통해 네 선비의 빈궁영달을 예언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는 칠언절구의 삽입시 한 편이 있는데, 이 시는 노재상과의 만남에서 다시금 환기되며 네 선비의 앞날을 점치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상에서 살핀 7편의 이야기는 제5권 제19화 <乞婚需朴道令呈表>, 제20화 <呈舊僚鄭司果戲墨>, 제6권 제32화 <起死人臨江哀輓>처럼 시 자체가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제5권 제36화 <成小會四六詩令>, 제10권 제1화 <偸隣釀四儒詠詩>처럼 서사가 진행되는 주요한 계기로 시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제7권 제19화 <坐城樓南忠壯效節>처럼 이야기에 관련되는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제8권 제15화 <屈三弁善辯動宰相>처럼 문자와 관련되는 골계적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경우도 있어 그 층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문장 혹은 문자가 주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에서 이 이야기들은 모두 공통적이다. 즉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실리지 못한 20편 가운데 무려 7편이 문장 혹은 문자가 주요하게 다뤄진 이야기들인 것이다. 이에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문장, 문자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야기들이 수록되지 않았던 경향이 확인된다.

한편 한문본『청구야담』의 제6권 제14화 <南師古東國選十勝>에는 이른바 십승지(十勝地)에 대한 지리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서사가 중심인 다른 이야기들과 달리 정보 위주의 서술이라는 점에서 여성 독자의 관심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실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주로 여성의 관심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초가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이야기가 수록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여성의 비관심사로 판단되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배제되었던바,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 간에 여성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

본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일부만이 선초된 짤막한 서책과, 비교적 저본의 이야기를 더 많이 수용한 긴 서책의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의 편역자는 여성 독자가 관심을 기울일 만하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여성의 관심사에서 다소 멀다고 판단되는 이야기는 탈락시킴으로써 여성 독자의 취향에 보다 잘 맞는 텍스트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 독자를 상정하고 그 기대지평을[16] 고려하며 이야기의 선초와 탈락을 거쳐 편역된 한글본 야담은 여성 독자에게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하는 텍스트로서 여성과 관련한 유희지향을 지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용 미학적 시각에서 볼 때 문학의 역사성은 사후적(事後的)으로 해명된 문학의 사실들의 연관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통한 문학 작품의 선행적인 경험에 기인하며, 이러한 독자와 문학 작품 간의 대화적 관계가 문학사에서 기초적인 소여(所與)라는 점을 감안하면,[17] 한글본 야담의 이 같은 선초 경향 또한 여성 독자가 한글본 야담과의 대화적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기여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사실 입증의 지향 약화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지향이 약화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본래 한문본 야담은 사실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의식이 작용한 결과, 허구를 전개하면서도 실제 사실처럼 포장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18] 한글본 야담에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축

16) 기대지평이란 H. R. 야우스가 수용 미학적 시각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수용자가 지닌 창작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가리킨다. 즉, 수용자가 지니고 있는 바람·선입견·이해 등 작품에 관계된 모든 전제를 총망라하여 말한 것이다. 이러한 수용자의 기대지평에는 선험·경험·전통·습관·상식·교육 등으로 초래된 지식이 내재해 있다. 기대지평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작품 이해를 위한 수용자의 실제적인 전제 조건들이다.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31~32쪽, 34~35쪽 참조.

17) H. R. 야우스 저,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179~180쪽.

소되어 있는 것이다. 한글본 야담에는 전사 과정에서 사실 정보가 오기(誤記)되거나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뿐더러, 한문본 야담에서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장치들이 한글본 야담에 생략되어 있기도 하다.

1)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 축소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사실 정보가 오기되거나, 사실 정보가 축약 혹은 삭제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는 사례가 적잖이 보인다. 이를 통해 한글본 야담에는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어 있음이 짐작된다. 먼저 사실 정보가 오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9]

연대본『어우야담』의 경우

(1) 인물 정보: 柳潚(제122화)→뉴난(제6화)
(2) 인물 정보: 柳師從(제122화)→뉴ᄉᆞ죵(제6화)
(3) 인물 정보: 潘碩枰(제60화)→박셕졍(제7화)
(4) 공간 정보: 海州(제324-4화)→쳐죽(제8화)
(5) 인물 정보: 昭敬大王(제148화)→효경대왕(제9화)
(6) 공간 정보: 江名雨灣(제148화)→두만강(제9화)
(7) 인물 정보: 鴦馮雲(제43화)→원풍운(제11화)
(8) 인물 정보: 閔起文(제132화)→민긔운(제19화)

정명기본『천예록』의 경우

(1) 인물 정보: 又其次尹世平(제1화)→ᄯᅩ 버거ᄂᆞᆫ 윤세령이라(제1화)
(2) 곡명: 霓裳羽衣曲(제2화)→여샹우의곡(제2화)
(3) 물명: 九節綠玉杖 (제2화)→구졀 노옥댱(제2화)
(4) 공간 정보: 鳥嶺(제3화)→도령(제3화)

---

18) 박희병,『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73쪽.
19) 제시된 내용 가운데 한문본의 일부 글자나 단어, 구절이 한글본에서 변이된 경우, 해당 부분에 밑줄을 쳐 표시해 두었다. 이하 동일하다.

(5) 공간 정보: 賓館(제2화)→번관(제2화)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1) 물명: 此名卽定痛珠.(제53화)→이 일홈은 젼통쥐라.(제7화)

(2) 인물 정보: 甥姪兪枋·李蘆·李某(제41화)→싱딜 뉴방과 니현·니아모(제8화)

(3) 공간 정보: 歸隱於楊根迷源(제41화)→양근 유원의 와(제8화)/
兪·李三君 皆進迷源(제41화)→뉴·니 삼 공이 즉시 유원을 가(제8화)

(4) 국명: 麗運旣去(제43화)→그려 운쉬 임의 뭇고(제9화)

(5) 국명: 日本僧義能(제34화)→일분 승 의롱이(제10화)
인물 정보: 日本僧義能(제34화)→일분 승 의롱이(제10화)

(6) 공간 정보: 自重興寺尋問來到(제34화)→쥬홍ᄉ로브터 와(제10화)

(7) 공간 정보: 接於芬黃寺(제34화)→ 봉황ᄉ의 가 ᄃ졉ᄒ더니(제10화)

(8) 공간 정보: 又到昌敬陵松間(제34화)→ᄯᅩ 챵셩능 솔 ᄉ이예 니ᄅ러(제10화)/
又置於昌敬陵兩株松間(제34화)→셩능 소나모 ᄉ이의 ᄀᆞᆷ초ᄃ(제10화)

(9) 공간 정보: 後遊鮑石亭(제34화)→후의 됴셕뎡의 놀ᄉᆡ(제10화)/
鮑石亭前月(제34화)→됴셕뎡 젼월(제10화)

(10) 인물 정보: 時與北司公·閭丘恭, 及北副公蔡禧相友善(제34화)→때로 븍ᄉ 녀공과 복부공 쵀희로 서로 왕ᄂᆡᄒ야(제10화)

(11) 인물 정보: 爲宗正卿金璘所讒(제34화)→동졍경 김닌의 ᄎᆞᆷ소ᄒ인 배 되어(제10화)

(12) 인물 정보: 雖以退溪之大儒(제44화)→토계ᄀᆞᆺ튼 대유도(제12화)

(13) 인물 정보: 金濟州壽翼(제48화)→제쥬목ᄉ 디낸 김슈긔란 쟈ᄂᆞᆫ(제13화)

국민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공간 정보: 練光(제8화)→녕광뎡(제1화)

(2) 인물 정보: 平生最畏尹世平與蔣都令(제5화)→평싱의 개장 윤세평이와 댱도령을 무셔워 ᄒᆞᄂᆞᆫ디라(제4화)

서강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인물 정보: 平生最畏尹世平與蔣都令(제5화)→평싱의 개장 유세령이와 쟝도령을 무셔워 ᄒᆞᄂᆞᆫ지라(제9화)

서강대본『기문총화』의 경우

(1) 인물 정보: 兪監司 省曾(제4권 제7화)→윤감ᄉᆞ 셕증(제3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인물 정보: 吳憲(제16화)→오현(제1화)
(2) 인물 정보: 喬游擊一騎從壁上出(제16화)→교육격이 딘 우흐로조차(제1화)
(3) 인물 정보: 權憘(제497화)→권힌(제3화)
(4) 인물 정보: 之蕃不勝淸興(제36화)→번이 쳥흥을 이긔디 못ᄒᆞ여(제5화)
(5) 인물 정보: 演(제87화)→인이(제10화)
(6) 서명:『三賢珠玉』(제89-1화)→『삼현쥬』(제13화)
(7) 인물 정보: 楊禮壽(제308화)→양슈ᄂᆞᆫ(제16화)
(8) 인물 정보: 兪大修(제120화)→유대쇼(제20화)
(9) 인물 정보: 恒福(제350화)→니홍복/홍복(제23화)
(10) 인물 정보: 孝祥爲覓(제164화)→효샹은 각이라 ᄒᆞ니(제47화)
(11) 인물 정보: 李成樑/成樑(제468화)→니셩냥/셩냥(제52화)
(12) 인물 정보: 益成(제48화)→셩익(제54화)
(13) 인물 정보: 具義剛/義剛(제327화)→구의샹/의샹(제59화)
(14) 인물 정보: 蓍慶(제327화)→경이(제59화)
(15) 인물 정보: 宋麒壽/麒壽(제93화)→송닌슈/닌슈/닌슈(제63화)
(16) 인물 정보: 洪春年(제44화)→홍츈경이(제65화)
(17) 공간 정보: 懷遠館(제44화)→힌원관(제65화)
(18) 관직명: 敬差官(제389화)→경치관(제68화)
(19) 인물 정보: 磬仲(제397화)→은경(제70화)
(20) 공간 정보: 尼山縣(제10화)→니셩고을(제73화)
(21) 인물 정보: 孫登(제289화)→손득(제76화)
(22) 인물 정보: 喬馮雲(제43화)→원풍운(제79화)
(23) 인물 정보: 柳汝宏(제25화)→뉴여구(제80화)
(24) 공간 정보: 呂島(제25화)→여쥐(제80화)

(25) 공간 정보: 福堂(제404화)→북당(제83화)
(26) 인물 정보: 柳忠信(제330화)→뉴튱진(제84화)
(27) 인물 정보: 柳永忠/永忠(제339화)→뉴영경/영경(제86화)
(28) 서명: 曰『焚舟榻試策』行于世(제278화)→『분쥬칙』이라 ᄒᆞ여 시칙이 셰샹의 힝ᄒᆞ더라(제96화)
(29) 인물 정보: 元輿家(제147화)→원예의 집(제107화)
(30) 시간 정보: 萬曆癸未冬(제147화)→만역 긔미 동의(제107화)
(31) 서명: 『古文眞寶』(제47화)→『고문지보』(제112화)
(32) 인물 정보: 晦(제512화)→희(제129화)
(33) 인물 정보: 成守琛(제137화)→슈심(제130화)
(34) 서명: 余按『龜策傳』(제513화)→『귀영뎐』을 보니(제132화)
(35) 인물 정보: 西川令/西川(제332화)→셔원녕/셔쳔(제133화)
(36) 인물 정보: 金汝岉/汝岉(제391화)→김여문/여문, 연문(제135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공간 정보: 移鐵原(제3권 제7화)→쳘권으로 이샤ᄒᆞ야(제5권 제4화)
(2) 인물 정보: 金世恒者(제3권 제8화)→김세황이라 ᄒᆞ는 쟈(제5권 제5화)
(3) 인물 정보: 柳叅判諗, 嘗(제3권 제19화)→뉴참판 심샹이(제6권 제5화)
(4) 인물 정보: 有申生命熙者(제3권 제20화)→신명의라 ᄒᆞ는 쟈(제6권 제6화)
(5) 공간 정보: 阿峴(제3권 제20화)→니현(제6권 제6화)
(6) 인물 정보: 楸灘(제5권 제2화)→츄판(제9권 제1화)
(7) 공간 정보: 靈鷲山(제5권 제3화)→녕츅산(제9권 제2화)
(8) 공간 정보: 永春(제5권 제27화)→연츈(제10권 제4화)
(9) 인물 정보: 朴判書遜(제5권 제33화)→박판셔 연이(제10권 제10화)
(10) 인물 정보: 胄瑞(제9권 제22화)→쥬단이니(제12권 제8화)
(11) 인물 정보: 趙陽來者(제9권 제25화)→됴양뇌(제12권 제11화)
(12) 인물 정보: 命夏(제7권 제1화)→명화(제13권 제1화)
(13) 인물 정보: 李鎰(제7권 제5화)→니감(제13권 제4화)
(14) 인물 정보: 姜別監家(제8권 제21화)→김별감(제18권 제12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사실 정보와 관련된 오기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오기는 이름・자(字)・호(號)・관직명 등의

인물 정보, 이야기의 배경을 제시하는 공간 정보 혹은 시간 정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물・책・노래 등의 물명에서 두루 확인된다. 인물 정보에 관련되는 오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간 정보에 관련되는 오기가 많다.

이러한 사실 정보의 오기는 ① 본래 쓰여야 하는 한글 글자와 유사한 자형이나 발음의 글자로 잘못 쓰인 경우, ② 본래 쓰여야 하는 한자와 유사한 자형의 글자로 잘못 쓰인 경우, ③ 오역으로 인해 잘못 쓰인 경우, ④ 탈자나 순서의 착오로 인해 잘못 쓰인 경우로 대별된다.

①의 경우 이미 한글로 번역된 저본을 단순 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연대본『어우야담』의 (8)에 "문(文)"이 "운"으로, 정명기본『천예록』의 (1)에 "평(平)"이 "령"으로, 최민열본『천예록』의 (1)에 "정(定)"이 "젼"으로, 국민대본『동패낙송』의 (2)와 서강대본『동패낙송』의 (1)에 "윤세평(尹世平)"이 "음세평"이나 "유세령"으로, 서강대본『기문총화』의 (1)에 "윤(尹)"이 "유"로,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에 "헌(憲)"이 "현"으로,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에 "원(原)"이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예다.

이와 달리 ②와 ③의 경우는 한문본이 한글본으로 번역될 때 발생한 오기로 보인다. ②에서는 한문본의 글자를 자형이 유사한 다른 한자로 착각함으로써 오기된 사례가 확인되는바, 이는 한문본을 오독한 결과 발생한 오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0)과 (15), 규장각본『청구야담』의 (9), (10), (13)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0)에는 "覓(찾을 멱)"이 "각"으로, (15)에는 "宋麒壽(송기수)", "麒壽(기수)"가 "송닌쉬", "닌슈"로 되어 있다. (10)에서는 "覓"을 자형이 유사한 "覚"("覺"의 약자)으로, (15)에서는 "麒"를 "麟"으로 혼동함으로써 한글로의 번역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장각본『청구야담』의 (9)에는 "遝(미칠 서)"가 "연"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는 자형이 유사한 "筵"과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 (10)에는 "胄瑞"가 "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瑞"를 자형이 유사한 "端"으로 잘못 읽음으로써 오기하게 된 것이다. (13)에는 "李鎰"이 "니감"으로 되

어 있는데 이는 “鎰”을 자형이 유사한 “鑑”으로 오독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③에 해당되는 경우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3)에 참판 유심(柳諗)의 이름이 “뉴심샹”으로 되어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柳叅判諗”의 바로 뒤에 쓰인 부사 “嘗”을 역자가 이름의 일부로 착각한 것이다.

④의 경우는 한문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한글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낙선재본『어우야담』의 (4), (7), (14)에서는 “之蕃”이 “번”으로, “楊禮壽”가 “양슈”로, “蓍慶”이 “경”으로 되어 있는바 탈자로 인한 오기를 확인할 수 있고, “益成”이 “셩익”으로 되어 있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2)에서는 순서의 착오로 인한 오기가 확인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한문본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로 보이는 ②, ③보다 이미 한글로 번역된 저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오기된 것으로 보이는 ①의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문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이든, 한글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이든 간에, 한글본 야담 자료에 이처럼 사실 정보의 오기가 적잖이 보인다는 점에서 한글본 야담 자료의 번역과 향유 과정에서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문본 야담 자료를 한글본으로 번역한 역자나 한글본 야담 자료를 전사하여 향유한 필사자 모두 한문본 야담 자료의 편찬자나 필사자에 비해 사실 정보를 덜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이처럼 사실 정보와 관련된 오기가 적잖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의 오기보다는 한글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의 오기가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특히 한글본 야담 자료의 향유 과정에서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 축소되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런데 현전하는 한글본 야담 자료는 모두 필사본으로 존재하는바 이들 자료에 보이는 이와 같은 오기들은 전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

수일 수도 있고, 번역자 혹은 필사자의 지식수준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적잖은 오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축소된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번역자 혹은 필사자가 사실 정보를 중시했다고 가정하면, 번역 및 필사 과정에서 사실 정보에 나름의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기에 단순한 실수로 이렇게나 많은 오기가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오기를 필사자의 높지 않은 지식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지식수준이 낮은, 즉 사실 정보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적은 역자 혹은 필사자는 자연스레 사실 정보를 정확히 번역 및 필사해야 한다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이라는 점, 이에 이러한 사전 지식의 결여가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의 축소를 야기함으로써 오기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글본 야담의 역자 및 필사자가 지닌 지식수준과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상호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실 정보가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본『어우야담』의 경우

(1) 인물 정보 축소: 安德壽, 昭敬大王朝, 老臣名醫也.(제308화)→ᄒᆞᆫ 의원이(제4화)

(2) 인물 정보 대체: 高興柳氏(제60화)→ᄆᆞᆫᄃᆞᆼ이 다(제7화)

(3) 인물 정보 축소: 李珥, 字叔獻, 號栗谷, 道名義庵. 李栗谷相國珥, 叔憲甫, 少時入山, 號義庵, 中年自坡州移居石潭者也.(제324-4화)→셩명은 니이오, ᄌᆞ는 슉헌이오, 별호는 뉼곡이오, ᄌᆞ호는 의암이라 ᄒᆞ더니(제8화)

(4) 인물 정보 축소: 原州元家本貫也, 有舊庄在焉. 元氏父母, 挈其女歸原州(제148화)→그 부뫼 ᄯᆞᆯ을 ᄃᆞ리고 원쥐로 태우가(제9화)

(5) 인물 정보 축소: 建州胡奴兒哈赤(제16화)→건쥬 오랑ᄏᆡ(제16화)

단국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인물 정보 축소: 顯德權王后(제50화)→현덕왕후(제2화)

(2) 인물 정보 축소: 思陵宋王后(제50화)→ᄉᆞ릉왕후(제2화)

(3) 인물 정보 축소: 眞卿氏卽判書俊民之孫, 御將義豊之高祖.(제50화)→진경은 판셔 쥰민의 손지라(제2화)

(4) 인물 정보 삭제: 曰 “榲”, 曰 “晳”, 曰 “樸”, 曰 “樍”, 曰 “植”(제50화)→당ᄌᆞ는 익이오, ᄎᆞᄌᆞ는 셕이오, 삼ᄌᆞ는 박이오, ᄉᆞᄌᆞ는 뎍이니(제2화)

(5) 인물 정보 대체: 榲判書, 晳樸俱叅判, 樍植皆春坊亞憲(제50화)→익은 판셔 되고, 박은 디ᄉᆞ간이오, 남은 아ᄃᆞᆯ은 혹 옥당도 되고 혹 낭ᄉᆞ도 ᄒᆞ야(제2화)

국민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인물 정보 대체: 乃仰稟于文宗大王曰(제8화)→이에 나라히 품ᄒᆞ야 ᄀᆞᆯ오ᄃᆡ(제1화)

(2) 인물 정보 축소: 有一名士, 姓李失其名, 或云長坤, 當燕山朝士禍時, 以弘文校理亡命(제58화)→연산됴의 ᄒᆞᆫ 명ᄉᆡ 교리로셔 망명ᄒᆞ야(제3화)

시간 정보 축소: 有一名士, 姓李失其名, 或云長坤, 當燕山朝士禍時, 以弘文校理亡命(제58화)→연산됴의 ᄒᆞᆫ 명ᄉᆡ 교리로셔 망명ᄒᆞ야(제3화)

(3) 인물 정보 대체: 洪公脩(제37화)→홍부쟝(제5화)

(4) 인물 정보 축소: 徐藥峯渻忌日(제60화)→셔약봉 긔일의(제6화)

(5) 인물 정보 축소: 其後, 藥峯子, 徐相景雨(제60화)→이후의 약봉 아ᄃᆞᆯ이(제6화)

서강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공간 정보 삭제: 楊在靈光滿瓜將歸, 一日吏入告曰(제27화)→슈년 후의 일일 문직이 드러와 고ᄒᆞ야 ᄀᆞᆯ오ᄃᆡ(제1화)

(2) 공간 정보 삭제: 有一大虎, 自甲寺下來, 橫路將噬(제65화)→큰 악회 홀연이 길을 당ᄒᆞ여 물고져 ᄒᆞ거ᄂᆞᆯ(제5화)

(3) 공간 정보 삭제: 乃娶百姓之女, 居于井邑, 果生二女.(제24화)→이의 빅셩의 ᄯᆞᆯ의게 쟝ᄀᆞ 드러 과연 두 ᄯᆞᆯ을 나흐니라.(제7화)

(4) 공간 정보 대체: 精備酒饌, 來迎草露橋(제24화)→듀찬을 셩히 ᄀᆞᆺ초와 ᄀᆞ지고 즁노의 와 마자 먹일ᄉᆡ(제7화)

(5) 인물 정보 축소: 朴醉琴彭年禍後(제28화)→박공 평년이 화 본 후의(제10화)

서강대본『기문총화』의 경우

(1) 공간 정보 삭제: 爲開寧縣監(제1권 제73-2화)→현감을 ᄒᆞ여(제2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인물 정보 축소: 同知鄭文孚自虛(제114화)→문부ᄌᆞ허ㅣ(제4화)

(2) 인물 정보 삭제: 其子男秀, 入官廳庫中(제36화)→관텽고 가온대 드러가보니(제5화)

(3) 공간 정보 축소: 我南海康津之堧(제467화)→우리나라 남ᄒᆡ 짜ᄒᆡ(제15화)

(4) 인물 정보 축소: 申末舟, 叔舟之弟, 卽先君外先祖也.(제394화)→신말쥬ᄂᆞᆫ 슉쥬의 아이라(제49화)

(5) 인물 정보 축소: 楊總兵元(제10화)→양총병이(제73화)

(6) 공간 정보 축소: 兩湖(제404화)→호서(제83화)

(7) 인물 정보 축소: 夫人有一男曰“浚”(제12화)→오직 ᄒᆞᆫ 아ᄃᆞᆯ이 잇더니(제89화)

(8) 관청명 대체: 司贍寺(441-1화)→ᄂᆡ쳠시(제97화)

(9) 시간 정보 삭제: 乙巳飢烏(제437화)→주린 가마귀(제116화)

(10) 인물 정보 축소: 朴僉知廷立者(제311화)→박쳠지란 사ᄅᆞᆷ이(제124화)

(11) 인물 정보 축소: 及金汝岉, 又以巡撫御使, 先文行入羅州.(제391화)→밋 김여문이 ᄒᆡᆼ문을 몬져 ᄒᆞ여 나쥐든다 ᄒᆞ니(제135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공간 정보 대체: 內浦(제2권 제10화)→형의 집(제3권 제4화)

(2) 공간 정보 대체: 安國洞(제2권 제15화)→안동방골(제3권 제9화)

(3) 인물 정보 축소: 金公汝岉, 昇平金相鎏之大人也.(제2권 제19화)→김공 여물은 김샹공 뉴의 대인이라.(제3권 제13화)

(4) 공간 정보 축소: 登家後光敎山麓(제3권 제10화)→집 뒤 산의 올나가(제5권 제7화)

(5) 시간 정보 삭제: 當庚申之際, 朝著換局, 午人盡爲斥退.(제4권 제18화)→셰되 환국ᄒᆞ야 남인이 다 쳑퇴ᄒᆞ니(제8권 제1화)

(6) 인물 정보 축소: 其父光國, 痛已久(제5권 제4화)→기 뷔 병 든 지 오릭여 (제9권 제3화)

(7) 인물 정보 축소: 金副率載海(제5권 제5화)→김지히(제9권 제4화)

(8) 시간 정보 축소: 丙戌丁亥年間(제5권 제7화)→병슐년의(제9권 제6화)

(9) 인물 정보 축소: 石尙書星(제5권 제7화)→셕샹셔(제9권 제6화)

(10) 인물 정보 대체: 宣廟(제5권 제7화)→대개(제9권 제6화)

(11) 인물 정보 축소: 璽院直長李鍾淳, 當直都事韓用鏞(제5권 제10화)→직쟝 니죵슌과 도ᄉᆞ 한용뇽이(제9권 제9화)

(12) 인물 정보 축소: 昔申晴泉維翰, 監延日縣時(제5권 제10화)→녯적의 청천 유한이 연일현감 ᄒᆞ여실 졔(제9권 제9화)

(13) 인물 정보 축소: 留守李公震壽(제5권 제14화)→니진이(제9권 제13화)

(14) 시간 정보 삭제: 孝廟朝, 坐事受刑(제5권 제28화)→일의 좌죄ᄒᆞ여 져ᄌᆞ의 버힐ᄉᆡ(제10권 제5화)

(15) 인물 정보 축소: 車天輅/車復元(제5권 제29화)→차오산(제10권 제6화)

(16) 인물 정보 축소: 申判書鉦(제9권 제4화)→신판셔의(제11권 제4화)

(17) 시간 정보 삭제: 壬戌, 李參判泰永(제9권 제7화)→니참판 ᄐᆡ영의(제11권 제7화)

(18) 시간 정보 삭제: 其子, 泰永之婦, 有娠朔幾滿, 是甲申五月日也.(제9권 제17화)→그 아들 태영의 쳬 잉ᄐᆡᄒᆞ야 만삭ᄒᆞ니(제12권 제4화)

(19) 인물 정보 축소: 判書羲甲(제9권 제17화)→희갑을(제12권 제4화)
判書(제9권 제17화)→희갑이(제12권 제4화)

(20) 인물 정보 축소: 村瀰(제9권 제27화)→박공(제12권 제13화)
汾西(제9권 제27화)→금양위(제12권 제13화)

(21) 시간 정보 축소: 甲戌年, 坤殿復位之後(제7권 제2화)→곤뎐 복위ᄒᆞ신 후(제13권 제2화)

(22) 인물 정보 대체: 李貞翼公浣(제7권 제20화)→니샹공 완이(제13권 제4화)

(23) 시간 정보 축소: 乙卯, 正廟朝(제7권 제5화)→정묘됴의셔(제13권 제4화)

(24) 시간 정보 삭제: 光海朝, 其子穧登第(제7권 제5화)→기 ᄌᆡ 등졔ᄒᆞ야(제13권 제4화)
인물 정보 축소: 光海朝, 其子穧登第(제7권 제5화)→기 ᄌᆡ 등졔ᄒᆞ야(제13권 제4화)

(25) 인물 정보 축소: 對夫人趙氏酬酌(제7권 제5화)→부인을 ᄃᆡᄒᆞ야 슈작이

(제13권 제4화)

(26) 인물 정보 대체: 李貞翼公浣(제7권 제20화)→니샹공 완이(제14권 제5화)

(27) 인물 정보 대체: 忘其姓名.(제7권 제27화)→상뫼 규〃혼지라.(제14권 제11화)

위의 예를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인물·공간·시간에 대한 사실 정보가 축소·삭제·대체되는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사실 정보 중에 특히 인물 정보와 관련된 변이가 압도적으로 많고, 변이의 양상 중에서는 정보가 생략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한문본 야담은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에 그 인물의 이름·자·호·관직명·저자와의 관계 등의 사실 정보가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한문본 야담에서 확인되는 인물에 관한 정보는 한글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소략해지거나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는 등장인물이 무명으로 처리되는가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소거되기도 한다.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 야담에서 인물에 관한 정보가 소략해진 경우는 연대본 『어우야담』의 (3), (4), 단국대본 『동패낙송』의 (1), (2), (3),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4),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5),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 (4), (11),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3), (7), (11), (12), (13), (15), (19), (20), (24), (26) 등에서 확인된다. 이는 실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되, 정보의 일부는 축약하거나 삭제한 것이다.

등장인물이 아예 무명으로 처리된 경우는 연대본 『어우야담』의 (1), (2), (5),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 (2), (3), (5),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5), (7), (10),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6), (10), (16), (25) 등에서 확인된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존재 자체가 소거된 예로는 연대본 『어우야담』의 (2), 단국대본 『동패낙송』의 (4),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2)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인물에 관한 사실 정보들이 생략되거나 대체된 양상을 통해 한글본에서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실존했는지, 그 이름, 자호(字號), 관

직명은 무엇이었으며, 저자와는 어떤 사이였는지 등의 사실 정보가 한문본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겨졌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특히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27)에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한문본에 적힌 "이름은 잊었다(忘其姓名)"는 구절이 한글본에는 "상뫼 규〃혼지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다. 한문본의 저자는 비록 그 이름은 잊었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분명히 실존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름을 잊었다는 것까지 기록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글본에서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치 않았기에 서술자가 그 이름을 잊었다는 사실에는 더욱 관심이 없었던바 이를 인물의 외양을 간략히 묘사하는 내용으로 대체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의 사례들과 반대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익명의 인물이 이름을 지니게 된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 "有名於國中者"가 "윤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다.[20] 다만 이 인물은 그 이후에 등장함에도 "윤생"으로 다시 명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이는 긴요한 인물 정보가 보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출현 빈도로 볼 때도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간 정보가 삭제되거나 소략해진 경우는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1), (2), (3), (4), 서강대본 『기문총화』의 (1),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3), (6),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 (4) 등에서 확인된다.

시간 정보가 삭제되거나 소략해진 예로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9),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5), (8), (14), (17), (18), (21), (23), (24)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시공간과 관련된 사실 정보의 변이를 통해서도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 야담은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관심이 낮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문본에 비해 실재적인 시공간에 관심이 덜한 한글본 야담의 번역 경향이 확인된다.

그런데 드물지만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공간 정보가 보충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0) "有名於國中者"(제1권 제25화)→"윤싱"(제16권 제22화)

(1) 공간 정보 보충: 吾家在某山下大澤中(제1권 제5화)→내 집이 웅골산 하대택중에 있으니(제15권 제5화)

(2) 공간 정보 보충: 黑雲一片, 自何而起(제1권 제18화)→거믄 구름이 셔북으로셔 니러나더니(제16권 제5화)

(1)에서 "某山"을 "웅골산"이라는 지명으로 바꾸어 두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철산(鐵山)의 통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某山"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평안북도 철산군에 실재하는 웅골산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이는 역자가 이야기의 배경인 황해북도 수안군 철산리를 평안북도 철산군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황해북도 수안군 성교리에 있는 백각산(白角山)이 배경으로 다시 한 번 제시되는바, 이 이야기의 배경인 철산은 평안북도 철산군이 아닌 황해북도 수안군 철산리임을 알 수 있다. 이 예를 통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가 때로는 서사적 배경에 걸맞은 공간적 배경을 보충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혼란을 유발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2)의 경우 검은 구름이 어디선가부터 일어났다는 문장에서 "어디선가"를 "서북(西北)"으로 바꾸어둔 것으로 굳이 필요치 않은 정보를 추가해둔 것이다. 이 예들은 모두 서사적으로 긴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도 보충되어 있는 것인데다 그 출현 빈도로 볼 때도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변이를 통해 사실 정보가 부정확해진 예로는 관청명이 바뀌어 쓰인 낙선재본『어우야담』의 (8), 후손의 직함이 한문본과 다르게 쓰인 단국대본『동패낙송』의 (5), 공간 정보가 달라진 규장각본『청구야담』의 (2)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한글본 야담에서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음이 재삼 확인된다.

2) 후일담과 후평의 변이

한문본 야담에서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했던 일의 기록임을 입증하고

자 하는 경향은 후일담과 후평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후일담과 후평이 생략되거나 변이됨으로써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지향이 약화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1]

연대본『어우야담』의 경우

(1) 후일담 축소: 商人得此起家, 爲富甲松都, 商人或稱忠臣劉克良.(제521화)→ 그 당시 송도의셔 그 지물을 어더 제일 대뷔 되니라.(제5화)

(2) 후일담 대체: 或曰: "非士人, 卽庶孼具玄暉."(제401화)→크게 긔이흔 일이더라.(제21화)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1) 후평 삭제: 曾聞宋朝來討宮中鬼祟之說, 而疑其誕也. 今以這兩事觀之, 信不虛矣.(제57, 58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1, 2화의 후평)

(2) 후일담 삭제: 兪・李諸君. 共持其書. 來拜我先君而示之, 以爲權璞僅得識字, 不能作一行之文, 此書明是我叔之書也. 相與大驚異, 不勝愴然感涕, 蓋鄭公之於我先君爲內從兄, 而親愛不泛故也.(제41화)→해당 문장 삭제(제8화)

(3) 후평 삭제: 鄭公元令之事, 信矣, 非妄也.(제41, 42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8, 11화의 후평)

(4) 후일담 삭제: 此說, 吾兒時, 嘗聞諸隣翁. 翁固非妄言者, 嗚呼! 異哉!(제43화)→해당 문장 삭제(제9화)

(5) 후평 삭제: 右白岳西岳兩段語, 卽余同庚親友金文伯所傳也. 文伯見余有記異之錄, 自草玆兩段所聞, 使入於錄中, 一字一語, 皆從其草, 無所增減焉.(제43, 44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9, 12화의

21) 대부분의 야담 자료들에는 각 이야기의 안에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노출되는 방식으로 후평이 존재하는 데 비해, 한문본『천예록』의 후평은 이야기 2편마다 "評曰"로 시작되는 후평이 별도로 부기되어 있는바 이야기의 본문과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민열본『천예록』과 정명기본『천예록』에는 이 후평이 전혀 실려 있지 않다. 즉 한문본『천예록』이 한글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후평들은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삭제된 것이다.『천예록』의 후평 중에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지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후평이 삭제됨에 따라 한문본『천예록』에 보이는 사실 증명의 지향이 한글본에는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평)

(6) 후평 삭제: 羅朝學士之稱, 願得傳世之說, 尤異, 無乃誠有其人, 而假名托形以作此耶? 此並是妖魔之大者, 世所不逢, 而崔成獨逢之. 噫! 亦怪矣哉!(제33, 34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10화의 후평)

정명기본『천예록』의 경우

(1) 후평 삭제: 今因蔣都令事驗之, 豈不信哉!(제1, 2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1, 2화의 후평)

(2) 후평 삭제: 鄭・尹兩公之事信矣.(제3, 4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3화의 후평)

(3) 후평 삭제: 世言, 今世無異人, 雜術皆黷, 言非也.(제15, 16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4화의 후평)

서강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후일담 대체: 墨井申君商權, 是朴門外孫, 故傳其事甚詳.(제28화)→<u>ᄃᆡ개 박싱의 부요ᄒᆞ미 녕남의 웃씀이 되야 이상ᄒᆞᆫ 일노 뎐ᄒᆞ야 니르더라.</u>(제10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후일담 축소: 未幾, 棄官而歸. 後, 崔公代其任, 其子男秀, 入官廳庫中, 不收一物, 只有葛索, 充焉. <u>吾先君與公最相善, 相國山海每稱余世交云.</u>(제36화)→미긔예 기관ᄒᆞ고 도라간디라. 후의 최공이 그 소임을 ᄃᆡ신ᄒᆞ여 관쳥고 가온대 드러가보니 ᄒᆞᆫ가지 거둔 거시 업고 츩동하줄이 ᄀᆞ득히 ᄎᆞᆺ더라.(제5화)

(2) 후평 축소: 噫! 一字之錯, 應夢於百里之外, 豈不異哉! <u>時萬曆四十三年三月也.</u>(제340화)→희라! ᄒᆞᆫ 글ᄌᆞ 그릇ᄒᆞᆫ 거시 빅니 밧긔 쑴의 응ᄒᆞ니 엇디 고이티 아니ᄒᆞ리오!(제99화)

(3) 후평 축소: 吁! 卜醫之不可信如此, 天命所在, 人欲殺而不得焉, 豈不異哉! <u>時萬曆, 乙卯也.</u>(제310화)→희라! 복슐과 의원을 가히 밋디 못ᄒᆞᆯ거시 이러ᄐᆞᆺ ᄒᆞ도다. 텬명 잇ᄂᆞᆫ 바의 사ᄅᆞᆷ이 죽이고져 ᄒᆞ나 엇디 못ᄒᆞ니 엇디 긔이티 아니리오!(제104화)

(4) 후일담 삭제: 雲鸞有二子, 克誠, 克明, 皆業書中第.(제293화)→해당 문장 삭제(제113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후일담 축소: 至今族居於虛豊洞云.(제4권 제4화)→해당 문장 삭제(제6권 제10화)

(2) 후일담 삭제: 蒿葬于拜岾, 已多年, 而無返葬之人云. 金百鍊曰: "聞楓山僧言, 文生一日獨處一房, 命衆僧勿近, 夜半忽聞屋壁震坼, 若霹靂聲, 而室內通明如白晝, 光徹大房, 僧徒盡驚就見, 則文生目已瞑, 盖解化也." 其所謂大休歇處, 果如其言, 而乙卯西關之行, 其亦去, 而卽還也.(제5권 제11화)→해당 문장 삭제(제9권 제10화)

(3) 후일담 삭제: 葬于平山地, 大路邊西向而葬者, 兵使之墳也, 其右十餘步地東向而葬者, 其小室之墳云耳.(제9권 제10화)→해당 문장 삭제(제11권 제9화)

(4) 후일담 축소: 歸鄉與其母, 離家而入深峽, 不知所終. 尤齋先生, 常對人, 道此事而嗟嘆.(제7권 제20화)→향니의 도라가 그 노모로 더부러 집을 써나 심협으로 드러가 죵적을 숨기니라.(제14권 제5화)

(5) 후일담 삭제: 嶺外之人, 多有親知者, 其死不過數十年云耳.(제7권 제22화)→해당 문장 삭제(제14권 제7화)

(6) 후일담 삭제: 伊後, 此人位至大臣, 而到處言其事, 一世譁然義之, 柳鎭恒一蹴頭, 位至統制使. 此是少論大臣, 而忘其姓名, 不得記之.(제8권 제4화)→해당 문장 삭제(제17권 제4화)

(7) 후평 축소: 必也爲鬼物所持去也, 洪邑之人, 多見其珠者.(제8권 제5화)→반ᄃᆞ시 그 귀물이 가져가민가 ᄒᆞ더라.(제17권 제5화)

(8) 후일담 대체: 唯桂蟾守墓不去, 白頭絲絲, 方瞳黯黯, 向人說道如此.(제8권 제19화)→오직 계셤은 슈묘ᄒᆞ여 가지 아니코 묘측의 죵신ᄒᆞ니라.(제18권 제1화)

위의 예에서 한문본 야담에 기록되어 있는 후일담과 후평이 한글본에 변이되어 있는 다양한 양상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이는 축약과

삭제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일담과 후평이 변이됨으로써 이야기의 주인공・배경・제보자・증인・증거물 등에 대한 정보가 축소되거나 삭제되기도 하고, 서술자가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삭제되기도 한 것이다.

한문본 야담 자료의 후일담에 보이는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가 한글본에 생략되거나 대체되어 있는 경우는 연대본 『어우야담』의 (1), (2),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 (4)에서 확인된다. 연대본 『어우야담』의 (1)은 실존하는 인물인 유극량을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지목하는 서술이 삭제된 것이고, 연대본 『어우야담』의 (2)는 등장인물이 구현휘임을 전하는 내용이 "크게 기이한 일"이라는 서술자의 단순한 감상으로 대체된 것이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은 서술자 유몽인과 등장인물 이지번의 관계를 서술한 문장이, (4)는 등장인물인 김운란의 후손에 대한 설명이 삭제된 것이다.

후평 가운데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삭제된 경우로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2), (3)을 들 수 있다. 후평의 내용 중 서술자의 감상은 그대로 번역된 데 비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기를 기록한 부분은 삭제되어 있다. 이에 한문본에서 확인되는 (2)의 "이 때는 만력 43년 3월이었다.(時萬曆四十三年三月)"나 (3)의 "이 때는 만력 을묘년이었다.(時萬曆乙卯)"와 같은 정보를 한글본에서는 찾을 수 없다.

후일담과 후평에서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증거 혹은 증인의 존재가 삭제된 경우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 (3), (5), (7)에서 확인된다. 이야기가 실존 인물의 실재 사건의 기록임을 보여주기 위해 (1), (3)은 증거를, (5), (7)은 증인을 제시하고 있다. (1)은 등장인물의 후손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등장인물이 실존 인물임을 확인시키는 내용의 후일담이고 (3)은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실존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증거물로 등장인물들의 무덤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일담이다. 한글본에는 이 부분이 전혀 실려 있지 않다. 한편 이야기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으로 (5)에서는 영남의 친지들을, (7)에서는 홍읍(洪邑)의 많은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한글본에서는 이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제보자나 기록의 경위에 관한 서술이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된 예는 최민열본『천예록』의 (2), (4) (5), 서강대본『동패낙송』의 (1), 규장각본『청구야담』의 (2), (4), (6), (8)에서 찾을 수 있다. 최민열본『천예록』의 (2), (4), (5)는 이야기의 기록 경위와 그 제보자에 대한 후일담이 한글본에 삭제되어 있는 예다. (2)는 유방・이려・이아무개 세 사람을 통해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과정을, (4)는 이웃집 늙은이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한글본에는 이 내용들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다. (5)는 제보자 김문백의 존재, 서술자와 제보자와의 관계, 이야기를 기록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 후평이 한글본에 삭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서강대본『동패낙송』의 (1)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정보, 서술자와 제보자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한문본의 후일담이 "박생의 부요함이 영남의 으뜸이라 이상한 일로써 전하게 되었다"는 다소 범박한 서술로 대체되어 있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2), (4), (6), (8)은 후일담에서 이야기의 제보자를 밝히는 내용이 생략된 예다. (2)는 등장인물 문유채의 장례 및 죽음과 관련된 후일담으로, 문유채가 죽게 된 상황이 김백련(金百鍊)이라는 실존 인물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 (4)에서는 우재선생(尤齋先生)이, (6)에서는 유진항이 이야기의 제보자로 지목된다. 한글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다. (8)에서는 등장인물 계섬이 "머리가 백발이 되고 눈이 어두울 때까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한문본의 후일담을 통해 제보자의 역할을 겸하게 되는데, 한글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묘 옆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는 서술로 대체되어 있다. 이에 계섬은 제보자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서술자가 직접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후평이 삭제된 경우는 최민열본『천예록』의 (1), (3), (6)과 정명기본『천예록』의 (1), (2), (3)에서 확인된다. 이 후평들에는 본문의 이야기가 있었던 일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는 서술자의 견해가 잘 드러난다. 그런데 한글본에는 후평이 전혀 실리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서술도 모두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한문본에서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드러내기 위해 후일담과 후평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한글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된 사례가 적잖이 확인된다. 이에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 야담에서는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핀바 사실 정보가 오기되거나 변이되고, 신빙성의 제고를 위해 후일담과 후평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가 한글본 야담에서 생략되거나 대체된 양상은 모두 한글본 야담에서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축소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글본 야담에서 유희지향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중시한 한문본 야담의 독자와 달리, 한글본 야담의 독자에게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즉 한문본 야담의 독자에게 야담의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전제를 두고 향유되었기에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술이 중요했던 데 비해, 한글본 야담의 여성 독자에게는 이야기의 사실 여부보다는 흥미로운 사건 그 자체가 더 중요하리라 기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이러한 기대지평을 고려하여 여성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여성 독자가 서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한문본 야담에서 이야기의 사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쓰였던 사실 정보를 생략하고, 이야기가 실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후일담과 후평을 생략하거나 단순한 서술로 대체하였던바, 한글본 야담에는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지향이 약화되는 번역 양상이 보이게 된 것이다. 한문본 야담이 “허구를 전개하면서도 실제 사실처럼 포장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 점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22] 사실을 감안할 때, 한글본 야담의 번역 과정에서 이처럼 흥미로운 서사를 중시하는 유희지향이 강화되면서 사실 증명의 지향이 약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2) 박희병(2008), 앞의 책, 73쪽.

3. 사대부 남성과 관련된 교양의 축소

한문본 야담은 사대부 남성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된바 사대부 남성의 계급적 취향과 문화적 의식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한문본 야담에서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주로 문인 취향과 학문적 소양 등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서사적 표현을 통해 이야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의론을 개진하는 부분에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사대부 남성의 교양적 서술들은 한글본으로 번역되면서 생략되거나 대체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바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문인 취향의 약화

한문본 야담에서 사대부 남성의 교양적 서술은 문인 취향을 통해 가장 많이 드러난다. 이러한 문인 취향은 주로 전고(典故)의 구사, 문헌의 인용(引用), 시문(詩文)에 대한 서술 등에서 잘 확인된다. 조선 시대에 사대부 계급에게 독서와 창작은 기본 교양이었기에 자연스레 한문본 야담에도 이러한 문인 취향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글본 야담에는 그러한 부분이 생략되거나 대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본『어우야담』의 경우

(1) 문헌 인용 대체: 『傳』曰: "謨及婦人, 宜其死也." 相地師之謂乎.(제165화)→가히 이상ᄒᆞ고 두립도다.(제1화)

(2) 전고 및 문헌 인용 삭제: 吁! 邪雖祟人, 必因人榮衛之虛, 而逞其邪, 人能善防以良藥, 邪不得投其隙. 吾於膏肓, 二竪之說, 深有疑焉. 考之醫書, 膏下肓上, 亦有可療之劑, 秦之醫緩亦怕二竪之祟己耶?(제308화)→해당 문장 삭제(제4화)

(3) 문헌 인용 삭제: 又局於箕子之遺典, 爲奴者不許仕路. 立賢無方, 三代盛法, 而至我國防閑益固, 士大夫之論, 隘且猜矣.(제60화)→해당 문

장 삭제(제7화)

(4) 문헌 인용 삭제: 余意儒士所見, 疑其彪戩也. 古書彪戩巨犭能食虎, 堡將所見, 必是狻猊也. 古書狻猊獅子也.(제485화)→해당 문장 삭제(제22화)

(5) 문헌 인용 삭제: 移忠於孝, 『書』曰: "至誠感神", 『詩』曰: "介爾景福", 其是之謂乎?(제2화)→병친의게 혼도를 옴기게 ᄒᆞ니 이를 이로미라(제24화)

최민열본 『천예록』의 경우

(1) 전고 삭제: 曾聞宋朝來討宮中鬼祟之說, 而疑其誕也.(제57, 58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1, 2화의 후평)

(2) 전고 및 문헌 인용 삭제: 雖良平之智, 無以加此. 恨不使劉更生聞之, 入於『烈女傳』也夫!(제59, 60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3, 4화의 후평)

(3) 전고 삭제: 至今, 傳頌以東方之堯舜, 固也.(제61, 62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5, 6화의 후평)

(4) 전고 삭제: 昔狄公奏毁吳楚淫祠七千百所, 所存惟泰伯伍員廟而已. 如使鬼神靈異, 能作禍福, 若隣翁言, 則貞女一神, 何獨靈於石洲, 而千七百諸神, 皆不靈於狄公耶? 是未可知也. 且柳州羅池廟, 李儀以慢侮卽死.(제43, 44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9, 12화의 후평)

(5) 전고 및 문헌 인용 삭제: 余錯愕難狀, 怪而且奇, 卽命舍弟取來篋裡『南華經』, 考諸「庚桑楚篇」, 則冊頭果有丙午十月記夢. 其記曰: "余嘗讀「庚桑楚篇」, 但知老氏之役, 不知何地之産也. 是月旬八, 有一魁岸戍削神仙中人, 見夢曰: '惟子不識我, 當告之. 所謂庚桑楚之産, 離親戚棄父母, 獨居孤村云云. 余乃再拜聽瑩, 而其人自稱孟道士, 復以竹杖擊股, 余忽驚起, 眞一場華胥也, 吁! 亦奇哉."云. (…) 翠妃之事, 有同閼井龍女, 而彼則現於史冊, (…) 倘有是事, 何異王文正之於倫, 韓忠獻之於侂胄乎? (…) 干寶之『搜神記』, 牛僧孺之『幽怪錄』, 盖亦出於這箇事耶?(제34화)→해당 문장 삭제(제10화)

(6) 문헌 인용 삭제: 一日, 偶閱羅史, '惠恭王十五年, 忽有疾風起, 自庾信墓,

至羅祖味鄒王墓, 塵霧晦冥, 不辨人物, 聞其中若有哭泣悲嘆之聲. 王聞之恐懼, 遣大臣就其墓, 致祭謝過.' 金公之靈異, 史冊已著, 始知其說, 蓋原於此.(제44화)→해당 문장 삭제(제12화)

(7) 문헌 인용 삭제: 狐之幻作女形, 迷人惑衆, 『廣記』及小說諸家, 多有之.(제47, 48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13화의 후평)

정명기본『천예록』의 경우

(1) 전고 삭제: 昔欒巴噀酒, 以救蜀火, 玉子擧眼, 卽見千里. 以今觀之, 不獨耑異矣.(제3, 4화의 후평)→후평 전체 삭제(제3화의 후평)

(2) 문헌 인용 삭제: 語詳在本集序文, 平生行跡, 極多異事.(제3화)→평싱의 힝적이 극히 긔이ᄒᆞᆫ 일이 만흐ᄃᆡ(제3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시문 관련 삭제: 其自挽曰: "一生讀破萬卷書, 一日飮盡千鍾酒, 高談伏羲以上事, 俗說從來不掛口, 顔回三十稱亞聖, 先生之壽何其久." 其弟碏, 亦奇士也. 爲其兄作挽歌曰: "痛哭吾兄逝, 傷心欲問天, 修文繼亞聖, 厭世化胎仙, 寂寞三生語, 風流萬卷篇, 乾坤卓先覺, 大夢忽悠然." 碏早寡, 獨居四十餘年, 一不近女色, 好仙術, 嗜酒能詩. 又曉醫方, 多神效, 生平不求進取. 嘗有詩曰: "白首叅同契, 紅顔麴味春."(제89화)→해당 문장 삭제(제13화)

(2) 문헌 인용 삭제: 余嘗閱古書, 人魚男女狀如人, 海上人擒其牝, 畜之池, 相與交合, 亦如人焉. 余窃笑之, 豈於東海士復見之?(제516화)→해당 문장 삭제(제14화)

(3) 문헌 인용 삭제: 嘗觀『太平廣記』, 有是事, 古今奚異哉?(제483화)→해당 문장 삭제(제24화)

(4) 전고 삭제: 皀隸重米輕死, 得無近於零陵哀溺之民歟? 其愚陋不足言(제435화)→하인은 ᄡᆞᆯ은 듕히 녀기고 죽기ᄂᆞᆫ 가ᄇᆡ야이 녀기니 우루ᄒᆞ기 족히 니ᄅᆞᆯ 거시 업ᄉᆞᄃᆡ(제53화)

(5) 전고 대체: 古人有夢牛爲竪牛而死者(제121화)→네 사ᄅᆞᆷ이 ᄭᆞᆷ의 소가 아히 되여 보고 죽은 쟤 잇고(제71화)

(6) 문헌 인용 삭제: 第不識古書循環賜環, 有故還之意(제25화)→해당 문장 삭제(제80화)

(7) 시문 관련 삭제: 其賦有曰: “蘇子瞻讀書窓畔, 松風山雨夜浪浪. 白樂天送客江頭, 楓葉荻花秋瑟瑟.” 其餘忘不記. 膾炙當時, 至今傳寫東人冊子.(제235화)→해당 문장 삭제(제105화)

(8) 시문 관련 삭제: 及子唐被謫, 宿于江, 夢見至尊, 感而爲之詩曰: “情裡佳人夢裡逢, 相驚憔悴舊時容. 覺來身在高樓上, 風打空江月隱峯.” 未幾而逝.(제235화)→해당 문장 삭제(제105화)

(9) 시문 관련 삭제: 鄭湖陰題其詩卷曰: “多能善幻渠家事, 牛吼鷄鳴頓逼眞.” (제115화)→해당 문장 삭제(제90화)

(10) 전고 삭제: 頃日助中國, 征奴兒, 我兵各工火砲, 胡奴畏之, 中國賴之, 句踐胎敎之法, 實兵家矜式也.(제266화)→해당 문장 삭제(제134화)

(11) 문헌 인용 삭제: 『左氏傳』曰: “以君命越疆而使, 未敢使而私飮酒, 不敬.” 誠一, 其知春秋之義者乎!(제391화)→해당 문장 삭제(135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전고 삭제 및 대체: 鐘鳴漏盡, 終至於滅身禍家而不知止, 其智愚相懸, 奚啻三十里也.(제2권 제23화)→몸을 멸ᄒᆞ고 집을 망ᄒᆞ여도 긋칠 줄을 아지 못ᄒᆞ니 그 디혜와 어리믜 현격ᄒᆞ미 셔로 멀도다.(제4권 제3화)

(2) 전고 대체: 一言一事, 未嘗少咈其意, 殆同燕丹之奉荊軻, 務積誠意, 三年如一日, 不敢少懈.(제4권 제10화)→일언 반ᄉᆞ를 일즉 거스르지 아니ᄒᆞ여 이ᄀᆞᆺ치 ᄒᆞ기를 삼 년이 되도록 감히 게을니 아니ᄒᆞ더니(제7권 제5화)

(3) 전고 삭제: 權常所留,意 而未及諧焉, 今厥寡所言, 寔出望外, 眞所謂童蒙求我, 寧不喜幸?(제5권 제8화)→진ᄉᆡ 샹히 유의ᄒᆞᄂᆞᆫ ᄇᆡ나 말 븟치기 어렵더니 금일 과녀의 말이 실노 의외라. 엇지 깃부지 아니리오?(제9권 제7화)

(4) 문헌 인용 삭제: 金仙臺卽韓無畏遇郭致虛之處也. 文生豈亦見『傳道錄』乎? 其所讀唐板, 可知爲『東華篇』也. 余見『彭祖經』, 稱靑精先生得道者, 日過五百里, 能終歲不食, 亦能一日九食, 明初張三耒, 日行千里, 辟穀數月, 亦能日啖數斗, 隆冬臥雪中, 此皆服氣所致, 與內鍊金丹, 門路懸別.(제5권 제11화)→해당 문장 삭제(제9권 제10화)

(5) 전고 삭제: 嶺南雖是士夫之冀北, 而亦何多義拘也!(제5권 제16화)→해당 문장 삭제(제9권 제15화)

(6) 전고 대체: 羅卒奔往其處, 則朱髯將軍, 已化爲烏有先生矣.(제5권 제18화)→나졸이 급히 그 곳의 간즉 간 곳이 업는지라.(제9권 제17화)

(7) 전고 대체: 盖德原令, 以屢朝國手, 年已耆艾(제5권 제26화)→녕이 텬하 국슈로 나히 이미 칠십이 넘고(제10권 제3화)

(8) 전고 대체: 班荊而坐(제5권 제28화)→풀을 펴고 안쟈(제10권 제5화)

(9) 시문 관련 대체: 文辭浩汗, 而詩又雄奇(제5권 제29화)→문댱 시귀 일셰의 유명ᄒᆞ여(제10권 제6화)

(10) 전고 삭제: 其所遇, 宛然如少遊之於春娘之事也.(제9권 제8화)→해당 문장 삭제(제11권 제8화)

(11) 전고 대체: 其宰相秉軋, 則極力吹噓(제9권 제10화)→시지 극녁ᄒᆞ여 천거ᄒᆞ니(제11권 제9화)

(12) 문헌 인용 삭제: 時人作「靈鵲傳」(제12권 제6화)→해당 문장 삭제(제9권 제19화)

(13) 시문 관련 삭제: 長於駢驪之文, 眼高一世, 未有許借者.(제9권 제30화)→해당 문장 삭제(제12권 제16화)

(14) 시문 관련 삭제: 燕京奏文, 文衡製進, 而以四六爲之, 先鑑于大臣, 而入啓例也.(제7권 제1화)→연경 쥬문을 문형이 졔진ᄒᆞ미 몬져 대신긔 감ᄒᆞ고 입계ᄒᆞ미 젼례라.(제13권 제1화)

(15) 전고 대체: 君一擧而得兩美人及家産, 古之楊少遊, 無以加此.(제7권 제2화)→그ᄃᆡ 힘을 허비치 아니ᄒᆞ고 일거양득ᄒᆞ니 진쇼위 호팔지로다.(제13권 제2화)

(16) 문헌 인용 대체: 「陶庵神道碑銘」曰: '空裡投橘, 神恍惚兮云'者, 卽此也.(제7권 제5화)→이후 병환이 쾌ᄎᆞᄒᆞ니라.(제13권 제4화)

(17) 시문 관련 삭제: 凡龍之文字, 可合科題者, 無論經史雜記, 無數做得.(제1권 제7화)→무릇 뇽의게 당ᄒᆞᆫ 문ᄌᆞ 듕 ᄀᆞ쟝 글졔에 합ᄒᆞᆫ 쟈를 골ᄒᆞ여 무수히 지엇더니(제15권 제7화)

(18) 시문 관련 삭제: 乃專意安坐, 以古賦體, 一筆揮成(제1권 제7화)→이의 졍심ᄒᆞ여 일필휘지ᄒᆞ야(제15권 제7화)

(19) 시문 관련 축소: 及出講章, 乃斯干詩泰人占之句也.(제1권 제8화)→밋 강

장이 나오니 곳 ᄉᆞ간쟝이라.(제15권 제8화)

(20) 전고 삭제: 靑油遽空, 殆同龍亡而虎逝.(제1권 제21화)→장듕이 븨여(제16권 제8화)

(21) 시문 관련 축약: 搆出祭文一通, 極其哀痛, 備言相識於某處, 同做於某家, 伴讀於某寺, 年歲則差以幾年, 交分則厚似膠漆, 稱以世誼, 而備述渠家世德, 俾人之見之者, 一按可知爲年歲幾何, 誰之子孫.(제1권 제25화)→뎨문 ᄒᆞᆫ 쟝을 극히 슬프게 짓고 교분과 셰의 교칠 ᄀᆞᆺᄐᆞ여 사ᄅᆞᆷ이 보면 뉘 ᄌᆞ손인 줄 알게 ᄒᆞ여(제16권 제11화)

(22) 시문 관련 삭제: 繡啓之褒奬, 前未有出於此右者.(제8권 제4화)→해당 문장 삭제(제17권 제4화)

(23) 시문 관련 삭제: 且搆<斗蓮詞>一闋付之.(제8권 제13화)→해당 문장 삭제(제17권 제11화)

(24) 전고 대체: 吾則如陸賈五子之分供(제8권 제18화)→셔로 날을 공양ᄒᆞ미 만리 복녁이 젹지 아니ᄒᆞ여(제17권 제15화)

(25) 전고 대체: 棠棣之華, 鄂不韡韡.(제8권 제19화)→쟝ᄒᆞ다! 공의 복녁이여.(제18권 제19화)

(26) 전고 삭제: 皇帝待以神師, 起別院於大內, 而迎置之, 如唐肅宗之待李鄴侯.(제8권 제29화)→황데 신ᄉᆞ로뼈 ᄃᆡ졉ᄒᆞ고 별원을 대ᄂᆡ예 짓고 마져 두니라.(제18권 제10화)

(27) 전고 대체: 鶉奔之行(제10권 제2화)→음힝(제19권 제1화)

(28) 전고 삭제: 自許以有子長之風(제10권 제8화)→해당 문장 삭제(제19권 제7화)

(29) 전고 삭제: 至於古之兪扁之術, 皆以意解之, 盡其精妙, 非有得於方書也.(제10권 제13화)→해당 문장 삭제(제19권 제12화)

(30) 전고 대체: 如白駒過隙(제10권 제13화)→흐르ᄂᆞᆫ 물결 ᄀᆞᆺ트니(제19권 제12화)

한문본 야담에는 전고를 활용한 표현이 많이 보인다. 한문본 야담을 창작하거나 향유하는 사대부 남성들에게 독서가 기본 교양으로 요구되었던바 사대부 남성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 다양한 전고를 익히고 공유할 수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글본에 삭제된 경우가 많은

데 그 예를 연대본『어우야담』의 (2), 최민열본『천예록』의 (1), (2), (3), (4), (5), 정명기본『천예록』의 (1), 낙선재본『어우야담』의 (4), (10),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 (3), (5), (10), (20), (26), (28), (29)에서 살필 수 있다. 전고를 활용한 표현이 서사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한글본에서는 이를 과감히 삭제했음이 확인된다.

전고가 다른 내용으로 대체된 예로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5),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 (2), (6), (7), (8), (11), (15), (24), (25), (27), (30)을 들 수 있다. 이는 해당 부분을 삭제했을 때 이야기의 전개가 부자연스러운 경우 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다.

한편 기존 문헌을 인용한 내용이 삭제된 예는 연대본『어우야담』의 (2), (3), (4), (5), 최민열본『천예록』의 (2), (5), (6), (7), 정명기본『천예록』의 (2), 낙선재본『어우야담』의 (2), (3), (6), (11), 규장각본『청구야담』의 (4), (12)에서 확인된다.

간혹 문헌을 인용한 부분이 연대본『어우야담』의 (1)이나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6)에서처럼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연대본『어우야담』의 (1)에는『春秋左傳』을 인용한 문장이 “가히 이샹ᄒᆞ고 두립도다”는 서술자의 단순한 감상으로 대체되어 있고,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6)에서「陶庵神道碑銘」을 인용한 문장이 “이후 병환이 쾌ᄎᆞᄒᆞ니라”는 후일담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한문본 야담에서 기존의 문헌을 인용할 때는 대개 인용하는 문헌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저자・서명・편명 등의 정보를 자세히 기록해두었는데 연대본『어우야담』의 (4)나 낙선재본『어우야담』의 (2)처럼 “古書”로만 밝혀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어느 쪽에 속하든 한글본에는 기존의 문헌을 인용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

한글본에서 시문에 대한 서술이 생략되거나 대체된 예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 (7), (8), (9), 규장각본『청구야담』의 (9), (13), (14), (17), (18), (19), (21), (22), (23)에서 확인된다. 시문에 관한 서술은 한글본 야담에 생략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규장각본『청구야담』의 (9)처럼 다른 문장으로 대체된 경우도 있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9)에서

는 한문본의 “문장이 호방하고 시가 또 웅장하고 기발했다(文辭浩汗, 而詩又雄奇)”는 시문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문댱 시귀 일셰의 유명ᄒᆞ여”라는 다소 범박한 언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전고를 활용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쉬운 표현으로 바뀌는가 하면, 기존의 문헌을 인용한 서술이나 시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는 등 한문본 야담에 엿보이는 문인 취향이 한글본 야담에서 약화된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사대부 남성들에게 독서와 창작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기본 교양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던바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독서를 통해 어떤 고사를 습득했는지, 시문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은 퍽 긴요한 일이었다. 한문본 야담이 사대부 남성에 의해 향유되던 양식이었기에 자연스레 문인으로서의 취향과 소양을 반영하였던 데 비해, 한글본 야담은 여성 독자를 위한 것이었기에 한글로 번역되면서 문인 취향이 두드러지는 부분이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한문본 야담에 보이는 문인 취향이 한글본에서 약화된 양상을 통해 한글본 야담의 변이가 독자층의 변화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문제의식의 소거

야담은 시정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구연되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가 많았으므로 사대부 남성의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양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떠도는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것은 아니었던바 나름의 작가적 수완과 창작성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윤색이 가해지며 기록자의 시각이 침투되기도 했다.[23] 그 결과 한문본 야담에는 사대부 남성으로서 갖는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사대부 남성으로서 갖는 문제의식은 서술자가 이야기에 개입하는 부분이나 이야기에 대해 평(評)하는 부분에서 잘 확인되는데, 한글본으로

23) 박희병, 「한국한문소설사의 전개와 傳奇小說」,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2007, 95~96쪽.

번역되면서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는 경향이 있다. 한문본 야담에서 드러나는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문제의식이 한글본 야담에는 약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본『어우야담』의 경우

(1) 사환 관련 서술의 삭제: 我東方壤地偏小, 人才之出, 不能如中國之千一. 又局於箕子之遺典, 爲奴者不許仕路, 立賢無方, 三代盛法, 而至我國防閑益固, 士大夫之論, 隘且猜矣. 潘碩枰忠義人也, 脫身法網, 爲朝廷大官, 揆之常情, 掩匿蹤跡之不暇, 能下車屈身於寒士, 又聞之朝, 自暴其賤迹, 諒東方所罕有之令聞也.(제60화) →우리 동방이 편소ᄒᆞ여 인지 나기를 듕국보다가 만의 ᄒᆞ나히오 셕뎡이 튱의ᄒᆞᆫ 사ᄅᆞᆷ이라. 몸을 숨겨 죠뎡의 대신이 되엿다가 자최를 ᄀᆞᆷ초디 아니ᄅᆞ고 쵸헌의 ᄂᆞ려 한ᄉᆞ의게 굴ᄒᆞ고 ᄯᅩ 샹소ᄒᆞ여 됴뎡의 알외여 ᄉᆞ〃로 근본을 드러내니 셰샹의 희귀ᄒᆞᆫ 일노 일ᄏᆞ더라.(제7화)

(2) 표창의식의 약화: 欷歟休哉, 將軍之忠義! 大賊壓營, 寡衆懸殊, 而從容擺陣颺旗督戰, 一奇也. 胡兵來呼通使, 意在講好, 聞若不聞, 終始力戰, 二奇也. 下馬倚樹, 示以必死, 數千之衆, 血戰不降, 三奇也. 手中長劍, 死且不釋, 有若更起而殺賊, 四奇也. 方春暖, 死肉不朽, 怒氣勃勃如生, 五奇也. 領相朴承宗作傳以褒之.(제16화)→아ᄅᆞᆷ답다, 쟝군의 튱의여! 녕샹 박승종이 뎐을 지어 표장ᄒᆞ다.(제16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지배층에의 비판적 시선 소거: 山居野處可患者, 莫如此. 諺曰: "居鄕三畏蛇也 虎也 主倅也."(제497화)→산의 거ᄒᆞ나 들의 쳐ᄒᆞ나 가히 근심된 쟤 이만 ᄏᆞᆺᄒᆞ니 업ᄂᆞ니라.(제3화)

(2) 표창의식의 약화: 壬辰之亂, 官妓之遇倭, 不見辱而死者, 不可勝記, 非止一論介, 而多失其名. 彼官妓皆淫娼也, 不可以貞烈稱, 而視死如歸, 不汚於賊, 渠亦聖化中一物, 不背國從賊, 無他, 忠而已矣. 欷歟! 哀哉!(제9화)→해당 문장 삭제(제109화)

(3) 사환 관련 서술의 삭제: 又不可更赴擧爲大科, 又不可求蔭任通仕路, 又不

可齒平人往返士流爲交際.(제293화)→해당 문장 삭제(제113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사환 관련 서술의 삭제: 吳乃滑稽之類也, 使出於淳于髡優孟之世, 則何渠不若耶!(제2권 제12화)→오물음은 진짓 사롬을 잘 격동ᄒᆞᄂᆞᆫ 쟤로다.(제3권 제6화)

(2) 지배층에의 비판적 시선 소거: 巡使聞之大驚且怒, 而寧邊府使時武人也, 循雲山之囑, 以女拔刀斫人報營, 請重治, 巡使行關嚴責, 卽啓罷, 雲山倅終身禁錮(제3권 제20화)→슌ᄉᆡ ᄯᅩ 듯고 대경 대로ᄒᆞ여 즉시 운산 군슈를 장파ᄒᆞ여 죵신 금고ᄒᆞ고(제6권 제6화)

(3) 남인에의 비판적 시선 소거: 柳妻可謂女中之有識者也, 豈當時午人宰相輩, 所可及者耶?(제7권 제2화)→뉴처ᄂᆞᆫ 가히 녀즁 유식ᄒᆞᆫ 쟤라 닐으리로다.(제13권 제2화)

한문본 야담에 보이는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문제의식은 주로 사환(仕宦)과 관련된 서술, 표창 의식의 발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관련하여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낙선재본『어우야담』의 (3)이나 규장각본『청구야담』의 (2)와 같이 서사 내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연대본『어우야담』의 어우야담 (1), (2),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 (2),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 (3)처럼 후일담이나 후평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

한글본 야담에서 사환과 관련된 서술이 삭제된 경우는 연대본『어우야담』의 (1), 낙선재본『어우야담』의 (3),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에서 확인된다. 사대부 남성에게 있어 사환, 즉 관직에 진출하여 일하는 것은 개인의 이해와 관련되는 것일뿐더러, 동시에 공적으로 유학의 목표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사대부 남성들에게 사환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연대본『어우야담』의 (1)에는 한문본에 보이는 "기자가 남긴 법전에 국한되어 노비들에게는 벼슬길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이를 세움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삼대의 성대한 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벼슬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더욱 견고하니

사대부의 의론이 편협하고 배타적(局於箕子之遺典, 爲奴者不許仕路, 立賢無方, 三代盛法, 而至我國, 防閑益固, 士大夫之論, 隘且猜矣.)"이라는 사환에 대한 서술자의 의론이 보이지 않는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3)에는 진사(進仕)로서 실명(失明)하게 된 상황과 관련하여 "또 다시 과거를 보아 대과를 치를 수도 없고, 또 음직을 구하여 벼슬길에 나갈 수도 없으며, 또 보통사람처럼 선비들과 왕래하며 교제할 수 없음(又不可更赴擧爲大科, 又不可求蔭任通仕路, 又不可齒平人往返士流爲交際)"을 비통해하는 사대부 남성 김운란의 심리 묘사가 대폭 축약되어 있다.[24]

한편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은 앞의 두 사례처럼 사환이 직접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골계에 뛰어난 인물 오물음이 이야기를 잘하는 재주로 기용되어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던 순우곤이나 우맹처럼 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부분이 소거되어 있는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문본에서는 "순우곤이나 우맹의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면 어찌 그들만 못했겠는가!(使出於淳于髡・優孟之世, 則何渠不若耶!)"라는 평을 통해 빼어난 나름의 재주를 지니고도 사회적으로 쓰이지 못한 인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는데 한글본 야담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있는 것이다.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한문본 야담의 작자와 독자인 사대부 남성이 사환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과 달

24) 선행 연구에서 한글본 야담에 보이는 번역상의 특징으로 심리 묘사가 확장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눈을 잃은 사대부 남성으로서 김운란이 가졌을 비통한 심정이 절실하게 드러난 대목이 축약되어 있는 이 사례를 통해,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사대부 남성이 사환의 좌절과 관련하여 내보이는 절절한 심리 묘사에 여성 독자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역자는 한글본 야담의 독자들이 사대부 남성의 심리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리라 상정하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한글본 야담에 심리 묘사가 확장되는 경향만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글본 야담의 심리 묘사와 관련된 서술이 확장되는 경우도 많지만, 축약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국민대본 『동패낙송』에서 심리 묘사가 부연되는 양상과 관련해서는 백승호, 「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 연구」, 『국어국문학』 16, 국문학회, 2007, 229~230쪽; 남궁윤,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국문번역본 고찰」, 『동악어문학회』 57, 동악어문학회, 2011, 102~103쪽 참조. 서강대본 『동패낙송』에서 심리 묘사가 부연되는 양상과 관련해서는 정보라미,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313~314쪽 참조.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심리 묘사가 부연되는 양상과 관련해서는 김준형, 「『청구야담』의 국역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564~565쪽 참조.

리, 한글본 야담을 읽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성 독자가 사환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큰 관심을 갖지 않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역자는 한문본 야담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대부 남성만큼 사환에 관심을 쏟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이 독자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문본 야담에 드러나는 사환과 관련된 견해나 심리에 대한 서술을 대폭 축약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 독자의 취향과 기대지평을 고려한 번역을 통해 한글본 야담의 이야기들은 여성 독자에게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로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대본 『어우야담』의 (1)에서 반석정이 종으로서 대관(大官)이 되었음에도 주인을 잊지 않은 일을 두고 한문본의 서술자가 "진실로 우리나라에 드물게 있는 미담(諒東方所罕有之令聞也.)"이라고 평한 것을 한글본에 "셰샹의 희귀혼 일"로 바꿔 써둔 데서도 살필 수 있다. "우리나라에 드물게 있는 미담"이라는 한문본의 평은 우리나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벼슬길에 제약이 있음에도 종으로서 대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문제의식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되는 데 비해, 한글본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저 드물고 신기한 것으로 보는 데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글본 야담에서 표창의식이 약화된 예로 연대본 『어우야담』의 (2)와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2)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대본 『어우야담』의 (2)에는 김응하 장군의 충의에 대한 논찬(論贊)이 대부분 생략되어 있고,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2)에는 논개의 충절에 대한 논찬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한문본에서는 이미 서사를 통해 김응하와 논개의 충절이 충분히 전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평을 더함으로써 서사의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고 독자가 이를 표창이라는 특정한 방향에서 평가하도록 유도했다.[25] 그 결과 한문본에서는 김응하와 논개의 충절에 대한 표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대부 남성로서의 문제의식에 맞닿는 부분이 있다. 유교적 사고에서는 인간을 지위 내지 자격의 '이름'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직분을 다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25) 야담계 소설이나 전계 소설에서 보이는 논찬에 관해서는 박희병(2007), 앞의 논문, 앞의 책, 100쪽 참조.

때,[26] 한문본 야담에 보이는 이 같은 표창의식은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문제의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글본 야담에 이러한 논찬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글본 야담은 한문본 야담에 비해 논찬을 통한 평가보다는 이야기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한글본의 역자가 상대적으로 서사 자체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여성 독자를 고려하고 그 기대지평을 반영하여 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한글본 야담에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소거된 예를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2)에서 찾을 수 있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은 호랑이의 독기(毒氣)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문본의 서술자는 이 이야기의 뒤에 "시골에 살면서 세 가지 두려운 것이 있으니 뱀과 호랑이, 고을 원이 그것(居鄕三畏, 蛇也, 虎也, 主倅也.)"이라는 평을 덧붙이고 있다. 즉 호랑이의 독기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의 말미에 고을 원으로 표상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은근히 드러내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글본에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바 한글본은 신기한 이야기 자체에만 집중하고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차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2)는 운산(雲山) 사또가 절개를 지키는 길정녀를 겁탈하려다 실패해 벌을 받고, 길정녀는 남편과 함께 잘 살았다는 이야기의 후일담 중 일부이다. 한글본에 삭제되어 있는 부분은 "영변부사는 무인이었기에 운산 사또의 부탁에 따라 여자가 칼을 꺼내들고 사람을 찍었다는 식으로 감영에 보고하고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했다(寧邊府使時武人也, 循雲山之囑, 以女拔刀斫人報營, 請重治.)"는 내용이다. 이는 무인 출신의 영변부사가 운산 사또와 결탁하여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보신(保身)을 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한문본 『청구야담』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후일담을 통해 끝까지 반성 없이 자기의 안위만을 중시하는 지배층 인물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2)는 낙선재본 『어우야담』

26) 김낙진, 「의리: 공존과 공익을 위한 모색」, 한국사상연구회편,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493쪽.

의 (1)처럼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지배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지는 않지만, 지배층의 불공정한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한글본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바 한문본 야담에서 드러나는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한글본에서 소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3)은 "어찌 당시의 남인 재상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豈當時午人宰相輩, 所可及者耶!)"라는 한문본의 후평이 탈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남인의 득세(得勢)와 패망(敗亡)을 예견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화를 피한 여성 인물에 대한 표창이 "午人" 즉 남인(南人)에 대한 비판과 교묘하게 맞닿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노론 사대부로서[27] 남인에 대해 가졌던 문제의식이 한글본에서 약화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상에서 한문본 야담에는 사대부 남성의 문제의식이 주로 사환과 관련된 서술, 표창 의식의 발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 등과 관련하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살피고, 한글본에 이러한 부분이 생략됨으로써 사대부 남성으로서 가졌던 문제의식이 한층 약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글본의 역자가 독자층을 여성으로 상정하고, 번역 과정에서 한문본 야담의 내용 중 여성 독자가 큰 흥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내용들을 덜어낸 결과로 보인다. 이는 여성 독자가 상대적으로 흥미로운 사건이나 서사 그 자체에 관심을 더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흥미로운 서사 자체에 집중하여 오락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배려한 역자의 노력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글본 야담은 이처럼 여성 독자의 기대지평을 고려하여 반영함으로써 여성 독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으며 즐길 만한 텍스트로서의 유희지향을 더 크게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

27) 선행 연구를 통해 『청구야담』의 전반적인 서술태도나 제반 정황으로 미루어 『청구야담』이 서울의 노론계 인물의 손에서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임형택, 「第二十八・二十九冊 解題」, 이우성 편,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28 『靑邱野談』 上 , 아세아문화사, 1985, 19쪽 참조.

4.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 활용

한글본 야담에서 확인되는 특징으로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이 활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글본 야담에 한글소설과 유사한 표현이 차용되거나 한글소설의 문체와 문법이 구사되는 양상이 종종 보이는 것이다. 이는 한문본 야담이 한글로 번역되며 다시 쓰이는 과정에서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이 틈입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한글소설의 표현 차용

한글본 야담에는 한글소설의 표현이 차용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한문본의 내용이 직역되는 대신,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으로 대체되거나 부연된 경우가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국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대체: 科止小成, 家徒四壁(제50화)→일싱궁유로 진ᄉᆞ를 ᄒᆞ고 집이 젹빈ᄒᆞᆫ ᄃᆡ(제2화)

국민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대체: 明眸皓齒(제8화)→어엿분 ᄌᆞ질과 긔이ᄒᆞᆫ ᄐᆡ되(제1화)

(2) 부연: 才思絶代(제8화)→지조와 얼굴이 졀등하게 아름답고(제1화)

(3) 대체: 朝廷更化, 罪廢者, 咸復官陞資(제58화)→됴뎡이 쳥명ᄒᆞ고 군현이 휘진ᄒᆞᆯ식(제3화)

(4) 대체: 揷榛笄, 整衣裳(제58화)→형차포군으로(제3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대체: 凝粧珠翠者(제357-1화)→웅장셩복과 녹의홍샹ᄒᆞᆫ 쟤(제136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첨가: 容貌凡百, 孤陋鄕閭, 萬不成樣.(제2권 제21화)→용모ᄂᆞᆫ 슈려ᄒᆞᆫ ᄃᆞᆺᄒᆞ

나 범빅이 고루ᄒᆞ고 샹되야 만불성양이러라.(제3권 제15화)

(2) 대체: 美姬歌舞者十數, 皆妙麗.(제5권 제2화)→화월ᄀᆞᆺ튼 쇼년 졀염이 쳥가 묘무로 좌우의 버러 힝낙ᄒᆞᄂᆞᆫ 쟤 수십이어늘(제9권 제1화)

(3) 대체: 進士主則雖經一時之橫厄, 因緣此會, 又得一處女, 亦豈非幸歟!(제5권 제8화)→진ᄉᆞ쥬로 ᄃᆡ신ᄒᆞ야 일야 풍파ᄂᆞᆫ 조곰 당ᄒᆞ오나 쳡이 착실ᄒᆞᆫ 즁ᄆᆡ 되여 가인을 어드시고 ᄯᅩ 부가옹이 되샤 복녹을 누릴 거시오(제9권 제7화)

(4) 부연 및 대체: 音吐淸徑, 如白鶴唳空, 爲之泣下霑臆.(제5권 제23화)→셩음이 뇨량ᄒᆞ여 빅학이 벽공의 울고 황잉이 녹뉴의 노ᄅᆡ홈 ᄀᆞᆺᄐᆞ니 공이 위ᄒᆞ야 눈물을 나려 옷깃슬 젹시고(제9권 제20화)

(5) 부연 및 대체: 堂上有老翁, 頭戴烏紗折風巾, 以明珠片纓承之, 兩鬢貼了一雙金圈, 身穿大花靑錦氅衣, 腰橫條兒帶, 高坐於沉香椅上, 五六丫鬟, 眩粧麗服序列.(제5권 제35화)→당샹의 홍안 빅발 일 노인이 머리의 오사 졀풍건을 ᄡᅳ고 명쥬 편영으로 ᄆᆡ엿스니 두 귀 밋ᄒᆡ 일빵 금관지 빗치 황홀ᄒᆞ고 몸의 대화쳥금창의를 입엇스며 허리에 일조 진홍당ᄉᆞᄃᆡ를 ᄯᅴ고 놉히 침향 교의 우ᄒᆡ 안ᄌᆞ시니 남극션옹이 강님ᄒᆞᆫ ᄃᆞᆺᄒᆞ고 오, 륙 ᄎᆞ환이 녹의홍상으로 버러 뫼셧더라.(제10권 제12화)

(6) 부연: 二八娘子, 月態花貌, 靚粧炫服, 翹立戶內, 隱暎顯晦, 只窺一班.(제5권 제35화)→이팔 낭지 월ᄐᆡ화용의 응장셩식으로 명월션을 반만 ᄀᆞ리오고 지게 안의 아릿다히 셧스니 장강 반희의 식덕이 겸비ᄒᆞ고 왕모 상아의 연분이 젹강ᄒᆞᆫ 지 촉광이 은영ᄒᆞ고 용치 현회ᄒᆞᆫ지라(제10권 제12화)

(7) 대체: 娘子進問後會(제5권 제35화)→낭지 늣기며 아미를 ᄂᆞ즉이 ᄒᆞ야 후회를 무른ᄃᆡ(제10권 제12화)

(8) 대체: 察其形容, 則乃是別人.(제7권 제2화)→싱이 촉하의 셔로 ᄃᆡᄒᆞᆫ즉 월ᄐᆡ화용이 어제 밤 미인과 일반이라.(제13권 제2화)

(9) 대체: 綉鞍驄橫馳而來(제7권 제16화)→슈안 금늑의 형용이 졀묘ᄒᆞ여 옥분의 도홰 이슬을 먹음고 댱졔의 양뉘 츈풍을 ᄯᅴ여 션연ᄒᆞᆫ 쳔ᄐᆡ만염이 볼ᄉᆞ록 긔이ᄒᆞ고 아름다와 사ᄅᆞᆷ의 졍신을 황홀케 ᄒᆞ니(제14권 제3화)

(10) 대체: 顔如含露之桃花, 腰如依風之細柳, 羅綺翠珠, 飾其上下, 眞是傾城之

色.(제7권 제16화)→얼골은 츌슈ᄒᆞᆫ 홍년 ᄀᆞᆺ고 명쥬보픽로 그 샹하ᄅᆞᆯ ᄭᆞ몃스니 침어낙안지용이오, 경국경셩지식이라.(제14권 제3화)

이상에서 한글본 야담에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28] 선행 연구를 통해 『소현성록』 등의 한글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잘 생긴 외모를 묘사할 때 훨씬 자세하고 생기가 넘실대는 분위기로 서술된다는 사실이 지적된바,[29] 한글본 야담에도 특히 인물의 외양 묘사와 관련하여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남성 등장인물의 묘사에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쓰인 예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5)뿐인 데 비해, 여성 인물의 묘사에서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보이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 여성 인물의 묘사에서 쓰인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은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 (2), (4),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 (2), (6), (7), (8), (9), (10)에서 확인된다.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에서는 "맑은 눈동자와 흰 이(明眸皓齒)"가 "어엿분 ᄌᆞ질과 긔이ᄒᆞᆫ ᄐᆡ되"로,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에서는 "진주와 비취로 화려하게 꾸민 자(凝粧珠翠者)"가 "웅장셩복과 녹의홍샹ᄒᆞᆫ 쟤"로,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7)은 "進"이 "늣기며 아미를 ᄂᆞᄌᆞᆨ이 ᄒᆞ야"로 바뀌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처럼 한글본 야담의 번역 과정에서 한문본에 보이는 인물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직역되는 대신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쓰였다고 해서 한글본 야담에서 한문본과

28) 한글본 야담에서는 한문본의 내용을 한자어나 한문 구절을 활용한 새로운 한문투의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문투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한글본 야담의 변이를 한글소설의 표현과의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층 여성이 주로 읽었던 <완월회맹연>과 같은 한글장편소설에 한문투의 표현이 많이 쓰였으며 판소리에도 '문자'의 사용이 빈번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선행 연구를 참조할 때, 한글본 야담에 보이는 새로운 한문투의 표현 또한 한문 텍스트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기보다, 한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한글소설의 표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문이 한글에 파고들고, 한글이 한문에 감염되었던 현상에 대해서는 정병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一考-心身寓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문화』 4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14쪽 참조.

29)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48~49쪽.

내용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에서는 여성 인물의 묘사와 관련하여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쓰임으로써 이야기의 유기성을 해치게 된 경우가 확인되기도 한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에는 한문본에 "용모가 전부 고루하고 촌스러워 전혀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容貌凡百, 孤陋鄕闇, 萬不成樣)"고 되어 있는 신부에 대한 묘사가 "용모는 슈려혼 듯ᄒᆞ나 범빅이 고루ᄒᆞ고 샹되야 만불성양이러라"로 바뀌어 있다. 한글본으로 번역되면서 여성 인물은 고루하고 촌스러운 외양에서 수려한 외모로 바뀌어 서술된 것이다. 그런데 이 뒤에는 집안사람들이 신부의 겉모습을 본 후 멸시하고 박대했다는 서술이 이어지는바[30] 한글본에 부연된 이 같은 묘사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어긋나게 된다. 한글본 야담의 역자가 전체 서사의 유기성을 해치는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인물의 외양 묘사에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을 가져와 쓴 이 예를 통해 한글본 야담에서 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깊은 고민 없이 쓰였다는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인물 정보의 서술, 상황에 대한 설명, 서사적 분위기의 묘사와 관련해서도 한글본 야담에서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활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는 단국대본 『동패낙송』의 (1)의 경우 "과거는 소성(小成)에 그치고, 집은 네 벽뿐이었다(科止小成, 家徒四壁)"는 서술이 "일싱궁유로 진ᄉᆞ를 ᄒᆞ고 집이 젹빈ᄒᆞᆫᄃᆡ"로 되어 있는바, 등장인물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한글소설의 표현을 차용함으로써 다소 다른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3)에서는 "조정이 개혁되자 죄 때문에 추방된 자들이 모두 관직을 회복하고 승자(陞資: 정3품 이상의 품계에 오름)되었다(朝廷更化, 罪廢者, 咸復官陞資.)"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한문본의 서사적 상황이 "조정이 맑고 어진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됴뎡이 쳥명(淸明)ᄒᆞ고 군현(群賢)이 휘진(彙集)ᄒᆞᆯ시]"는 다소 범박한 표현으로 바뀌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규장각

30) "渾家上下, 見其新婦之樣, 無不駭嘆, 皆有蔑視薄待之意."→"혼실 상해 신부의 모양을 보고 히괴이 너기지 아니리 업셔 멸시ᄒᆞ고 박ᄃᆡᄒᆞ되"

본 『청구야담』의 (4)에는 한문본에 “소리가 맑고 쟁쟁해 백학이 하늘에서 우는 것 같다(音吐淸磬, 如白鶴唳空.)”고 묘사된 서사적 분위기가 “셩음이 뇨량ᄒᆞ여 빅학이 벽공의 울고 황잉이 녹뉴의 노릭ᄒᆞᆷ ᄀᆞᆺᄐᆞ니”로 부연되어 있다. 이 예를 통해 한글본 야담에서 한글소설의 문체가 활용됨으로써 백학(白鶴), 벽공(碧空), 황앵(黃鶯), 녹류(綠柳)가 색채적인 대비를 이루며 서사의 분위기가 보다 감각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인물의 외양 묘사, 인물에 대한 정보의 서술, 상황에 대한 설명, 서사적 분위기의 묘사와 같이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대화에서도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3)에는 여성 인물의 대화가 한글소설의 문체를 통해 다소 부연되어 있다. 한문본의 “진사님은 비록 잠깐 횡액을 당했으나 이 만남으로 인해 또 한 처녀를 얻었으니 이 또한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進士主則雖經一時之橫厄, 因緣此會, 又得一處女, 亦豈非幸歟?)”라는 과부의 말이 한글본에는 “ᄉᆞ쥬로 ᄃᆡ신ᄒᆞ야 일야 풍파ᄂᆞᆫ 조곰 당ᄒᆞ오나 쳡이 착실ᄒᆞᆫ 중ᄆᆡ 되여 가인을 어드시고 ᄯᅩ 부가옹이 되샤 복녹을 누릴 거시오.”로 바뀌어 쓰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글본 야담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의 서술, 상황에 대한 설명, 분위기의 묘사, 등장인물의 대화 등과 관련하여 소설적 표현들이 쓰인 경우에도 대개는 한문본 문장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4)를 통해 한문본 야담의 서술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글소설의 문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감각적인 묘사를 성취하는 사례도 드물게나마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한글본 야담의 인물에 대한 정보의 서술, 상황에 대한 설명, 서사적 분위기의 묘사, 등장인물의 대화 등에서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쓰인 경우에도, 앞서 살핀 인물의 외양 묘사와 관련하여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활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개 한글본 야담에서 한문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았을 뿐더러, 한글본과 한문본 간에 유의미한 차이 또한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즉, 한글본 야담에서 한글소설의 관습적 표현이 쓰인 경우, 대개 한문본에 쓰인 문장과 큰

의미의 차이가 없는바 차용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큰 의미의 차이가 없음에도 한문본의 내용을 직역하지 않고 굳이 소설적 표현으로 대체해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적으로 이는 낙선재본『어우야담』, 단국대본 및 국민대본『동패낙송』,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가 다양한 한글소설의 독서 경험을 통해 익힌 관습적인 표현이 한문본 야담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한글소설을 주로 읽었던 여성 독자들이 보다 익숙한 소설적 표현을 통해 한글본 야담의 내용을 향유하게 되었던바, 이는 여성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이러한 변이는 하나의 번역 전략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31]

2) 한글소설의 문체 및 문법 구사

한글본 야담에서는 한글소설의 문체와 문법이 쓰인 사례를 종종 살필 수 있다. 야담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글소설의 문체가 구사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글장편소설의 구성원리가 차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먼저 한글본 야담에서 한글소설의 문체가 구사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단국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부연: 一日, 海豊謂李兵使曰(제50화)→그 ᄯᅢ예 진경이 바야흐로 당하 무변이라 홀노 힉풍이 니병ᄉᆞ로 더브러 쟝긔를 두더니 홀연이 말이 싱각지 아니ᄒᆞ고 뉘가 식이ᄃᆞ시 공연이 입으로 나와 니병ᄉᆞ의 ᄌᆞ를 불너 갈오ᄃᆡ(제2화)

31) 이처럼 독자에게 익숙한 표현을 활용하는 번역하는 방식은 일종의 '길들이기'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길들이기'와 '들이밀기'는 로렌스 베누티에 의해 번역 전략으로서 이론화된 '자국화(domestication)'와 '이국화(foreignization)'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길들이기'는 번역되어야 하는 언어의 문화를 따름으로써 텍스트를 독자에게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New York: Routledge 참조.

(2) 부연: 香火難繼(제50화)→향화를 니우지 못ᄒᆞ여 민양 제ᄉᆞ를 당ᄒᆞᆫ즉 쳔신만고ᄒᆞ여도 ᄒᆞᆫ 잔 슐을 판득키 어려온지라.(제2화)

서강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부연: 偶爾自窓隙窺見, 則其妾與其外侄同寢.(제24화)→당듕의 등촉이 휘황ᄒᆞ고 밧문을 닷지 아니ᄒᆞ엿거ᄂᆞᆯ ᄆᆞ암의 고이히 넉여 ᄌᆞ만이 어두운 ᄃᆡ셔 여어보니 쳡이 단장을 셩히 ᄒᆞ고 듕계예 거니러 사람을 기ᄃᆞ리ᄂᆞᆫ 형상이러니 이윽고 밧그로셔 ᄒᆞᆫ 놈이 드러와 그 쳡을 잇글고 방듕의 드러ᄌᆞ 희학이 낭ᄌᆞᄒᆞᄃᆞᄌᆞ 자거ᄂᆞᆯ 그 놈을 자셔히 보니 졔 외질이라.(제7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부연 및 대체: 沈生驚訝, 意謂魑魅, 而焉有白晝動見之理, 正在眩惑間(제6권 제9화)→싱이 경아ᄒᆞ여 ᄯᆞᆺ의 헤오ᄃᆡ '귀ᄆᆡ라 ᄒᆞ여도 빅듀에 동ᄒᆞᆯ 니 업고 사ᄅᆞᆷ이라 ᄒᆞ여도 반ᄌᆞ ᄌᆞ온ᄃᆡ 이슬 니 업스리니 심히 괴이ᄒᆞ도다.' ᄒᆞ야 의아ᄒᆞᆯ ᄌᆞ음의(제1권 제8화)

(2) 부연: 遂依其言, 老父母來(제2권 제2화)→쇼비로 ᄒᆞ여금 그 집을 차자가 기간 곡졀을 ᄌᆞ세 니ᄅᆞ고 비단을 젼ᄒᆞ니 그 집 노부체 녀ᄋᆞ를 일코 쥬야 슬허ᄒᆞ다가 이 말을 듯고 꿈인듯 상신듯 황〃이 와셔(제2권 제18화)

(3) 부연: 大君至定州, 有一妓, 素服號哭.(제5권 제17화)→대군이 뎡쥬의 니르러ᄂᆞᆫ 쳥산녹슈 사이예 듁님이 잇고 듁님 ᄉᆞ이예 수간 졍ᄉᆡ 잇ᄂᆞᆫᄃᆡ ᄒᆞᆫ 미인이 소복으로 은영 듕의 잇셔 슬피 우ᄂᆞᆫ 소ᄅᆡ 멀니 드르ᄆᆡ 사ᄅᆞᆷ의 간장이 녹아지고 반만 드러ᄂᆡᄂᆞᆫ 화용월ᄐᆡ 갓가이 보ᄆᆡ 심신이 비월ᄒᆞᆫ지라.(제9권 제16화)

(4) 부연: 注書怪而問之, 對曰: "小人早失生母, 就養於外祖母矣. 今日, 其亡日也, 而外家無人奉祀, 勢將闕祭, 故是以悲之."(제9권 제2화)→쥬셰 그 연고를 놀나 무른ᄃᆡ 민ᄋᆡ 눈물을 거두고 ᄃᆡ왈, "쇼인이 일즉 싱모를 여희고 외조모의게 길닌 지 여러 히예 은ᄋᆡ 심즁ᄒᆞ옵더니 죽은 후 오날이 졧날이오나 외가의 봉ᄉᆞᄒᆞ리 업ᄉᆞ와 필연 졔를 궐ᄒᆞ겟삽기로 심회 ᄌᆞ연 비감ᄒᆞ여이다."(제11권 제2화)

(5) 부연: 終不能忘情, 以書招之, 則辭不入(제9권 제2화)→죵시 연〃 불망ᄒᆞ

야 침식이 불안혼지라. 편지로 샤과ᄒᆞ고 부르ᄃᆡ 간악을 부리고 드러오지 아니ᄒᆞ기ᄅᆞᆯ(제11권 제2화)

(6) 대체: 君須持此歸國, 買妾當得勝我者, 千萬保重, 歸國勿遲.(제9권 제33화) →이것슬 가지고 본국에 도라가 나의셔 승혼 쳡을 사 잘 살고 날ᄀᆞᆺ흔 거슨 싱각지 말고 급히 도라가라.(제12권 제18화)

(7) 부연 및 삭제: 千萬保重, 洒淚而出門.(제7권 제4화)→올나 가오셔 과업을 힘 뼈 수이 편모의게 영화ᄅᆞᆯ 뵈시고 ᄯᅩ 슉녀ᄅᆞᆯ ᄀᆞᆯ히여 혼취ᄒᆞ쇼셔. 별회 창연ᄒᆞ오나 천만 보즁ᄒᆞ여 밧비 ᄯᅥ나쇼셔.(제13권 제3화)

한글본 야담에서 확인되는 한글소설의 문체는 특정 상황의 구체적 묘사, 생생한 대화의 확장, 등장인물의 내면심리에 대한 조명 등과 관련된다.

특정 상황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됨으로써 허구적으로 생생하게 재현된 예는 서강대본『동패낙송』의 (1), 규장각본『청구야담』의 (2),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강대본『동패낙송』의 (1)에는 “우연히 창틈으로 엿보니 첩이 외질과 동침하더라(偶爾自窓隙窺見, 則其妾與其外侄同寢.)”는 한문본의 단순한 서술이 “당듕의 등촉이 휘황ᄒᆞ고 밧문을 닷지 아니ᄒᆞ엿거ᄂᆞᆯ ᄆᆞ암의 고이히 넉여 ᄀᆞ만이 어두운 ᄃᆡ셔 여어보니 쳡이 단장을 셩히 ᄒᆞ고 듕계예 거니러 사람을 기ᄃᆞ리ᄂᆞᆫ 형상이러니 이윽고 밧그로셔 ᄒᆞᆫ 놈이 드러와 그 쳡을 잇글고 방듕의 드러ᄀᆞ 희학이 낭ᄌᆞᄒᆞᄃᆞᄀᆞ 자거ᄂᆞᆯ 그 놈을 자셔히 보니 제 외질이라”로 부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첩과 외질 간의 간통 사실만이 전달되는 한문본과 달리 한글본에는 간통이 벌어지는 구체적 배경과 분위기, 이를 엿보는 남궁두의 내면심리, 첩과 외질의 행동 등이 풍부하고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한글본 야담의 역자가 한문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소설의 문체를 활용하여 윤색을 가함으로써 한문본의 이 짤막한 서술은 한글본에서 생생한 장면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규장각본『청구야담』(2)에는 “드디어 그 말대로 노부모가 와서(遂依其言, 老父母來)”라는 한문본의 서술이 “쇼비로 ᄒᆞ여금 그 집을 차자가

기간 곡절을 ᄌᆞ셰 니ᄅᆞ고 비단을 젼ᄒᆞ니 그 집 노부체 녀ᄋᆞ를 일코 쥬야 슬허ᄒᆞ다가 이 말을 듯고 ᄭᅮᆷ인듯 상신듯 황〃이 와셔"로 부연되어 있다. 한글본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보다 자세하게 그려질뿐더러 조역인 노부모의 내면심리까지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글본의 역자가 소설적 문체를 활용함으로써 이 특정한 허구적 상황을 핍진하게 재현하였음이 확인된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3)에는 "대군이 정주(定州)에 이르니 한 기생이 소복 차림으로 울부짖었다(大君至定州, 有一妓, 素服號哭.)"는 한문본의 문장이 "대군이 뎡쥬의 니르러ᄂᆞᆫ 쳥산녹슈 사이예 듁님이 잇고 듁님 ᄉᆞ이예 수간 졍ᄉᆡ 잇ᄂᆞᆫᄃᆡ ᄒᆞᆫ 미인이 소복으로 은영 듕의 잇셔 슬피 우ᄂᆞᆫ 소ᄅᆡ 멀니 드르ᄆᆡ 사ᄅᆞᆷ의 간장이 녹아지고 반만 드러ᄂᆡᄂᆞᆫ 화용월ᄐᆡ 갓가이 보ᄆᆡ 심신이 비월ᄒᆞᆫ지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한글본 야담에서는 한글소설의 문체가 활용됨으로써 서사적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통해 두 인물의 첫 만남이 구체적이면서도 감각적으로 서술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ᄅᆞᆷ의 간장이 녹아지고"나 "심신이 비월ᄒᆞᆫ지라"와 같이 등장인물의 정서적 반응도 제시될 수 있었던바, 이로 인해 이 장면은 더욱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글본 야담에서 한글소설의 문체를 활용함으로써 인물묘사가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예로 단국대본 『동패낙송』의 (1), 규장각본 『청구야담』 (1), (4), (5), (6), (7)을 들 수 있다. 단국대본 『동패낙송』의 (1),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 (5)는 등장인물의 내면심리가 구체적으로 서술된 경우이고,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4), (6), (7)은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그 내면심리가 보다 생생하게 조명된 경우이다. 이 예들에서는 말과 내면심리의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이 보다 입체적으로 재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6), (7)에서는 이별을 앞둔 여성 인물의 내면심리가 그 말을 통해 핍진하게 전달되는바, 한글본 야담의 역자가 한문본 야담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소설의 수법을 활용하여 내용을 부연함으로써 내면심리의 묘사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두었음이 확인된

다. 한문본의 “천만보중하라(千萬保重)”는 당부가 한글본에서는 “잘 살고 날ᄀᆞᆺ흔 거슨 ᄉᆡᆼ각지 말라”나 “올나 가오셔 과업을 힘 ᄡᅧ 수이 편모의게 영화를 뵈시고 ᄯᅩ 슉녀를 ᄀᆞᆯ히여 혼취ᄒᆞ쇼셔. 별회 창연ᄒᆞ오나 천만 보즁ᄒᆞ여 밧비 ᄯᅥ나쇼셔”로 부연되어 있다. 이 같은 대화의 부연을 통해 한글본 야담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여성 인물의 착잡한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한글본 야담에 한글소설의 표현이 차용된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던 데 비해, 한글소설의 문체가 활용된 경우 한문본의 내용이 한글본에서 풍부하고 상세하게 서술됨으로써 특정한 장면이나 인물이 생생하게 재현되며 한문본 야담과는 다른 새로운 미감이 창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한글소설의 문체가 활용됨으로써 한문본 야담의 내용이 한글본 야담에서 보다 생생하고 풍부하게 서술된 이야기들은 주로 소설이거나 소설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글본 야담의 역자가 한문본 야담 자료에 있는 소설을 한글로 옮기면서 이야기를 보다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글소설의 독서 경험을 살려 다양한 수법을 시도했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자의 노력을 통해 한글본 야담의 독자는 한글본 야담 자료에 실린 소설을 한문본에 실려 있던 내용보다 더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한글본 야담에는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글장편소설의 구성원리가 차용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주요한 장편화(長篇化) 방법 중 하나로 정적(靜的) 서사가 지목된 바 있는데[32]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그러한 한글장편소설의 문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하는 것이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정적 서사가 차용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32) 정적 서사란 서사 진행 곧 스토리 전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그 자체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족적인 서사 부분을 가리키는바, “장면 전개의 확대”와도 상통하는 개념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화합, 예(禮)에 대한 관심, 등장인물 간에 이루어지는 소소한 대화 등 그 포괄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본고에서 논하는 한훤은 등장인물 간에 이루어지는 소소한 대화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20~123쪽;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244~249쪽, 279~283쪽, 292~297쪽 참조.

같다.

(1) 有一新喪人出門 饋以白粥一椀(제2권 제26화)→ᄒᆞᆫ 쵸상 상인이 나와 공숀이 마져 한훤을 ᄆᆞᄎᆞᆫ 후 즉시 흰 죽 ᄒᆞᆫ 그릇슬 ᄃᆡ졉ᄒᆞ니(제4권 제6화)

(2) 歌曰: "平沙落鴈, 江村日暮, 漁舟歸, 白鷗眠, 何處一聲長笛, 醒醉夢." 慢調寥亮, 屋樑可憾, 歌而又歌.(제3권 제19화)→노ᄅᆡᄒᆞ여 ᄀᆞᆯ오ᄃᆡ "평사의 기러기 ᄯᅥ러지고 강촌의 놀이 져므니 고기 잡ᄂᆞᆫ ᄇᆡ 도라오ᄂᆞᆫ도다. ᄇᆡᆨ구ᄂᆞᆫ 어듸셔 조으ᄂᆞᆫ고? 일셩 댱젹의 취ᄒᆞᆫ 꿈을 ᄭᆡ엿도다." ᄯᅩ 노ᄅᆡᄒᆞᄃᆡ "반나마 늙어시니 다시 졈든 못ᄒᆞ리라. ᄇᆡᆨ발이 졔 짐작ᄒᆞ여 ᄆᆡ양 댱쳔 그만ᄒᆞ야 댱취불셩 ᄒᆞ고지고!" ᄂᆞ러진 곡죄 뇨량ᄒᆞ여 집 들보ᄅᆞᆯ 흔드ᄂᆞᆫ지라. 노ᄅᆡᄒᆞ고 ᄯᅩ 노ᄅᆡᄒᆞ여(제6권 제5화)

(3) 其母夫人, 不勝奇喜, 履及於中門之內, 執紅之手, 而升階, 喜溢堂宇, 復續前好.(제7권 제12화)→모부인이 긔힝ᄒᆞ믈 니긔지 못ᄒᆞ여 발바당으로 니ᄃᆞ라 홍낭의 손을 잡고 울어 ᄀᆞᆯ오ᄃᆡ "꿈이냐? 샹시냐?" 말이 업다가 인ᄒᆞ여 긔졀ᄒᆞ니 좌위 쥬믈너 졍신을 출인 후 븟드러 당의 올너 듕간ᄉᆞᄅᆞᆯ 셔로 일ᄭᆞ고 필경 영화로 상봉ᄒᆞ믈 깃거ᄒᆞ더라.(제13권 제11화)

(4) 當其年正初, 委送人馬, 邀栢谷以來, 授以一張簡而書之.(제7권 제18화)→박공이 그 ᄒᆡ 졍초ᄅᆞᆯ 당ᄒᆞ여 인마ᄅᆞᆯ 보ᄂᆡ여 ᄇᆡᆨ곡을 마쟈와 한훤을 ᄆᆞᄎᆞᄆᆡ 박공이 ᄒᆞᆫ 쟝 간지ᄅᆞᆯ 쥬니(제14권 제4화)

(1), (4)를 통해 한문본에 보이지 않는 한훤(寒喧)에 대한 서술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한글본 야담의 경우, 등장인물 간의 한훤의 구체적 내용이 직접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언급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정적 서사와는 구별된다. 이는 정적 서사가 분량을 장편화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음을[33] 고려할 때, 한 편의 이야기가 길지 않은 야담에서 굳이 정적 서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까지 분량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훤에 대한 서술이 서사의 전개와도 무관하고 분량의 확대와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한글본 야담에서 한훤(寒喧)에 대한 서술이 짤막하게나마 부연되어 있는 것은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가 번역

33) 정길수, 앞의 책, 23쪽.

과정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문법을 의식했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즉,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첨가되어 있는 한훤에 관한 서술에서 한글장편소설에서 활용되는 정적 서사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34]

한편 (2)와 (3)에서는 한글본 야담에서 정적 서사가 보다 본격적으로 차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는 노래의 첨가, (3)은 특정 장면의 확장을 통해 정적 서사가 이뤄진 예다. (2)의 경우 한문본에서는 노래 한 곡과 "노래하고 또 노래하였다"는 압축적인 서술을 통해 등장인물의 호걸스러운 면모가 제시되는데,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다른 노래가 한 곡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서사 전개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추가된 것인바 새로운 오락거리를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3)은 고부가 재회하는 장면을 확장함으로써 한글본에서 정적 서사가 이루어진 예다. 상봉 장면에서 모부인(母夫人)이 울며 말하고 기절했다 깨어나는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부연됨으로써 이 장면은 생동감을 성취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가족의 이산과 관련하여 감정이 극에 달한 여성 인물이 울부짖다가 기절하고 깨어나는 장면은 한글장편소설에서 종종 보이는 것이다.[35] 이 장면 또한 서사의 진행과 무관하게 부연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적 서사가 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한글장편소설의 문법인 정적 서사가 한글본 야담에 보이는 예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만 확인된다. 그런데 그마저도 (1), (4)의 예와 같이 한글장편소설의 장치를 단순히 의식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글본 야담의 정적 서사는 차용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글장편소설에서 정적 서사가 서사를 장편화하는 주요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야기 한 편의 분량이 훨씬 짧은 야담의 번역 과정에서 정적 서사가 그러한 서사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규장각본 『청구야

34) 『소현성록』에서 상층 여성들이 일상에서 나눔 직한 점잖고 품위 있는 대화들이 활용됨으로써 서사가 장편화되고 있음은 정길수, 앞의 책, 293~296쪽 참조.

35) <완월회맹연>에서 가족의 이산과 관련하여 그리움과 염려가 묘사됨으로써 장면 전개가 확대되고 있음은 정병설, 앞의 책, 103~104쪽 참조.

담』에서 정적 서사가 특별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번역 과정에 굳이 차용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는 당시 한글장편소설의 작자 및 독자와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 및 독자 간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즉 규장각본 『청구야담』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 역자의 한글장편소설 독서경험이 틈입했을 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에 익숙한 독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와 독자는 모두 한글장편소설의 독서 경험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글본 야담의 여성 독자가 한글소설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본 야담에 대한 기대지평을 지녔던바,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이러한 독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글소설의 표현을 차용하거나 문체를 활용하고, 한글장편소설의 서사 문법을 빌려오기도 하며 한글소설의 독서 경험을 야담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녹여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글본 야담의 여성 독자는 익숙한 표현과 문체, 문법을 통해 한글본 야담을 보다 친숙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소설, 혹은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특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성 독자는 이러한 재미를 한글본 야담을 읽는 동기의 하나로 확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글본 야담에 기대한 오락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Ⅳ. 한글본 야담에 보이는 여성 관련 교양과 그 의미

1. 교양을 중시한 선초

앞서 제Ⅲ장을 통해 한글본 야담은 그 선초 과정에서 호기취향을 반영하고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성 독자를 위한 흥미로운 읽을거리로서의 유희지향적 면모를 지니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한글본 야담의 선초 과정에는 유희지향만 고려되었던 것이 아니라, 교양성 또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여성 독자들은 모범적 여성의 이야기나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을 통해 교양을 쌓을 수 있었다.[1]

1) 모범적 여성상의 제시

한글본 야담에 선초되어 있는 모범적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선초 과정에서 여성 독자를 위한 교양이 중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글본 야담의 모범적 여성상은 이른바 현모양처(賢母良妻)로서 표상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은 공적(公的)인 역할을 요구받지 못했기에 개인의15 성취 혹은 개별적인 정체성에 따라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까닭이다. 이에 당시 여성은 집안의 존재로만 제한되었던바, 딸・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만 그 존재를 평가받았던 것이다.[2]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모범적 여성상 또

---

1) 본고에서 한글본 야담자료와 관련하여 말하는 “여성 관련 교양”이란 교양적인 내용 가운데 여성과 직접 관련되는 것뿐 아니라, 여성 독자가 교양적이라고 받아들일 만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 전반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즉 좁은 의미의 “여성 관련 교양”은 선초를 통해 확인되는 모범적 여성상, 번역을 통해 드러나는 부덕(婦德)에의 강조, 선정적 내용에 대한 지양 등 모범적인 여성이 갖추도록 요구되는 부덕과 관련되는 내용에 한정된다. 한편 넓은 의미의 “여성 관련 교양”은 구체적인 지식이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소양을 얻고 다양한 인간상에 대해 고찰할 수 있게 된 선초의 경향과, 본문에 주석과 해설적 서술이 활용되거나 삽입시에 독음과 번역이 병기된 번역 양상을 통해 여성 독자가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소양을 쌓을 수 있게 된 데서 두루 확인할 수 있다.

2) 중세 여성의 자기서사는 가족 서사와 착종되어 있으며, 공적 서사와 개인의 개별 서사가 결여

한 가정 내에서 딸·아내·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성공적 혹은 모범적으로 수행한 여성상을 뜻한다.

모범적 여성의 이야기가 선초된 경우는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동패낙송』, 서강대본『동패낙송』에서 확인되고, 여성 독자가 모범적 여성상에 대한 교양을 쌓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이야기가 탈락된 경우는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확인된다.

(1)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앞서 최민열본『천예록』에 실린 총13편 가운데 기이한 이야기 9편(제1, 2, 7, 8, 9, 10, 11, 12, 13화)과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반영한 이야기 2편(제5, 6화)이 실려 있음을 살펴보았다.[3] 그런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화와 제4화가 바로 그것인데 모두 현부(賢婦)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2편은 최민열본『천예록』의 역자가 여성 독자의 교양을 의식한 결과 여성 독자에게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고자 한 의도에서 선초한 것으로 보인다.

제3화 <도디쥬션위졍실(刀代珠扇爲正室)>은 한명회의 첩이 될 뻔한 선천 좌수의 딸이 한명회에게 요구하여 정실이 된 이후 현부로 칭송을 받았으나 집안에서는 정실로 인정받지 못하였던바 미행(微行)하여 온 세조에게 요청함으로써 정실이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제4화 <익협부육득완졀(腋挾腐肉得完節)>은 젊은 선비의 아내가 연산군에게 훼절당할 위기 상황에서 겨드랑이에 썩은 고기를 끼고 들어가는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이다.

제3화에서처럼 남편과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정실로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제4화에서와 같이 외간 남성에게 정절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 것은 모두 이들이 여성이기에 겪게 되는 갈등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되어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가 본고에 시사점을 주었음을 밝힌다. 박혜숙,『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123~124쪽 참조.

3) 본고의 88~89쪽, 95쪽 참조.

들은 여성으로서 맞닥뜨리게 된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내는데 그 과정에 따라 서사도 진행된다.

우선 이 여성 인물들은 위기를 목전에 앞두고도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3화에서 사대부 남성인 아버지조차 수심 어린 표정을 드러내거나[4] 답답한 마음을 딸에게 토로하는 것과[5] 달리, 선천 좌수의 딸은 강건한 모습을 보이며,[6] 제4화에서 선비의 아내 또한 다른 집 부녀자들이라면 사지(死地)로 향하는 듯한 공포를 느낄 법한 상황임에도[7]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8]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숙한 부인으로 칭송받기도 한다. 제3화에서는 빼어난 외모와 어진 인품을 지닌 선천 좌수의 딸은 멋대로 위세를 부리는 한명회를 설득하여 정실의 예로 혼례를 올린 후,[9] 남편의 잘못을 교정하도록 돕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10] 제4화에 등장하는 선비의 아내는 훼절당할 위기를 내다보고 이를 막기 위해 미리 계책을 세워두었던바[11] 문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려진다.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며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내는 아내의 모습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들이 모범적인 여성상으로 현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2편의 이야기는 여성 독자를 상정한 편역자가 교양성을 의식하며 여성 독자에게 현부라는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고자 선초한 것으로 보인다.

---

4) “수식이 만면ᄒᆞ니 ᄆᆞᅀᆞᆷ의 심히 즐기디 아니ᄒᆞᄂᆞᆫ디라.”
5) “‘널노 인ᄒᆞ야 이 환난을 만날와.’ ᄒᆞ고 비로소 감ᄉᆞ의 말을 니ᄅᆞ고 ‘내 만일 듯디 아니면 반ᄃᆞ시 죽이믈 닙을디라. 시러곰 듯디 아니티 못ᄒᆞ나 ᄉᆞ부의 ᄯᆞᆯ이 사ᄅᆞᆷ의 쳡 되기 원통티 아니리오?’”
6) “그 ᄯᆞᆯ은 태연ᄒᆞ야 언쇠 ᄌᆞ약ᄒᆞ더라.”
7) “졔가 부녀들이 만일 브ᄅᆞ면 경황티 아니리 업서 ᄉᆞ디의 가ᄂᆞᆫ ᄃᆞᆺᄒᆞ ᄃᆡ”
8) “이 명ᄉᆞ의 ᄃᆡᆨ은 브ᄅᆞ믈 보ᄃᆡ 타연ᄒᆞ야 죠곰도 경동ᄒᆞᄂᆞᆫ 빗치 업고”
9) “감ᄉᆡ 긔특이 넉여 그 말을 조차 즉시 녜롤 ᄀᆞᆺ초와 쳐녀로 취ᄒᆞ니 용뫼 아ᄅᆞᆷ다올 분 아냐 셩힝이 현슉ᄒᆞ여 셰샹 드믄 부인이러라.”
10) “지아비 소힝이 부졍 비의ᄒᆞ미 이신즉 녀지 반ᄃᆞ시 유ᄉᆞ 완용으로 간ᄒᆞ믈 지극히 ᄒᆞ니 지아비 다 듯고 사ᄅᆞᆷ이 다 착ᄒᆞᆫ 부인이라 일ᄏᆞᆺ더라.”
11) “대개 이 부인이 브ᄅᆞ미 이실 줄 념녀ᄒᆞ여 미리 응변ᄒᆞᄂᆞᆫ 모칙을 ᄉᆡᆼ각ᄒᆞ야 우육 두 조각을 석여 두엇다가 각각 두 겨ᄃᆞ랑이예 ᄒᆞ나식 품어 그 더러온 ᄂᆡ를 피오니”

(2) 국민대본『동패낙송』의 경우

앞에서 국민대본『동패낙송』에 기이한 이야기 4편(제2, 4, 6, 7화)과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한 이야기 2편(제1, 5화)이 선초되어 있음을 살핀 바 있다.[12] 그런데 국민대본『동패낙송』에 수록된 총8편 중 앞서 살핀 6편을 제외한 나머지 2편(제3화, 8화)에서는 현부가 주요하게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제3화 <긔쟝가췌셔졸현(器匠家贅婿猝顯)>은 고리장이의 딸이 화를 피해 숨은 선비를 남편으로 맞아 정성껏 돌본 덕에 반정 후 남편이 교리에 제수되자 차부인(次婦人)으로서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제8화 <의빵님명기슈홍(依雙林名妓守紅)>은 누이의 혼수를 위해 당숙에게 돈을 빌리러 갔던 노진이 한 기생을 만나 돈을 얻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였는데 급제한 후 절개를 지키며 기다리던 기생과 재회하여 평생 해로했다는 내용이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미천한 신분의 여성 인물이 망명이나 가난 등으로 일시적인 고난을 겪는 지체 높은 남성 인물을 만나 각자의 방식대로 내조한 결과 아내의 지위를 얻고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3화에 등장하는 고리장이의 딸과 제8화의 기생은 모두 이야기에서 지혜로운 여성으로 그려진다. 제3화에서 고리장이의 딸은 첫 만남에서 갈증을 호소하는 선비에게 물에 버들잎을 띄워줌으로써[13] 현명한 여성으로 표상되는데, 이후에는 고리장이 내외에게 구박받는 선비에게 몰래 밥을 더 챙겨주는[14] 어진 아내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제8화에서 기생은 첫눈에 노진을 보고 그가 귀하게 될 인물임을 알아볼 뿐더러,[15] 당숙의 옹졸함을 모르고 돈을 빌리고자 먼 길을 무릅쓰고 온 노진에게

12) 본고의 91쪽, 96~98쪽 참조.

13) “그 녀인 물을 박의 쓰고 버들 닙흘 훌터 물의 씌여 주거눌 (…) 그 녀인 ᄀᆞᆯ오ᄃᆡ ‘먼리 힝ᄒᆞ야 목이 갈ᄒᆞᆯ 제 급히 물을 먹은즉 샹키 쉬오매 내 닙흘 씌오믄 닙흘 헤티고 먹을 ᄉᆞ이 죠금 더 ᄃᆡ여 샹ᄒᆞ믈 면코져 ᄒᆞ미로라.’”

14) “뉴긔쟝의 부체 심히 믜워ᄒᆞ여 ᄀᆞᆯ오ᄃᆡ ‘뎌 사회 밥 잘 먹고 ᄌᆞᆷ만 자니 쟝ᄎᆞᆺ 어ᄃᆡ 쁘리오?’ ᄒᆞ고 밥을 만히 담아 주디 아니ᄒᆞ니 그 겨집이 불샹이 너겨 ᄆᆡ양 누른 밥을 ᄀᆞ만이 더 담아 주어”

15) “쇼인이 도령쥬 골샹을 보오니 맛당이 크게 귀ᄒᆞ실 거시오니”

처신할 바를 일러주는바[16] 지인지감(知人之鑑)과 지혜를 지닌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뿐만 아니라 기생의 신분에도 노진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고행을 자처하며 절개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열부(烈婦)로서의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이 이야기들에서는 지혜로운 여성 인물의 내조에 대해 남성 인물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여성 인물이 극적인 신분상승을 이루게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이 이야기들은 여성 독자들에게 현부라는 모범적 여성상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부로 인정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현실적인 이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에 한글본 야담의 편역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여성 독자가 어떠한 태도를 갖추고 어떻게 행동해야 현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현부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결과, 이 이야기들을 선초해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의 편역자는 여성 독자가 이 이야기들을 읽음으로써 모범적 여성상에 관한 교양을 쌓고, 이를 통해 현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3) 서강대본『동패낙송』의 경우

앞서 서강대본『동패낙송』에 기이한 이야기 4편(제7, 8, 9, 10화)과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배려한 이야기 4편(제3, 4, 5, 6화)이 선초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17] 그런데 서강대본『동패낙송』의 총11편 중 호기취향과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선초된 것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3편(제1, 2, 11화)은 모두 현부가 주요하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16) “쇼인이 ᄉᆞᄯᅩ 슈단이 심히 ᄀᆞᄂᆞ신 줄을 그윽이 아오니 지친이시나 반ᄃᆞ시 그 넉〃이 구급ᄒᆞ기를 밋기 어려온디라.”, “이 ᄯᅡᄒᆡ 머므시기 여러 날이 되면 불과 사ᄅᆞᆷ의 목구멍 아래 긔운을 기ᄃᆞ리며 사ᄅᆞᆷ의 미쳡 ᄉᆞ이의 ᄉᆞ식만 술펴 겨유 도라가시ᄂᆞᆫ 힝장의 수십 냥을 어드실 분이오, 골육간 염냥 보기ᄂᆞᆫ ᄂᆞᆷ의게 업슈이 너김 밧ᄂᆞ니의셔 심ᄒᆞ미 잇ᄂᆞ니 오ᄂᆞᆯ 새벽의 바로 호연이 도라가시ᄂᆞᆫ 것만 ᄀᆞᆺ디 못ᄒᆞ다.”

17) 본고의 91쪽, 98~102쪽 참조.

제1화 <슌녕궤이실간적회치(殉靈几二室間隔諱飾)>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사언의 아버지가 우연히 여자 아이를 만나 정결한 조반상을 받고는 예물이라며 장난으로 부채를 주었는데, 몇 년 후 납채를 받았으니 다른 데로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므로 기특히 여겨 첩으로 삼아 아들 양사언을 낳고 살았다. 이후 양사언의 어머니는 노년에 남편이 죽자 자결하며 양사언의 서자 신분을 세상에 숨기도록 가족들에게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양사언의 어머니는 열두 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서 고을 군수를 맞이하여 예에 맞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납채(納采)가 중요한 예절임을 알고 신중히 처신하는 모습을 통해 지혜롭고 조신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또 장난스럽게 받은 것임에도 납채가 갖는 의미를 가벼이 여기지 않음으로써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유교적 규범을 지켜내고, 장차 서자로서 그 아들이 겪어야 될 문제적 상황을 자결로써 타개하는 바, 열부와 현모(賢母)로서 형상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 인물은 다른 등장인물들의 말을 통해 기특하고 기이함이 인정되기도 하고,[18] 일가친척과 비복들로부터 공경을 받는다는 서술이 제시되기도 하는바[19] 다각도에서 모범적 여성상으로 부조된다.

제2화 <치빈손혜부면부죄(治飯飱慧婦免夫罪)>는 최씨 무변이 상경길에 완악한 부자(父子)를 때려죽이고 그 후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이를 미리 눈치 채고 찾아온 악인 후처의 설득으로 조용히 떠난 이후 다시 부자를 징치하러 왔다가 악인 후처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개과천선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남편과 아들의 흉포한 성질에 화가 난 무변에 의해 겁탈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 여성 인물은 오직 흉포한 남성의 후처라는 이유로 이러한 고초들을 겪는 셈인데 그 과정에서 무변을 거듭 설득시키며 위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 여성 인물은 최씨 무변이 이 집에 오기 이전에도 지극한 정성으로 못된 남편을 감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20] 남편이 최씨 무변에게

18) “일힝이 더욱 긔특ᄒᆞ믈 일컷더라.”, “그 집 겨집아히 긔이ᄒᆞ미 지금ᄭᆞ지 눈 가온ᄃᆡ 숨연ᄒᆞ더라.”

19) “일문 종족과 비복의게 잘 처ᄒᆞ니 다 그 환심을 어더 경앙티 아님이 업고”

혼쭐나게 될 상황을 미리 내다보기도 했던 것으로 그려진다.[21] 이에 이 이야기는 전체 서사에 걸쳐 이 여성 인물을 흉포하고 어리석은 남성 인물에 대비되는 현명한 아내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1화는 함께 과거 공부를 하던 두 선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 자랑을 듣고는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후 그 아내를 뺏어 가려고 하자 아내가 임기응변으로 속임수를 써서 그를 따돌리고 몸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은 남편의 자랑을 통해 빼어난 솜씨로 가산을 잘 경영하고 남편 공양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바람직한 아내로 서술된다.[22] 이후 납치될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모습까지 그려지며 이 여성 인물은 절부(節婦)로서의 요건까지 완비하게 된다. 납치의 위기는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던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공고한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할 위기에 다름 아니었기에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한 이 여성 인물은 솜씨 있고 어진 아내에서 절부로 거듭날 수 있던 것이다.

서강대본 『동패낙송』에 이 3편이 선초된 데는 여성 인물이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해내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성 독자에게 현모와 열부로서의 처신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독자가 이러한 모범적 여성상을 본보기로 삼기를 바라는 편역자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서강대본 『동패낙송』의 경우, 호기취향과 여성 독자의 관심사가 고려된 이야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들에는 모범적 여성상으로서 현모, 양처, 열부가 제시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에 한글본 야담 중에는 선초를 통해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자료들이 있으며, 특히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확인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 “ᄂᆡ 과연 지셩으로 교유ᄒᆞ나 종시 완악ᄒᆞᆫ 셩품을 감화ᄒᆞᆯ 길이 업노라.”

21) “뎌 젹 ᄒᆡᆼᄎᆡ 지나ᄀᆞ신 후로 ᄂᆡ 쳬 미양 날ᄃᆞ려 닐러 ᄀᆞᆯ오ᄃᆡ ‘조만ᄀᆞᆫ의 반ᄃᆞ시 이 냥반 손의 죽으리라.’ ᄒᆞ더니”

22) “ᄂᆡ 안히 지죄 출듕ᄒᆞ여 젹슈로 경영ᄒᆞ여 못ᄒᆞᆯ 노르시 업고 질삼과 핑임ᄒᆞ미 됴션의ᄂᆞᆫ 반ᄃᆞ시 둘이 업술 고로 지아비 공궤ᄒᆞ기를 이ᄀᆞ치 ᄒᆞᄂᆞ니라.”

(4)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규장각본『청구야담』에 탈락된 이야기들 가운데 여성 독자가 모범적 여성상에 대한 교양을 쌓는 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 탓에 실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모두 8편이다. 제3권 제16화 <說風情權井邑降巫>, 제3권 제18화 <得陰紛窮鰥福緣>, 제4권의 제26화 <鰥班弄計卜隣寡>, 제7권 제3화 <李副學海營省叔父>, 제7권 제17화 <平壤妓姸醜兩不忘>, 제7권 제23화 <江界妓爲李帥守節>, 제8권 제7화 <洞仙館副价逢鬼>, 제9권의 제9화 <金醫視形投良劑>가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부덕에 어긋나는 내용과 선정적인 내용으로 대별된다.

부덕에 어긋나는 내용의 이야기로 제4권의 제26화 <鰥班弄計卜隣寡>, 제7권 제3화 <李副學海營省叔父>, 제7권 제23화 <江界妓爲李帥守節>, 제8권 제7화 <洞仙館副价逢鬼>, 제9권의 제9화 <金醫視形投良劑>의 5편을 들 수 있다.

제4권의 제26화 <鰥班弄計卜隣寡>는 과부의 수절과 개가가 주된 내용인데, 서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지지는 않는다. 과부의 수절을 방해하는 이웃집 홀아비의 농간이나 그로 인한 좌절이 전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과부가 개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寡女之改嫁, 不是異事.)”고 “홀아비와 과부 양쪽이 그 짝을 얻었으니 이 또한 좋은 일(鰥夫寡婦, 兩得其耦, 亦是好事.)”이라는 벼슬아치의 말이나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같이 살 밖에(到此地頭, 不得不同居.)”라며 갑작스레 수절을 포기하고 개가를 결심하는 과부의 모습에서 이러한 서술 태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여성에게 있어 중차대한 문제인 수절과 훼절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7권 제23화 <江界妓爲李帥守節>도 위와 비슷하게 수절과 변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기생이 수절의 주체로 등장하는 점, 여성 인물이 한 남성을 위해 수절하다가 이내 변절한 후 새로운 남성을 위해 다시 수절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만하다. 수절의 전

제 조건이 “불경이부(不更二夫)”임을 고려할 때 애초에 정조를 지키도록 요구받지 않는 기생 신분으로서 두 남성[二夫]을 위해 수절을 거듭한다는 내용의 이 이야기는 여성 독자의 정조관념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위 2편의 이야기는 독자가 여성의 정조와 관련하여 모범적 여성상에 대한 교양을 갖추는 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만한 내용을 싣고 있다는 이유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 비해, 제7권 제3화 <李副學海營省叔父>, 제8권 제7화 <洞仙館副价逢鬼>, 제9권의 제9화 <金醫視形投良劑>의 3편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중요한 덕목인 검소함을 갖추거나, 남녀유별(男女有別)이라는 도리를 익히는 데[23] 방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탈락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제7권 제3화 <李副學海營省叔父>는 청백리(淸白吏)였던 부제학 이병태(李秉泰)가 망가진 갓과 해진 도포로 숙부를 만나러 갔다가 숙부에게 이는 조정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며 혼이 났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것은 조정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네가 휴가를 얻었다면 이미 부제학이 되었으니 역말을 타고 오는 게 옳다. 그런데 오늘 거지 모양으로 걸어 왔으니 이제 해서 백성들은 부제학의 지위가 모두 이 같은 줄 알겠다. 이 어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당장 물러가라(此何貌樣, 此是辱朝廷也. 汝旣請由, 則時任副學也, 乘馹而來可也. 今以乞客樣, 徒步下來, 自此海西之民, 以副學之位, 皆如此等人知之矣. 豈不貽羞乎? 可卽退去.)”는 숙부의 질책을 통해 이병태의 청렴하고 검소한 모습이 “조정을 욕되게 하는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로까지 치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에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편역자는 여성 독자가 이 이야기를 읽고 혹시나 검소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여 이 이야기를 탈락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

23) 이익은 자신의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근면, 검소, 남녀유별 세 항목만 가르친다고 하며 이 세 가지를 규문에서 엄격히 지켜야 하는 일로 규정하였던바 여성에게 검소함과 남녀유별이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155쪽 참조.

제8권 제7화 <洞仙館副价逢鬼>와 제9권의 제9화 <金醫視形投良劑>는 남녀유별이라는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8권 제7화 <洞仙館副价逢鬼>에는 한 노파가 이병상(李秉常)을 흠모하다 죽은 후에 시신이 된 채로 찾아왔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이는 노파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도 공을 찾아온다는 점에서 "해괴하고도 이상한 일(可駭異也.)"로 서술된다. 그런데 이처럼 해괴한 사건은 노파가 "공이 드나들 때마다 그의 풍채와 얼굴을 보고 계속 흠모하다가 죽게 되자 한을 풀지 못하여(每於公出入之時, 瞻其儀容, 欽慕不已, 以至身死, 而一念不解.)" 벌어진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 노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남녀유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부정적인 여성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제9권의 제9화 <金醫視形投良劑>는 안색을 보고 약을 쓰는 신의(神醫) 김응립이 이명(李銘)의 며느리를 대면하여 치료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의원이 며느리를 직접 대면하는 것에 대해 시아버지인 이명이 "얼굴 한 번 보는 게 무슨 흠이 되겠는가(一見何傷?)"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제 대면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이 두 이야기는 남녀유별이라는 도리에 어긋나는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정적인 내용으로 인해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로 제3권 제16화 <說風情權井邑降巫>, 제3권 제18화 <得陰紛窮鰥福緣>, 제7권 제17화 <平壤妓姸醜兩不忘>의 3편을 들 수 있다. 제3권 제16화 <說風情權井邑降巫>와 제7권 제17화 <平壤妓姸醜兩不忘>은 모두 기생으로서 잊지 못하는 인물에 대한 내용인데 기생의 말을 통해 서술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3권 제16화 <說風情權井邑降巫>는 순창 기생 분영이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하는 정인(情人)으로 권익흥(權益興)을 꼽고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다. 매일 동침하던 권익흥이 사후에도 찾아와 몇 년간이나 동침을 했다는 것이다. 기생으로서 정인을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성적인 내용이 퍽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다만 괴이한 것은 우리가 동침할 때 한 번도 불가함이 없어 하루라도 서로 보

지 않으면 마음이 어수선하여 즐겁지 않았으니 서로 사랑하는 정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獨怪, 其兩情襯合, 無一不可, 一日不相見, 心已騷然不樂, 卽其相愛之情可知.)”나 “저는 그것이 권공의 혼령인 줄 알았지만 기쁨을 이길 수 없어 털끝만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자리로 들어가 동침하니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왕래한 것이 몇 년간이었습니다.(英知其爲精靈, 而不勝欣懽, 毫無懼懾, 昵枕共寢, 一如平昔. 如是往來, 幾歲餘.)”와 같은 분영의 말을 통해 단적으로 확인된다.

제7권 제17화 <平壤妓姸醜兩不忘>은 평양의 한 기생이 동침했던 사람들 중 잊을 수 없는 두 명으로 아름다운 사람과 추악한 사람을 꼽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서도 기생으로서 지난 일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거침없이 묘사된다. “그분이 저와 희롱하는데 그 풍류와 흥미가 가히 화류장에서 노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과 마음껏 정을 나누었지요.(仍與之狎, 其風流興味, 卽一花柳場蕩男子也, 兩情歡洽.)”나 “그 놈은 저를 안고 담 모퉁이로 가서 강간했습니다. 저는 그때 힘이 약해 그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죽도록 반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요.(仍抱至墻隅, 而强奸之, 渠於此時, 以力弱之故, 不得敵他, 求死不得, 而任其所爲.)”와 같은 기생의 말을 통해 선정적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다.

제3권 제18화 <得陰紛窮鰥福緣>은 홀아비 셋이 명승지 탐방을 떠났다가 천하절색의 세 여인을 만나 동침하게 되었는데 여인들의 성기 안에 있는 음분산(陰紛散)이라는 것으로 인해 두 사내는 죽고 장사 한 명만 살아남아 세 여인을 모두 거느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성적인 내용이 그 골자가 되는 만큼, 인물이나 상황이 퍽 선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행위 장면 또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동침을 막 시작하여 두 사람의 마음이 한창 즐거웠는데 홀연 여인의 음부 속에서 양물을 단단히 묶고 힘껏 끌어당기니 양경이 거의 뽑힐 지경이어서 잠시도 더 지탱하기가 어려웠지만 이내 힘을 다해 빼내니 개의 창자 같은 것이 양물 끝에 얽혀 나왔다.(雲雨纔始, 兩情方歡, 忽自陰中, 緊束陽物, 牽持甚力, 陽莖幾發, 不可暫支, 乃盡力抽之, 有物若狗腸者, 絡陽

頭而偕出.)”나 “한 여인과 동침을 했다. 양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나 육선이 얽혀 나오는 게 전날과 똑같았다.(與一女同裯, 陽物之吸納, 肉線之絡出, 一如前日.)”와 같은 서술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위의 3편을 통해 선정적인 내용이 이야기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경우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편역자는 이를 수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부덕에서 어긋나는 내용이 제시되는 이야기나 선정적인 내용이 골자를 이루는 이야기가 수록되지 못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여러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의 편역자가 모범적 여성상에 대한 이야기를 선초해 둠으로써 여성 독자가 그와 관련되는 교양을 익히고 갖추기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편역자는 여성 독자가 모범적 여성상에 관한 교양을 쌓는 데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법한 이야기들만을 탈락시켰음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이야기의 선초

저본에서 이야기 몇 편만을 선초하여 만들어진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과 달리, 100편이 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이나 저본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옮겨둔 규장각본 『청구야담』과 같은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에서는 보다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다.

앞의 논의를 통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가 ① 호기취향을 반영하는 이야기들만 선초되어 있는 경우(정명기본 『천예록』, 서강대본 『기문총화』)와 ② 호기취향을 반영하는 이야기,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하는 이야기,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이야기가 함께 선초되어 있는 경우(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및 서강대본 『동패낙송』)로 대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자에서는 유희지향만이 고려되며 이야기가 선초된 데 비해, 후자에서는 유희지향 뿐 아니라 교양이 함께 고려되며 이야기가 선초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연대본 『어우야담』,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의 경우, ①과 같이 유희지향만을 보이는 내용에만 한정되거나, ②처럼 유희지향이 확인되는 이야기와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내용으로만 제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 실린 이야기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선초된 데 비해, 연대본 『어우야담』,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연대본 및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호기취향을 반영하는 이야기, 유명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일화, 여러 모범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시문과 관련된 이야기 등이 폭넓게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지식 정보나 의론을 서술한 이야기들이,[24]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더 보이기도 한다.[25] 이를 표로 간략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대본 어우야담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
호기취향		○	○	○
시문		○	○	○
모범적 인물	충	○	○	○
	효	-	○	○
	열	○	○	○
지식정보 및 의론		-	○	-
세태		-	○	○

<표 32 다양한 이야기의 선초 양상>

24)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제12, 34, 43, 56, 69, 72, 87, 124화 등.
25)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제23, 65, 68, 97, 98, 117, 137화,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제1권 제12화, 제2권 제1화, 제6권 제9화, 제7권 제5, 12화, 제8권 제1, 8화, 제10권 제12화, 제12권 제1, 10, 17화, 제13권 제8화, 제14권 제1화, 제18권 제2, 5화 등.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은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긴 서책 한글본 야담 자료이므로 이처럼 폭넓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실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은 긴 서책 한글본의 특성상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선초되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이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지식 정보나 의론을 서술한 이야기들이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실려 있거나[26]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수록되어 있는 양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연대본 『어우야담』은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은 편수인 24편의 이야기가 선초되어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비교적 다양한 이야기가 수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담이 복합적인 장르임을[27] 고려할 때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두루 실려 있는 양상은 한문본 야담의 본래적 면모가 더 잘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은 대부분 호기취향을 반영하는 이야기,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고려하는 이야기,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이야기에 한정하여 선초가 이루어진바, 연대본 『어우야담』,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 양상은 한문본 야담의 본래적 면모에 보다 가깝게 편역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문본 야담에 실린 다양한 이야기들에는 폭넓은 관심사 및 여러 인간상과 세태상 등이 담겨 있는바, 연대본 『어우야담』,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이 한문본의 본래적 면모에 가깝게 편역됨에 따라 한문본 야담에서만 얻을 수 있던 교양과 지식의 상당 부분을 여성 독자들도 한글본 야담을 통해 습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26) 지식 정보나 의론을 서술하는 이야기가 낙선재본 『어우야담』에만 선초되어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한문본 『어우야담』이 이른 시기의 야담집으로, 서사 뿐 아니라 다양한 서술도 포함하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

27) 이강옥, 「야담의 갈래」, 『한국 야담 연구』, 돌베개, 2006, 19쪽;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72쪽.

한문본 야담 자료의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교양과 지식이 대부분의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선초로 인해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었던바, 짤막한 서책의 독자는 한글본 야담 독서를 통해 주로 모범적 여성상과 관련되는 교양만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연대본 및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독자는 이 책에 선초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교양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보이는 모범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현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는 데 비해, 연대본 및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에는 모범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이야기 외에도 충직하거나 효성스러운 인물들이 제시되는 이야기들이 더 실려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28]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실려 있는 모범적 인물상에 대한 이야기는 대개 현모·양처 등 현부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므로 대부분의 짤막한 서책 한글본 야담 자료를 읽는 여성 독자들은 다른 모범적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접하지 못하고 오직 모범적 여성상에 관한 교양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연대본 및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독자들은 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이 책을 통해 여러 모범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규범(閨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유교적 가치인 충(忠)이나 효(孝)에 관한 내용도 폭넓게 살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또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에는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으므로, 이 이야기들을 통해 긴 서책 한글본 야담

---

28) 충직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연대본『어우야담』의 제7, 13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1, 21, 51, 74, 82, 109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제2권 제6, 13화, 제3권 제9, 12, 13화, 제4권 제10화, 제8권 제11화, 제11권 제11화, 제16권 제2화, 제18권 제6화, 제19권 제2, 3, 8화에서 확인된다.
효성스러운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29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제2권 제7, 12화, 제9권 제2, 3화, 제17권 제11화이다.
현부에 대한 이야기는 연대본『어우야담』의 제2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89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제1권 제1, 9, 10화, 제3권 제11, 15, 16화, 제4권 제3, 4, 7, 12화, 제5권 제1, 2화, 제6권 제6화, 제7권 제1, 3, 8, 9화, 제9권 제20화, 제11권 제9화, 제12권 제18화, 제13권 제3, 6, 11, 12화, 제14권 8, 10화, 제16권 제6화, 제17권 제9화, 제18권 제3, 4화이다.

자료의 여성 독자들은 세태와 관련한 시사교양을 얻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이야기나 의론을 서술한 이야기들은 낙선재본 『어우야담』에만 실려 있는바 다른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여성 독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 지명의 유래, 풍속(風俗), 한자음(漢字音)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더러, 장수(長壽), 자녀 교육, 상례(喪禮), 독서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소양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남성적 지식과 여성적 지식이 엄격히 분리되고 위계화되어 있는 것이 남녀불평등의 주요한 근원 중 하나"였음을[29] 감안할 때, 연대본 『어우야담』과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여성 독자가 교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는 양상은 한문본 야담에 담겨 있는 남성적 지식 및 교양으로부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식 및 교양을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진행되었던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여성 독자의 교양에 대한 고려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번역 과정에서 여성 독자의 교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시도가 확인된다. 주석(註釋)을 추가하는가 하면, 한시의 독음(讀音)과 번역을 함께 제시하기도 하고, 본문에 해설적 서술을 활용하는 등 여성 독자의 교양을 의식하여 내용을 설명하거나 첨가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 양상은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연대본 『어우야담』의 해설적 서술에서도 확인되지만, 특히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주석의 첨가, 독음과 번역을 병기하는 삽입시의 향유 방식, 해설적 서술의 활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한 층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29) 박혜숙, 앞의 책, 82쪽.

1) 주석의 추가와 한시의 독음 부여

여기서는 한글본 야담 자료에 주석이 첨가되고, 한시의 독음과 번역이 병기되어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석은 본래 한문으로 된 경서나 사서에서 난해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쓰였던바 낙선재본 한글소설에 주석이 활용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30] 한글 서사장르에 주석이 통상적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긴 서책의 번역 과정에서 첨가된 다수의 주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번(話番)	순서	주석 내용		기능
제1화	1	홍닙	강홍닙이라	정보 추가 (인물)
제5화	2	비선	ᄂᆞᄂᆞᆫ ᄃᆞᆺ ᄒᆞᆫ 신선	한자어 풀이
제6화	3	구타	매 마ᄌᆞ미라	한자어 풀이
	4	터둔	볼기맛ᄂᆞᆫ 말이라	한자어 풀이
	5	품관	벼슬ᄒᆞᆫ 사ᄅᆞᆷ	한자어 풀이
제18화	6	뎐아래 힘녁	아ᄃᆞᆯ 남ᄌᆞ	정보 추가 (한자)
제21화	7	공동산의싱슈낙이나 슌원셩듕ᄉᆞ역영을	공동산 밧긔 살기 비록 즐거우나 슌원셩 가온대 ᄌᆞᆨᄂᆞᆫ 거시 ᄯᅩ 영화로다	삽입 한시 번역
	8	소텬	지아비라	한자어 풀이
제23화	9	장확	죵들이라	한자어 풀이
제28화	10	니ᄌᆡ	ᄌᆡ믈 다ᄉᆞ리기	한자어 풀이

30) 낙선재본 소설 <형세언>, <삼국지통속연의>, <평산냉연>에 쓰인 주석에 관해서는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번역본의 연구-낙선재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박사학위논문, 36쪽, 94쪽, 357쪽, 1993 참조; <완월회맹연>에 쓰인 주석에 관해서는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49~50쪽 참조; <명행정의록>, <삼강명행록>, <위씨오세삼난현행록>에 쓰인 주석에 관해서는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15~136쪽, 148쪽, 2006; 낙선재본 <보홍루몽>과 <홍루몽보>에 쓰인 주석에 관해서는 김정녀, 「낙선재본 <보홍루몽>과 <홍루몽보>의 번역 양상」, 『중국소설논총』 21, 한국중국소설학회, 2005, 189~190쪽 참조.

제30화	11	하던 십이지산이오 우긔 구쥐 지역이라	하나라흔 십이산을 뎡ᄒᆞ고 우나라흔 구쥐 디경을 긔록하다	삽입 한시 번역
	12	금셕이 하셕고 편풍이 련〃이라	오늘 저녁 무슴 저녁인고 하늘 ᄇᆞ람이 련〃ᄒᆞ도다	삽입 한시 번역
제36화	13	챵운	벼가 됴화 프른 구름 ᄀᆞᆺ다 말이다	한자어 풀이
	14	낭유	피 ᄀᆞ튼거	한자어 풀이
제38화	15	지샤	지휘ᄒᆞ여 보리단 말이라	한자어 풀이
제41화	16	유슌 쳐외 흑제라오 튱간노 경평관을	유슌의 쳐는 검은 흑제라오 튱간의 죵은 평정관으로 놀라ᄂᆞᆫ도다	삽입 한시 번역
제46화	17	난야	봉 일홈	한자어 풀이
	18	반선	너붓거려	한자어 풀이
	19	최찬	구슬이라	한자어 풀이
	20	싱소	싱황과 퉁소	한자어 풀이
	21	쥰슌	머뭇거리단 말이라	한자어 풀이
	22	샹션	읏듬 신션	한자어 풀이
제47화	23	쳥안의 교	프른 눈 반갑다 말	한문 구절 풀이
제48화	24	포뎡	빅뎡	한자어 풀이
제56화	25	ᄌᆞ뎜	틈집	한자어 풀이
	26	모슌	트러딘 의논	한자어 풀이
	27	다구의	만흔 입	한자어 풀이
제58화	28	치류	즁류	한자어 풀이
	29	셕되	즁의 무리	한자어 풀이
	30	무챠	슈륙	한자어 풀이
	31	셕도	즁의 도리	한자어 풀이
제64화	32	조역을 ᄀᆞ초아	ᄂᆞ믈과 마구라	한자어 풀이
	33	소규의 드러가	ᄂᆞ믈 밧	한자어 풀이
	34	셕쇠이셔	돌부텨	한자어 풀이
	35	무격	무당	한자어 풀이
제68화	36	홍장	겨집이라	한자어 풀이
	37	뎡ᄌᆞ	뎡부ᄌᆞ	정보 추가 (전고)
제69화	38	창경	죵달새라	한자어 풀이
제70화	39	조식 후면	저녁 때	한자어 풀이

	40	진ᄌᆞ	개얌	한자어 풀이
제72화	41	안칙	감토	한자어 풀이
	42	조대	션비	한자어 풀이
제75화	43	홍에 크기 다리쪄 ᄀᆞᆺᄒᆞ여	민물의 마ᄃᆡ란 고기	정보 추가 (사물)
제80화	44	그 번홀 때예 만히 인골을 뻐 믈읫 사ᄅᆞᆷ의 늙고 병드러 품과 역ᄉᆞ의 견ᄃᆡ디 못ᄒᆞᄂᆞᆫ 쟈ᄅᆞᆯ 다구어 그 기름을 내여뻐 번ᄒᆞ고	번 화기ᄅᆞᆯ 굽단 말	한자 풀이
제82화	45	우ᄋᆡ	어리고 의망	한자어 풀이
제83화	46	북당	금부옥	한자어 풀이
제89화	47	슈장을	지령	한자어 풀이
	48	측실남	쳡아들	한자어 풀이
제90화	49	ᄇᆡ희ᄅᆞᆯ 잘ᄒᆞ고	초란이 거동	한자어 풀이
제95화	50	굴원의 얼굴노뻐 송옥의 소릭ᄅᆞᆯ 지으니	굴원은 형용이 쵸최타 ᄒᆞᄂᆞᆫ 말이오 송옥은 슬퍼ᄒᆞᆫ다 말이라	전고 풀이
제104화	51	ᄉᆞ귀	은약 ᄀᆞ튼 것	한자어 풀이
제115화	52	견황비챵ᄒᆞ고	누른 개 잇글고 프른 ᄆᆡ 폴둑ᄒᆞ고	한문 구절 풀이
제117화	53	조대	션비란 말	한자어 풀이
제118화	54	잠영	벼슬 일흠	한자어 풀이
제119화	55	도셔	셤이라	한자어 풀이
	56	셩황	셩지 위	한자어 풀이
제120화	57	입내	궁의 드다 말	한자어 풀이
	58	도담	담 ᄀᆞᆺ단 말	한자어 풀이
제122화	59	시어	쥰친가 보다	한자어 풀이
제127화	60	니이	뉼곡	정보 추가 (인물)
	61	대령	방울	한자어 풀이
제128화	62	븍비	옥이라	한자어 풀이
	63	영오	옥이라	한자어 풀이
제136화	64	경ᄉᆞ	구술 ᄀᆞᆺᄒᆞᆫ 글	한자어 풀이
제137화	65	슈뎐	논이라	한자어 풀이
	66	황봉	황쥐 봉산	정보 추가 (지명)

	67	노던	굴밧	한자어 풀이
	68	음님	마댱	한자어 풀이
제138화	69	진월	썰단 말이라	한자어 풀이

<표 33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주석>

화번(話番)	순서	주석 내용		기능
제1권 제8화	1	졀도ᄉᆞ 집	인아 니셕구의 집을 닐오미라	해설
제2권 제6화	2	감ᄉᆞ디	죽기를 결단ᄒᆞ는 ᄣᅢ란 말이라	한자어 풀이
	3	오ᄌᆡ	별호	해설
	4	만강단츙이 셤적ᄂᆡ이라	챵ᄌᆞ의 ᄀᆞ득ᄒᆞᆫ 츙셩이 도적을 죽인 후의야 이에 말지라	한문 구절 풀이
제2권 제12화	5	예쥬쳔ᄌᆡ후/ 예쥬 일천 ᄒᆡ 후에	예쥬는 진됴적이라	정보 추가 (인물)
	6	신쥬대ᄉᆞ업/ 신쥬의 큰 ᄉᆞ업을	신쥬는 듕원이라	한자어 풀이
	7	누쇄견양치/ 눈물은 견양 붓그러오믈 ᄲᅮ렷고	양은 오랑캐라	한자어 풀이
제3권 제1화	8	일모동문에 산승이 슈휘라 ᄒᆞ니	날이 동문에 져물ᄆᆡ 승이 뒤흘 ᄯᆞᆯ오미라	한문 구절 풀이
제3권 제3화	9	시체탕	감 ᄭᅮᆨ지	한자어 풀이
제3권 제7화	10	연잉군 환후를 살피더니	연잉은 영묘됴 잠져 봉회라	정보 추가 (인물)
제3권 제8화	11	젼두	전두는 머리 언치단 말이라	한자어 풀이
제3권 제12화	12	불고	도라보지 아니탄 말이라	한자어 풀이
제4권 제3화	13	듕장통의 낙지론을	듕장통은 후한 사ᄅᆞᆷ이라 낙지논은 산림의 ᄯᅳᆺ을 즐기는 의논이라	전고 풀이
제5권 제2화	14	관단마	ᄆᆞᆯ 중 하층이라	한자어 풀이
	15	니어	니어는 샹담 말이라	한자어 풀이
제5권	16	옥윤	사회를 일은 말이라	한자어 풀이

제3화	17	청동	돈이라	한자어 풀이
	18	강간곡숑ᄉᆞ형구/ 강가의셔 ᄉᆞ형의 관을 곡ᄒᆞ여 보ᄂᆡ니	ᄉᆞ형은 김시신의 ᄌᆞ이라	정보 추가 (인물)
제5권 제4화	19	승션	벼슬 일홈이라	한자어 풀이
제5권 제5화	20	대비	진ᄉᆞ 쵸시	한자어 풀이
제5권 제6화	21	샹인	상고ᄒᆞ는 사ᄅᆞᆷ이라	한자어 풀이
제6권 제2화	22	뎡진	지명	해설
	23	원무망 원무망	이 ᄯᆞᆺ은 원컨ᄃᆡ 닛지 말고, 원컨ᄃᆡ 닛지 말ᄂᆞᆫ 말이라	한문구절 풀이
제6권 제3화	24	신뉘	조개 긔운이 공듕의 올나 누각이 되단 말이라	한자어 풀이
	25	청	대국	한자어 풀이
제7권 제2화	26	노진지	진졍을 드러내ᄃᆞᆫ 말이라	한문구절 풀이
제7권 제5화	27	아모 사ᄅᆞᆷ	욕 뵈이든 사ᄅᆞᆷ이라	해설
제8권 제6화	28	최곤륜	급졔의 별회라	해설
제8권 제8화	29	모입	초시ᄅᆞᆯ 사 가지고 드러오단 말이라	한자어 풀이
제8권 제11화	30	이셩득젼 쟉교가연이라 ᄒᆞ니	셩으로뼈 온젼ᄒᆞ믈 엇고 오작교의 아람다온 인연이라	한문구절 풀이
제9권 제14화	31	우믜와	쇠 귀신	한자어 풀이
	32	사신이	ᄇᆡ얌 귀신	한자어 풀이
제9권 제16화	33	금슈총듕의	비단 ᄭᆞᆺ과 슈ᄅᆞᆯ 노흔 총듕이라	한문구절 풀이
	34	니등졔노쳐퇴평	늘근 안히 바독 판을 밀치미라	한문구절 풀이
제10권 제5화	35	쳔불도	부쳐 쳔을 그린 거시라	한자어 풀이
제10권 제6화	36	긔도 회고	긔ᄌᆞ 도읍에 네ᄅᆞᆯ 싱각ᄒᆞ미라	한문구절 풀이
제19권 제3화	37	복슈장	원슈 갑ᄂᆞᆫ 장쉬라	한자어 풀이

제19권 제6화	38	우샹	우샹은 신션 먹는 술잔이라	한자어 풀이
	39	단귀라	단구는 신션 잇는 곳이라	한자어 풀이
제19권 제8화	40	막부	막부는 대쟝의 군막이라	한자어 풀이
제19권 제9화	41	셔촉 가회	장ᄉᆞ ᄒᆞ는 오랑ᄏᆡ라	한자어 풀이
	42	여원	여원은 ᄯᆞᆺ디로 ᄒᆞ는 보비라	한자어 풀이

<표 34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주석>

이상의 표에서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주석이 퍽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석들은 쌍행(雙行) 세주(細註)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한자어나 한문 구절에 대한 풀이가 가장 많고,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나 전고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거나, 삽입시의 번역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규장각본『청구야담』에 비해 낙선재본『어우야담』에 더 많은 주석이 쓰였는데, 낙선재본『어우야담』에 총138화가 실려 있고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총262화가 실려 있음을 감안하면, 비율상 낙선재본『어우야담』에서 주석이 훨씬 더 빈번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문본『어우야담』에도 주석이 종종 보이는데, 한문본의 주석을 낙선재본『어우야담』에 그대로 옮겨둔 경우는 없다. 다시 말해 한문본『어우야담』이 낙선재본『어우야담』으로 번역되면서 한문본에 있던 주석은 삭제되고 새로운 한글 주석이 추가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문본『어우야담』의 제357화에는 "瞞"이라는 글자에 "정사룡의 한쪽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鄭一目瞞故云.)"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데, 이를 한글로 번역해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136화에는 한문본의 이 주석이 삭제된 대신 "경ᄉᆞ"라는 단어에 "구술 ᄀᆞᆺ ᄒᆞᆫ 글"이라는 새로운 주석이 붙어 있다.

또 한문본『어우야담』의 제416화에는 이야기의 맨 뒤에 "시어(鰣魚)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진어(眞魚)이다. 형개(邢玠)가 중국에서 온 후 우리나라에서 군문경략(軍門經略)이 되어 접반사에게 시어를 대접했는데 맛이 아주 시었다. 우리나라 진어와 비슷한데 세속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鰣魚, 卽我國所謂眞魚, 而邢玠自中國來, 爲軍門經略于我國, 饋接伴使以

鰣魚, 味甚酸, 似我國眞魚而非世也云.)”는 주석이 부기되어 있는데,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제122화에는 이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시어”라는 단어에 “쥰친가 보다”라는 짧은 주석이 새롭게 붙어 있을 뿐이다.

한글본의 주석은 간단한 내용이 짧게 쓰여 있다는 점에서 한문본의 주석과 차이가 확인된다. 이를 통해 역자가 한문본 『어우야담』의 남성 독자와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여성 독자 간에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역자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여성 독자가 이러한 주석 없이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일까?

이러한 주석들이 자세하지 않고 퍽 간단하게 쓰여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 주석들이 한자어, 한문구절, 전고 등을 전혀 모르는 여성 독자를 위해 첨가된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8화 (6)을 보면 “뎐아래 힘녁”에 “아들 남ᄌᆞ”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데 이는 “田” 아래에 “力”을 쓰면 “男”이 된다는 서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인 것이다. 즉 이 주석은 “田”, “力”, “男”이라는 한자를 이미 알고 있는 독자에게 파자(破字)의 형상을 전달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다. 역자는 간단한 내용의 주석을 통해 여성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한자, 한자어, 한문구절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지식과 교양을 쌓기를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다른 예로 제115화 (52)의 “견황비챵ᄒᆞ고”라는 구절에 붙어 있는 “누른 개 잇글고 프른 ᄆᆡ 풀둑ᄒᆞ고”라는 주석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역자는 독자가 “견황비챵”이라는 표현과 그 의미를 확인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제95화 (50)에서는 “굴원의 얼굴노뼈 송옥의 소릭를 지으니”라는 구절에 “굴원은 형용이 쵸최타 ᄒᆞᄂᆞᆫ 말이오, 송옥은 슬퍼ᄒᆞᆫ다 말이라”는 주석이 부기됨으로써 전고의 의미가 풀이된다. 제127화 (60)에서는 “니이”에 “율곡”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바 인물 정보인 호(號)가 주석을 통해 제시되기도 한다. 제21화 (7), 제30화 (11), (12), 제41화 (16)에서는 삽입된 한시의 번역이 주석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앞서 긴 서책 한글본 야담의 독자가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최상층의 여성에 한정되었음이 추정된바[31] 낙선재본 『어우야담』이 최상층의 여성에 의해 읽혀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주석이 대부분 간단한 한자어 풀이에 한정되고, 정보를 추가하거나 전고를 풀이하기 위해 쓰인 경우에도 대개 짤막한 내용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석들이 오히려 독서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글로 번역되며 새롭게 추가된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주석 중에는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틀린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제46화 (17)의 "난야"에 "봉 일홈"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데 난야(蘭若)는 사찰을 뜻하는 말이다. 또 제118화 (54)의 "잠영"에는 "벼술 일흠"이라는 주석이 보이는데 잠영(簪纓)은 현달한 고관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바 어느 벼슬의 이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오류에도 불구하고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보이는 주석의 대부분은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역자가 독자의 교양을 고려하고자 한 의도에서 첨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부정확하거나 잘못 쓰인 주석의 예를 통해 그러한 역자의 의도와 별개로 이 책을 읽는 여성 독자에게 이 주석들이 얼마나 유용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삼 확인된다.

한편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주석에는 별다른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비해 주석의 수는 비교적 적지만 더 유의하며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여러 한자어와 한문 구절의 풀이가 주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자어에 대한 주석이 가장 많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한문 구절의 풀이는 두 군데서만 보이는 데 비해,[32]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경우 총 여덟 군데에서 확인된다.[33]

---

31) 본고의 79~80쪽 참조.
32) 제47화 (23), 제115화 (52).
33) 제2권 제6화 (4), 제3권 제1화 (8), 제6권 제2화 (23), 제7권 제2화 (26), 제8권 제11화 (30), 제9권 제16화 (33), (34), 제10권 제6화 (36).

한 예로 제8권 제11화 (30)에 “이셩득젼 쟉교가연이라 ᄒᆞ니”라는 구절 아래 “셩으로뼈 온젼ᄒᆞ믈 엇고 오작교의 아람다온 인연이라”고 쓰인 주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문 구절에 대한 주석은 번역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문 구절의 독음을 굳이 쓰고 다시 이에 대해 한글로 뜻을 번역해 두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역자가 이 구절의 의미만을 한글로 옮겨두려 했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문 구절의 독음을 본문에 그대로 옮겨 쓰고 주석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역자가 주석을 통해 독자에게 한문 구절의 표현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는바, 역자는 독자가 이러한 주석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한문 표현을 재확인하며 교양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주석은 한자어나 한문 구절의 풀이 뿐 아니라, 정보의 추가나 전고의 설명을 위해서도 활용되었다. 제3권 제7화 (10) “연잉군 환후를 살피더니”의 “연잉은 영묘됴 잠져 봉회라”는 주석과 제2권 제12화 (5) “예쥬천지후/ 예쥬 일천 히 후에”의 “예쥬ᄂᆞᆫ 진됴젹이라”는 주석을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가 첨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제4권 제3화 (13) “듕쟝통의 낙지론을”에 달려 있는 “듕쟝통은 후한 사ᄅᆞᆷ이라. 낙지논은 산림의 ᄯᅳᆺ을 즐기ᄂᆞᆫ 의논이라”는 주석에서 전고가 풀이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에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가 한자어, 한문 구절, 인물 및 전고에 대한 지식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주석을 통해 여성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교양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주석을 첨가해두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쓰인 주석은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주석에 비해 오류가 적게 확인되고, 한자어 뿐 아니라 한문 구절에 대한 주석도 적잖이 활용되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낙선재본『어우야담』에 비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가 독자의 교양을 더 크게 의식하고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짤막한 서책인 서강대본『동패낙송』에서도 주석이 쓰인 경우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번(話番)	순서	주석 내용		기능
제4화	1	녕윤	놈의 아들 일콧는 말	한자어 풀이
제6화	2	응시	미 산영ᄒᆞ는 ᄉᆞ름이라	한자어 풀이
제10화	3	녑뷔	산힝ᄒᆞ는 사ᄅᆞᆷ	한자어 풀이

<표 35 서강대본『동패낙송』의 주석>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주석은 서강대본『동패낙송』에서만 확인된다. 한글본『동패낙송』3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거나 같은 저본, 혹은 같은 계열의 저본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34] 단국대본『동패낙송』과 국민대본『동패낙송』에는 주석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서강대본『동패낙송』에서 확인되는 주석은 한글본『동패낙송』이 처음 번역되며 쓰인 것이라기보다 한글본 저본이 서강대본『동패낙송』으로 전사되는 과정에서 첨입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정은 다른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주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서강대본『동패낙송』에 보이는 주석은 한자어 풀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주석들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주석이 번역의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와 교양 습득을 위해 한자어, 한문 구절, 전고, 인물 정보, 한시 번역 등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두루 쓰였던 데 비해, 서강대본『동패낙송』의 주석은 전사의 과정에서 첨입된 것으로 보일 뿐더러 출현 빈도가 낮고 그마저도 한자어에 대한 풀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주석이 내용의 이해나 교양 습득을 돕기 위해 쓰이기도 했지만, 전

34) 본고의 33쪽 참조.

통적으로 사서(史書)나 경전(經典)과 같은 정전 텍스트에 쓰였다는 점에서 주석이 해당 텍스트의 가치를 정전 텍스트와 같은, 혹은 그에 버금가는 것임을 한 눈에 드러내 보이는 시각적 기호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점도[35]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주석은 권위 있는 장르의 관습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권위 있는 텍스트가 지녔던 미감을 어느 정도 이어받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석이 활용된 양상을 통해 애초에 긴 서책의 편역자가 상정한 독자층과 짤막한 서책의 편역자가 상정한 독자층 간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긴 서책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주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바 긴 서책의 독자가 이를 통해 교양을 쌓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데 비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주석이 쓰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강대본『동패낙송』처럼 주석이 활용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단순하고 출현 빈도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짤막한 서책의 독자는 상대적으로 교양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한글본 야담을 읽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한시와 관련하여 한글본 여성 독자의 교양이 고려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소설이나 우리 한문소설이 낙선재본 한글소설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삽입시가 탈락되는 경향이 있는 점,[36] 한문으로 쓰인 야사총서『조야회통(朝野會通)』을 한글로 번역한 장서각본『됴야회통』에는 한문본에 있는 한시가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 점,[37] 한문본『수호전』이 한글로 번역된 여러 이본에 삽입시가 대부분 삭제되어 있는 사례[38] 등을 참조하면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삽입시가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양상은 특기할 만하다. 먼저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

35) 서정민, 앞의 논문, 116쪽.
36) 박재연, 앞의 논문, 35쪽, 94쪽, 246쪽, 399쪽; 김수연,「<화씨충효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59~60쪽; 김정녀, 앞의 논문, 194쪽, 205쪽.
37) 이종묵,「조선시대 한시번역의 전통과 양상」,『장서각』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85쪽.
38) 유춘동,「<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88~90쪽, 93쪽, 100쪽, 102~103쪽, 105쪽, 2012.

구야담』의 삽입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번(話番)	순서	한시 독음	한시 번역
제12화	1	빅쇼군분명ᄒᆞ니 쳔연이촌어ㅣ라 셰미텸슈족ᄒᆞ니 풍속당원소ㅣ라	희고 져근 거시 무리지어 명을 ᄂᆞᆫ호니 쳔연이 두 촌만ᄒᆞᆫ 고기러라 ᄀᆞ놀고 젹어 슈족의 텸ᄒᆞ여시니 풍쇽이 동ᄉᆞᆫ ᄂᆞ믈을 당ᄒᆞᄂᆞᆫ도다
제19화	2	원긱침공환블문ᄒᆞ니 슈화요월무파문이라 금쇼가긔텬응ᄎᆞ니 뉴여랑산일편운이라	먼ᄃᆡ 손이 팀옹ᄒᆞ야 블러도 듯디 아니ᄒᆞ니 조으ᄂᆞᆫ 년못치 돌에 흔들려 믈결에 춤추ᄂᆞᆫ도다 오ᄂᆞᆯ밤 가긔를 응당 하ᄂᆞᆯ이 아끼니 머므러 광산일편운을 주노라
제64화	3	쟝권일쇄봉두셕 망냥무빙빅듀뎨라 ᄒᆞ엿더라	-
제100화	4	손ᄌᆞ야야블독셔로다 조부됴됴약쥬밍을 견주미화락이오 계힝듁엽셩을	손지 밤마다 글을 아니ᄒᆞᄂᆞᆫ도다 조뷔 아ᄎᆞᆷ마다 약쥬먹기를 ᄂᆞᆯ내게 ᄒᆞ놋다 개가 ᄃᆞᄅᆞ매 미화가 디도다 ᄃᆞᆰ이 힝ᄒᆞ매 대닙히 일윗도다

<표 37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삽입 한시>

화번(話番)	순서	한시 독음	한시 번역
제2권 제12화	1	만고위댱야 하시일월명 남아일국누 부독위금힝	만고의 긴 밤이 되엿스니 어ᄂᆡ 쩌에 일월이 붉을고 남아의 ᄒᆞᆫ 줌 눈물은 홀노 이졔 힝ᄒᆞ믈 위ᄒᆞ미 아니로다
	2	장지치사막 단침향일명 예쥬쳔지후 격즙유군힝	장ᄒᆞᆫ 뜻은 사막에 둘녓고 불근 졍셩은 날을 향ᄒᆞ여 붉앗도다 예쥬 일천 ᄒᆡ 후에 돗대를 쳐 그ᄃᆡ 힝ᄒᆞ미 잇도다
	3	북막운유흑 남텬일샹명 신쥬대ᄉᆞ업 도부일쥬힝	북막의 구름이 오히려 검엇고 남텬의 날이 오히려 붉앗도다 신쥬의 큰 ᄉᆞ업을 도모지 ᄒᆞᆫ ᄇᆡ 힝ᄒᆞᄂᆞᆫ ᄃᆡ 붓쳣도다
	4	누쇄견양치 심현일월명 남아무한계	눈물은 견양 붓그러오믈 ᄲᅮ렷고 ᄆᆞᅀᆞᆷ은 일월 붉은 ᄃᆡ 달녓도다 남아의 한 업는 계교ᄂᆞᆫ

		만지ᄎᆞ쥬힝	ᄀᆞ득이 비 힝ᄒᆞᄂᆞᆫᄃᆡ 시럿도다
제2권 제13화	5	츄우반쳥인반취 모운쵸권월쵸싱	가을비 반만 개이ᄆᆡ 사ᄅᆞᆷ이 반만 취ᄒᆞ미라 져믄 구름이 쳐음 거드ᄆᆡ 둘이 쳐음 나미리
제2권 제15화	6	평싱슌국지 요하옥뇽지 녁진고셩니 슈부ᄉᆞ직위	평싱 나라의 슌졀ᄒᆞᄂᆞᆫ 뜻은 허리 아릐 옥뇽검이 알앗도다 힘이 북소릐 쇽의 다ᄒᆞ니 뉘 ᄉᆞ직의 위ᄐᆡᄒᆞ믈 붓들고
제5권 제3화	7	슈빅당젼황국개 ᄉᆡ문젼도고인릐 강간곡숑ᄉᆞ형구 금일봉군쥬일비	슈빅당 압희 황국이 픠여시니 ᄉᆡ문의 고인을 젼도ᄒᆞ야 오ᄂᆞᆫ도다 강가의셔 ᄉᆞ형의 관을 곡ᄒᆞ여 보ᄂᆡ니 오ᄂᆞᆯ날 그ᄃᆡ를 만나ᄆᆡ 술이 ᄒᆞᆫ 잔이로다
제6권 제2화	8	산댱운공긔 텬형월동괴 젹막셩산관 유혼야유무	산이 길어시니 구름이 ᄒᆞᆫ가지로 가고 하ᄂᆞᆯ이 머러시니 둘이 ᄒᆞᆫ가지로 외롭도다 젹막ᄒᆞᆫ 셩산관의 그윽ᄒᆞᆫ 혼이 잇ᄂᆞ냐 업ᄂᆞ냐
제6권 제4화	9	태슈친긔우ᄒᆞ니 만민이 개희열이라. 반야의 퇴창견ᄒᆞ니 명월이라ᄒᆞ엿더라	이 글 뜻은 태쉬 친히 비ᄅᆞᆯ 비니 만민이 다 깃거ᄒᆞᄂᆞᆫ도다 반야의 창을 밀치고 보니 ᄇᆞᆰ은 ᄃᆞᆯ이로다 ᄒᆞᆫ 뜻이라
	10	쟉시십칠ᄌᆞᄒᆞ고 타둔십오도ᄒᆞ니 약쟉만언쇠런들 타살이로고 ᄒᆞ니	이 글 뜻은 글 열일곱 ᄌᆞ를 짓고 볼기 열다ᄉᆞᆺ슬 마져스니 만일 만언 소ᄅᆞᆯ 지엇든들 박살ᄒᆞᆯ 번ᄒᆞ엿다 ᄒᆞᆫ 뜻이라
	11	원별수천니 하일깅상견고 악슈누산연ᄒᆞ니 삼 항이로다 ᄒᆞ엿더라	그 글 뜻은 멀니 수천 리예 니별ᄒᆞ니 어ᄂᆡ 날 다시 셔로 볼고 손을 잡고 눈물이 산연ᄒᆞ니 세 줄이로다 ᄒᆞᆫ 뜻이라
제8권 제7화	12	일양도화식부동 난장ᄎᆞ의문동풍 기간힝유능언됴 위보심홍영쳔홍	ᄒᆞᆫ 모양 도홰 빗치 ᄀᆞᆺ지 아니ᄒᆞ니 이 뜻을 가져 동풍에 뭇기 어렵도다 그 ᄉᆞ이예 다힝히 능히 말ᄒᆞᄂᆞᆫ 새 잇셔 위ᄒᆞ여 보ᄒᆞᄃᆡ 심홍이 쳔홍에 빗최엿도다
제9권 제16화	13	명월불슈규슈침 야풍하ᄉᆞ권나위	볼근 ᄃᆞᆯ은 모로미 슈침을 엿보지 못ᄒᆞᄂᆞᆫ디 밤 바ᄅᆞᆷ은 무슨 일노 나위ᄅᆞᆯ 거드치ᄂᆞᆫ고
제9권 제20화	14	함관녀협만두ᄉᆞ 위아고가냥츌ᄉᆞ 챵도쵸려삼고디	함관의 녀협에 머리예 가득ᄒᆞᆫ 실은 날을 위ᄒᆞ야 놉히 냥 츌ᄉᆞᄅᆞᆯ 노릐ᄒᆞ도다 읊프미 쵸려 삼고 ᄯᆞ의 니르ᄆᆡ

		츅신쳥누만항슈	츅신의 말근 눈물이 일만 줄기 드렷도다
제10권 제5화	15	평싱장튱효 금일유ᄉᆞ앙 ᄉᆞ후승졍빅 신쇼일월댱	평싱의 튱효를 집헛더니 오날늘 이 지앙이 잇도다 죽은 후의 졍빅이 올으니 신쇼의 일월이 길엇도다
제10권 제9화	16	샹ᄉᆞ일야매화발ᄒᆞ니 홀도창젼의시군이라	셔로 싱각하미 ᄒᆞ로밤의 ᄆᆡ화 피엿스니 홀연이 창 압희 니르ᄆᆡ 의심컨ᄃᆡ 이 군이라
제14권 제4화	17	화산긔우긱이 두ᄃᆡ일지홰라	화산의 소 탄 손이 머리예 일지화를 엿도다

<표 36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삽입 한시>

위의 표에서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삽입시에는 한글 독음에 현토가 부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39] 현토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40] 어느 쪽에 속하든 간에 대부분 한시의 독음과 번역이 함께 제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여성들은 대개 한시의 원문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로 한글 독음으로만 시를 읽으며 한시를 향유했다.[41] 한시를 향유하는 조선 후기의 상층 여성들 중에는 원문을 통해 그 내용을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교양 수준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문이 아닌 독음을 통해 주로 한시를 향유했다는 사실은 한시를 독음으로 향유하는 방식이 여성 독자의 고유한 한시 향유 방식이었음을 시사한다.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삽입시 또한 조선 후기에 여성들이 한시를 향유했던 방식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의 편역자가 여성 독자를 상정하고 그들이 한시를 향유하는 방식을 고려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9)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12화 (1), 제19화 (2), 제100화 (4),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제6권 제4화 (9), (10), (11), 제10권 제9화 (16), 제10권 제9화 (17).

40)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64화 (3),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제2권 제12화 (1), (2), (3), (4), 제2권 제13화 (5), 제2권 제15화 (6), 제5권 제3화 (7), 제6권 제2화 (8), 제8권 제7화 (12), 제9권 제16화 (13), 제9권 제20화 (14), 제10권 제5화 (15).

41) 이종묵,「조선시대 한시번역의 전통과 한시 번역의 모델」,『民族文化』 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82쪽.

특히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삽입시는 거의 대부분 독음과 번역을 함께 적어두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긴 서책 한글본 야담 자료에 삽입시가 제시되는 양상을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와 비교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중 삽입시는 최민열본 『천예록』의 제10화에만 보이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화번(話番)	순서	한시 독음	한시 번역
제10화	1	ᄉᆞ의셔봉샹샹두 고쳔져지늠빵뫼 브림불힌평간셩 화지궁오쇼ᄉᆞ취 필연듕봉삼시뇌 부운져도오경누 뎡공당일셩공쳐 힝비션옹한당유	-
	2	앙ᄃᆡ앙도검언두 견이청됴괄양모 긔ᄉᆞ쳥텬궐유마 문어창힌츌금취 뇌뎐쥬지창암ᄐᆡᆨ 완보소동ᄌᆞ갈누 무일무풍장『역람』 졍봉오슬도쳥유	-
	3	몽농유화산심 월식긔라	-
	4	벽동화샹우비비 슈만뇽진뉴욕취 쳐쳐방초셔원모 벽디찬연송블귀	-
	5	경요위골유위긔 월ᄐᆡ셩모졀셰ᄌᆞ 희힝졀셰승츈식 호풍취동셔향지	-
	6	듕쟉일역히무변 일셩샹승오부졍 만븍산천난병쳐	-

		부상니스괘졈천	
	7	됴셕뎡젼월 텽파양지션 인셩빅옥젹 취파노룡념	-

<표 38 최민열본『천예록』의 삽입 한시>

최민열본『천예록』의 삽입시는 총7편으로 모두 제10화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시의 독음만 옮겨져 있을 뿐 그 내용은 전혀 번역되어 있지 않다.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에 한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원문의 독음과 번역이 한글로 옮겨져 있는 데 비해,[42] 최민열본『천예록』의 삽입시는 원문의 독음만 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긴 서책과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삽입시를 향유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주석의 활용과 관련하여 긴 서책의 역자가 상정한 독자층과 짤막한 서책의 역자가 상정한 독자층 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삽입시의 향유 방식을 통해서도 긴 서책의 여성 독자가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함께 읽으면서 교양을 쌓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과 달리, 짤막한 서책의 여성 독자는 기본적으로 삽입시에 큰 흥미가 없고, 혹 삽입시를 읽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는 별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여성 독자들이 한시를 향유하던 관습에 따라[43] 긴 서책 한글본 야담 자료의 역자는 한시의 원문까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시의 독음뿐 아니라 번역까지 제시해두었던바 여성 독자의 교양을 의식했음을 짐

42)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삽입시는 원문의 독음과 번역이 본문에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와 원문의 독음을 본문으로 옮겨두고 번역을 세주로 처리해둔 경우로 나뉘는데, 이에 비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삽입시는 모두 원문의 독음과 번역이 본문에 한글로 병기되어 있다. 긴 서책 한글본 야담 자료의 삽입시는 쌍행의 세주를 통해서건, 본문을 통해서건 간에 거의 대부분 한글로 독음과 번역을 병기해두었다.

43) 조선 후기 여성 독자가 한시를 향유하던 관습적 방식에 대해서는 이종묵(2002), 앞의 논문; 이종묵,「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 체계」,『진단학보』104, 진단학회, 2007; 이종묵(2008), 앞의 논문 참조.

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긴 서책에서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긴 서책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여성 독자가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대조하며 한시의 표현을 살피고 그 정확한 의미를 상기해 보기도 하면서 교양을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역자가 삽입시의 내용만을 전달하고자 했다면 한시의 독음을 함께 옮겨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삽입시를 활용하여 분위기만을 연출하고자 했다면 번역까지 해 두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긴 서책 한글본 야담 자료의 주석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 또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만 확인되는바 한문 해독 능력을 갖춘 최상층 여성 독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한시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춘 여성 독자는 이러한 향유 방식을 통해 한시의 표현과 의미를 재확인하며 교양을 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해설적 서술의 활용

한글본 야담 자료의 본문에 보이는 해설적 서술은 대개 서술자가 서사에 개입하여 내용을 풀이하거나 정보를 나름대로 정리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쓰인 경우가 많다.[44]

그런데 그 밖에도 해설적 서술을 통해 전고가 사용된 표현을 쉽게 풀어두거나 한문본에 쓰인 한자를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연하는 등 여성 독자의 교양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면모도 살필 수 있다. 한글본 야담 자료의 본문에서 여성 독자의 교양을 고려하며 해설적 서술이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4)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해설적 서술을 활용하여 여성 독자의 교양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본문과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짤막한 서책의 경우 본문에서만 해설적 서술이 보이는 데 비해, 긴 서책에서는 본문과 주석 모두에서 해설적 서술이 확인된다.

연대본『어우야담』의 경우

(1) 李林甫有神童, 安祿山有神兵.(제139화)→니림뵈 시동을 두어 크게 신명ᄒᆞ여 그 말노 시잠ᄒᆞ더니(제10화)

(2) 車五山天輅, 以此立傳.(제324화)→챠오산 천뇌 일노써 젼ᄒᆞ니라. 별호ᄂᆞᆫ 오산이오 일홈은 천뇌라.(제8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有睚眦輒按劒.(제471화)→여자의 원이 이셔 믄득 안검ᄒᆞ더라.(제37화)

(2) 悲字必是非字之誤也…是字與非字爲對(제212화)→비ᄌᆞᄂᆞᆫ 슬플 비ᄌᆡ 아니라 반ᄃᆞ시 아닐 비ᄌᆞ로다…이 시ᄌᆞ와 아닐 비ᄌᆞ와 ᄃᆡ라 ᄒᆞ니(제40화)

(3) 靑山山名也.(동양본 제107화)→쳥산은 프ᄅᆞᆫ 뫼 아니라 뫼 일홈이라.(제40화)

(4) 思字心田也.(제249화)→싱각 ᄉᆞᄌᆞᄂᆞᆫ ᄆᆞ음 밧치라.(제42화)

(5) 所以名覽, 爲其眇一目也.(제164화)→일홈을 남이라 ᄒᆞᆫ 바ᄂᆞᆫ 그 ᄒᆞᆫ 눈이기ᄅᆞᆯ 위ᄒᆞ미니 보다 ᄒᆞᄂᆞᆫ 남ᄡᆡ라.(제47화)

(6) 父母笑而改名曰“熒”(제164화)→부뫼 우ᄉᆞ며 그 일홈을 각이라 ᄒᆞ니 ᄭᆡᄃᆞᄅᆞᆯ 각ᄡᆞ니(제47화)

(7) 折綿之寒, 無自而入(제32화)→치위 스ᄉᆞ로 이긔디 못ᄒᆞ여(제128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致此噬臍(제5권 제24화)→지금의 뉘웃츠나(제10권 제1화)

(2) 壽字下有可耋二字, 富字下有自足二字, 貴字下有無比二字, 多男子下有皆貴二字(제9권 제23화)→슈 ᄡᆞ 아ᄅᆡ 올흘 가 ᄡᆞ, 늘을 질 ᄡᆞ, 스스리 ᄌᆞ ᄡᆞ와 죡흘 죡 네 ᄌᆡ 잇고, 귀 ᄡᆞ 아ᄅᆡ 업슬 무 ᄡᆞ와 비흘 비 ᄡᆞ 두 ᄌᆞ이 잇고 다남ᄌᆞ 아ᄅᆡ 다 긔 ᄡᆞ, 귀흘 귀 ᄡᆞ 두 ᄌᆞ이 잇스ᄃᆡ(제12권 제9화)

먼저 전고가 사용된 표현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풀어둔 경우는 연대본『어우야담』의 (1),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 (7),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에 보인다. 이 예들은 한문본의 전고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썼다는 점에서는 긴 서책에서 전고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쓰인 주석과[45]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주석에서는 전고의 내용이 설명되거

45) 낙선재본『어우야담』의 제68화 (37), 제95화 (50),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제4권 제3화 (13). 본

나 정보가 첨가되는 데 비해, 본문에서 해설적 서술이 활용된 이 예들에서는 전고를 활용한 표현이 쉬운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어 구별된다.

가령 규장각본『청구야담』제4권 제3화의 "듕쟝통의 낙지론을"에 대한 주석에 "듕쟝통은 후한 사름이라. 낙지논은 산림의 뜻을 즐기는 의논이라"고 쓰여 있으므로 주석을 통해 "중장통(仲長統)"과 "낙지론(樂志論)"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낙선재본『어우야담』의 (1)에는 "睚眦"[46]가 "여자의 원(怨)"으로, (7)에서는 "折綿之寒"[47]이 "치워"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에서도 "噬臍"[48]가 "지금의 뉘웃츠나"와 같이 쉬운 표현으로 대체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연대본『어우야담』의 (1)에는 나열된 전고들 가운데 안록산(安祿山)에게 신병(神兵)이 있다는 뒤의 내용은 탈락되고, 이임보(李林甫)에게 신동(神童)이 있다는 앞의 내용에 설명이 덧붙어 있다. 이에 유사한 전고가 나열되는 대신, 하나의 전고에 자세한 설명이 덧붙음으로써 "이임보에게 신동이 있고, 안록산에게 신병이 있다(李林甫有神童, 安祿山有神兵)"는 구절이 한글본에 "니림뵈 시동을 두어 크게 신명ᄒᆞ여 그 말노 시잠ᄒᆞ더니"로 변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한문본에서 전고가 쓰인 표현이 해설적 서술을 통해 한글본에서 쉬운 표현으로 변이되거나 설명이 부연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던바, 이는 한글본 야담을 읽을 여성 독자의 교양 수준을 의식하여 배려하고자 했던 역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의 176쪽, 178쪽 참조.

46) 본래 "睚眦"는 눈을 흘긴다는 말인데 사소한 원한을 뜻한다.《사기(史記)》<범수채택열전(范雎蔡澤列傳)>에 "밥 한 끼 먹여준 은덕도 반드시 갚고, 눈 한 번 흘긴 원한도 반드시 보복했다.[一飯之恩必償 睚眦之怨必報]"는 내용이 보인다.

47) "折綿"은 솜옷을 찢는다는 말로 "折綿之寒"은 몹시 차가운 기후를 가리킨다. 중국 삼국시대 위(魏)나라의 완적(阮籍)의 <대인선생전(大人先生傳)>에 "양기의 온화함은 미약하고 음기는 다하여, 바다는 꽁꽁 얼어 흐르지 못하고 솜옷이 찢어진다.[陽和微弱陰氣竭 海凍不流綿絮折]"는 내용이 보인다.

48) "噬臍"는 본래 사향노루가 사람에게 잡혀 죽게 될 때에 제 배꼽의 향내 때문이라 하고 배꼽을 물어뜯는다는 말이다.《춘추좌씨전》장공(莊公) 6년 조에 "등국을 멸망시킬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후일 군주께서 마치 사향노루가 제 배꼽을 물어뜯는 격이 될 것입니다.[亡鄧國者, 必此人也. 若不早圖, 後君噬臍.]"라는 내용이 보인다.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여성 독자의 교양 수준을 고려하며 교양의 제고를 위해 주석과 한시를 활용하기도 하고, 여성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고가 쓰인 내용을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두기도 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문에서 해설적 서술이 활용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글본 야담에는 주석의 형식으로 한자, 한자어, 한문 구절이 풀이된 경우가 많지만[49] 본문에서 한자, 한자어와 관련하여 설명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2), (4), (5), (6)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2)는 모두 한문본에 쓰인 한자의 독음과 의미를 병기한 사례이고,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3)은 한자어에 대한 설명이 부연된 경우이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2)는 이충원이 어린 시절 <등왕각서(滕王閣序)>를 읽다가 글자가 잘못 쓰였음을 밝혀내며 한 말이다. 대구(對句)의 "是"자를 근거로 한문 구절 중 "悲"자가 오자임을 밝히고 이를 "非"자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한글로 이러한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기 쉽지 않았던바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역자는 한자의 독음과 의미를 병기함으로써 한문본의 내용을 좀 더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2)에는 "壽字下有可耋二字, 富字下有自足二字, 貴字下有無比二字, 多男子下有皆貴二字"라는 문장이 한글본에 "슈 ᄫᆞ 아ᄅᆡ 올흘 가 ᄫᆞ, 늘을 질 ᄫᆞ, 스스리 ᄌᆞ ᄫᆞ와 죡홀 죡 네 ᄌᆡ 잇고, 귀 ᄫᆞ 아ᄅᆡ 업슬 무 ᄫᆞ와 비홀 비 ᄫᆞ 두 ᄌᆞ이 잇고 다남ᄌᆞ 아ᄅᆡ 다 긔 ᄫᆞ, 귀홀 귀 ᄫᆞ 두 ᄌᆞ이 잇스ᄃᆡ"로 되어 있다. 이는 아들을 얻고 불공을 드린 후 축원문(祝願文)을 꺼내 보니 새로운 글자가 쓰여 있었다는 대목이다. 한글본 야담의 역자가 한글본에서는 축원문에 새롭게 나타나게 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한 결과 이처럼 각 한자마다 음과 훈을 부연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3)은 한문본의 "靑山"이라는 한자 단어를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독음만 옮겨 "쳥산"이라고만 적어두면 푸른 산이라는 의미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연하여 설명해둔 것이

49) 본고의 170~180쪽 참조.

다. 이 또한 한문본 『어우야담』이 한글로 번역됨으로써 본래의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본문에서 한자나 한자어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쓰인 해설적 서술은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만 확인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편 연대본 『어우야담』의 (2)에서는 "차오산 천로가 이로써 입전하였다(車五山天輅, 以此立傳.)"는 문장에 "별호는 오산이오 일홈은 천뇌라"는 해설이 부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책을 읽을 여성 독자는 "車五山天輅"가 누구인지, 이 인물의 별호와 이름이 "五山"과 "天輅"임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한 역자가 여성 독자의 이해를 돕고 교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덧붙여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역자의 배려를 통해 한글본 야담의 여성 독자는 야담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잘 이해하며 교양을 쌓을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6)에 등장인물의 이름인 "熒(등불 형)"이 "각"으로 잘못 쓰여 있는데 여기에 "씨ᄃᆞ를 각ᄡᆞ"라는 설명까지 부연되어 있는 양상을 통해 역자가 여성 독자의 교양 수준을 배려하고 교양의 제고를 도모했지만, 실제로는 역자의 오독과 오기로 인해 독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받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고찰을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의 본문에서 해설적 서술이 활용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글본 야담 자료의 역자는 한문으로 저술된 야담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문본의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종 맞닥뜨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설적 서술을 통해 한자의 음이나 훈을 제시하기도 하고, 동음(同音)의 한자나 한자어로 인한 독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을 첨가하기도 했던 것이다.

야담이 한문으로 저술되었던바 본래 여성은 그 독자로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이러한 지점을 의식하여 한문으로 창작되었던 야담을 여성 독자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적 서술

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의 역자는 여성 독자의 교양 수준을 의식하고 배려하여 본문에 해설적 서술을 첨가했던 것이다. 역자는 이를 통해 여성 독자들이 한글본 야담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교양을 제고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자의 배려를 통해 여성 독자들은 표기문자의 제약으로 인해 온전히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더 쉽게 잘 이해하며 교양을 제고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과정에서 여성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바, 실제 독서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 독자가 교양을 쌓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앞서 살핀바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주석을 첨가하고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병기함으로써 여성 독자가 삽입한시, 한자어, 한문 구절의 표현 및 의미를 점검하기를 기대했던 것이 지식의 습득과 관련되는 협의의 교양을 위한 것이라면,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 연대본『어우야담』에서 여성 독자의 교양 수준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해설적 서술을 활용한 것은 여성 독자가 야담에 실린 내용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한 배려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광의의 교양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여성 교화 의식의 반영

1) 부덕(婦德)의 강조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부덕이 강조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주된 독자층이 여성으로 상정되었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 자료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여성 독자를 의식한 역자에 의해 이 같은 변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모든 다시 쓰기는 그 의도와 별개로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시학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특정한 사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문학이 기능하도록 조작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50] 번역을 통

한 한글본 야담으로의 다시 쓰기에서는 가부장제라는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력하게 반영된바 한글본 야담이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여성 독자가 갖추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자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여성 독자가 여성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덕행을 구체적으로 알고 익힘으로써 교양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랐던바 그러한 기대가 번역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부덕이 강조되는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본『어우야담』의 경우

(1) 雖嫁夫一日而孀, 願爲賢者妻.(제42화)→오늘 성녜ᄒᆞ고 내일 가뷔 죽어도 어진 사ᄅᆞᆷ의 ᄇᆡ필이 된즉 내게 죡ᄒᆞ니 허혼을 ᄒᆞ소셔.(제2화)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1) 女必婉辭而諫之.(제59화)→녀ᄌᆡ 반ᄃᆞ시 유ᄉᆞ 완용으로 간ᄒᆞ믈 지극히 ᄒᆞ니(제3화)

국민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遂理裝相送曰(제33화)→즉시 니러나 밤새도록 ᄒᆡᆼ장을 다ᄉᆞ려 서ᄅᆞ 보니여 ᄀᆞᆯ오ᄃᆡ(제8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形影相弔, 喫着無闕, 而世念索然, 春風秋月, 悽傷自悼而已. 今婢輩, 以無人照檢, 相繼而去, 只有老婢相伴, 而亦多不常常在家, 情事酸苦如此.(제3권 제2화)→셰샹 자미 돈연ᄒᆞ고 다만 늘근 비ᄌᆞ로 더브러 지나니 나의 졍ᄉᆡ 실노 신산ᄒᆞᆫ지라.(제4권 제2화)

(2) 人生幾何, 而守此衰朽不相干之人, 酷受悍婦嫉妬, 夏之日, 冬之夜, 獨泣空閨之中, 如何情事(제3권 제2화)→대져 사ᄅᆞᆷ이 셰샹의 이셔 이러ᄐᆞ시 지나ᄂᆞᆫ 졍ᄉᆞ와(제4권 제2화)

---

50) "All rewritings, whatever their intentions, reflect a certain ideology and a poetics and as such manipulate literature to function in a given society in a given way." André Lefevere(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New York: Routledge, p.67.

(3) 纔卒哭(제2권 제27화)→그 후 삼 상을 지나매(제4권 제7화)

(4) 旣一相接, 更何他歸?(제5권 제1화)→이믜 ᄒᆞᆫ 번 셔로 졉면ᄒᆞ믜 텬디 증참이 되고 신명이 불기 알으시니 엇지 다른 ᄃᆡ 가리오?(제8권 제11화)

(5) 仍慨然出門(제7권 제12화)→ᄯᅩ 녀군의게 효봉편모ᄒᆞ며 승슌군ᄌᆞᄒᆞ여시〃 규간ᄒᆞ모로뼈 권ᄒᆞ고 인ᄒᆞ여 개연이 문의 나(제13권 제11화)

(6) 責其妻之窺見曰: "後復如是, 則吾不可久留此矣."(제7권 제22화)→기 처를 ᄭᅮ지져 ᄀᆞᆯ오ᄃᆡ, "ᄂᆡ 경계를 듯지 아니ᄒᆞ고 임의로 규시ᄒᆞ니 녀힝이 그른지라. 후의 만일 이ᄀᆞᆺ치 ᄒᆞᆫ즉 내 가히 여긔 머무지 못ᄒᆞ리로다."(제14권 제7화)

(7) 仍苦挽一宿(제1권 제1화)→ᄒᆞ로밤 자고 가기를 쳥ᄒᆞ거늘 니싱이 황연 대각ᄒᆞ고 호의를 뇌거치 못ᄒᆞ여 그날 밤 외당의셔 머무더니(제15권 제1화)

(8) 亦無灾患.(제1권 제2화)→사ᄅᆞᆷ마다 그 부인의 지략을 탄복ᄒᆞ더라.(제15권 제2화)

(9) 終爲兵曹叅判云云.(제2권 제22화)→병조참판이 되니라. 차희라! 궐녜 근본 텬기로 텬뎡비필을 구ᄒᆞ야 몸니 맛도록 일부를 셤기고 쟝ᄂᆡ 일을 미리 알아 ᄉᆞᄉᆞ의 긔이ᄒᆞ미 귀신 ᄀᆞᆺᄒᆞ야 필경 몸이 극귀ᄒᆞ고 지아비를 현달케 ᄒᆞ니 궐녀ᄂᆞᆫ 고금의 드믄 사ᄅᆞᆷ이로다.(제3권 제16화)

(10) 所行雖如此(제1권 제15화)→츄ᄒᆞᆫ 힝실이 비록 이ᄀᆞᆺᄐᆞ나(제16권 제2화)

(11) 女雖昵臥於客, 客雖並臥而疑畏, 終夜各寢.(제8권 제16화)→해당 문장 삭제(제17권 제13화)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부덕이 강조되는 양상은 여성 인물의 모범적인 언행이 제시되거나, 부덕에 걸맞지 않는 언행이 비판 혹은 생략되는 데서 보이기도 하고, 부덕에 대한 직접적인 표창(表彰)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그 중 여성 인물의 모범적인 언행을 통해 부덕이 강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 예로 연대본 『어우야담』의 (1), 최민열본 『천예록』의 (1),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3), (4), (5), (7)을 들 수 있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부덕이 강조되는 예는 많지 않은데, 그마저도 모두 여성 인물의 모범적인 언행의 제시를 통해 이루어

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덕에의 강조는 간략한 부연을 통해서만 확인되는바 한문본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연대본 『어우야담』의 (1)은 나이가 너무 많아 재혼할 상대를 구하지 못하고 있던 홍유손의 구혼(求婚)을 전해들은 여성 인물이 "결혼하고 하루 만에 과부가 되더라도 어진 사람의 아내가 되기를 바란다(雖嫁夫一日而孀, 願爲賢者妻.)"며 부모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홍유손이 어진 인물임을 알아차리는 모습과, 나이 같은 현실적인 조건보다 성품을 우선시하며 결혼 상대를 택하는 모습을 통해 이 여성 인물이 지인지감(知人之鑑)을 가진 지혜로운 인물임을 드러난다. 연대본 『어우야담』에는 여성 인물의 이러한 말이 조금 더 부연됨으로써 이 여성 인물의 부덕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된다.

최민열본 『천예록』의 (1)을 살펴보면 한문본의 "여자가 반드시 부드러운 말로 간하니(女必婉辭而諫之)"라는 문장 가운데 "순한 말(婉辭)"이 부드러운 말과 순한 얼굴이라는 뜻의 "유ᄉᆞ 완용"으로, "간하니(諫之)"가 "간ᄒᆞ믈 지극히 ᄒᆞ니"로 부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문본에서 여성 인물의 부덕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되 짧은 부연을 통해 이를 조금 더 강조한 것이다.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은 기생이 노진과 하룻밤을 보낸 후 노진을 돌려보내는 내용이다. 한문본의 "드디어 행장을 꾸려 서로 전송하(遂理裝相送)"는 모습이 한글로 번역되며 "즉시 니러나 밤새도록 힝장을 다ᄉᆞ려 서ᄅᆞ 보ᄂᆡ"는 것으로 부연되어 있다. 즉 "드디어"가 "즉시 일어나 밤새도록"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연을 통해 행장을 꾸리는 기생의 심상한 행동이 낭군을 위해 즉시 일어나 밤새 짐을 꾸리는 정성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한편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비해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부덕이 강조되는 양상이 훨씬 빈번하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짤막한 서책처럼 한문본의 내용이 조금 더 부연되며 여성 인물의 모범적인 언행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문본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한문본에 없던 내용이 새롭게 첨가되며 부덕이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규장각본『청구야담』의 (3)에서는 여성 인물이 시부의 상을 치른 상례(喪禮)의 기간이 한문본과 크게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문본에는 여성 인물이 "졸곡(卒哭)"을 마치고 자결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데 비해, 한글본에는 "삼 상"까지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졸곡까지는 3개월이 걸리지만 삼상까지는 3년이 소요되는바 한글본에서는 여성 인물이 자결하기 전에 시부의 삼년상을 완수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에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여성 독자들은 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시부의 삼년상을 마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5)에는 첩이 남편의 과거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 홀로 시모를 모시게 될 정실에게 전하는 당부가 첨가되어 있다. "효봉편모(孝奉偏母)ᄒᆞ며 승슌군ᄌᆞ(承順君子)ᄒᆞ여 시〃 규간(時時規諫)"이라는 여성의 규범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는 한문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한문본에는 다만 "인하여 개연히 문을 나서는(仍慨然出門)" 모습만 보일 뿐이다. 역자는 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모와 남편을 두고 집을 떠나는 여성 인물이 "개연히 문을 나서는" 모습으로만 그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에 정실에게 가내사(家內事)를 살뜰히 부탁하고 떠나는 모습을 첨가한바 한글본에서는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집안일을 걱정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부덕이 강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는 여성 인물의 모범적인 언행이 제시되는 외에도 부덕에 걸맞지 않는 언행이 비판되거나 생략되는가 하면, 부덕에 대한 직접적인 표창(表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비해 부덕이 강조되는 양상이 폭넓게 확인된다.

부덕에 걸맞지 않는 언행을 비판하거나 생략하는 예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 (2), (6), (10), (11)에 보인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 (2)는 한문본에서 역관의 첩이 절절하게

토로한 독수공방의 어려운 사정과 외로운 심사가 많은 부분 생략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에 한문본의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먹고 입는 건 걱정이 없지만 세상살이가 삭막하니 봄바람과 가을 달에도 슬퍼하며 스스로 불쌍히 여길 뿐입니다. 지금 여종들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자 잇달아 도망가고 다만 늙은 여종과 서로 의지하지만 또한 집에 붙어있지 않을 때가 많으니 신세가 이렇게 쓰라리고 고달프답니다.(形影相弔, 喫着無闕, 而世念索然 春風秋月, 悽傷自悼而已. 今婢輩, 以無人照檢, 相繼而去, 只有老婢相伴, 而亦多不常常在家, 情事酸苦如此.)”가 “셰샹 자미 돈연ᄒᆞ고 다만 늘근 비ᄌᆞ로 더브러 지나니 나의 졍ᄉᆡ 실노 신산ᄒᆞᆫ지라.”로 대폭 축약되어 있다.

또 규장각본『청구야담』의 (2)는 한문본의 “인생이 얼마나 되기에 이 늙어빠지고 나를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나운 본처의 질투를 가혹하게 받으니 여름낮 겨울밤을 규방 안에서 홀로 흐느끼는 이러한 사정(人生幾何, 而守此衰朽不相干之人, 酷受悍婦嫉妬, 夏之日, 冬之夜, 獨泣空閨之中, 如何情事)”이 “대져 사ᄅᆞᆷ이 셰샹의 이셔 이러ᄐᆞ시 지나ᄂᆞᆫ 졍ᄉᆞ”로 대폭 축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문본에는 첩으로서 혼자 사는 여성의 고독한 내면 심리가 절실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덜리게 것이다.[51]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는 혼자 수절하며 독수공방하는 여성 인물의 고독감을 드러내는 이러한 말이 열절이라는 부덕을 갖추어야 하는 여성 독자들에게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이 서술을 대폭 축약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6)은 이인 곽사한이 경고를 어기고 방을 엿본 아내를 질책하는 말이다. 한문본에는 “후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51) 선행 연구에서는 한글본 야담의 번역상의 특징으로 등장인물의 내면심리 묘사가 부연되어 있다는 점이 거듭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앞서 낙선재본『어우야담』에 김운란이 실명한 상황에서 사대부 남성으로서 사환과 관련하여 드러내는 심리 묘사가 대폭 축약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도 부덕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여성인물의 심리 묘사가 대폭 축약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글본 야담에서는 등장인물의 내면심리 묘사가 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내면심리 묘사가 여성 독자의 관심사와 멀 것으로 예상되거나 여성 독자의 교양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생략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137쪽 각주 24) 참조.

여기 오래 머물 수 없다(後復如是, 則吾不可久留此矣.)”고만 되어 있는데 비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이 문장이 “ᄂᆡ 경계를 듯지 아니ᄒᆞ고 임의로 규시ᄒᆞ니 녀힝이 그른지라 후의 만일 이ᄀᆞᆺ치 ᄒᆞᆫ즉 내 가히 여긔 머무지 못ᄒᆞ리로다”로 부연되어 있다. 부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따지며 이를 “녀힝[女行]” 즉 여성의 행실이 그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가 여행(女行)과 부덕을 의식하며 내용을 의도적으로 부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0)에는 한문본의 “소행(所行)”이라는 표현이 “츄ᄒᆞᆫ 힝실”로 바뀌어 쓰여 있음을 볼 수 있다.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한문본의 표현과 달리 한글본에는 여성 인물의 실절이 추한 행실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여성 인물의 실절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부덕에 대한 직접적인 표창(表彰)은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8), (9)에서 확인된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8)에는 한문본에 서술되어 있는 “재앙이나 걱정이 사라졌다”는 후일담이 “사ᄅᆞᆷ마다 그 부인의 지략을 탄복ᄒᆞ더라”는 부인의 지혜에 대한 직접적인 상찬으로 바뀌어 쓰여 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9)에는 한문본의 “云云”이 “차희라! 궐녜 근본 텬기로 텬뎡ᄇᆡ필을 구ᄒᆞ야 몸니 맛도록 일부를 셤기고 쟝ᄂᆡ일을 미리 알아 ᄉᆞᄉᆞ의 긔이ᄒᆞ미 귀신 ᄀᆞᆺᄒᆞ야 필경 몸이 극귀ᄒᆞ고 지아비를 현달케 ᄒᆞ니 궐녀ᄂᆞᆫ 고금의 드믄 사ᄅᆞᆷ이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 부연되어 있다.[52]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는 이러한 서술을 통해 여성 독자가 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행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직접 개입하여 교훈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52) 김준형은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후일담이 삭제된 예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9)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첨가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야담』의 다른 이본에 존재하는 논평을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부덕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변이 양상들이 더 확인된다는 점, 그 독자층이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부연은 다른 저본을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번역 과정에서 첨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실상에 가깝지 않은가 한다. 김준형(2014), 앞의 논문, 560~570쪽 참조.

이상에서 살핀바 부덕이 강조되는 양상이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다양하고 빈번하게 보이는 데 비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서는 한문본의 내용이 조금 더 부연되는 데 한정될뿐더러, 일회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의 역자보다는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가 여성 독자로 하여금 한글본 야담의 독서를 통해 부덕을 함양하게 하는 데 특히 노력을 기울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가 번역 과정에서 이 책을 읽을 여성 독자의 기대지평을 고려했던 결과로 보인다. 즉,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양 수준을 지닌 여성 독자를 상정했던 데 비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를 번역한 역자는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의 독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교양 수준을 지닌 여성 독자를 상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반복적으로 부덕이 강조되는 양상은 그러한 높은 교양 수준의 독자가 지녔던 기대지평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2) 선정적 내용의 지양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선정적인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어 있는 양상이 적잖이 확인된다.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양상에는 한 글자나 한 두 단어가 대체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의 화소(話素) 전체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어 그 층위가 단일하지 않다. 한글본 야담 자료의 역자는 이러한 변이를 통해 여성 독자가 읽기에 적절한 텍스트를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와 여성 독자의 기대지평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양상을 다음의 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1) 至有下敎曰: “抱腰甘唱, 願留宮中者, 老宰相朴純義之妻也.” 政院知悉.(제60화)→해당 문장 삭제(제4화)

국민대본『동패낙송』의 경우

(1) 仍出入厥妓家, 厥妓自願薦枕, 與講雲雨, 情好款洽.(제33화)→그 기싱이 스스로 침셕의 뫼시기를 청ᄒᆞᆫᄃᆡ 그 졍회 관흡ᄒᆞ더라.(제8화)

낙선재본『어우야담』의 경우

(1) 男女陰陽一如人(제516화)→남녀 마치 사ᄅᆞᆷᄀᆞᆺ고(제14화)

(2) 曾聞杆城有魚巒, 得一人魚, 肌膚雪白如女人, 戲則而嬲之魚, 笑之有若繾綣者, 遂放之洋中, 往而復返者, 再三而後去之. 余嘗閱古書, 人魚男女狀如人, 海上人擒其牝, 畜之池, 相與交合, 亦如人焉. 余窃笑之, 豈於東海上復見之?(제516화)→해당 문장 삭제(제14화)

(3) 其陰七尺(제467화)→그 몸이 칠쳑이라 ᄒᆞ니(제15화)

(4) 妻以其陰印其麵(제363화)→ᄀᆞ만이 그 ᄀᆞ를의 ᄂᆞᆺ출 박앗더니(제35화)

(5) 斜行且劚, 扶而擲心曰(제143화)→빗가며 ᄀᆞᆯ오ᄃᆡ(제103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경우

(1) 新官急於療目, 且多酒力, 解下褲帶, 雙膝跪坐把那話, 朦朧進去, 那牛兒吼嘶踶齧, 艱辛畢事(제6권 제13화)→일장 가쇼ᄉᆞ를 힝ᄒᆞᆫ 후의(제1권 제12화)

(2) 邂逅探花之事(제2권 제7화)→지난 일(제3권 제1화)

(3) 酒興頗逸, 携女入室, 畫屛錦衾, 花茵繡枕, 蜂貪蝶戀, 極其繾眷, 枯草沾雨, 死灰復燃, 彼此喜可知也. 自是以後, 因常留住, 其生其死, 一任天公. 婦亦欲絶夫家, 不復畏忌, 但治珍衣美食以養. 李弁瘦顔, 日漸豊麗, 夜則來宿, 晝則出遊, 奄過一月(제3권 제2화)→인ᄒᆞ여 그 집의 머무러 부〃지졍을 밋고 화려ᄒᆞᆫ 의복과 아람다온 음식으로 지나니(제4권 제2화)

(4) 李不答直上廳, 把女手擁頭接口(제3권 제2화)→그 무변이 ᄃᆡ답지 아니ᄒᆞ고 바로 그 부녀의 손을 잡으며 머리를 어루만지되(제4권 제2화)

(5) 婢遂滅火解衣(제3권 제4화)→비지 드ᄃᆡ여 취침ᄒᆞ니(제5권 제1화)

(6) 移時情竇互開, 偎肩促膝, 姿意戲謔, 相與昵枕合歡(제3권 제9화)→엇개를

겻고 무릅흘 딕야 임의 희학ᄒᆞ다가 셔로 더브러 취침ᄒᆞ니(제5권 제6화)

(7) 有老嫗邀張生坐廡下, 使素服美娥進食, 怳然若風波中昏倒時進食之娥也. 張生甚嗟異, 問于居停主人, 則是趙氏女, 而老嫗卽其母. 今年二十, 寡居已有年云. 張生告以夢中之異, 主人曰: "吾有一婢, 名曰, "梅月", 而年前見賣於趙家, 若使此婢居間, 則事可諧矣. 又數日, 主人偕梅月來謂曰: "俄聞梅月所傳趙女聞夢中之事, 若有情感, 而別無峻拒, 是許之也. 況其母今夜修齋山寺, 客之偸香, 政在今宵矣. 遂敎梅月以如此如此 是夜張生至其家, 見窓下有一樹梅花, 山月已斜, 花影婆娑, 佇立花下, 夜色將深, 群動已息, 唯有短尨吠客, 梅月聞犬吠聲, 硏然啓門而出, 引張生入室, 澗月在窓室, 櫳晃然而見趙女, 擁衾在床, 驚起而坐, 嚴辭峻拒, 若將不容, 及聞慇懃說話, 秋波乍轉, 話頭暫低, 或含羞露態, 或佯怒强罵曰: "梅月賣我, 可殺哉!" 及其同衾昵枕, 神魂蕩漾, 而怒罵之聲已絶, 繾綣之情難掩. 雲雨已畢, 女攬衣而起, 手整雲鬢, 笑看張生而語曰: "可憐梅月在外凍甚, 何不招入耶? 張生呼梅月, 入室而笑謂女曰: "初何責其可殺, 後何憐其凍甚?" 其女嬌羞不答. 已而水村鷄鳴, 東天向曙, 握手相別, 哽咽不能語矣.(제3권 제13화)→해당 문장 삭제(제6권 제3화)

(8) 遂下吏奴輩, 屛退左右, 圍繞大屛風於大廳之中, 携厥妓入于其中, 爛熳作戲, 雲雨旣畢(제4권 제28화)→드디여 하리롤 다 물니고 그 기싱을 닛그러 운우지희롤 난만히 맛친 후의(제8권 제10화)

(9) 不意中緊抱兩脚, 狼藉搆會(제5권 제8화)→진시 그 녀ᄌᆞ의 셰요롤 긴히 안고 ᄒᆞ는 일이 극히 슈샹ᄒᆞᆫ지라.(제9권 제7화)

(10) 又熟知進士主之留意於吾(제5권 제8화)→진ᄉᆞ쥐 내게 유의ᄒᆞ신 지 오린 줄을 아오며 슌슉ᄒᆞ신 셩정을 ᄆᆞ음의 ᄒᆞᆼ상 닐ᄏᆞ던 비라 진ᄉᆞ쥬 셤기믈 이믜 허ᄒᆞᆫ 고로(제9권 제7화)

(11) 投身于床曰: "任汝爲之." 業福乃恣意淫弄, 極其醜狀(제5권 제22화)→드디여 몸을 허ᄒᆞᆫ디 업복이 비로소 깃거 일장 운우롤 맛친 후(제9권 제19화)

(12) 厥女曰: "請先觀書房主下物." 士人慾火如熾, 他不暇顧, 惟妓言是聽, 解下袴衣, 出以示之.(제1권 제3화)→궐녜왈, "몬져 그ᄃᆡ 옷슬 버스라." ᄒᆞᆫ디 니싱이 즉시 바지롤 버스니(제15권 제3화)

(13) "其監司之備送婚需, 不爲不感, 惟此事, 尤極感謝." 取來開金.(제1권 제3화)→해당 문장 삭제(제15권 제3화)

(14) 遂留三日(제1권 제5화)→즉일 셩녜ᄒᆞ니(제15권 제5화)

(15) 年少男兒, 與女子同房, 而無一點情慾, 無乃宦者乎? 何其沒風味若是乎? 狼藉醜辱, 喃喃不已.(제1권 제9화)→쇼년 남ᄋᆡ 엇지 이러ᄐᆞᆺ 무미ᄒᆞ뇨?(제15권 제9화)

(16) 巡相不忘舊日之情, 自內舍, 召入寢室, 以續舊緣(제1권 제12화)→슌샹이 녯날 졍의를 닛지 못ᄒᆞ여(제15권 제12화)

(17) 仍與之交, 偃臥自若(제8권 제6화)→인ᄒᆞ여 ᄌᆞ약히 누엇더니(제17권 제6화)

(18) 砲以少年風情, 試挑以春情, 亦無羞作之意, 遂容以會之.(제8권 제16화)→들어가 쉬더니(제17권 제13화)

이상의 사례들은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선정적인 내용을 생략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체나 부연을 통해 선정적인 내용을 해명하는 경우도 있다.

선정적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는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동패낙송』,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확인된다. 그 예로 최민열본 『천예록』의 (1),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 (2), (3), (4), (5),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 (2), (3), (4), (5), (6), (7), (8), (9), (11), (12), (13), (15), (16), (17), (18)을 들 수 있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최민열본 『천예록』의 (1)과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을 먼저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선정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최민열본 『천예록』의 (1)에는 "심지어 하교(下敎)하여 말하기를, '허리를 안고 신음소리를 내며 궁중에 머물러 두고 싶은 사람이 노재상 박순의의 아내'라고 했는데 승정원에서도 이를 다 알았다(至有下敎曰: "抱腰甘唱, 願留宮中者, 老宰相朴純義之妻也." 政院知悉.)"는 한문본의 문장이 삭제되어 있다. 역자는 이러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문장을 한글본으로 옮기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본 『동패낙송』의 (1)에는 노진과 기생 간의 성행위에 대한 서

술이 축약되어 있다. 한문본의 “인하여 그 기생의 집을 출입하여 그 기생이 스스로 잠자리를 모시기를 원하므로 서로 운우(雲雨)의 정을 맺으니 정분(情分)이 두터웠다(仍出入厥妓家, 厥妓自願薦枕, 與講雲雨, 情好款洽.)”는 문장이 축약되어 있는데, 특히 “운우의 정”으로 비유된 성관계에 대한 서술이 소거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이 문장은 노진과 기생의 관계가 변화되는 내용이므로 번역하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행위와 관련되는 내용은 간략히 서술하고 지나가버렸음을 알 수 있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1), (2)에는 인어에 관한 성적인 서술이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어 있다. (1)에는 “남녀의 음경과 음호가 사람과 같고(男女陰陽一如人)”라는 문장이 생략을 통해 “남녀 마치 사ᄅᆞᆷ ᄀᆞᆺ고”로 변이되어 있다. 또 (2)에는 “일찍이 들으니 간성(杆城)에 어만(魚巒)이 있어 거기서 인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니 여인 같았다. 희롱하자 희롱한 물고기가 마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듯 웃었다. 드디어 바다에 놓아주었는데 갔다가 돌아오기를 두세 차례나 한 후 떠났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고서를 보니 인어는 암수의 모습이 사람 같아서 바닷가 사람들이 암컷을 잡으면 연못에서 기르고 더불어 교합하는데 또한 사람 같았다고 하여 내가 몰래 웃었는데 어찌 동해에서 다시 인어를 볼 줄 알았으랴?(曾聞杆城有魚巒, 得一人魚, 肌膚雪白如女人, 戱則而嬲之魚, 笑之有若繾綣者, 遂放之洋中, 往而復返者, 再三而後去之. 余嘗閱古書, 人魚男女狀如人, 海上人擒其牝, 畜之池, 相與交合, 亦如人焉. 余窃笑之, 豈於東海上復見之?)”라는 문장이 모두 삭제되어 있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에는 인어의 성기에 대한 설명이나, 사람과 인어 간에 이루어진 성행위에 대한 서술이 소거되어 있는 것이다.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3), (4)에는 한문본의 여성의 성기에 대한 표현인 “陰”이 “몸”이나 “ᄂᆞᆺ”으로 바뀌어 쓰여 있다. (3)에는 거인 여성의 성기 크기가 7척이나 된다는 문장이 거인 여성의 몸이 7척이라는 서술로 바뀌어 있다. 이에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역자가 한문본의 내용과 다소 달라지더라도 성적인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 두기를 꺼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전체 서사를 해치지 않는 경우 성적인 내용을 다르게

바꾸어 두었던 것이다. (4)는 고비가 집을 비우며 식구들이 곡식 가루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도록 수염 자국을 가루에 찍고 떠나자, 굶주리던 아내와 첩이 이를 몰래 먹고 남은 가루에 자신의 성기로 자국을 비슷하게 찍어 두었다[陰印]는 내용을 아내와 첩이 가루에 "ᄂᆞᆺ"을 찍어 둔 것으로 바꾸어 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뒤에 보이는 "내 슈염이 〃러ᄐᆞ시 굽으냐? 내 코ᄂᆞᆫ 엇디 입 가온대 잇ᄂᆞ뇨?(吾鬚若是拳曲乎? 吾鼻在吾口中乎?)"라는 고비의 질책과 긴밀히 연결되는 내용이다. 아내와 첩은 고비가 밀가루에 남긴 자국을 본뜨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서 고비의 수염 난 얼굴과 비슷한 곳을 찾았던바 그것은 바로 여성의 성기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루에 남긴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간파한 고비가 아내와 첩을 질타하며 자신의 얼굴로 찍었던 자국과 여성의 성기로 새로 찍은 자국이 다름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문본의 "陰"이 낙선재본 『어우야담』에는 "ᄂᆞᆺ"으로 대체되어 있으므로 한글본에서는 이러한 고비의 질책이 의미하는 바가 모호해졌다. 이처럼 내용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더라도 낙선재본 『어우야담』의 역자는 번역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했음이 확인된다.

(5)에는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수작을 거는 박엽의 행위가 축약되어 있다. 한문본에는 박엽이 처음 보는 여성 인물을 "비껴가며 또 문지르고 더위잡으며 마음을 떠보는(斜行且劘, 扶而擲心)" 것으로 서술되는 데 비해 한글본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빗가며"라는 간략한 서술로 축약되어 있다. 한문본에서도 박엽의 이러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던지 "박엽은 호협한 사람으로 젊어서는 더욱 방탕하였다(燁任俠人也. 年少尤佚)"는 변명이 이어 제시된다. 그런데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이 같은 변명이 "년쇼우일ᄒᆞ여"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음에도 길에서 모르는 여성을 대뜸 더듬고 붙잡는 박엽의 행동은 삭제되어 있다. 이는 박엽의 이러한 행동이 선정적이라는 역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한문본에 자세하게 묘사된 성행위 장면이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규장각본 『청구

야담』의 (1)에는 사람과 소의 수간(獸姦)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일장 가쇼ᄉᆞ를 힝흔 후의”라는 간략한 서술로 대체되어 있다. 이는 애꾸눈의 신관이 아전의 꾐에 넘어가 눈을 고치기 위해 소와 수간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한문본에는 그 장면이 퍽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신관은 눈을 치료하기에 급하고 술기운도 많이 올라 허리띠를 풀어헤치고 두 무릎을 꿇어 앉아 몽롱한 채로 삽입하니 그 송아지가 울부짖고 발로 차고 물어뜯어 간신히 일을 마쳤다(新官急於療目, 且多酒力, 解下褲帶, 雙膝跪坐把那話, 朦朧進去, 那牛兒吼嘶蹄齧, 艱辛畢事.)”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술기운에 허리띠를 끄르고는 꿇어 앉아 송아지와 성행위를 벌이는 신관의 모습과 뜻밖의 고통에 한바탕 난리를 피우는 송아지의 반응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는 성행위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벌이는 변태적인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에서 퍽 문제적이라고 판단되었을 것이다. 이에 규장각본 『청구야담』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일장 가쇼ᄉᆞ”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3)을 살펴보면 한문본의 “술이 거나해지자 여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림 병풍과 비단 이불, 화문석과 비단 베개에서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듯 하니 사랑함이 극에 달했다. 마른 풀을 비가 적시고 꺼진 재가 다시 타는 듯 했으니 서로의 기쁨을 알 만하다(酒興頗逸, 携女入室, 畵屛錦衾, 花茵繡枕, 蜂貪蝶戀, 極其繾眷, 枯草沾雨, 死灰復燃, 彼此喜可知也.)”는 내용이 한글본에 삭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본에는 이러한 성행위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부〃지졍을 밋”었다는 문장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다. 한문본에는 죽기를 결심했던 무변이 독수공방에 지친 역관의 첩을 만나 벌이는 성행위가 “그림 병풍과 비단 이불, 화문석과 비단 베개에서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듯” 이루어졌다는 서술을 통해 감각적으로 묘사될뿐더러, “마른 풀을 비가 적시고 꺼진 재가 다시 타는 듯”하다는 표현을 통해 자극적으로 그려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이러한 두 남녀의 성행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성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

한 묘사가 “부부지정(夫婦之情)”이라는 관념적인 표현으로 대체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 변화만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가 선정적인 내용을 그대로 옮겨두지 않으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규장각본『청구야담』의 (7)은 글자나 단어, 구절이나 문장이 아니라 화소 전체가 삭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삭제된 부분은 바다에서 표류하던 장한철이 신지도라는 섬에서 만난 조씨 댁의 과부와 하룻밤을 보내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변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53] 이 부분이 탈락된 이유로 이 이야기가『청구야담』에 실린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훨씬 긴 분량으로 되어 있는 점, 이 화소를 완전히 삭제하더라도 전체 서사의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점, 처음 만난 과부와 하룻밤을 지내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점 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성행위 장면 자체가 내용에서 생략되기도 하지만, 등장인물이 성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보여주는 언행이 수위가 조절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규장각본『청구야담』의 (6), (12), (15)는 여성 인물이 성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보여주는 언행이 한글본에서 다소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2)에는 “먼저 서방님의 아래 물건을 보고자 합니다(請先觀書房主下物.)”라는 여성 인물의 거침없는 말이 “몬져 그ᄃᆡ 옷슬 버스라”는 표현으로 완곡하게 바뀌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선비 또한 “욕정이 불붙는 듯해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 없이 기생의 말을 듣는(慾火如熾, 他不暇顧, 惟妓言是聽)” 한문본의 모습을 한글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또 규장각본『청구야담』의 (15)를 통해 한글본에는 자신과의 잠자리를 마다하는 남성 인물에게 여성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이 대폭 축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본의 “여자와 한 방을 쓰는데 한 점 정

53) 정명기는 이와 같은 변이를 고난-극복의 서사구조에 집중한 결과로 보았고, 이강옥은 이 장면을 부담스럽게 느낄 여성 독자의 체면을 배려하여 작품의 일부를 변개하거나 생략한 것으로 보았다. 정명기,「이야기의 개변양상 및 의미」,『한국 야담문학 연구』60쪽, 보고사, 1996; 이강옥,「『청구야담』해설」, 이강옥 옮김,『청구야담』하, 976~977쪽, 2019.

욕이 없다니 고자 아닙니까?(與女子同房, 而無一點情慾, 無乃宦者乎?)”와 같은 말이나 “왁자지껄하게 더러운 욕을 하며 지껄이기를 그치지 않았다(狼藉醜辱, 喃喃不已.)”는 모습이 한글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에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는 여성 인물이 성적으로 지나친 언행을 보이는 부분을 덜어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체나 부연을 통해 선정적인 내용을 해명하는 경우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만 확인된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0)과 (14)가 바로 그 예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10)에는 굳게 절개를 지켜오던 과부가 재가(再嫁)하게 된 이유가 부연되어 있다. 한문본의 “또 진사님께서 제게 뜻을 두셨음을 잘 압니다(又熟知進士主之留意於吾)”라는 “진ᄉᆞ쥐 내게 유의ᄒᆞ신 지 오린 줄을 아오며 슌슉ᄒᆞ신 셩졍을 ᄆᆞ음의 ᄒᆞᆼ샹 닐ᄏᆞᆺ던 ᄇᆡ라 진ᄉᆞ쥬 셤기믈 이믜 허ᄒᆞᆫ 고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한문본에서는 과부가 재가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진사가 과부에게 보인 호감만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글본에서는 과부의 말을 통해 진사가 “마음에 항상 일컬을” 정도로 “순숙(純淑)한 성정(性情)”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 결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여성 독자들은 과부가 재가를 결심하고, 권 진사를 유혹한 명분을 좀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과부가 권 진사를 유혹하는 행위가 선정성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두게 되었다.

(14)에는 한문본의 “遂留三日”이 “즉일 셩네ᄒᆞ니”로 대체됨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동방 삼 일(仍與之, 同寢三日)”이 결혼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 이에 한글본에서는 이들이 결혼 후에야 동침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야담이 한글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선정적인 내용의 수위가 조절되거나 선정성이 해명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역자가 여성 독자층의 내적 수준과 기대지평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결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의 독자는 대부분 사대부가 여성이었기에 당시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던 규범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한 사대부가 여성 독자

의 내적 수준과 기대지평을 고려한 역자에 의해 한글본 야담은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Ⅴ. 한글본 야담의 문학사적 의의

1. 한글본 야담의 존재 양상

앞의 제Ⅲ·Ⅳ장에서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오락성과 교양성에 대한 고찰이 특징적 양상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바,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 보이는 선초상의 특징이 오락적 양상과 교양적 양상에 따라 쪼개져 다뤄졌다. 이에 대개 작품 전체의 선초 양상이 빠짐없이 검토되었음에도 개별 자료의 선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오락성과 교양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또 선초를 통해 해당 자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여기에서 한 실례(實例)로 규장각본 『청구야담』을 살펴봄으로써 앞서 한글본 야담 자료를 살펴보는 데 주요한 두 축으로 설정한 오락성과 교양성이 이야기를 선택하거나 탈락시키는 과정에 실제 어느 정도로 반영된 것인지, 이를 통해 해당 자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1)]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의도적으로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20편이다.[2)] 이 20편은 ① 여성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 8편, ② 부덕(婦德)에 어긋나는 이야기 5편, ③ 선정적인 이야기 3편, ④ 왕실 독자의 심기를 거를 수 있는 이야기 4편으로 대별된다.

① 여성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실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제5권의 제19화 <乞婚需朴道令呈表>, 제20화 <呈舊僚鄭司果戲墨>, 제36화 <成小會四六詩令>, 제6권의 제14화 <南師古東國選十勝>, 제32화 <起死人臨江哀輓>, 제7권의 제19화 <坐城樓南忠壯效節>, 제8권의 제15화 <屈三弁善辯動宰相>, 제10권의 제1화 <偸隣釀四儒詠詩>이다. 이 가운데 십승지(十勝地)에 대한 지리 정보

1) 여러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규장각본 『청구야담』만을 예로 들어 살피게 된 것은 다른 자료들의 경우 그 선초 양상이 빠짐없이 검토된 데 비해,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경우 이 책이 내용상 완질로서 그 저본이 버클리대본과 동궤에 놓이는 이본이므로 수록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필 수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논의의 구도 상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탈락된 이야기들 가운데 고찰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본고의 104쪽 각주) 15 참조.

가 나열되어 있는 제6권의 제14화 <南師古東國選十勝>을 제외한 나머지 7편은 모두 문자나 문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에 규장각본『청구야담』에는 문장 혹은 문자가 주요하게 다뤄진 이야기 7편과 정보 위주의 서술로 이루어진 이야기 1편이 수록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 독자를 상정한 규장각본『청구야담』의 편역자가 여성의 관심사에서 멀 것이라 예상한 내용의 이야기들을 탈락시킨 결과가 아닌가 한다.[3)]

다음으로 ② 부덕(婦德)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선초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모두 5편이다. 제4권의 제26화 <鰥班弄計卜隣寡>, 제7권의 제3화 <李副學海營省叔父>와 제23화 <江界妓爲李帥守節>, 제8권 제7화 <洞仙館副价逢鬼>, 제9권 제9화 <金醫視形投良劑>이 그 예다. 제4권 제26화 <鰥班弄計卜隣寡>와 제7권 제23화 <江界妓爲李帥守節>에서는 여성의 수절 및 변절에 관한 문제가 가벼이 다뤄지는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편역자는 이 이야기들이 여성 독자로 하여금 정절이라는 덕목을 경시하게 만들거나 정조 관념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7권 제3화 <李副學海營省叔父>에서는 청렴하고 검소한 모습이 "조정을 욕되게 하는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로 폄하되고, 제8권 제7화 <洞仙館副价逢鬼>와 제9권 제9화 <金醫視形投良劑>에서는 남녀유별(男女有別)이라는 도리에서 벗어나는 여성 인물이 확인된다.[4)]

③ 선정적인 내용으로 인해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선초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로 제3권의 제16화 <說風情權井邑降巫>와 제18화 <得陰紛窮鰥福緣>, 제7권 제17화 <平壤妓姸醜兩不忘>의 3편을 들 수 있다. 제3권 제16화 <說風情權井邑降巫>와 제7권 제17화 <平壤妓姸醜兩不忘>은 기생으로서 잊지 못하는 인물에 대한 자기서술이 서사의 주축을 이루므로 성적인 내용이 퍽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한편 제3권 제18화 <得陰紛窮鰥福緣>은 홀아비 셋이 천하절색의 세 여인을 만나 동침하게 되며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이다. 이 3편의 이야기를 통해 규장각

3)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의 104~106쪽 참조.
4)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의 161~163쪽 참조.

본 『청구야담』의 편역자가 선정적인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야기를 수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

마지막으로 ④ 왕실 독자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실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4편이다. 제1권 제23화 <過南漢預筭虜兵>, 제8권 제12화 <製錦袍夫人善相>, 제9권의 제20화 <行胸臆尹卞背義>와 제31화 <輸官租富民買兩班>이 바로 그것이다.

앞에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① 여성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 ② 부덕(婦德)에 어긋나는 이야기, ③ 선정적인 이야기가 수록되지 못했음을 고찰했던 데 비해, ④ 왕실 독자의 심기를 거를 수 있는 이야기가 탈락되었던 현상은 검토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살피고자 한다.

제1권 제23화 <過南漢預筭虜兵>은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의 이치를 탐구한 박진헌이 앞일을 미리 알고 이이첨과 거리를 두어 화를 피하기도 하고 조카의 과거 합격과 남한산성이 함락당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박진헌이 남한산에 올라 병자호란을 예언했다는 내용이 보이는바, '이 곳은 빼앗길 성이네. 얼마 안 있어 나라에 큰 병화가 생겨 임금이 타신 수레가 피란해 이곳에 이를 걸세.' 그러고는 임금이 포위되었다가 성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此出降城也. 未久, 國有大兵禍, 鑾輿必播遷到此." 仍言受圍出城事, 甚分明.)"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임금의 굴욕적인 파천(播遷)이 언급되는바, 이로 인해 이 이야기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실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8권 제12화 <製錦袍夫人善相>은 안목이 있는 김수항의 아내가 아들 김창흡에게 민씨 댁에 가서 사위감을 구해오도록 하였다가 아들의 판단에 따라 이씨 댁의 자제를 사위로 삼게 되었는데, 이후 민진후와 민진원 등이 부인을 찾아오자 김수항의 아내가 이들을 보고 혼인을 맺지 못한 것을 크게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민씨

5)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의 163~165쪽 참조.

댁[閔家]은 여흥 민씨 가문을 가리키는데 주지하다시피 이는 2명의 왕비와 2명의 황후를 배출한 명문가이다. 이야기 전체로 보면 민씨 댁 자제들이 "귀인으로서 후세에 이름을 날릴 큰 그릇(貴人, 名垂後世之大器也.)"임을 미리 알아보았던 김수항 아내의 안목에 초점이 있지만, 서사가 진행되며 민씨 댁 자제들을 깎아내리는 김창흡의 말이 거듭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문제적이라고 판단된 결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수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씨 댁 자제들이 모두 기가 약하고 용모도 빼어나지 않아 합당한 사람이 없다(閔家兒, 皆氣短, 且貌不颺, 無可合者.)"는 말이나 "어머님께서 늘 민씨 집안과 혼인을 맺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셨지요. 오늘 민씨 댁 자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창틈으로 살펴보십시오. 소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母氏每以閔家之不得連婚爲恨矣. 今閔家少年來矣. 母氏可從窓隙窺見, 必下諒小子言之不誣也.)"와 같은 말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이에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는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민씨 자제들에 대한 폄훼가 왕실에서 이 책을 읽을 여성 독자, 즉 민씨 가문에서 배출된 왕비나 황후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이야기를 옮겨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9권 제20화 <行胸臆尹卞背義>는 "지체 높고 문벌 있는 집안 출신의 무변(地閥之武弁)"으로 "성품이 모질고 독하고 경망스러운(性悍毒而又妄率)" 윤 아무개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찍이 윤 아무개가 공납전을 유용했다가 발각되었는데 그를 딱하게 여긴 친척이 대신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다가 집안이 풍비박산난 후 풀려나 단천부사가 된 윤 아무개를 찾아갔으나 보은을 받기는커녕 냉대를 받고 무고를 당해 맞아 죽었다는 내용이다. "어찌 이런 잔인하고 비정한 인간이 있단 말인가? 아, 또한 참혹하도다!(世豈有如許殘忍非人情之人乎? 吁! 亦慘毒矣.)"라는 후평에서 윤 아무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지체 높고 문벌 있는 집안"의 윤 아무개라는 인물의 악독한 행적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실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역자는 "지체 높고 문벌 있는 집안

출신의 무변(地閥之武弁)"인 이 윤 아무개가 무려 5명의 왕비를 배출한 파평 윤씨 가문의 일원일 수 있다고 짐작하여 이 이야기가 윤씨 가문에서 배출된 왕비나 황후가 읽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결과, 탈락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제9권 제31화 <輸官租富民買兩班>은 가난하여 고을의 환곡을 타 먹고 갚지 못하는 양반이 감옥에 갇히자 한 부자가 대신 환곡을 갚아주고 양반을 사겠다고 하다가 군수의 말을 듣고 양반이 끼치는 해악에 대해 듣고는 양반이 되기를 포기했다는 이야기이다. 낮은 신분의 부자가 양반을 사기 위해 문서를 꾸리는 과정에서 양반의 허위(虛威)와 악행이 적나라하게 서술되는바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역자는 신분상 최상층에 속하는 왕실의 여성 독자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길 것을 우려하여 이 이야기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규장각본『청구야담』에는 ① 여성의 관심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 ② 부덕(婦德)에 어긋나는 이야기, ③ 선정적인 이야기, ④ 왕실 독자의 심기를 거를 수 있는 이야기가 탈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수록되지 못한 양상에서 규장각본『청구야담』의 편역자가 왕실의 여성 독자를 상정하고 그 기대지평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①, ②, ③의 이야기가 탈락된 것은 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④의 이야기가 실리지 못한 것은 왕실의 독자와 관련하여 규장각본『청구야담』의 편역자가 그 기대지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반영했던 결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①의 이야기가 수록되지 못한 데서 편역자는 여성 독자가 규장각본『청구야담』의 독서에서 기대한 오락성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②, ③의 이야기가 탈락된 데서 편역자가 공고한 가부장제 사회의 최상층 여성 독자가 지녔던 내적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여성 독자의 기대지평은 주로 흥밋거리로서 독서물을 읽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규범을 반성 없이 모방하고 재생산했던 여성 독자층의 한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시대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처 깨이지 못했던 여성 독자의 한계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여성 독자의 기대지평은 여성들이 자신들이 처한 사회 현실에서 최대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상식과 규범을 모범적으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여성 독자의 내적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제 제Ⅲ·Ⅳ장에서 수행해온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좀 더 확장된 전망에 이르기 위해 각 자료에 보이는 오락성과 교양성을 바탕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들의 층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오락성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는데, 본고는 제Ⅲ·Ⅳ장의 검토를 통해 한글본 야담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 보이는 오락성과 교양성은 그 층위와 수준이 단일하지 않은데, 오락성만 강화된 경우와 오락성과 교양성이 모두 강화된 경우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한글본 야담 자료 중 오락성이 강화된 경우로 정명기본『천예록』과 단국대본『동패낙송』, 서강대본『기문총화』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들에서 오락성이 강화된 양상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유희지향적 선초		사실 입증의 지향 약화		사대부 남성의 교양적 서술 축소		소설의 장르 관습 활용	
	호기취향의 반영	여성 독자의 관심사 고려	사실 정보에의 관심 축소	후일담과 후평의 변이	문인 취향의 약화	문제의식의 약화	소설의 표현 차용	소설적 문체와 문법의 활용
정명기본 천예록	○	×	○	○	○	×	×	×
단국대본 동패낙송	-	-	○	○	×	×	○	○
서강대본 기문총화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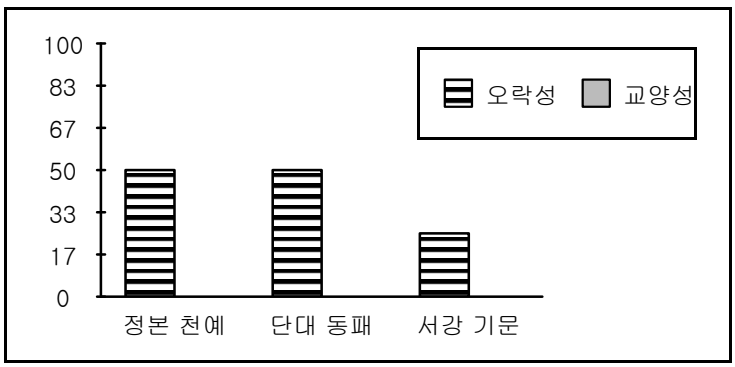
<표 39 한글본 야담 자료의 오락성 1>

위의 표를 통해 이 세 자료는 한문본에 비해 오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락성이 강화된 데 비해 교양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바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교양지향적 선초		활용 주석의 첨가	한시의 번역	해설적 서술의 활용	부덕의 강조	선정적 내용의 지양
	모범적 여성상	다양한 이야기					
정명기본 천예록	×	×	×	×	×	×	×
단국대본 동패낙송	–	–	×	×	×	×	×
서강대본 기문총화	×	×	×	×	×	×	×

<표 40 한글본 야담 자료의 교양성 1>

위의 표에서 정명기본『천예록』과 단국대본『동패낙송』, 서강대본『기문총화』에는 여성 관련의 교양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세 자료는 한문본에 비해 오락성이 어느 정도 강화된 반면, 교양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6)]



6) 이는 편의상 “해당 항목/모든 항목”의 비율을 백분율로 바꾸어 도표로 제시한 것이다. 아래의 도표도 마찬가지임을 밝혀둔다.

한편 오락성과 교양성이 함께 강화되는 양상을 연대본『어우야담』,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동패낙송』, 서강대본『동패낙송』,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책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호기취향의 반영	여성 독자의 관심사 고려	사실 입증의 지향 약화		사대부 남성의 교양적 서술 축소		소설의 장르 관습 활용	
			사실 정보에의 관심 축소	후일담과 후평의 변이	문인 취향의 약화	문제의식의 약화	소설의 표현 차용	소설적 문체와 문법의 활용
연대본 어우야담	○	×	○	○	○	○	○	×
최민열본 천예록	○	○	○	○	○	×	×	×
국민대본 동패낙송	○	○	○	×	×	×	○	○
서강대본 동패낙송	○	○	○	○	×	×	○	○
낙선재본 어우야담	○	○	○	○	○	○	○	×
규장각본 청구야담	-	○	○	○	○	○	○	○

<표 41 한글본 야담 자료의 오락성 2>

구분	교양지향적 선초		주석의 첨가	한시의 번역	해설적 서술의 활용	부덕의 강조	선정적 내용의 지양
	모범적 여성상	다양한 이야기					
연대본 어우야담	×	○	×	×	○	○	×
최민열본 천예록	○	×	×	×	×	○	○
국민대본 동패낙송	○	×	×	×	×	○	○
서강대본 동패낙송	○	×	○	×	×	×	×
낙선재본 어우야담	-	○	○	○	○	×	○
규장각본 청구야담	○	○	○	○	○	○	○

<표 42 한글본 야담 자료의 교양성 2>

위의 표는 정명기본 『천예록』과 단국대본 『동패낙송』, 서강대본 『기문총화』를 제외한 6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한문본에 비해 오락성과 교양성이 강화된 경향을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많은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이 함께 강화된 특징적 양상을 보이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규방소설을 "여성을 규방 속에 속박해 놓고서 살짝 늦추어 주어야 하는 모순의 타협점에서 출현한"[7] 것으로 본 선행 연구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글본 야담은 여성이 그 독자로 상정되었던바 여성 독자는 서사를 통해 오락을 제공받으면서도 부덕을 함양하고 교양을 습득하기를 기대했다는 점에서 규방소설과 그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글본 야담의 선초에 보이는 오락성과 교양성 또한 상보적(相補的)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이들 자료의 오락성과 교양성은 규칙적인 양상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표에 정리된 항목들을 짚어가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의 축소가 모든 자료에서 확인되는바 오락성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지는 양상임이 확인된다. 사실 정보에의 관심 축소는 현전하는 모든 한글본 야담 자료가 공유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다음으로 선초 양상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단국대본 『동패낙송』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을 뺀 나머지 자료들의 선초에 모두 호기취향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오락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공유되는 특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 독자의 관심사에 대한 고려, 사대부 남성과 관련된 교양의 축소, 소설적 장르 관습의 활용 등은 사실 정보에의 관심 축소나 호기취향의 반영과 달리 자료 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의 선초 및 탈락과 관련하여 최민열본 『천예록』, 국민대본 및 서강대본 『동패낙송』과 같은 짤막한 서책에서는 여성 독자의 관심사를

7)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116~117쪽.

고려한 선초 경향이 확인되는 데 비해, 긴 서책에는 여성 독자의 관심사에서 멀다고 판단된 이야기를 배제하려는 선초 경향이 있었다.

한글로 번역되며 문인취향이 약화되는 양상은 2종의 한글본 『어우야담』, 2종의 한글본 『천예록』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확인되고, 문제의식이 약화되는 양상은 2종의 한글본 『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만 확인되었다. 이는 애초에 한문본 『어우야담』, 『천예록』, 『청구야담』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이루어진 서술이나 후평 등이 많았다는 사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8] 애초에 한문본에 문인취향과 문제의식이 많이 담겨 있었기에 한글본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내용이 생략될 소지도 컸던 것이 아닌가 한다.

3종의 『동패낙송』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은 한글소설의 표현, 문체, 문법을 모두 활용한바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연대본 『어우야담』이나 낙선재본 『어우야담』과 같이 한글소설의 표현을 차용한 사례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최민열본 및 정명기본 『천예록』처럼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이 전혀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글본 『천예록』에 한글소설의 장르 관습이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한글본 『천예록』에서 축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9]

한편 한글본 야담에 교양성이 드러나는 면모는 자료 별로 각기 다른

---

8) 한문본 『어우야담』은 서사 뿐 아니라 시화, 잡록 등 다양한 서술이 혼재되어 있는 초기 야담집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많은 편이라는 점, 한문본 『천예록』은 이야기 2편마다 후평이 붙어 있는 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후평에 문인취향과 문제의식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 한문본 『청구야담』의 경우 전대문헌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성과 관련된 기록이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야기의 사실성과 정치적 견해가 드러나는 후일담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 참조된다. 김동욱, 「『천예록』의 「評曰」을 통해 본 임방의 사상」, 『어문학연구』 3,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5, 4~35쪽; 신익철, 「『어우야담』 이본고(異本考)」, 『새국어교육』 Vol, 54, No.1, 한국국어교육학회, 1997, 445~446쪽; 임완혁, 「『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회, 2000, 177쪽; 김준형, 「『청구야담』의 국역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569쪽 참조.

9) 2종의 한글본 『천예록』이 직역되며 축약된 양상에 관해서는 김준형, 「최민열본 『천예록』의 국역 양상」,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377~382쪽; 남궁윤,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국문번역본 고찰」, 『동악어문학회』 57, 동악어문학회, 2011, 104~105쪽; 정보라미, 「정명기 소장 한글 번역본 『천예록』의 재편 및 향유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73쪽 참조.

양상을 보인다. 먼저 선초 및 탈락과 관련하여 교양성이 드러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긴 서책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수록하면서 여성 독자가 모범적 여성상에 대한 교양을 쌓는 데 저해 요인으로 판단되는 이야기들을 배제했다면,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 및 서강대본『동패낙송』과 같은 짤막한 서책에서는 선초를 통해 주로 모범적 여성상을 제시하고자 했음이 확인되었다.

번역 과정에서 주석을 첨가하고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병기하며 여성 독자가 교양을 배려한 사례는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주로 보인다.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 가운데 주석이 활용된 경우는 서강대본『동패낙송』뿐인데 그마저도 전사 과정에서 차후에 덧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짤막한 서책 중에서 유일하게 삽입시가 존재하는 최민열본『천예록』의 경우 번역 없이 한시의 독음만 옮겨져 있다는 점을 참조할 때,[10] 주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주석이 활용되고 한시의 독음과 번역이 병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글 번역 과정에서 부덕이 강조된 예는 연대본『어우야담』,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동패낙송』,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확인되고,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된 예는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동패낙송』,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한글본 야담 자료에는 긴 서책과 짤막한 서책의 구분 없이 번역 과정에서 부덕이 강조되고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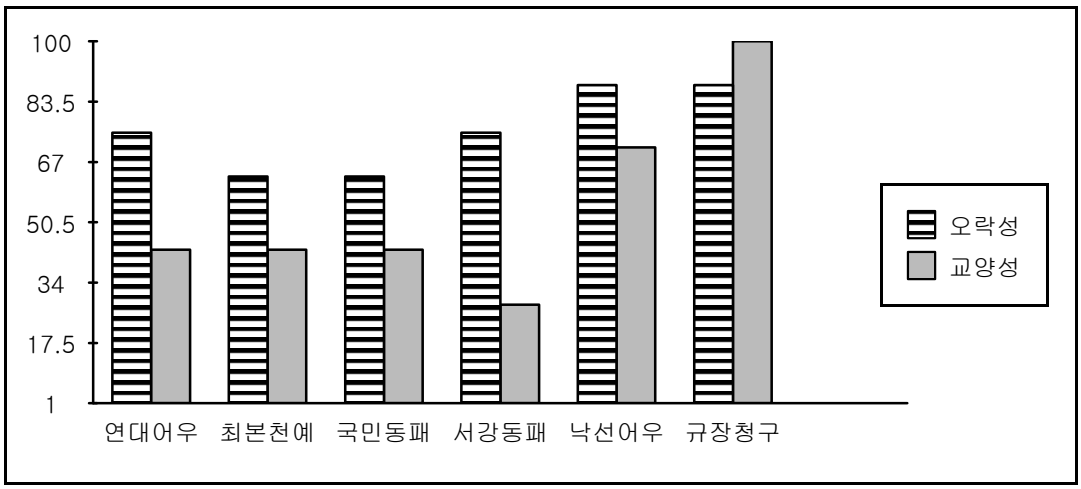
그런데 번역 과정에서 부덕이 강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사례가 짤막한 서책인 연대본『어우야담』,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동패낙송』에는 일회적으로 보이는 데 비해, 긴 서책인 낙선재본『어우야담』, 규장각본『청구야담』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는바 차이가 있음도 확인된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여성 관련 교양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짤막한 서책에서는 주로 선초를 통해 모범적 여성상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교양성이 드러났다면, 긴 서책에서는 선초보다는 번역을 통해 여러

10) 본고의 184~185쪽 참조.

차례에 걸쳐 부덕을 강조하고 선정적인 내용을 지양하는 방식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앞에서 제시된 표를 바탕으로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이 모두 강화된 경우를 도표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는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청구야담』에 오락성과 교양성이 가장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긴 서책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이 비례하며 가장 많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짤막한 서책의 경우 오락성 및 교양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최민열본『천예록』, 국민대본『동패낙송』처럼 오락성과 교양성이 비례하며 강화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연대본『어우야담』과 서강대본『동패낙송』처럼 오락성이 크게 강화된 데 비해 교양성이 강화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오락성만이 강화된 정명기본『천예록』과 단국대본『동패낙송』, 서강대본『기문총화』까

11) 규장각본『청구야담』에는 여성 독자가 모범적 여성상에 대한 교양을 쌓는 데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법한 이야기들이 탈락되어 있으므로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수록 양상에서 여성 관련 교양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장각본『청구야담』의 수록 양상은 직접적인 방식인 선택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인 탈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낙선재본『어우야담』에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여성 관련 교양성이 강화된 양상은 수록 양상보다 번역 양상에서 더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 아울러 살펴보면 교양성에는 거의 변화가 없고 오락성만 강화된 경우도 확인되는 것이다.

이에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서 대개 오락성이 강화되었지만, 교양성의 경우 짤막한 서책에서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강화된 경우도 있으며, 강화된 경우에도 그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긴 서책에서 오락성과 교양성이 모두 크게 강화된 것과 달리, 짤막한 서책에서는 오락성과 교양성이 변화되는 양상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야담 장르의 성격 및 위상의 변화

우리 문학에서 한문본의 한글 번역이 아주 드문 현상은 아니다. 한문과 한글이라는 표기 수단은 절대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독자의 요구에 호응해서 수시로 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이다.[12] 한글소설이 전기소설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패러디가 이루어지기도 했듯이 소설은 한문과 한글을 서로 넘나들며 형태전환을 보여주었다.[13] 이렇게 볼 때 한글본 야담 자료 또한 한문본 야담의 표기 문자가 한문에서 한글로 전환되며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견 한문본 야담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한글본 야담이 주로 여성 독자에 의해 향유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야담은 선초와 번역을 거쳐 사대부 남성만이 전유(專有)하던 장르에서 왕실과 사대부가 및 그 주변의 여성이 향유하는 장르로 독자층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야담이 “우리 문학사에서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한문 표기로 인해 독자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음이 그 한계로 지적되었음을[14] 고려하

12) 임형택, 「한국문학에 있어서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관련이 갖는 역사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22, 한국한문학회, 1998, 9쪽.

13)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양상」,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189~190쪽, 202쪽.

면, 이처럼 야담이 한글본으로 편역됨으로써 여성 독자도 향유할 수 있는 장르로 거듭나게 된 데서 야담이 갖는 문학사적 한계의 극복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Ⅲ·Ⅳ장을 고찰하며 한문본 야담 자료가 한글본으로 선초되고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앞선 검토를 바탕으로 야담이 한글본으로 전환되며 어떠한 장르적 성격과 위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제Ⅲ장을 통해 한문본 야담이 한글본으로 재편되면서 실제 사실에 대한 관심과 사대부 남성과 관련된 교양이 축소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향유한다는 의식이 보다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대부들이 한문본 야담을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오락용으로 읽기도 했지만, 자국의 역사 및 현실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얻기 위해 읽기도 했음을 밝힌 선행 연구가 참조된다. 거의 모든 야담이 우리나라의 특정한 시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점, 대다수 야담이 실존했던 저명한 사대부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야담이 자국의 역사 및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해명되었던 것이다.[15] 이러한 야담의 장르적 특징을 고려할 때 한문본 야담에 분명하게 보이는 특정한 시공간 및 실존했던 저명한 사대부 등의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과, 자국의 역사 및 현실에 대한 관심이 한글본 야담에 축소되어 있는 양상을 통해 한문본 야담이 한글본으로 전환되며 그 장르적 성격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Ⅳ장에서는 야담이 한글로 편역되며 여성의 교양과 규범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야담은 한문으로 쓰여 남성들 사이에서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대부 남성 집단 내부의 담론이었다.[16] 채집된 '구비물'을 기반으로 하여 이야기가 만들어진

14) 임형택, 「第二十八·二十九冊 解題」, 이우성 편,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28 『靑邱野談』 上 , 아세아문화사, 1985, 23쪽, 13쪽.
15)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73쪽.
16) 이승은, 「18세기 야담집의 서사지향과 서술방식: 『천예록』과 『동패낙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85~86쪽.

경우에도 남성 작가가 창작성을 발휘하여 남성 독자를 위해 한문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점에서 야담이 사대부 남성을 향유층으로 상정했던 장르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17] 이와 관련하여 한문본 야담의 또 다른 장르적 특징으로 남성 사대부층의 시각과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한글본 야담에 여성의 교양과 규범을 의식하는 양상이 심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한글본 야담은 기본적으로 한문본 야담에 투사되어 있는 남성 사대부층의 시각과 욕망을 많은 부분 그대로 공유하는 가운데 여성 독자를 교화하고자 하는 의식이 새롭게 틈입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문본 야담에서는 여성의 형상이 남성적 시선에 의해 굴절된 형태로 조명됨으로써[18] 담론에서 여성의 성욕이 배제되기도 하고 여성의 육체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정절이라는 윤리적 실행도구로서만 허용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19] 그러나 이와 동시에 비록 남성 사대부층에 의해 다소 굴절되거나 타자화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남성에게 정욕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유분방한 여성의 모습이 생생하게 포착되기도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20] 한글본 야담은 한문본 야담에 보이는 여성에 대한 이러한 양가적 태도를 넘겨받으면서도, 여성을 독자로 새로이 상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화를 의식하게 되었던바 부덕을 강조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을 생략하는 등 여성의 교양과 규범을 고려하는 양상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양상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도 확인되지만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짤막한 서책에 비해 긴 서책에서 이처럼 여성의 교양과 규

17) 선행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사회에서 한문으로 작성된 문서는 젠더적으로, 계층적으로 유의미한 지표를 형성하는바 야담이 한자를 매체로 삼았다는 사실은 남성/상층의 배타적 향유 공간에 놓일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하므로 야담에서 이야기를 통제하는 최종적 목소리가 '상층남성의 목소리'임이 지적된 바 있다. 박무영・김성은, 「<환처 다시읽기-여성 담론을 읽는 한 방법적 시론」, 『열상고전연구』 23, 열상고전연구회, 2010, 116쪽, 126쪽 참조.

18)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 『국제어문』 26, 국제어문학회, 2002, 55쪽.

19) 최기숙, 위의 논문, 8쪽.

20) 이강옥, 「야담에 나타나는 여성 정욕의 실현과 서술 방식」, 『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542~552쪽; 정길수, 「한국 한문소설의 여성 욕망」, 『한국한문학연구』 80, 한국한문학회, 2020, 190~193쪽.

범을 의식하는 태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상은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의 향유층이 어느 정도 구분되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앞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최상층의 여성 사이에서 한정적으로 향유된 데 비해,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은 사대부가의 여성을 중심으로 향유되는 가운데 상궁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에 의해 더 폭넓게 읽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글본 야담의 독자가 대개 여성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긴 서책과 짤막한 서책의 향유층 간에는 신분의 격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독서물이라는 점에서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과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은 특징적 양상들을 공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대부가 여성을 중심으로 그 이하의 계층에 속하는 여성들도 읽었던 짤막한 서책과, 왕실을 중심으로 최상층 여성들만 읽었던 긴 서책 간에는 내적인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한글본 야담은 한문 장르에서 한글 장르로 그 정체성이 변화하면서 장르적 성격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에 따라 장르적 위상 또한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야담이 이른바 정통 한문 산문에 속하지 못하였던바, 비정통 산문들은 정통 산문에 비해 재도론(載道論)의 자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대체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글쓰기가 많은 정통 산문 장르들에 비해 사실과 허구를 쉽게 넘나들거나 허구에 바탕한 글쓰기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사실이[21] 참조된다. 이처럼 야담이 한문 산문 가운데 이른바 긴장된 정통 산문 장르에 비해 이완된 비정통 산문 장르로서의 위상을 가졌다면, 야담은 한글본으로 편역됨으로써 한글 서사 장르에서 새로운 위상을 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르 위상의 변화는 한문본 야담이 한글본 야담으로 선초되거나 번역되면서 전달되는 내용이 제한되거나 바뀐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한문 문학에서 야담이 갖는 위상과 한글 문학에서 야담이 갖는 위상이 크게 달랐던 때문이기도 하다.[22] 비정통 한문 산문으

21) 박희병(2008), 앞의 책, 62~66쪽.
22) 선행 연구를 통해 조선에서 한문이 '眞書'로서 보편불변의 진리를 담았기에 높은 문화적 위상

로 허구를 전개하면서도 늘 실제 사실처럼 포장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 점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야담에 비해[23] 한글 서사 장르인 소설은[24] 단편과 장편을 막론하고 허구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혹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구적 지향이 거침없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글본 야담은 의사역사(擬似歷史)의 외관을 취하는 한문본 야담의 특징적 양상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허구를 전제로 하는 대부분의 한글 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양적인 장르로서 높은 위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사대부 남성과 상층 여성은 교양을 요구받는 수준에 다소간이나마 차이가 있었던바, 지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이 여성 독자의 경우 남성 문인 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25] 이에 한글본 야담이 한문본 야담에 비해 문장을 주요하게 다룬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전고의 활용, 서책의 인용, 파자(破字) 유희 등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사대부 남성의 지적(知的) 오락과 관련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서사 가운데 긴장된 혹은 높은 장르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에서 야담이 한글본으로 편역되며 새로운 장르적 위상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짤막한 서책에 비해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상층 여성의 교양적 서사 장르로의 경사가 더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의 장르적 위상에는 격차가 있었으리라 짐작

을 차지했던 반면, 한글은 '諺文'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문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문화적 위상과 성격이 크게 달랐음은 정병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一考-心身寓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문화』 4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11~12쪽 참조.

23) 겉으로 보기에 실제 일어난 사실처럼 꾸며 놓았으며, 의사역사(擬似歷史)의 외관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장르로서의 야담이 갖는 주요한 특징임이 지적된 바 있다. 박희병(2008), 앞의 책, 73쪽 참조.

24) 서간, 일기 등의 한글 산문은 실용적인 목적을 갖는 글이라는 점, 서사 장르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글 산문 가운데 소설이 한글본 야담과 장르적으로 그 위상이 비견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한다.

25)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한문본의 주석과 한글본의 주석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는바 사대부 남성과 상층 여성에게 기대되는 교양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고의 175~176쪽 참조.

할 수 있다.

즉 야담은 한글본으로 편역됨으로써 한문 산문의 이완된 혹은 낮은 장르에서 한글 서사의 긴장된 혹은 높은 장르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은 그 위상에서 층차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사이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위상의 차이는 한글본으로의 편역 과정에서 교양성이 심화된 정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오락성이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을 가리지 않고 강화된 것과 달리, 교양성은 짤막한 서책에서 강화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뿐더러, 교양성이 강화된 경우에도 그러한 양상이 긴 서책에서만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에 짤막한 서책에 비해 긴 서책에서, 긴 서책 중에서는 낙선재본 『어우야담』에 비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교양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로부터 짤막한 서책보다는 긴 서책에서, 긴 서책 가운데는 규장각본 『청구야담』에서 장르의 위상이 더 크게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이 향유층과 장르 위상 등에서 구별되는 양상은 한글소설의 장편[錄冊]과 단편[傳冊]이 구분되어 향유되었던 양상에 어느 정도 대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26]

이상에서 한글본 야담은 한문본 야담에서 단순히 그 표기 문자만 변환된 것이 아니라, 독자층이 확대되고 내용과 표현이 변이됨으로써 장르의 성격 및 위상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은 장르적 성격 및 위상의 변화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한글본 야담 자료가 대개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필사되었으며 특히 19세기 중반에 활발히 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27] 이와 관련하여 18세기부터 소설 외의 다양한 한글 독서물이 사대부가 여성의 읽을거리로 등장하기 시작하여,[28]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

26)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1975; 송성욱, 「조선시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거리」, 『성심어문논집』 20·21 합병집, 성심어문학회, 1999 참조.
27) 본고의 80~81쪽.

로 다양한 독서물이 한글로 활발하게 번역되거나 창작되었던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29] 한문으로 쓰인 연행록,[30] 역사서,[31] 필기,[32] 류서(類書)[33] 등이 한글로 번역되었으며, 애초부터 한글로 창작된 연행록이나[34] 노정기(路程記)[35]가 등장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 독자들의 관심 영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독서물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며 여러

---

28)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한글로 번역된 연행록의 주된 독자층이 사대부가 여성들이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김태준,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여행」,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5쪽; 김하라, 「통원(通園) 유만주(兪晩柱)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一考)」,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214~215쪽; 채송화, 「을병연행록 연구-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39~41쪽 참조.

29) 한글본 연행록이 18세기부터 등장하여 18세기 후반 이후 특히 활발하게 향유되었던 상황이 참조된다. 한영균은 한글본 연행록 14종의 산출 시기를 검토한 결과, 18세기 이후 1종, 18세기 전반 1종, 18세기 후반 5종,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 1종, 19세기 전반 4종, 19세기 중반 이후 2종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영균, 「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89쪽 참조.

30) 한문으로 창작된 연행록이 한글로 번역된 경우로 『연힝일긔[老稼齋燕行錄]』, 『셔원녹[北轅錄]』, 『상봉녹[桑蓬錄]』, 『경술열하기[燕行記]』, 『을병연힝녹』, 『븍연긔힝[北燕記行]』, 『연암열하일긔[熱河日記]』, 『연힝녹[燕槎日錄]』 등이 있다. 고운기, 「한글본 연행록의 제작 양상」,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10~11쪽, 16쪽, 21쪽; 장경남, 「국문본 연행록 『북연긔힝』 연구」, 『우리문학연구』 29, 우리문학회, 2010, 130쪽; 한영균, 위의 논문, 73~81쪽 참조.

31) 한문으로 쓰인 후 한글로 번역된 역사서에는 『실록초본[實錄抄本]』, 『됴야회통[朝野會通]』, 『역ᄃᆡ기년[歷代紀年]』, 『강감졍ᄉᆞ약젼[綱鑑正史略傳]』, 『뎡ᄉᆞ긔람[正史紀覽]』, 『국됴고ᄉᆞ[國朝故事]』, 『됴야긔문[朝野記聞]』, 『조야쳠ᄌᆡ[朝野僉載]』, 『열성지장통기(列聖誌狀通紀)』, 『선보집략언해(璿譜輯略諺解)』,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이 있다. 안병희, 「왕실자료의 한글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장서각』 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6~8쪽; 백두현, 『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205쪽 참조.

32) 한문으로 창작된 필기가 한글로 번역된 예로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견한록(遣閒錄)』 등이 확인된다.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가 한글로 번역된 상황에 관해서는 남궁윤, 「『청구야담』의 한글번역 양상과 의미」, 『동방학』 30, 동양고전연구소, 2014, 122~124쪽 참조.

33) 한문 류서(類書)가 한글로 번역된 예로 『萬寶全書』, 『彙言』을 살필 수 있다. 양승민, 「類書 번역본의 출현과 그 어문학적 의의: 국문본 彙言의 자료적 가치」, 『한국학』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255~266쪽 참조.

34) 선행 연구에서는 『승사록』, 『기축연힝녹』, 『무오연힝녹』, 『연행록』 등의 연행록이 한글로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김동욱, 「무오연행록 해제」, 『민족문화』 2, 한국고전번역원, 1976, 156~158쪽; 이현희, 「기축연행록 권지오」, 『서울학연구』 1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9, 295쪽; 고운기, 위의 논문, 17쪽; 최강현, 「미발표 국문본 연행록을 살핌: 주로 지은이 고증을 중심하여」, 『숭실어문』 18, 숭실어문학회, 2002 참조.

35) 선행 연구에서는 노정기 가운데 『남해문견록』, 『북관노정록』, 『동명일기』, 『남정일기』, 『화성일기』, 『북정동유록』, 『금강유산일기』, 『금강산졀긔 동유록』 등이 처음부터 한글로 창작되었을 것이라 보았다. 백두현, 위의 책, 198~201쪽; 구사회·김영, 「새로운 한글 유산록 <금강산졀긔 동유록>의 작자와 작품 분석」, 『동악어문학』 73, 동악어문학회, 2017, 303쪽; 정우봉,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 『대동문화연구』 10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273쪽 참조.

한글 독서물이 새로이 등장하게 된 가운데, 한글본 야담 자료 또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며 출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야담은 새로운 독서물 중에서도 서사장르로서 한글소설과는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하며 나름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한글장편소설을 주로 읽어오던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최상층 여성 독자층의 관심이 역사와 현실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문본 야담이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으로 편역되어 읽히게 되었으며, 그와 다른 한 편에서 사대부가 여성을 중심으로 그 이하 주변 계층의 여성들도 야담에 관심을 가지며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이 읽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 및 사대부가의 여성 독자들이 이전부터 주로 향유해오던 한글장편소설에 비하면 한글본 야담의 자리는 비록 주변부에 국한된 것이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한글본 야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글장편소설과는 다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한글본 야담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한글장편소설의 유형성에서 벗어나 있었던바 이는 한글장편소설에 익숙한 여성 독자들에게 새롭게 느껴질 만했다는 사실이 지적될 수 있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제공하는 아기자기하고 촘촘한 재미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유형성과 반복성에 지루함을 느끼기도 했을 여성 독자들에게 한글본 야담의 이야기들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읽을거리로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글본 야담에 실려 있는 우리 역사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성 독자는 오락 뿐 아니라 우리 역사와 현실에 대한 지식과 교양도 얻을 수 있었다는 점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

또 긴 호흡의 한글장편소설을 주로 읽었던 상층의 여성 독자들은 한글본 야담에 실린 짧은 분량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신선하게 느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글장편소설의 더딘 서사 진행 속도에 익숙하지만[36] 때로는 장황한 서술에서 지루함을 느꼈을[37] 여성 독자들

36) 정적 서사는 장편소설만의 특징 중 하나인데, 정적 서사에 주로 의지하는 장면에서의 서사 시간이 정지 상태에 가깝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장편소설에서 보이는 서사 시간에 관해서

은 한글본 야담에 실린 이야기의 서사 진행에서 빠른 속도감을 만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에 한글본 야담은 우리 역사와 현실에 대한 지식 및 교양을 기반으로 하는,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새롭고 짤막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왕실과 사대부가의 여성 독자들에게, 때로는 그 이하 계층의 여성들에게 한글장편소설과는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제공하며 나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으로 보인다.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과 관련하여 왕실의 한글 필사본 가운데 사부(史部)에 속하는 자료로 『실록초본[實錄抄本]』, 『됴야회통[朝野會通]』, 『역ᄃᆡ기년[歷代紀年]』, 『강감졍ᄉᆞ약젼[綱鑑正史略傳]』, 『뎡ᄉᆞ긔람[正史紀覽]』, 『국됴고ᄉᆞ[國朝故事]』, 『됴야긔문[朝野記聞]』, 『조야쳠ᄌᆡ[朝野僉載]』 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38] 왕실에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외에도 한글로 쓰인 역사와 관련된 내용의 책들이 왕실의 여성 독자를 위해 여럿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윤용구(尹用求)가 쓴 『뎡ᄉᆞ긔람』의 서문을 통해 역사에 관한 한글 필사본 도서들이 왕실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왕실 여성의 교육에 있었음이 밝혀진바,[39]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이 번역된 데에도 왕실 여성의 교육이라는 목적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서들에 비해 야담에는 소설·설화·일화 등이 훨

는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23쪽 참조.

37) 송성욱,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89쪽.

38) 안병희, 앞의 논문, 6~8쪽.

39) 안병희는 『뎡ᄉᆞ긔람』 서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사부(史部)에 속하는 한글 필사본들이 "고금 국가의 흥체(興替)와 인ᄉᆞ의 득실(得失)"을 "뉵궁(六宮)의 편남"하여 "후비(后妃)와 녀관(女官)이 ᄯᅩᄒᆞᆫ 다 익혀 알"게 하기 위해 "국언(國諺)으로뻐 번역"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복유(伏惟) 아태황데폐하(我太皇帝陛下)겨올샤 님어ᄒᆞ올신디 ᄉᆞ긔(四紀)의 우문(右文)ᄒᆞ여 다ᄉᆞ리샤 뎡녕(政令)과 뎐네(典禮)를 ᄒᆞᆫ갈노 경ᄉᆞ(經史)로 표젹을 삼으시고 일즉 건신(近臣)다려 일너 ᄀᆞᆯᄋᆞᄉᆞᄃᆡ 고금 국가의 흥체(興替)와 인ᄉᆞ의 득실(得失)이 ᄒᆞᆫ갓 군신만 맛당이 감계(鑑戒)ᄒᆞᆯ 바ᄲᅮᆫ이 아니라 안으로 후비(后妃)와 녀관(女官)이 ᄯᅩᄒᆞᆫ 다 익혀 알면 거의 비익(裨益)ᄒᆞᆯ 거시 잇스ᄃᆡ 다만 우리나라 문ᄫᆞ가 한문 언문 두 길이 잇고 듕국의 뎡ᄉᆞ(正史)ᄂᆞᆫ 당초의 언셔(諺書)로 긔록ᄒᆞᆫ 거시 업고 다만 픠잡쇼셜(稗雜小說)만 잇셔 거짓으로 참을 어즈레여 도로혀 의리의 히로오니 짐이 항상 겸언(慊然)ᄒᆞ여 ᄒᆞ노라 ᄒᆞ시고 인ᄒᆞ여 천신(賤臣)을 명ᄒᆞ샤 태고로브터 원명(元明)까지 이르기 ᄒᆞᆫ갈노 ᄉᆞ승(史乘)을 좃ᄎᆞ 국언(國諺)으로뻐 번역ᄒᆞ여 푸러셔 ᄒᆞ여곰 뉵궁(六宮)의 편남(便覽)을 지으라 ᄒᆞ올시니" 안병희, 위의 논문, 7~8쪽 참조.

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실려 있었으므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을 읽는 여성 독자는 역사와 관련되는 사실 기록 뿐 아니라 역사 및 현실과 관련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역사적 교양을 쌓는 동시에 독서를 통한 오락도 아울러 충분히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오락성이 강화되는 선초 및 번역 양상이 보이는바 특히 소설이나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에서 소설적 문체를 통해 독자는 이 이야기들을 보다 흥미롭게 향유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은 그 목적이 왕실 여성의 교양 제고 뿐 아니라, 오락에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이 왕실에 마련된 여타의 역사에 관한 한글 필사본 책과는 다소 다른 층위를 지니는 텍스트였음을 알 수 있다. 야담에 역사와 현실의 이야기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바 왕실의 여성 독자는 오락성과 교양성이 강화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을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통한 오락과, 역사와 현실에 관한 교양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왕실 여성 독자에게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은 소설이나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한글장편소설과 유사한 오락성이 있으면서도, 왕실에서 한글로 향유된 여타의 역사 관련 도서들처럼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교양도 담고 있는 색다르고 새로운 독서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읽힐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 다른 한편에서 향유되어 온 짤막한 서책의 야담 자료는 궁 밖의 일반 사대부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상궁 같은 특수계층의 여성들에 의해서까지 읽혔다는 점에서 한글본 야담을 읽는 독자층의 저변이 확대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했음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앞서 야담이 한글본으로 편역되며 사대부 남성의 장르에서 왕실 여성과 사대부가 여성들이 주로 읽는 장르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짤막한 서책을 통해 한글본 야담의 독자층이 최상층 여성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 사대부가와 그 이하의 여성들로까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왕실의 여성 독자들은 왕실 여성의 역사 교육을 위해 한글로 번역되었던 역사서들을 읽었던바 본격적으로 역사 지식을 요구받았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관심 영역이 역사와 사회 현실로 확장되면서 오락성 뿐 아니라 교양

성이 크게 강화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을 읽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달리 이러한 역사적 지식에 대한 요구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구애받았을 사대부가 여성들에 의해, 때로는 그 이하 계층의 여성들에 의해서도 향유된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은 여성 독자들의 그러한 기대지평을 반영함으로써 교양성으로의 경사는 비교적 적게 보이고 오락성에의 경사를 더 많이 보이는 텍스트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 왕실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읽혔던 긴 서책과 달리, 짤막한 서책은 왕실 밖의 공간으로 향유 공간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확인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향유 공간에서 다른 독자층에 의해 유통된 짤막한 서책과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는 그 선초와 번역 양상에서 공통점을 갖는 가운데, 각기 다른 층차 또한 아울러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논문은 한글본 야담의 성격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는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한글본 야담 자료 전체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고찰로서 엄밀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주요한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전하는 10종의 한글본 야담 자료를 형태에 따라 7종의 짤막한 서책과 3종의 긴 서책으로 구분하고 자료를 개관하였다. 각 자료의 서지 정보를 검토하고, 현전하는 한문본 가운데 한글본 야담 자료의 저본 혹은 저본과 가까운 이본을 탐색하면서 한글본 야담 자료의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한문본을 비정(比定)하였다.

또 필사기의 검토를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 특히 19세기 중반에 활발히 필사되어 궁의 안팎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왕실 및 사대부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예비적 검토를 바탕으로 먼저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오락성이 강화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첫 번째로 유희지향적 선초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루는 기이한 이야기들이 큰 비중으로 실려 있다는 점에서 한글본 야담 자료의 선초 과정에 호기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또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주로 여성의 관심사를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초가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이야기가 수록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는 비관심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관심사가 고려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독자의 취향에 보다 잘 맞는 텍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이야기가 사실임을 입증하려는 지향이 약화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한문본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사실 정보가 한글본에 오기・축소・삭제・대체되어 있는 여러 사례와, 한문본의 후일담 및 후평

에서 이야기의 사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루어진 다양한 서술이 생략되거나 대체되어 있는 양상을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에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한바, 한문본 야담의 독자에 비해 한글본 야담의 독자는 야담의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향유한다는 의식이 강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사대부 남성의 교양적 서술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본래 야담은 사대부 남성에 의해 창작되고 향유되었던바 한문본에는 전고(典故)의 구사, 문헌의 인용(引用), 시문(詩文)에 대한 서술 등을 통해 문인으로서의 취향이 자연스레 드러나는데, 한글본에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문본 야담은 그 기록 과정에서 침투된 사대부 남성으로서의 문제의식이 주로 사환과 관련된 서술, 표창 의식의 발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선과 관련하여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삭제되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한글본 야담 자료에서 문인 취향과 문제의식이 약화되는 양상은 그 독자층이 사대부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한글본 야담의 변이가 그 독자층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해명될 수 있었다.

네 번째로 소설의 장르 관습이 활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한글본 야담에 소설과 유사한 표현이 차용되거나 소설의 문체와 문법이 구사된 양상을 고찰하였다. 한글본 야담 자료에 소설의 관습적 표현이나 문법이 차용된 경우 한문본과 내용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데 비해, 소설의 문체가 활용된 경우 한문본의 내용이 보다 풍부하고 상세하게 서술됨으로써 특정한 장면이나 인물이 생생하게 재현되며 한문본 야담과는 다른 새로운 미감이 창출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설의 장르 관습이 활용된 다양한 예를 통해 한문본 야담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 역자의 소설 독서 경험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에 익숙한 독자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작용했음이 밝혀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한글본 야담 자료에 여성 관련 교양성이 드러나는 양상

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교양을 중시한 선초가 이루어졌음을 고찰하였다. 특히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모범적 여성상이 제시되는 이야기가 선초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여성 독자가 모범적 여성상에 대한 교양을 쌓는 데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법한 이야기들이 탈락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한글본 야담 자료는 선초를 통해 모범적 여성상을 직접 제시하기도 하고, 모범적 여성상에 걸맞지 않는 여성상이 제시되는 이야기를 탈락시키기도 하며 선초 과정에서 여성 관련의 교양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대본 『어우야담』,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에 호기취향을 반영하는 이야기, 유명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일화, 여러 모범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시문과 관련된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지식 정보나 의론을 서술한 이야기, 시의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두루 수록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살펴보았다. 한문본 야담 자료의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폭넓은 교양이 대부분의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서는 제한적인 선초로 인해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었던 반면, 연대본 『어우야담』, 낙선재본 『어우야담』, 규장각본 『청구야담』의 독자들은 이 책에 선초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교양을 넓힐 수 있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주석이 첨가되어 있는 양상과 삽입시의 독음과 번역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양상을 살피고,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의 역자가 여성 독자의 교양을 배려하고자 했음을 추론하였다. 주석을 통해 한자어 및 한문 구절의 표현과 의미가 동시에 전달되고, 전고가 친절하게 설명될 수 있었던바 이를 통해 최상층의 여성 독자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한시의 독음과 번역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 또한 한문 해독 능력을 갖춘 최상층 여성 독자들을 위한 것이었던바 이미 한시와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춘 여성 독자는 이러한 향유 방식을 통해 한시의 표현과 뜻을 재확인하며 교양을 쌓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았다. 한편 본문에 첨가된 해설적 서술을 통해 한자어 및 전고(典故) 등이 풀이되거나 한글본 야담 자료의 한계가 보완되기도 했음을 살펴보았다. 본래 한문으로 창작된 야담이 한글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설적 서술이 활용됨으로써 여성 독자들도 야담을 쉽게 읽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부덕이 강조되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지양되는 번역 양상을 통해 여성 교화의식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한글본 야담 자료에 여성 인물의 모범적인 언행이 제시되거나, 부덕에 걸맞지 않는 언행이 비판 혹은 생략되거나, 부덕에 대한 표창(表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부덕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정적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하며, 혹은 대체나 부연을 통해 선정적인 내용을 해명하며 여성의 규범을 의식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짤막한 서책에서 이러한 양상이 일회적으로 보이는 데 비해, 긴 서책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보인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여성 교화의식이 반영되며 한글본 야담 자료는 여성 독자가 읽기에 적절한 텍스트로 거듭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한글본 야담의 문학사적 의의를 규명하였다. 먼저 한글본 야담의 존재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에 한문본에 비해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서 오락성은 대개 강화되었지만, 여성 관련 교양성의 경우 짤막한 서책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강화된 경우도 있는데, 강화된 경우에도 그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있는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짤막한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들에 비해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인 낙선재본『어우야담』과 규장각본 『청구야담』에는 여성 관련의 교양성이 훨씬 많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한문본 야담이 한글본으로 전환되면서 장르의 성격과 위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본래 야담은 자국의 역사 및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데 비해, 한글본 야담에는 한문본 야담에 분명하게 보이는 특정한 시공간 및 실존했던 저명한 사대부 등의 사실 정보에 대한

관심과, 자국의 역사 및 현실에 대한 관심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문본 야담에는 남성 사대부층의 시각과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데, 한글본 야담이 이러한 관점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공유하면서도 여성 독자를 교화하고자 하는 의식을 새롭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긴 서책에서 이러한 특징적 양상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이 밝혀진바, 이는 그 향유층이 궁중의 최상층 여성에 한정되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긴 서책은 여성 중 최상층의 신분인 왕실의 여성 독자에게 주로 읽혔던 데 비해, 짤막한 서책은 반가의 여성이나 상대적으로 긴 서책의 독자보다는 더 낮은 신분인 상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계층에서 읽혔던 것으로 가늠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야담은 선초 및 번역으로 인한 표현 및 내용의 변화, 한문 문학에서 야담이 갖는 위상과 한글 문학에서 야담이 갖는 위상의 차이, 사대부 남성과 상층 여성에게 요구되는 교양 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해 한글본으로 편역되면서 사대부 남성의 지적 오락 장르로부터 이탈하여 상층 여성의 교양적 서사 장르로의 경사를 보이게 되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한문 산문의 이완된 혹은 낮은 장르였던 야담이 한글본으로 전환됨으로써 한글 서사의 긴장된 혹은 높은 장르로 거듭나게 되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긴 서책의 경우 왕실 여성의 고상한 장르로 그 위상이 더 크게 변화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글본 야담은 단순히 한문본 야담의 표기 문자만 변환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독자층이 확대되고 내용과 표현이 변이됨으로써 장르의 성격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결과 장르적 위상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 자료에 보이는 여성 관련 교양이 중시되는 번역 양상은 낙선재본 소설에서도 종종 확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왕실 여성 독자에게 긴 서책의 한글본 야담이 한글장편소설과 유사한 오락성과 교양성이 있으면서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교양까지 얻을 수 있는 색다른 새로운 독서물로 읽혔을 것으로 가늠해보았다.

그 다른 한편에서 향유되어 온 짤막한 서책의 야담 자료는 궁 밖의 일반 사대부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상궁 같은 특수계층의 여성들에 의해서까지 읽혔다는 점에서 한글본 야담을 읽는 독자층의 저변이 확대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했음이 주목되었다. 또 주로 왕실 내에서 한정적으로 읽혔던 긴 서책과 달리, 짤막한 서책은 왕실 밖의 공간으로 그 향유 공간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살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한글본 야담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에 보이는 오락성과 교양성을 확인함으로써 오락성을 위주로 한글본 야담을 설명해 온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한글본 야담을 실상에 더 가깝게 파악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자료의 존재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글본 야담이 한문본 야담과는 다소 다른 장르적 성격과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밝힐 수 있었다.

끝으로 본고는 한글본 야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치력했으나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고는 한문본 야담이 한글본 야담으로 편역되면서 발생한 변이 양상을 전체적으로 살피고자 오락적 면모와 교양적 면모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각 자료에서 발견되는 특징적 변이 양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한글본 야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요소들을 통해 이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었으나, 요소적인 변이들이 한 편 한 편의 이야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되는지, 또 그러한 변이가 한 편의 이야기에서 궁극적으로 갖는 의미와 지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를 밝혀내는 작업이 앞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한글본 야담 자료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 결과, 필기·패설 등 인접 장르의 한글본 자료를 미처 살피지 못했다. 추후 이러한 인접 장르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글본 야담 자료에 대한 본고의 논의도 다시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야담은 근대에 들어와 한글로 번역되어 신문, 잡지 등에 연재되거나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이전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근대의 한글 야담 자료들을 검토하지 못했다. 근대의 한글 야담 자료들과 본고에서 논한 자료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본고에서 살핀 자료들에 보이는 특징적 양상들이 근대 한글 야담 자료들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 있지 않은지 등으로 문제를 확장하여 살펴보지 못했다.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본고에서 살핀 한글본 야담 자료의 행방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본고에는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 본고의 이러한 문제와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연세대학교 소장 한글본『어우야담』
낙선재본 소장 한글본『어우야담』(『於于野談』,『國文學資料』 第四輯, 通文館, 1960 유인본)
정명기 교수 소장 한글본『천예록』
최민열씨 소장 한글본『천예록』
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동패낙송』
단국대학교 소장 한글본『동패낙송』(김동욱 편,『나손본 필사본 고소설 자료총서』48 보경문화사, 1991 영인본)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단편야담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한글본『청구야담』1 (규장각본: 奎章閣資料叢書 文學篇,『靑邱野談』Ⅰ(上・中・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한글본『청구야담』2 (가람본: 奎章閣資料叢書 文學篇,『靑邱野談』Ⅱ(上・中・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영인본)

만종재 소장 한문본『於于野談』
김영복씨 소장 한문본『天倪錄』
천리대학교 소장 한문본『天倪錄』
연세대학교 소장 한문본『東稗洛誦』
버클리대학교 소장 한문본『靑邱野談』

김동욱 교주,『短篇小說選: 於于野談・雲英傳・要路院夜話記・三說記』, 민중서관, 1976.
김동욱・정명기 공역,『청구야담』상・하, 교문사, 1996.

김동욱,『교역 언해본 동패락송』, 보고사, 2013.
김동욱 역,『국역 기문총화』1~5, 아세아문화사, 1999.
신익철・이형대・조융희・노영미,『어우야담』, 돌베개, 2006.
이강옥 옮김,『청구야담』상・하, 문학동네, 2019.
임방 저, 정환국 역,『교감 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이병기 선해(選解),『요로원야화기 외 십일편(要路院夜話記 外 十一篇)』, 을유문화사, 1949.
이병기 교주(校註),『어우야담』, 국제문화관, 1949.
이우성 편, 서벽외사 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28・29『靑邱野談』上・下, 아세아문화사, 1985.
_____, 서벽외사 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26『東稗洛誦 外五種』, 아세아문화사, 1990.
이재홍・이상덕・김규선 교주,『청구야담』Ⅰ・Ⅱ, 학고방, 2014.
최웅 편,『주해 청구야담』1・2・3, 국학자료원, 1996.

2. 단행본

간호윤,『아름다운 우리 고소설』, 김영사, 2010.
강병수 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서울지명사전』, 2009.
김태준,『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박인호・임치균・박용만・박재연・이광호・김주필・황문환,『됴야긔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박혜숙,『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박희병,『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2007.
_____,『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_____,『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백두현,『한글문헌학』, 태학사, 2015.
서대석,『조선조문헌설화집요』Ⅰ, 집문당, 1991.
서울대학교이십년사편찬위원회,『서울대학교이십년사』, 서울대학교, 1966.

송성욱,『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이강옥,『한국 야담 연구』, 돌베개, 2006.
_____,『한국 야담의 서사세계』, 돌베개, 2018.
이윤석,『조선시대 상업출판』, 민속원, 2016.
이혜순・정하영・성기옥・강진옥・이동연・박무영・조혜란,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사, 1999.
정길수,『한국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정명기,『한국 야담문학 연구』, 보고사, 1996.
_____,『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1, 보고사, 2001.
정병설,『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_____, 『혜경궁 홍씨, 회한의 궁중생활 칠십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정은임,『궁궐 사람들의 삶과 문화』, 태학사, 2007.
조희웅,『조선후기 문헌설화의 연구』, 형설출판사, 1981.
차봉희,『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1985.
한국사상연구회편,『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H. R. 야우스 저, 장영태 역,『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New York: Routledge.
André Lefevere(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New York: Routledge.

3. 논문

강상순,「전기소설의 해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어문논집』36, 안암어문학회, 1997.
강종임,「<<搜神記>> 세계관 연구: “神”의 의미 층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고운기, 「한글본 연행록의 제작 양상」, 『열상고전연구』 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구사회・김영, 「새로운 한글 유산록 <금강산졀긔 동유록>의 작자와 작품 분석」, 『동악어문학』 73, 동악어문학회, 2017.
구선우, 「『천예록』 소재 이인담의 양상과 그 의미」, 『수행인문학』 78,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권기성, 「『천예록』의 서사구성과 서술방식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김경미, 「15세기 문인들의 '기이' 대한 인식-『太平廣記詳節』・『太平通載』의 편찬・간행과 관련하여」, 『한국고전연구』 5, 한국고전연구학회, 1999.
_____, 「18세기 양반여성의 글쓰기 층위와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김동욱, 「무오연행록 해제」, 『민족문화』 2, 한국고전번역원, 1976.
김동욱, 「『천예록』 연구-천리대본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 반교어문학회, 1994.
_____, 「『천예록』의 「評曰」을 통해 본 임방의 사상」, 『어문학연구』 3, 상명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5.
_____, 「김영복 소장본 천예록에 실린 <지리산로미봉진>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2, 태학사, 1998.
김봉좌, 「왕실 한글 필사본의 전승 현황과 가치」, 『국어사연구』 20, 국어사학회, 2015.
김상조, 「계서야담계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김수연, 「<화씨충효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김수영, 「효종(孝宗)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독서와 번역」,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_____, 「朝鮮後期 黨派譜 硏究(2)-『南譜』」, 『대동문화연구』 9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김정녀, 「낙선재본 <보홍루몽>과 <홍루몽보>의 번역 양상」, 『중국소설논총』 21, 한국중국소설학회, 2005.
김정숙, 「한・중・일 문언단편집 속 요괴와 귀신의 존재양상과 귀신담론-『천예록』, 『요재지이』, 『야창귀담』을 대상으로」, 『대동한문학』 28, 대동한문학회, 2008.
김준형, 「기문총화계 야담집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_____, 「『천예록』 원형재구(原形再構)와 향유양상 일고」, 『한국한문학연구』 37, 한국한문학회, 2006a.
_____, 「기문총화의 전대문헌 수용양상-『기문총화』 1권 필기·패설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6, 한국문학회, 2006b.
_____, 「최민열본 『천예록』의 국역 양상」, 『대동한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_____, 「『청구야담』의 국역 양상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김하라, 「통원(通園) 유만주(兪晩柱)의 한글 사용에 대한 일고」,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남궁윤,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천예록』과 『동패낙송』의 국문번역본 고찰」, 『동악어문학회』 57, 동악어문학회, 2011.
_____, 「『청구야담』의 한글번역 양상과 의미」, 『동방학』 30, 동양고전연구소, 2014.
노영미, 「『어우야담』 연구-이본 고찰과 서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류준경, 「낙선재본 중국번역소설과 장편소설사」, 『한국문학논총』 26, 한

국문학회, 2000.
문성대,「『천예록』의 이본과 서사방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박무영・김성은,「<환처> 다시읽기-여성 담론을 읽는 한 방법적 시론」,『열상고전연구』23, 열상고전연구회, 2010.
박미자,「17-18세기 동아시아 한문 서사 속의 신이:『요재지이』와『천예록』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박재연,「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번역본의 연구-낙선재본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박사학위논문, 1993.
박현숙,「『天倪錄』 연구-신이요소의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_____,「조선후기 야담집 소재 기이담의 특성 고찰 -『천예록』을 중심으로-」,『어문연구』Vol.36 No.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_____,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조선후기 야담의 기이성 연구-18・19세기 야담을 중심으로-」, 2015.
박희진,「양반의 혼인연령: 1535-1945-혼서를 중심으로-」,『경제사학』40, 경제사학회, 2006.
백승호,「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동패낙송』 연구」,『국어국문학』16, 국문학회, 2007.
서정민,「<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송성욱,「조선시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거리」,『성심어문논집』20・21합병집, 성심어문학회, 1999.
신용하,「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규장각』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81.
신익철,「『어우야담』 이본고」,『새국어교육』Vol, 54, No.1, 한국국어교육학회, 1997.
신익철・이형대,「『어우야담』의 비판적 정본 연구」,『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회, 2002.
심경호, 「《오륜전전》에 대한 고찰」, 『애산학보』 8, 애산학회, 1989.
안병희, 「왕실자료의 한글필사본에 대한 국어학적 검토」, 『장서각』 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양승민, 「類書 번역본의 출현과 그 어문학적 의의: 국문본 彙言의 자료적 가치」, 『한국학』 2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유필선, 「『어우야담』 연구-설화의 유형분류와 기술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8.
유춘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유형동, 「임방의 기이 수용과 『천예록』」, 『동아시아고대학』 3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윤병태, 「藏書閣의 沿革과 所藏圖書」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14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윤주필, 「원생몽유록의 종합적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16, 한국한문학연구회, 1993.
이강옥, 「이중 언어 현상으로 본 18, 19세기 야담의 구연, 기록, 번역」, 『고전문학연구』 32, 한국고전문학회, 2007.
이경우, 「『어우야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6.
_____, 「초기야담의 문학성에 관한 연구-『어우야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이경하, 「17-8세기 사족 여성의 언어문자생활－한문·언문·구술의 상관관계」, 『여성문학연구』 4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이병기, 「조선어문학명저해제(朝鮮語文學名著解題)」, 『문장(文章)』 제2권 8호, 문장사(文章社), 1940.
이승은, 「『천예록』 소재 기이담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_____, 「18세기 야담집의 서사지향과 서술방식: 『천예록』과 『동패낙송』

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_____, 「『동패낙송』을 통해 본 야담의 기이성 약화」, 『우리문학연구』 50, 우리문학회, 2016.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1975.
이재홍,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번역필사본 중국역사소설 연구」, 연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2008.
이종묵, 「조선시대 한시번역의 전통과 양상」, 『장서각』 7,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_____,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 체계」,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_____, 「조선시대 한시번역의 전통과 한시 번역의 모델」, 『民族文化』 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이현주, 「『천예록』 소재 신이담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이현희, 「기축연행록 권지오」, 『서울학연구』 1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9.
임완혁, 「『청구야담』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5, 한국한문학회, 2000.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_____, 「한국문학에 있어서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관련이 갖는 역사적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22, 한국한문학회, 1998.
_____, 「『동패낙송』 연구-야담의 기록화과정과 한문단편의 성립-」, 『한국한문학연구』 23, 한국한문학회, 1999.
장경남, 「국문본 연행록 『북연긔힝』 연구」, 『우리문학연구』 29, 우리문학회, 2010.
정길수, 「한국 한문소설의 여성 욕망」, 『한국한문학연구』 80, 한국한문학회, 2020.
정명기, 「『동패낙송』 연구: 이본의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원광한문학』

4, 원광한문학회, 1991.
_____, 「『동패낙송』 연구 (2)-국문본 『동패낙송』에 나타난 번역양상-」, 『연민학지』 5, 연민학회, 1997.
_____, 「서강대본 『단편야담집』(假題)의 원천과 그 의의에 대한 소고」, 『동남어문논집』 19, 동남어문학회, 2005.
정병설, 「조선시대 한문과 한글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一考-心身寓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문화』 48,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9.
정보라미, 「서강대학교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선록 및 한글 번역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_____, 「정명기 소장 한글 번역본 『천예록』의 재편 및 향유 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정솔미, 「『청구야담』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정용수, 「임방의 문학론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2, 동양어문학회, 1998.
_____, 「『천예록』 이본자료들의 성격과 화수 문제」, 『한문학보』 7, 우리한문학회, 2002.
정우봉, 「한글기행문 <북정동유록>의 작자와 작품세계」, 『대동문화연구』 10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0.
정은임, 「궁궐 사람들의 삶과 문화-궁녀와 내시」, 『문명연지』 13, 한국문명학회, 2012.
정출헌, 「<육신전>과 <원생몽유록>-충절의 인물과 기억서사의 정치학-」, 『고소설연구』 33, 한국고소설학회, 2012.
정학성, 「원생몽유록 연구」, 『한문학논집』 2, 단국대 한문학회, 1985.
정환국, 「초기서사에서의 '신이성(神異性)'-삼국유사의 신이 구조」, 『민족문학사연구』 30, 민족문학사연구소 2006.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

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진재교, 「『천예록』의 작자와 著作年代」, 『서지학보』 17, 한국서지학회, 1996.
채송화, 「을병연행록 연구-여성 독자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최강현, 「미발표 국문본 연행록을 살핌: 주로 지은이 고증을 중심하여」, 『숭실어문』 18, 숭실어문학회, 2002.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 『국제어문』 26, 국제어문학회, 2002.
한영균, 「한글 연행록류의 서지와 산출 시기」, 『열상고전연구』 49, 열상고전연구회, 2016.
황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열상고전연구』 32, 열상고전연구회, 2010.

Abstract

A Study on Yadam of Hangeul Version

Chung Borami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comprehensively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Yadam(野談, 野譚) of Hangeul version and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Yadam of Hangeul version are translation copies of Yadam in Chinese character. First, the existing Yadam of Hangeul version data are divided into short books and long books according to forms, and the data are outlined. Among the existing versions of Chinese character, the author searched for different versions close to the original data of the Korean version's Yadam to determine the target for comparison. Besides reviewing collector's marks, transcription copies, and collection lists, Yadam of Hangeul version materials were actively enjoyed around the mid-19th century, and short books were read by women in the gentry families and those in lower classes as well. The author also found that women from the top-tier gentry families were read by women centered around the royal family.

Based on the above review, the aspect that the amusement and refinement in Yadam of Hangeul version were reinforced was studied. As the first aspect of the reinforcement of amusement, it was examined that amusement was considered in the story selection process. Above all, the author noticed that stories with unrealistic content were put on a large weight.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 story was selected or dropped out by reflecting the interests of women or excluding the disinterest of women. Second, it was considered that the intention to prove that the story was true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was weakened. In fact, it was found that the later stories and reviews used to increase the facts of the narrative and story were changed. Third, it was identified that the literary narrative related to the male gentry was reduced. It was also identified that the taste and problem consciousness as a male gentry revealed in the version of Yadam in Chinese character was omitted or replaced of Hangeul version. Fourth, it was examined that the genre customs of Korean novels were utilized. Expressions similar to Korean novels were used, or the style and grammar of Korean novels were used.

Next, in Yadam of Hangeul version, the aspect of women-related refinement was reinforced. Above all, it was reviewed that the story was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finement of the female reader. It was identified that a story in which an exemplary woman is presented was selected, or a story in which a woman's image is not exemplary was dropped out. In the case of Eowoo, historical romance stocked in Yonsei University, Eowoo historical romance stocked in Nakseonje, and Cheonggu historical romance stocked in Gyujanggak, it was noted that various stories were recorded. Second, in the case of a long book, it was examined that upper-class female readers' culture was considered by adding notes or adding reading sound and translation when inserted. It was also confirmed that

Yadam created in Chinese character was translated into the Korean version through the example in which the narrative description was added to the text, and various attempts were made to enhance the refinement of female readers. Third, it was analyzed that women's sense of edification was reflected of Hangeul version's historical romance through a translation pattern in which woman virtues were emphasized, or sexual content was avoide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Yadam' literary history of Hangeul version was investigated by synthesizing the above considerations. The existence of historical romance of Hangeul version was comprehensively reviewed and established that historical romance was reborn as a noble genre of Korean narration from the prose genre of Chinese character. The status of the genre has changed significantly in a long book rather than a short book.

keywords : Yadam of hanguel version, female readers, selection, translation, amusement, refinement

Student Number : 2010-30858